



2	0	1	3
제	1	6	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초판인쇄일 | 2013년 8월

초판발행일 | 2013년 8월

발행 | 안전행정부

발행처 |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02-2100-4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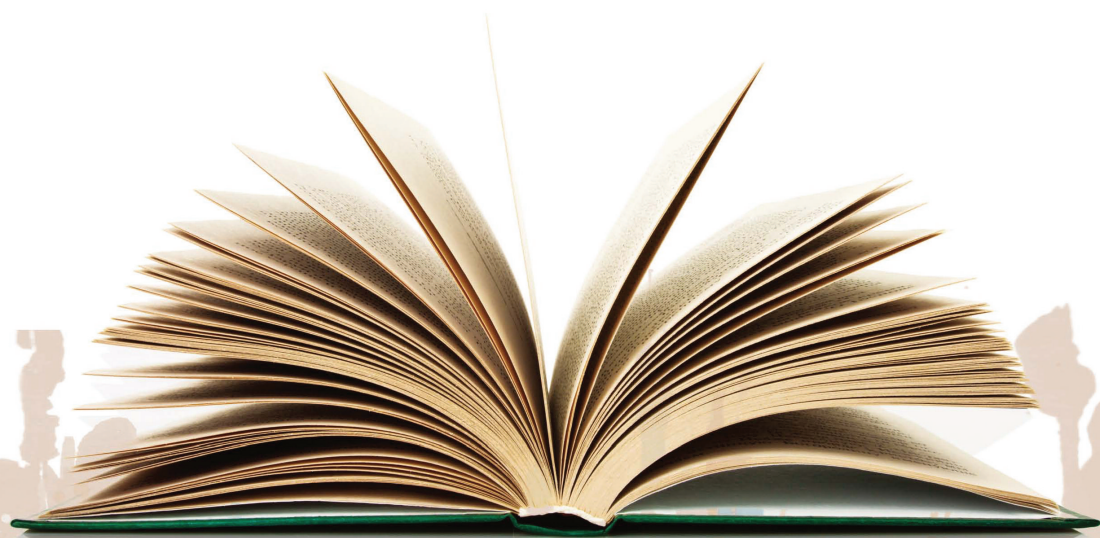
Fax. 02-2100-4369

펴낸곳 | 애드컴서울 02-2285-6601~2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0 1 3
제 1 6 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안전행정부

창작활동은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있는 실천

금년도 공무원문예대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의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공무원문예대전은 그동안 공무원의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에 창의성과 활력을 부여해 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6년간 총 48,700여건이 응모되어 880명이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역대 수상자 중에는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창작활동에 매진하거나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글쓰기 지도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 2,000여편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50명이 입상하는 영광을 누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에 대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예창작 활동은 언어를 매개체로 우리의 삶을 작품에 투영하여 세상에 희망과 행복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업무에 정진하는 틈틈이 문학적 소양과 재능을 발휘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일은 우리 세상을 좀 더 밝고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무척 의미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써낸 우수 문학작품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서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와 문학의 접목, 그 지향적 사유(思惟)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자신의 역량을 성실하게 발휘하여 입상한 수상자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공무수행과 문학의 접목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간직한 투철한 국가관과 함께 투영하려는 신념과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과정에는 인격도야에 수반하는 정신적인 수양이 하나의 덕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관직에 등용되려면 우선 문장의 실력으로 겨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수행의 진취적인 목표달성은 이 문장력의 향상과 활용의 필요성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서 16회라는 장구한 역사의 문예대전을 개최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공감을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상자들은 전문적인 문인도 아니면서 틈틈이 글쓰기에 진력해서 좋은 문장을 선보임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서는 직무 향상에도 지향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국가의 동량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문인으로 등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에 경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문학은 한 세기를 넘어 이제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문인 스스로도 참신한 주제의 창출로 우리 인간들의 정신적 계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의 발현은 온 국민들에게도 포용되어 정신문화의 정착과 사회의 진정한 진실을 보급하여 고차원의 가치관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 문학의 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 문학과 접목해서 좀 더 밝고 나은 사유의 정착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을 계기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문학적인 감각을 더욱 고양하여 문학정신이 곧 우리 인간의 정신으로 정립되어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와 감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김 승 배 (시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CONTENTS

발간사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04

축사 심사위원장 김송배 06

|수상작| 단편소설 대상 추천사 대전 용산고등학교 윤정아 15

|시| 금상 도깨비바늘 구미 상모고등학교 손성태 55

은상 바다가 있는 아파트 충북 괴산경찰서 이상재 57
봄 강원 영월소방서 조성철 59
텐덤 포항 달전초등학교 김현욱 61

동상 거울 속에 내가 충남농업기술원 박영섭 63
낡은 밤술의 보행 부산 항만관리사업소 박창식 65
다 지나가리라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고국희 67
바람흔적미술관 경남 산촌유학교육원 김민규 69
봄은 틀니의 마찰음을 기억하리라 외교부 최광진 71
적석목곽분 경주 계림고등학교 조재형 73
청소부 전) 강원 강릉교육지원청 한재성 75

시조	유상	서포, 바다에 서다 울산 환경자원사업소 김갑주	79
	유상	낙서 혹은 기억 용인 상하중학교 안영선	81
		메타세쿼이아 부산 반여초등학교 김임순	83
	동상	불이천란 강원도청 이상균	85
		오후 두 시 경북 울진소방서 김일하	87
		작판 위의 연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89
동시	금상	조각이불 포항해양경찰서 김영식	93
	은상	고래의 노래 대구 윤암초등학교 김상한	95
		내 친구 민우 군산 옥구초등학교 신재순	97
	동상	고맙다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박문희	99
		나비잠 시흥우체국 박유미	101
		동그라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103
		작은 두 손 광주서부소방서 고경자	105
		큰 그릇 충북 진천소방서 윤은경	107

수필	금상	겨울 산 김천여자중학교 정성천	111
	은상	결쑼 경주 강동초등학교 서정애	119
		그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127
		소금지기 전남 신안군청 유재희	135
동상		270원, 10MB 소셜 네트워크 비용 문경 점촌중앙초등학교 김재은	143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대전 해광학교 김계석	151
		불면 울산 환경자원사업소 김갑주	159
		토함산 소묘 경남도청 송태엽	167
		파초해 부산 부산진구청 정경내	175
		휠체어에 꿈을 싣는다 서울 성북구청 김대섭	181
단편소설	은상	창풍명월 서울 종로구청 이주문	191
	동상	살기좋은 도시 부산 항만관리사업소 이병호	245
		어느 상록수의 꿈 전) 국가정보원 강현택	277
		울음소리 법무부 전주소년원 정명선	303
		하노이의 눈물 전) 춘천 봉의고등학교 장대연	337

동화	금상	이매탈 아빠 안동대학교 최동구	365
	은상	영돌이의 여행 칠곡 학림초등학교 백금태	379
	동상	꼬마 신발의 첫 나들이 대구교육청 허윤정	393
		살구꽃 할아버지 제천 두학초등학교 윤은분	405
어느 섬마을 소년의 눈물 시흥 함현초등학교 최영환		419	
		최고의 곡식 미인대회 철도청/한국철도공사 최은석	431

희곡	금상	메리, 크리스마스! 공병장 서울 금천경찰서 신동술	443
	은상	짱아가 돌아왔다! 고양 증산고등학교 윤영희	479
	동상	신발 한 짝 충북 증평군청 남윤희	501
		심사평 김송배 외	545





2 0 1 3
제 1 6 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단편소설 |

추천사(鞦韆詞)

윤 정 아

이웃집 친구들과 그네뛰기 시합을 했어요
띠를 매고 수건 두르니 마치 선녀가 된 것 같았지요
바람 차며 오색 그네줄 하늘로 날아오르자
노리개 소리 땡그랑 울리고 푸른 버드나무엔 아지랑이 피어났어요.

-허난설현-





대전 용산고등학교
윤 정 아

먼저 큰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글을 쓰는 건 제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공부입니다. 소재와 인물, 구성방식들을 구안해 내기 위해 수많은 자료들을 들춰보는 작업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도 비추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옳게 사는 방법을 고민할 때 도움을 주었던 독서와 글쓰기가 이렇게 큰 상으로 결론나고 보니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새기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수상소감을 갈음합니다.

추천사 (鞦韆詞)

1.

학 한 마리 먼 하늘 바라보며
밤도 추운데 다리 하나 들고 있구나
서넛 바람은 대나무 숲을 괴롭히고
온 몸을 가을 이슬이 적셨구나

화학(畵鶴)

- 이달(李達)

스승님. 가배에 보내신 서신을 경칩 지나 받습니다. 전해 온 이에게 사연 물으니 본가 어머님께서 오래도록 두고두고 살피다 보내셨답니다. 헛말은 아닌 듯 여러 번 읽어 보신 뒤 인두로 다려 보내셨는지 열기에 다스려진 봉투와 쇠귀에 반질반질 윤이 번져있습니다. 못난 여식이 어머님의 마음을 짚어보건대 당신의 고운 손길로 스승님 다친 마음 보듬어 주시었듯이 시 또한 그리 쓰다듬어 주셨던 게 아닐까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벌써 이태나 지났습니다. 군(筠)이 꺾어다 주었던 이화(梨花)를 비단에 옮겨 그리던 날이었습니다. 세필(細筆)이

필요하여 급히 찾은 사랑방 댕돌 위에 어머님의 운혜(雲鞋)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풓에 놓아진 흰 비단 구름이 금방이라도 두둥실 날아갈듯 하여 공연히 뛰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탄식하였답니다.

- 제 출생으로 인하여 아기씨께 해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떠나겠다는 이유가 그것이었나?
- 균(筠)에게 시문(詩文)을 가르칠 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리 미옥한 저를 이제껏 살피주신 것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 보니 못난 사람이군. 초희의 혼사가 미루어지는 이유가 자네 때문이라 생각하는젠가. 그 아이의 글재주가 글 깨나 쓴다는 사내들보다 뛰어난 건 이미 파다한 소문 일세. 재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공연한 소리인 게지. 큰 틀의 사내, 초희의 재주를 기꺼이 여겨줄 수 있는 임자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네. 서얼 출신의 스승을 두었다 함이 무슨 흥이 된다 하는젠가?
- 마님께서 균(筠)의 글 선생으로 저를 들이신 지 오년입니다. 총명이 하늘을 꿰고 슬기가 바다를 넘치는 아이를 제자로 두어 맑은 정신과 밝은 웃음으로 세상을 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초희 아가씨를 가르치는 기쁨도 그에 못지 않았습시다. 허나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강녕 하십시오.

스승님의 마지막 인사말 뒤로 어머님의 호통이 있으셨으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스승님의 꺾인 채주와 흠어진 기백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긴 말씀이었겠지요. 허나 땃돌에 주저앉아 눈물이 서럽게 맺힌 채 오돌오돌 떨고 있던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려 사방으로 흠어지는 이화(梨花)도 파란 하늘로 옮겨 흐르는 흰 구름도 부엌에 번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흘 후, 나귀 부려 짐 싣는 스승님 뒷모습 보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린 적 없어 이제야 적어 봅니다. 정 없이 떠나신다 투정하며 스승님께 토라져 소맷부리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던 어린 균(筠)의 얼굴을 고운 손수건 꺼내 닦아 주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 비단옷에 비단신만 신는다고 모두가 다 향아(姮娥)가 된 다더냐. 기름진 음식으로 혀가 호강하고 손가락 마디마디 황금 가락지 낀다한들 누구나 다 죽하겠느냐. 내어준 비단 옷 잘 개켜 놓고 소매 닳은 백면포 입고 나서는 저 인사, 제 것이라 기껏 내준 준마(駿馬)도 마다하고 가죽에 기름 먹여 징까지 박아둔 신발도 마다하고 늙은 나귀에 문방사우만 달랑 싣고도 뒷태가 저리 꼳꼳하니 손꼭이야 말로 진정한 선비가 아니더냐. 균(筠)아, 잘 보고 배워야 하느니라. 시류와 상관없이 검소한 것만 따르는 스승의 행적은 물론 흔들림 없는 저 숨결까지 닦아

야 하느니라.

서운한 낮빛 하나 없이 저리 선선히 가시니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며 입술이 붉도록 앙물고 있던 제 불을 어루시며 이리도 말씀하셨습니다.

- 물소리 없다고 강이 흐르지 않더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 할 것이냐. 당당한 얼굴 뒤로 통곡이 아니면 다행일 게다. 네 혼례 앞서 불우한 기운 떨친다는 손곡의 애뜻한 맘 헤아려 보았느냐. 간 밤에 아버님께 아픈 상처는 둘러메고 기쁜 순간만 두고 간다 하더라. 기억해야 하느니. 막힌 산, 넓은 강폭을 이기지 못하여 한 발 디더 내밀지도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스승의 아픔을.

그리 아끼셨으니 두 해 만에 스승님의 필적을 보시곤 반가우셨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가까이 두고 구깃구깃 하도록 보시다가 출가외인 못난 딸에게 정결케 잘 다려 보내셨으니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름 하나에도 마음이 내려앉는 소심한 여식에 대한 향내 나는 마음이겠지요. 미옥한 저는 그쯤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함부로 나서는 마음을, 담을 넘는 아련한 통증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는 것은 이제나 그제나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쇠귀에 떠오르는 마음, 눈 닿는 대로 그렸습니다. 스승님의 좋은 시를 좌편에 두고 정성으로 읊

겨서 오른편 화폭에 담아 두 쪽 병풍 만들어 어머님께 보내드릴 참이었습니다. 허나, 그림을 마치고 보니 병풍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시와 그림을 나란히 놓아보니 틀에 끼워 어머님께 드리는 것이 상한 심정을 전하는 일이 될까하여 조심스레 치워두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그림을 보신 것입니까. 사로잡힌 심정으로 써 보내신 것입니까. 글이 사람이다 하시던 가르침이 맞기에 초희의 마음 이리도 저린 것입니까. 그 선과 그 색이 형벌 같아 보여 슬펐습니다. 그림을 시로 옮긴 그 마음이 애달프기만 합니다. 어찌하여 그 마음은 아직도 서럽기만 하십니까. 이슬 젖은 학이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못내 마음 아파 울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부는 심술궂은 바람에 그토록 아프십니까. 이 시 보낸 뒤 찬 겨울은 또 어찌 보내셨습니까. 혹여나 접힌 심장 거친 손으로 부여잡고 언 바람 속 부러진 날개마저 찢겨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사사롭다 하셔도 못한 제자의 상사(想思)는 꿈자리까지 뒤 흔들고 있습니다.

벌써 첫 닭이 울었습니다. 손가락 위 얹힌 따스한 밥술 위에 고소한 기름 얹힌 나물 올리듯 스승님 시 받아 조출한 답시 한편 써 보내려 것이 공연히 길어졌습니다. 저 닭이 다시 울기 전 매무새 단정히 하여야 합니다. 버릴 그림 그리느라 날 새었으니 그저 적적할 때 적어 두었던 글 동봉하니 그리 알고 읽어 주셔요. 스승님 글 서러우니 서럽게 답장할 뿐, 절박한 시집살이는 아니니 걱정 없으셔야

합니다. 강릉 사찰로 유학 떠나는 군(筠)이 편에 보냅니다.

2.

별레는 슬피 울고 바람은 돌고 돌아
연꽃은 향을 잃고 달빛만 어리는 데
가는 님 옷 짓는 손길이 불심지만 돌아네

야야곡(夜夜曲)

-허난설헌-

군(筠)이 왔습니다. 옛 가르침을 핑계 삼아 무릎 꿇려 앉혀 두고 공부를 물었더니 막힘이 없더이다. 문재(文才)야 초희 아가씨보다 어림없으나 성품이 고르고 사리가 밝으니 분명 좋은 정치꾼이 될 것입니다. 책으로 익힌 고금(古今)의 일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안주 삼아 술잔도 건네었습니다. 아직 어리니 안 된다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농 심한 스승이 이미 들이부었습니다. 두어 잔 주려 시작한 것이 홍화주 한 병을 다 나누었는데도 제법 꼳꼳하더이다. 비렁뱅이 일삼는 스승에게 비수도 꼳하더이다. 떠도는 삶 비루하다 핀잔하여 마음이 텅 비어 한계가 없다 했더니 눈물 담긴 눈으로 비겁하다 치졸하다 조소하더이다. 큰 일낼 인물입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말의 절제이겠지요. 어린 탓이다 생각하여도 세상이 흥흥하니 고심하라 일렀습니다.

핏대 세우며 거둑거둑 말하였으니 명민한 눈빛으로 받아들이겠지요. 이제 다시 생각해도 차후 어떤 인재를 얻어 가르침의 기쁨의 취하려 해도 균(筠)의 배움만한 큰 즐거움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곡(荷谷)이 창원의 부사로 부임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진정 백성을 아끼는 친구이니 그 고을 천지에 복사꽃이 필 것입니다. 봄 빛 완연해지면 꽃구경 핑계 삼아 먼 걸음 한번 디더봐야겠습니다. 바른 친구이니 추한 벗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요. 먼 길 나선 김에 사절단으로 다녀왔다는 명나라 이야기도 더 들어볼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 대국을 두루두루 섭렵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 벗을 줄라 기행의 과정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황제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성읍의 화려함도 궁금하나 긴 여정 중 맨살로 부대꼈을 백성의 살림살이가 자못 궁금합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은 물론 천민을 포함한 사람의 삶이 조선의 그것과 어찌 다른지 비교하여 우월을 가릴 수 있는지 물어볼 참입니다. 정작 제 마음 저 밑바닥에 품은 ‘기회’에 대해 물을 수 있을지, 원하는 답을 얻어 떠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여름까지 게서 노곤노곤 지내다 노자 돈 주어진다면 ‘기회’야 어찌되었던 간에 훨훨 유랑길에 나설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이 저를 평하기를 능한 것은 글이고 무능한 것은 살림이라 했답니다. 언론이 그렇다니 그렇게 살다가려 합니다. 가난이야 몸에 밴 것 예서 더 천해진들 뭐 그리 서럽겠습니까. 시 한 편 써 주면 밥 한 끼

내주는 인정이면 그저 족합니다.

무심한 선생이 이렇습니다. 술김에 쓸모없는 안부나 지
결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하면 될 일을. 산사에 들어와
석달, 술독에서 벗어나 붓을 잡으니 주지 스님이 귀한 것
이라 보여주신 그림이었을 뿐입니다. 좋은 그림 보아 좋은
마음으로 쓴 시였을 뿐 공연히 걱정만 끼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버린다며 호기 부
려 보았던 별서가 전달되지 못한 탓입니다. 아마도 마님께
서 보내실 때 본댁에 남겨 두신 모양입니다. 글쓰기에 심
취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스승의 글 보고 여유를 남기라 보
냈을 뿐, 괜한 걱정이십니다. 못난 선생으로 인하여 잠 못
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몸은 곤액(困厄)하나 마음은
씩지 않았으니 이리 저리 굴러도 처량하지 않습니다. 눈이
많아 푸근하게 겨울도 잘 보냈습니다. 뒤꿈치에 동상 들어
거동은 좀 불편하였으나 더 궁핍한 백성들은 썩은 발가락
잘라내기도 합니다. 보내드린 시야 그저 글 아닙니까. 균
(筠)의 말대로 어디 하나 단아한 구석이 없는 제 외모가
학에 견주겠습니까. 탁주 한 사발에 아낌없이 시를 내주는
마음이 대나무와 닮았겠습니까. 서럽다 하시니 서럽게 읽
는 이가 염려됩니다. 저는 이곳의 험한 산세가 참으로 좋
습니다. 함부로 오는 자 없으니 마음 다칠 일 없이 잘 지
내고 있습니다. 별레야 별레이니 울 따름, 바람은 바람이니
불어달 뿐, 날 가니 연꽃 향기 흩어짐도 당연하고, 밤 되니
달빛 여무는 것도 이치입니다. 고달파하지 마십시오. 어지

러이 생각지도 마십시오. 위낙 진중하시니 규방의 시름이
담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렵니다. 시집살이 또한 괜찮
다 하시니 그저 그렇다 여기렵니다.

보내주신 두루마기는 겹겹이 숨을 둔 것이 얼핏 보기에
도 냉기를 덜어내듯 따스하겠으나 차마 받지 못합니다. 긴
긴 밤 지새우셨으니 성립에게 입히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균(筠)이 편에 다시 보냅니다. 강릉 갔다 한양 간다니 언
제쯤 전해질지 몰라 답장은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아랫
동네 아이의 익살을 적어 두었던 시를 동봉하니 이제 봄
오면 웃어보시지요. 마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3.

이웃집 꼬마가 대추 따러왔는데
늙은이 문 나쳐며 꼬마를 쫓는구나.
꼬마 외려 늙은이 향해 소리 지른다.
내년 대추 익을 때는 살지도 못할걸요.

박조요(撲棗謠)

-송곡 이달-

아이의 맹랑함 때문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노인이 화를
내었습니까. 아니면 스승님이나 저처럼 웃었더겠습니까. 참
좋은 곳에 계신 듯하여 초희의 마음도 기쁩습니다. 편안하
신게지요. 이슬에 젖어 바람에 에이어 아픈 것이 아니라

하시니 믿기로 합니다. 서신을 전하러 온 균(筠)이는 얇은 갈옷에 꿇은 배를 하고는 너무나 태연히 잘 계시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수건을 내 주니 눈물 자국 내지 않으려는 듯 울음을 삼킵니다. 선택하신 것이니 즐기시는 것뿐이다 하였더니 행하니 돌아가 버립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 아이입니다. 사내아이의 치기라고나 하나 마음의 응어리를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저 아이의 성정이 나부끼는 종이 연 같다 하셨습니다. 순수하여 그렇다, 우직하여 그렇다, 정직하여 그렇다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으나 순수와 우직과 정직은 학문 정진에만 도움이 될 뿐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아는 이들은 균(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후 혹여 상처 입은 마음을 고스란히 토해내어 더 큰 베임을 당하지 않을런지 마당을 가르는 아우의 필력이는 도포자락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진정으로 편안하신게지요. 맑은 얼굴을 대하고 그윽한 음성을 들은 것이 한참인지라 참으로 뵈고 싶습니다. 스승님이 보내주신 글을 열어두고 웃고 있으나 혹여 한양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으실 터인가 싶어 쓸데없는 한숨만 늘어 갑니다. 어여쁜 제자라 하셨으니 돌아오시는 대로 연통하여 주세요. 서방님께 허락받아 차 한 잔의 여흥을 즐길 것입니다. 서방님 말씀으로는 벽계수 어른을 광통교에서 뵈었는데 살진 풍채가 좋아 보이셨다 합니다. 취흥에 겨워 사시는 벽계수 어른이 오셨으니 스승님 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거절하신 두루마기는 서방님 품에는 한 뼘 켜

모자라 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입지 못할 것을 어찌 만들었냐며 채근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에 고개를 숙였다가 스승님께서 돌아 오시면 다시 내 드리면 옳을 것이라는 서방님의 두둔에 홍조가 피었습니다.

요사이 저는 달과 별, 꽃과 바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다정하고 땅은 살갑습니다. 부끄러우나 과거를 마친 서방님께서 사랑에 머물기 때문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양엔 겨울은 다 가고 봄이 발치까지 밀려왔습니다. 방문 밖에 심어 둔 매화는 핀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샘하는 이른 바람에 열없이 흩어졌답니다. 마음 황망하여 둘 데 없이 해매는데 서방님 손끝으로 버드나무 줄기 꺾어 피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지에 물오르니 이제 금세 봄꽃 핀다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스승님 시 내어 보여 드렸더니 한참 웃으시고 지난 겨우내 공부하러 거처하셨던 안국동 접(接)에서 써 두었던 서방님의 시(詩)도 보여주셨답니다. 시집 들어오기 전 오라버님께서 가져오신 함초름한 낭군의 싯귀에 마음 동했던 제가 아니었습니까. 엷은 화선지에 열 여섯자 뿐인데도 눈물이 나더이다. 일전에 시아버님과 혼자되신 고모님을 뵈러 동행했던 그 때를 읊었더이다. 고모님이라고는 하나 시 할머님 마흔에 얻으셨다니 서방님과 4년 터울밖에 나지 않아 남매의 정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스물 하나, 아이 하나 없이 마음 보듬어 줄 사람 없이 전주에 혼자 남은 고모님의 딱한 처지가 시에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법을 지엄하게 준수하

는 가문이니 서방님이 아무리 간곡히 부탁해도 고모님을 모시고 올 수 없었다 하셨습니다. 시를 보이자 하였더니 서방님께서 고개를 저으십니다. 공부하라 보낸 접(接)에서 시나 짓고 있었다며 꾸중 들을까 염려된다 하셨습니다. 신념이 자식보다 귀한 시아버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 서방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순이면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부끄러운 제 배를 쓰다듬으시는데 그 손이 참으로 고와보였습니다. 손을 얹어 보았더니 따스하더이다. 가만가만 토닥토닥 그리 하시더니만 좋은 낭군이, 좋은 아비가 될 거라 약조해 주셨습니다. 스승님. 초희는 이리 잘 살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잡념을 이 아이가 다 비웠나 봅니다.

참, 어찌 균(筠)이의 귀향이 일러졌는지 어찌 산사로의 이른 답장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겠군요. 동지중추부사로 계시던 본가 아버님께서 병환이 있으시다 하여 균(筠)도 급히 돌아왔습니다. 본가 어머님께서 강릉 간지 석 달 남짓 인테 삼년은 지난 듯 의젓해 졌다 하니 균(筠)이 스승님의 공이라 겸손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소식을 전하는 관원의 얼굴빛을 살피니 급하지 않은 듯하여 시택으로 돌아와 답장을 하는 것입니다. 창원에는 언제 내려가실 요량이 십니까. 오라버님도 스승님을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두 분이 정치를 논하고 저는 먹을 갈고 균(筠)이는 오수를 즐기던 그 여름날은 다시는 오지 않겠지요.

이 서찰은 치악산에 남편의 제(祭) 올리러 간다는 연주편에 보냅니다. 오라버니께서 눈매가 곱다 하시던 제 소꿉

동무 말입니다. 지난 가을 열병으로 인하여 과부가 되었답니다. 이제 열 여섯, 그 아이 생각하니 고모님만큼이나 서러울 듯하여 서방님 싯귀에 몇 구절 이어놓은 시 한편을 동봉합니다. 내내 강녕하십시오. 본가 어머님께서도 안부전하라 하시었습니다.

4.

밤늦도록 쉬지 않고 베를 짜노라니
베틀소리만 뽀걱뽀걱 차갑게 울리는데
베틀에 짜여진 베 한필
결국 누구의 옷이 되는가
손에 가위들고 마름질 하니
밤이 차가워 열손가락 곱아온다
남을 위해 홀이불을 짓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홀로 살고 있다오

빈녀음(貧女吟)

-허난설헌-

연주 아씨가 산사를 찾아 사흘간 머물고 가셨습니다. 여동생처럼 아끼던 동무이니 마음 내비친 시 역시 몹시도 애달프게 읽었습니다. 내리는 빗소리에 엮여 읽으니 베틀소리 살아 울려 못난 기억이 들춰지더군요. 연주 아가씨의 서러운 낮빛이 못난 스승의 어미와 닮은 듯하여 막막하게

아파옵니다. 아버님 좌천되어 가시던 어린 날, 미처 따르지 못한 채 높은 언덕에 올라 눈물만 닦아내던 어미였습니다. 봄 여름엔 옷 지어 가을 겨울엔 이불 지어 아버님께 보내곤 하였습니다. 큰 마님 성화에 늘 되돌아오곤 했던 밧짐을 밤새 어루며 멍히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곤한 살림 이어가시느라 기름진 음식 비단 옷은 몰랐으나 읽고 싶은 글 있다 하면 머리채까지 내어주시던 스승의 어미였습니다. 그리 억척스레 공부하며 비루한 첩과 그 소생을 버린 아버기를 기어코 이겨보려 했으나 양반 가르치는 스승은 되었어도 양반은 되지 못하여 술 취한 채 사십년을 이리 살고 있습니다. 초희 아씨의 동무를 가엽게 여기는 짧은 마음을 앞에 두고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공연히 애가 닳아 잠 못 든 스승은 아직도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워도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님에 대한 간절함과 아득한 서러움이 밤새 고인 빗물보다 흥건합니다.

여린 바람이 연못 물결을 잘게 흩어내던 저녁 무렵, 연잎 맺힌 이슬 모아 꽃잎 향 우려내어 찻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을 여쭙었더니 대답은 아니 하고 고개를 외로 틀고 눈물만 흘리더이다. 따르는 아이의 말로는 사별 후 말씀 없이 문득문득 눈물만 호소하신다하니 신음으로 엷힌 마음 감춰지지 못하더이다. 법당에서 기도하다 엷드려 흐느끼시니 습하고 찬 산기운이 연주 아씨의 어깨에 엷혀 무겁고 슬펐습니다. 차 한잔을 건네고 찻물이 식어질 동안 눈썹에 맺힌 맑은 이슬이 애처로워 끝내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였습니다. 머무는 사흘간 입에 댄 것이라야 멸건 보리 죽 반 그릇, 초불을 죽이는 작은 바람만 일어도 꺾어질 듯 쇠약한 몸이었습니다. 만류를 만류하고 나서는 길, 금강산으로 간다 하셨습니다. 그 하얗게 바랜 얼굴에 검고 큰 두 눈만 덩그란히 엮힌 얼굴로 하산하는 것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산 그림자가 연주 아씨의 몸을 덮고 이내 그 발치를 향해 흘렀으나 막지 못했습니다. 금강산이 목적이라 하시니 시중드는 아이의 붓짐에 하곡(荷谷)의 마지막 안부 서찰을 넣어 둔 것이 다입니다.

혹 몇 해 전 하곡(荷谷)이 연주 아가씨를 마음에 두었던 걸 아시는지요. 허엽 어르신께서 청백리에 제수되던 그 해였을 것입니다. 두 분 별당에서 거문고를 배우실 때 낮은 담벼락 오가면서 어설픈 곡조를 듣곤 했습니다. 현 뜯기는 소리가 일정치 않아 재미없이 들리는 음울을 하곡(荷谷)은 눈 감고 음미하더이다. 놀림도 해보고 농도 건넸지만 눈빛에 흔들림 없어 진정한 줄 알았습니다. 역관에게 시집간단 안채에 인사 들렸던 날 밤들어 달뜨도록 뜰 안을 서성거리더이다. 어르신께 간곡히 청 올리라는 제 말을 슬픈 눈빛으로 막아서더이다. 축첩(蓄妾)은 아니 되신다 하였다하던 벼의 그 눈빛은 또 얼마나 흔들리던지요. 서출이라는 것이 더 더욱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입신양명(立身揚名) 못하는 못난 스승은 그렇다해도 은애하는 마음까지 미치지 못하는 어린 연주 아가씨를 보니 그보다 더한 참담함이 있었겠습

니까. 누구나 죽으면 티끌 되어 날아갈 뿐,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도 흩어질 뿐, 어리석은 인사들이 구분하고 가름하는 더러운 세상일이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다행한 일은 초희 아씨의 재주를 반갑게 여기는 연분을 만나 붓을 놓지 않으신 일입니다. 적서 구별 못지않게 남녀 구별이 서릿발 같은 조선에서 성립 같은 이를 만나 시를 품고 글을 풀어내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립이 청혼을 넣었다 들었을 때 벽계수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안주로 내민 화제(話題)였으나 눈빛이 마주친 두 명의 광인(狂人)은 옳다 옳다하며 동이술을 비웠습니다. 어울리는 이 누구나 말합니다. 성립은 헌헌장부로 통하는 인사(人士)입니다. 시재(詩才)도 출중하여 질투와 시샘의 대상이지요. 심심해하는 내자를 위해 버들피리 만들어 손에 쥐어 주었다니 성품 또한 자상한 이 같습니다. 참 좋은 지아비를 얻으셨습니다. 주둥이를 비비는 피꼬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깃털이 황홀하여 수줍기까지 합니다. 높이 날아 세상을 가르는 기러기 한 쌍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개 짓이 아름다워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초희 아가씨가 그리 사시는 것 같아 스승의 오래된 변덕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만 교묘하게 비꼬인 것이 정(情)이라 하였던 치졸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수심(愁心)만 가득하다면 살아 있음이 욕됨일 터, 담 넘은 마음을 잡아 둔 성립이 못내 부러운 건 스스로의 못난 탓이겠지요.

공부가 아직 다 미치지 못한듯하여 유량을 하려 합니다.

하늘이 맑게 개고 밤조차 밝아 오니 오래 걷는 것도 녹록할 듯합니다. 낮길은 흥성하고 밤길은 고적하니 이보다 더한 유흥이 있겠습니까. 마음 들 곳 없음이 늘 허전했으나 발 닿는 곳곳이 내 집이라 생각하고 즐거이 다니겠습니다. 창원으로 가려던 마음은 접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짚신이 달랑 한 개 남으면 그 때 들르려 합니다. 당장은 하곡(荷谷)에게 연주아가씨 당한 사연을 전하지 않으렵니다. 심지가 굳은 벗이나 한 때 은애하였던 이의 아픔을 전한다면 상심의 깊이를 추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곧 과거시험이 있다 들었습니다. 하여 일전에 주지 스님께 얻어 두었던 종이 몇장을 동봉합니다. 왜나라에서 건너온 것인데 ‘와시’라 합니다. 깊은 산골에서 맑은 물로 만든다 하더니 먹이 잘 스며듭니다. 시험장에서 성립이 사용하였으면 싶습니다. 본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손곡의 유량이 끝나 한양에 들리게 되면 그날로 찾아 뵈겠다 전해 주십시오. 오래 거두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한 달음에 달려가 봐야 하나 부족하여 안부를 여쭙는 일조차 서툴기만 하니 참으로 못난 스승입니다. 이 서찰은 산사에 들린 진이 편에 보냅니다. 반쪽 양반으로 그 역시 신분의 천함으로 인해 기녀가 되었으나 재주는 귀한이니 밥 한 끼 후하게 대접하시라는 부탁 전합니다. 가는 봄이 아까워 몇 자 적어 동봉하며 안부를 대신합니다.

5.

맑은 날 굵은 난간에 오래도록 앉아
검문을 달아 걸고 시도 짓지 않는다
담장 구석 작은 매화 바람에 다 떨어지니
봄 마음은 살구꽃 가지 위로 옮겨가누나

호운 (呼韻)

-송곡 이달-

스승님께 아버님의 부음(訃音)을 전합니다. 전할 곳도 없으나 마음 대할 이도 없으니 눈물을 먹물삼아 글로나마 적어봅니다. 인간의 이별이란 게 모두 슬프겠으나 준비하지 못한 채 허망히 보내드리는 자식의 심정은 더욱 썰기만 합니다. 한바탕 소나기가 처마를 적시니 눈물도 마르지 않고 웃고름만 적시고 있습니다. 관아로 내려가시기 전 자상히 손잡아 주시며 어여쁘다 기특하다 하시던 손길이 남아 있어 하루아침에 아버를 잃었음이 황망하기만 합니다. 망극하게도 한양 본가까지 당도하지 못하시고 상주 여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까이 모시던 아범의 말로는 부임지로 내려가신 뒤 무에라 딱히 칭할 명칭 없는 병환에 시달리게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던 저고리 고름을 몇 번이나 찢어내셨다니 심장(心腸)의 황포(荒暴)함이 얼마였을까요. 정수리를 쳐 내리는 통증에 샷갯도 조이지 못하였다니 또 얼마나 앓으셨던 걸까요. 달포 전부터는 손발이 떨림으로 인하여 소세(梳洗)도 아범이 대신 씻겨드렸다 하니

청결을 본으로 삼으셨던 아버님께서 단정치 못한 육신을 두고 점차 광포해지셨답니다. 경상 관아를 떠나시기 전, 의관이 처방한 조약을 드신 후로 조금 나은 듯 하였으나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조급증이 한층 더하시니 되시던 비복들이 두려워하였답니다. 사흘 전쯤엔 시비 하나가 댕돌에서 비틀하여 약사발을 엮으니 아버님 노함이 지나쳐 까무라치셨다 하니 사람을 대함에 있어 신분 고하에 막힘 없이 공정하고 자상하셨던 모습에 견줄 수 없어 아버님의 마지막 행보가 모두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스스로 내려놓고 상경하시다 객지에서 황망히 돌아가셨으니 주검을 앞에 두고서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뜰히 챙기고 엄히 훈육하셨던 여섯 자식 중 그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신 채 가셨다 하니 서러움과 죄스러움은 숨길 수조차 없습니다. 저의 불효는 균(筠)이나 오라버님들보다 더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된다 하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 뵙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이 대신하여 다녀오신다 하셨으나 목이 메이고 폐부(肺腑)가 마르도록 통곡하여 이 설움과 슬픔은 가시지 않을 듯 싶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위신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조정의 그릇됨을 지켜보지 못하시기에 시련도 많으셨습니다. 부정한 일을 취하시기보다 주려 죽는 것이 낫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책 대하시면 심지를 돋워가며 밤을 새곤 하셨습니다. 깨끗한 향내 나는 난초를 곁에 두고 늘 쓰다듬으시

니 아버님 소매에선 늘 난향이 배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자상하시어 부부의 정이 도탑게 어여쁘게만 보였습니다. 불편이나 부당 없이 만사를 대하셨습니다. 시집 온 뒤, 시절마다 보고 싶다 하시며 손수 치신 난과 함께 서신도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인편으로 발이 고운 목면 다섯 필과 줄기가 실한 미역 한 단을 보내셨더이다. 그리 온유하시고 정이 많으셨던 아버님께서 화증으로 심신을 다스리지 못하셨다하니 하늘 닿은 한숨의 크기가 얼마셨겠습니까. 균(筠)이의 글선생으로 스승님 들이실 적, 집안 반대 물리치시던 대쪽 같은 당당함이 그림습니다. 화담 선생님 추천이니 믿어 의심치 않으신다 가문의 어르신들을 기어이 설득하시고자 대청에 오라버니들을 주욱 세워두시고 스승님의 성품과 재주를 재차 물어 염려가 없게 하셨더랬지요. 스승님의 시문을 늘 가까이 두시고 마음아파 하시며 아깝다 탄식하시던 그 음성이 너무나 그림습니다. 영영 이별했으니 다시 보지 못한다 하니 울음은 통곡이 되고 통곡은 비가 되어 손길 스치는 모든 것을 적시고 있습니다.

스승님. 아픈 마음에 붓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리던 비나 사나흘 더 내려 이 쓸쓸한 마음까지 행구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어디쯤 계신지 몰라 서찰을 내 보일 곳도 찾지 못하겠지요. 그저 마음으로 유랑의 그 길 어디쯤 아버님 부음 소식을 듣게 되시면 어서 바빠 돌아오시라 바랄 뿐입니다.

6.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제
시름에 겨워 병풍에 기대니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춘우(春雨)

-허난설헌-

비가 개였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그쳤습니다. 이제 어디서 진실된 어른이라 칭송할 만한 이를 찾아야 합니다. 비에 불은 강물이 아득하듯 어르신이 아니 계신 조선 땅 눈 닿는 모든 곳이 부엌게 부엌게 번져가기만 합니다. 분노와 반항으로 세상을 조롱하고 기만하던 제게 가르침과 기회를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반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반쪽이 나마 제대로 살아내라 일침하셨던 기억은 평생의 업(業)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탐하기보다 학문을 사모하라 하셨고 투쟁으로 나서기보다 정당한 글로 저항하라 하셨습니다. 패기가 옳으나 분기(憤氣)와 구별하라 하셨고 진취가 정답이나 분별이 먼저여야 한다며 마음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셨던 아버 같은, 스승 같은 어르신이 아니 계신다 함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흘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려간 길의 끝, 참취복(斬衰服)을 갖춘 하곡(荷谷)이 때가 마르지 않은 봉분 앞에 미친 모양으로 통곡하는 절망을 보고서야 제 무릎도 꺾이더이다. 허리도 고개도 저절로 수그러져 몸 안

의 물기라는 물기가 죄다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이 몸은 손과 발이 성하고 하찮은 이 목숨도 끈질기게 붙어있는데 선부른 병마(病魔)가 어르신을 앓아갔다니 이 망극함을 어찌 풀 것입니까. 하곡(荷谷)과의 해후가 서로의 얼굴을 어루며 눈물을 닦아줄 일 뿐이었습니다. 산자락에 놓인 작은 저수지가 통곡 소리로 잘게 쪼개지고 붉은 해 조차 널름널름 삼켜 천지산간이 암흑 뿐이었습니다.

기적(妓籍)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았다는 진이를 괴산에서 만났습니다. 산세가 깊어 외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라 동행 없는 여인네의 방문이 촌락을 소란케 하였습니다. 계절을 넘기며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촌장의 배려로 마을 아이들을 모아 두고 글을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수련거리는 움직임을 따라 눈길을 돌리니 단아한 상복차림의 진이가 사립을 들어서더군요. 분(粉)이 지워진 얼굴이 맑으나 서러워 보인 것은 그네가 전한 부름 탓이었습니다.

-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주에서 객사하셨다 합니다. 벽계수 어르신을 통해 초회 아씨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서찰을 전해 달라 하시는 간곡한 부탁이 아직도 제 마음에 얹혀져 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벽계수 어르신께서도 당장 돌아오라는 전갈을 주셨습니다. 손곡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이 도리(道理)라 하신다면 반드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 마님과 균(筠)이는 괜찮은가? 초희 아씨께서는?
-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부지불식간 기둥을 잃었으니 황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연이어 비보(悲報)를 접하시니 경황이 더욱 없어 보였습니다.
- 연이은 비보(悲報)라니?
- 이판 허봉 어르신께서 모함으로 파직 당하셨다 합니다. 경황이 없는 틈을 노린 것 같다는 추문이 있으나 맞서 대꾸하지 않으신 채 임금의 결정을 기다린다 하더이다. 작은 도련님께서는 강릉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고즈넉한 산사(山寺)에 들어 과거를 준비하신다 하였습니다. 마님께서도 한양 살림을 정리하시고 동행하실 모양입니다. 다만 곤란한 것은 초희 아씨의 신세입니다. 이르게 태어나신 둘째 아기씨가 건강치 못하여 유모를 들였습니다. 헌데 어미의 건강도 신통치 못하다하여 시모께서 두 아이 모두 보여주지 않으시니 화답증이 병증이 되었나 봅니다. 마지막 뵈었을 때 하소연 하는 듯 흐느끼는 듯 건네시는 말소리로 인하여 도리어 듣는 이가 먹먹해 지더이다.
- 성립이 곁에 없던가?
- 그것이 안 된 일입니다. 어르신이 그리 가시고 이판께서도 곤혹한 처지인지라 화(禍)라 한다면 화(禍)가 될 수 있는 험담이 초희 아씨께 쏟아진다 들었습니다. 글재주가 화근이라 아씨만한 배포와 학식과 문재(文才)가 없는

덜 되고 부족한 이들이 기회를 틔타 남편 되는 이를 부
인보다 못한 반폰이로 만들어 기방의 안주거리로 삼았다
합니다. 거둬진 낙방의 이유도 초희 아씨의 친절에 그
이유가 있다 빙자(憑藉) 당하니 그 처지가 독수공방, 사
고무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많이 힘들어 보이던가?
- 체면과 자존심이 아니었다면 미천한 제 손을 잡고 살구
꽃 엮힌 담을 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네에 올라 구름
에 닿고 싶다 하셨습니다. 동봉하신 시를 보십시오. 장막
속 들이치는 비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주 있는 여인
에게 가혹한 나라,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해도 여인의 것
이라면 불쏘시개 이상이 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조선
입니다. 어르신은 글과 아씨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두 폭
병풍을 의지 삼았으나 숨기지 못하는 월담의 유혹을 담
장에 엮어 둔 채 아씨는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가고 계십
니다. 손곡선생을 찾아 반드시 서찰을 전하겠다 말씀드
리러 찾아뵈던 날, 아씨께서 제 손을 잡고 이리 말씀하
셨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으나 세상 구경을 두루 마친 후
금강에 계시는 옛 벗을 찾아가라 이르셨습니다. 일만이
천봉이나 되는 산세이니 유명한 만큼 맏힌 서러움도 큰
여인네 한 둘이야 큰 뜻으로 품어 줄 거라 하셨습니다.
혹여 다행으로 한양에 가신 길에 초희 아씨를 뵈는다면
진이가 금강으로 들어갔다고 전하여 주십시오. 석양이
붉게 물들 무렵이면 산길 초입까지 살살이 보이는 고개

마루에 앉아 초희 아씨를 기다리겠다고 반드시 전하여 주십시오.

홀로 떠나는 진이가 안쓰러워 부액(扶腋)하는 아이 하나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 길로 봇짐 하나를 꾸며 달려왔습니다. 시묘(侍墓)에 들어보니 마른 풀로 엮어 지은 한 평남짓의 공간에 떡 내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나라의 죄인으로 임금의 징치(懲治)를 기다리는 형님을 대신하고, 다스려 지지 못한 성정으로 공연한 일을 만들까 염려되는 군(筠)은 강릉으로 보낸 하곡(荷谷)은 초희 아씨의 문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수 지은 밥과 찬으로 하루 세끼 상식(上食)을 올리고 열 두번의 곡을 마친 뒤 누이의 작품을 모아 서책을 엮는 오라비의 모습은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며칠 기거한 뒤 괴산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곡(荷谷)을 도와 문집을 완성하여 명나라로 떠나려 합니다. 작은 조선이 아닌 너른 대국에 가 조선에 이만한 여문인(女文人)이 있다 자랑하고 떨칠 것입니다.

고루한 예법으로 인하여 초희 아씨를 뵈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벽계수에게 전언하여 성립의 마음을 추스려 주라 당부하였습니다. 뵈 수 있는 그 날까지 강녕하셔야 합니다. 스승의 부탁이자 다짐입니다.

7.

컬집이 흰 구름에 묻혀 있기에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를 알아
바깥 손님 외쳐야 문 열어 보니
온 산의 송화는 하마 쇠었네.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송곡 이달-

송광사에 들렀던 균(筠)이가 얻어 온 스승님의 필체가 흐릿합니다. 야원 손가락으로 획을 따라 그어 봅니다. 스승님만은 세월과 시간을 잊은 채 한적하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했더니 말없이 찻잔을 노려보던 균(筠)의 입술이 달싹입니다. 십여 년 전 그 때의 제 마음을 들켰나 봅니다.

- 누님, 차라리 세상으로 나갈까요?
-
- 긍정하시면 나머지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 오라버니는 어찌 지내신다 하더냐.
- 창원 부사에서 파직 당한 후 금강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 금강산?
- 친정으로 아주 들어간단던 형수가 연주라는 이름을 꺼내며 이를 갈면서도 홀가분해 하였습니다.
- 오라버니가 연주를 찾아 금강산으로 가신다 했다더냐.

- 누님도 차라리 세상으로 나갑시다. 금강산이건 탐라건 가보자 하시는 곳 어디든 제가 모실 것입니다.
- 오라버니가 금강산으로..... 나는..... 여기서 그만이구나.

스승님께서 대국에 가 계시던 그 세월이 균(筠)이를 어른으로 키웠습니다. 급제 후 혼례도 올렸습니다. 올케 되는 이가 인사를 왔는데 매우 고왔습니다. 처음 보는 시누이의 우울이 안타까웠는지 눈매가 젖은 채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다가가 손을 잡아주니 이번엔 엉엉 읍니다. 외양보다 마음이 고운 걸 확인했으니 제 기쁨의 크기를 짐작하시겠지요?

저는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방님께서 재취 얻으신 홍씨에게 안방을 내주고 후원 구석의 골방에 들었습니다. 종일 해가 들지 않아 읽기와 그리는 일이 쉽지 않으나 아무도 찾지 않으니 고요히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괜찮은 정적입니다. 이 가문에서 허초희는 두 아이의 죽음과 동시에 정리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객사(客死)와 두 분 오라버님의 정치적 실패가 서방님의 앞길을 막았다 생각하시는 시어머님의 진노(震怒)는 가라앉지 않았고 대를 이를 아이조차 허망히 보낸 뒤 저는 유폐 되었습니다. 하루 두 끼를 가져다 주는 시비(侍婢)가 전하길 족보에서도 이미 지워졌다 합니다. 허니 이제 허초희는 없습니다. 홍씨가 첩이 아닌 재취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거의 거둬들인 실패와 아이를 살리지 못한 책임감으로 방황하는 서방님은 홍씨를 들인 뒤 몇

년간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군(筠)이의 말로는 평양부터 전주까지 두루 다니며 기생과 술과 노름을 즐긴다 하였습니다. 아내를 잘못 얻어 세상을 잃은 사나이, 아내를 살리려 다른 여인을 품은 사나이, 아내를 잊지 못하여 술을 기억하는 사나이, 그 못난 사람이 제 서방님이십니다.

백성의 흥성거림이 담을 넘어들던 단오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고르지 않아 의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팔에 기운이 사라져 머리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구토와 두통으로 찬 기운이 필요하여 간신히 열어 본 들창 밖, 저만치 서방님이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던 걸까요. 푸른 물기가 스민 정인(情人)의 두루마기 아랫단이 공연히 서글퍼졌습니다. 눈을 들어 간절했던 얼굴을 보고 싶었으나 제게로 다가오는 걸음보만 세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뒷마루 근처에 머물고 동(動)하지 않으시니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목향이 그리웠을까요? 고개를 들어 저를 어여쁘다 여기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 서방님 시 쓰시면 대구하여 이어 쓰고 서방님 글 쓰시면 대응하여 그림 그리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걱정하시고 속상하실까 오장(五臟)에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눌러 꺾꺾거렸을 뿐,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딱 한 번 그 희고 크고 듬직한 손을 들어 제 어깨에 얹어 주십사 애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 소매 끝에 놓인 주먹은 손톱이 파고들도록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 혹여 다른 곳에서 듣고 놀라실까 먼저 전합니다. 세간에 하곡(荷谷) 형님께서 술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달포 전, 금강산에서 목격한 이가 있습니다. 수색꾼을 보냈으니 소식이 닿을 것입니다. 두 아이는 선산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병과(兵科)에 응시할 것입니다. 부인은 처남이 친정으로 가자하면 말없이 따르십시오. 더는 모함 받거나 학대 받음 없이 재주로 글 쓰고 흥으로 그리며 그리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 그만 저 담을 넘어 훌훌 날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서시던 넓은 등이 흔들렸으나 일어나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이 허락하셨으나 담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한 사발의 물과 반수저의 소금으로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손 발톱과 치아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은 제 주인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께서 종이와 먹과 붓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이 서찰은 마지막 남은 가락지를 시비(侍婢)에게 쥐어주고 아궁이의 재를 덜어오라 하여 물에 개어 쓰는 글입니다. 종이가 없어 속곳에 옮기나 스승님만은 예의 없다 탓하지 않으시겠지요.

잠깐의 오수(午睡), 꿈을 꾸었습니다. 균(筠)이는 제가 쥐어준 붓으로 양지쪽에 잠들어 있는 고양이의 수염을 검게 칠하고 있었습니다. 열 두 살 초희는 아버님이 매어 주신 그네에 올라 힘껏 발을 구릅니다. 음전한 연주는 어머

님이 내 오신 수박화채를 얼른 받아 내려놓습니다. 붉은
과육에 얹힌 귀한 얼음이 햇살에 닿아 눈이 부십니다. 참
좋은 여름날, 은사시나무가 반짝이고 담장 아래 이른 국화
에 벌이 날아들고 아기 새 두어 마리가 처마 끝에서 우는
데 아버님께서 중문을 넘으십니다. 그 뒤를 오라버님과 친
구 두 분이 호탕하게 웃으시며 따르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 여름날이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안부일 듯 합니다. 강녕하십시오. 부디
강녕하십시오.

8.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넘노니
푸른 난새는 아름다운 봉황새와 어울렸구나
아름다운 연꽃 스물일곱 송이
붉게 떨어쳐 달밤 거리에 싸늘하네

몽유광산산시(夢遊廣桑山詩)

-허난설헌-

주인 없는 서찰을 쓰는 이유는 균(筠)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보름, 균(筠)은 강릉 초당의 본가를 다시 사들여 잔
치를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당하였기에 깊이 감추어 두었
던 아씨의 문집을 인편에 보내었습니다. 대국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필사하여 두루 널리 읽혔다 하였더니 기쁨에

겨운 답장이 왔습니다.

- 누이가 보고 싶어 별당에 자주 나와 앉아 있습니다. 스승님도 그리워 기거하시던 동쪽방에 가보기도 합니다. 여기로 오시지 않으시렵니까. 금강으로 보냈던 수색꾼이 형님의 흔적을 찾았다는 서찰을 보내왔으니 스승님께서 도착하실 때 쫓으면 자세한 행적이 전해질 것입니다. 형님과 스승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누이의 시를 한 수 씌 짚어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보름을 머물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진년의 왜란으로 인하여 안채가 소실되었다 들었던 본가는 보수를 잘하여 옛 모습을 회복하였더이다. 도착 후 사흘 뒤, 열 두 어살 쯤 되는 남자 아이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니 성립의 양자(養子)로 이름은 진(振)이라 하였습니다. 병과(兵戈) 급제 후 홍문관 저작으로 제수되었을 때 입양한 아이라 합니다. 아이의 행실이 곧고 성품이 바르다하기에 우문(愚問)을 던졌더니 현답(賢答)으로 받아내더이다.

- 진(振)이라 하였느냐? 이름의 뜻이 무엇이나?
-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세상에 나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하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 그래. 원하는 바가 있느냐?
-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마음에 얹히거나 양심에 어긋

난 일이 아니라면 제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 사내로 태어나 이름을 떨쳐보려면 정치를 하려 하겠구나. 적이 많아질 수도 있을 터인데.
- 정치나 학문도 좋을 것입니다만, 재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농사를 짓거나 장인바치일도 좋을 듯합니다. 허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해 아끼는 이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제 이름에 대한 아버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 이곳에 머물기가 까다롭지는 않은 것이냐?
- 외삼촌 댁에 기거하며 글을 배우라 하신 것도 아버님이 십니다. 생활에는 자상하시고 학문에는 엄하시니 조선에 더 큰 스승은 없을 것입니다.

장안유협경박자(長安遊俠輕薄子)로 이름난 성립이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의 승전 소식을 전하였을 때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세자의 친우(親友)로 통하는 균(筠)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 절반, 조정에 세가 없음으로 정군(正軍)이 아닌 의병을 이끌어 공을 세움에 대한 질투가 절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녀자의 질투가 낳은 천박한 글 속의 용렬(庸劣)한 사내라 무시했던 이들에게 성립의 공(公)은 인정치 못할 자신들의 수치였던 게지요. 격정되는 것은 역사(歷史)입니다. 성립의 좋은 시(詩)들이 더 이상 읽히지 못함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균(筠)이 출세하였고 기록은 그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니 성립의 인물됨과

행실이 아내의 재주를 질투하는 미욕한 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립은 의병 중 가장 출중했다 합니다. 임금의 행렬이 의주까지 다달아 명(明)으로의 도강(渡江)을 차비한다는 소식에 온 나라 백성의 황망함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리하여 임금이 버린 나라의 백성이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곡괭이와 낫을 들고 도처에서 일어나 투지와 신념으로 왜군을 물리치던 수많은 의병 중 가장 뛰어난 이가 성립이었다 합니다. 홍문관 저작이었으니 제 한 몸 피신하는 것이야 쉬웠을 것입니다. 허나 성립은 백성을 택하였습니다. 관복을 벗고 먼 길 나서며 진(振)을 맡기러 들린 길, 염치가 아니나 아이를 제대로 돌볼 이가 없으니 부탁한다 머리를 조아리더랍니다. 만류하는 군(筠)을 뿌리치고 자신을 믿었으나 보답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마지막 갚음을 위해 떠난다 했답니다. 이후 한 달 간격으로 성립의 승리가 전해졌고 세자가 감복하여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들어 쓰겠다 하셨다지요. 성립의 마지막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덟 번의 승전, 그리고 선택된 죽음. 전령은 부하를 대신하여 조충을 맞은 상황을 설명하며 울먹였답니다. 성립의 주검은 거두어지지 못했습니다. 처소에 남겨 두었던 두루마기 한 벌만 진(振)에게 전해졌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보여 달라 청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게 보내셨으나 받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몸에 없지도 못할 의복을 아내의 흔적이라 모셔

두었을 성립의 마음은 짐작조차 못할 은애와 그리움일 것입니다.

균(筠)은 성립과의 화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립의 양자 진(振)을 거두었고 아이 역시 외삼촌이라 부르며 공경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 성립의 진심을 알았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진(振)의 글선생으로 동쪽 방에 계시라는 청이 있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본디 하곡(荷谷)의 안부가 궁금하여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어제 저녁 금강산에서 돌아온 수색꾼의 말로는 삼년 전쯤 비로봉 근처에서 하곡(荷谷)을 목격한 이가 있습니다. 붉고 향 좋은 두견주를 팔고 있었는데 오가는 이의 눈길에 미처 닿지 못하는 바위 틈에 배부른 아낙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 이와 산나물을 고르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연주 아씨라 짐작할 따름입니다. 붓을 내려놓은 후, 새벽 닭이 울기 전 금강산으로 떠나려 합니다. 이 서찰은 곧히 잠들어 있는 진(振)에게 남길 것입니다. 친구(親舊)를 만나면 그의 아이들에게 그네를 매어 주겠습니다. 고모의 시도 읊어 주렵니다. 금강에서 만날 이들과 이리저리 지낸다면 기억 하시는 여름 날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겠지요. 혹여 압니까. 금강산 길이 험하고 그 물길은 더 깊으니 갓과 신을 벗어두고 소식조차 못 전하면 신선(神仙)이 되었다 회자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웃집 친구들과 그네뛰기 시합을 했어요
띠를 매고 수건 두르니 마치 선녀가 된 것 같았지요
바람 차며 오색 그넷줄 하늘로 날아오르자
노리개 소리 땡그랑 울리고 푸른 버드나무엔 아지랑이 피어났어요.

추천사

-허난설헌-(鞦韆詞)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시

|금상| 도깨비바늘 구미 상모고등학교 손성태

|은상| 바다가 있는 아파트 충북 괴산경찰서 이상재

봄 강원 영월소방서 조성철

탠덤 포항 달전초등학교 김현욱

|동상| 거울 속에 내가 충남농업기술원 박영섭

낯은 밥술의 보행 부산 향만관리사업소 박창식

다 지나가리라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고국희

바람흔적미술관 경남 산촌유학교육원 김민규

봄은 틀니의 마찰음을 기억하리라 외교부 최광진

적석목곽분 경주 계림고등학교 조재형

청소부 전) 강원 강릉교육지원청 한재성





구미 상모고등학교
손 성 태

그녀가 내게 손짓하였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으므로 그녀를 따라가기 십여 년, 그녀는 풀꽃과 바람에 스치는 잎의 속삭임을 들려 주었고 새 그림자의 웅숭깊은 내면을 퍼 올려 주기도 했고 내 손을 잡고 별빛들, 저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 날아올라 작고 아름다운 초록 별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발표 당일 아침 문자를 받았다. 아래를 보니 내가 벗기 시작했던 껍질이 발 아래 있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 안전행정부 장관님께 큰 절을 드린다. 그리고 시야, 참 고맙다!

도깨비바늘

손 성 태

네게 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돌무더기의 틈새라도 비집고 살아온 나날
청석에 혀 내밀어 애써 띄운 꽃향기
지독하다, 농익은 천릿길
파장의 겨울 길목이 확확 타는 독주 한 잔
허방 짚어 휘청거리고, 갈지자로 걷는 노랑나비

노랑물 들었나 샛노란 꽃잎
바람 불어도 날지 않고
비 퍼부어도 떨어지지 않는 말라깽이
살구, 박주가리, 민들레 홀씨의 생존법은 사치
스스로 뿔을 갈아 독이 오른 바늘, 검다

스치는 건 무엇이든 턱, 물고 늘어져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가는
얻는 것이라곤 ‘도깨비’ 라는 진절머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지는 대로
가끔은 나 모르는 너를 찔러
모래밭에 내린다

불모지는 나의 땅
노랑게 물들이다가 흔들리다가 말라버리는
검은 줄기 위에서 아직도 꿈꾸고 있는
저 지독한 드라이플라워



충북 괴산경찰서
이 상 재

자연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시심을 쫓아 방황하고 또 여행을 다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움을 만들었고 그리움이 시작되는 곳에서 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부족한 시 한 편이 희망을 만들 수 있게 인내로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겠다는 제 아내 이지영, 은율, 해운, 어머니 연임춘, 또 계절처럼 제 곁을 지켜 준 모든 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바다가 있는 아파트

이 상 재

확성기 안 만선의 바다
소형화물차 밖으로 울려 퍼지는
생선장수 김씨의 우렁찬 목젓이
아파트 층층마다 닳을 내린다

선상 갑판을 뚫고 솟아올랐던
물 오른 고등어며 가자미들
힘겨운 사투로 새벽을 끌고 온
굽은 새우와 속 빈 꽃게들
모두 체면을 차리느라 곱게 누워
건장한 아침을 토해내고 있다

남편의 빛 보증처럼 위태로운 직장에서
밤새 한숨을 늘어놓았던 자식의 진로까지
거센 파도 속에 형클어진 여인들
굳게 잠겨 있던 철문을 나선다
거품처럼 일어선 엉덩이가 출렁인다

이제 김씨의 팔뚝은 바다를 움켜쥘 태세다
마지막 몸부림으로 굳어 있던 생선은
미끈한 몸통과 지느러미를 선뜻 줄 모양이다
생선장수 김씨의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여인들이 물오른 생선처럼 몸을 세운다
몇몇은 에누리에 들뜬 생선의 머리를
값싸게 처내는 기쁨을 함께 산다

은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시 |



강원 영월소방서
조 성 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지나간 겨울의 흔적을
밟고 지나가는 이제는 사회에서 물러난 혹은 물
러날 세대를 생각하며, 생명의 태동 속에 감춰진
지나간 시간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

봄

조 성 철

3 월

봄이 오는 길가에는 땅속에 묻힌 갈색 유해들이 흐느끼고 있다. 꽃 무덤 둘레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울리는 떨어져 나간 심장의 두근거림, 찾아오는 이 찾아올 이 검게 태워버린 우리의 수 많은 우상이 되어버린 입맞춤과 마디 끝 전해오는 까칠한 생명의 끝자락 어미젖 물고 늘어지는 아이의 누렇게 물든 닳아빠진 틀니의 추억 붉게 물드는 유두의 망각은 유선을 따라 흐르던 잊어버린 젖내음 가득한 가슴싸개마냥 버려졌다.

겨우내 덮어버린 백색의 공포는 시간에 버려진 시간의 기억을 봄이 오는 길가에서 투명한 배설을 한다. 줄줄 흐르는 봄을 양분삼아 새싹이 움튼다.

4 월

봄이 떨어진다. 먼지 뒤덮인 구겨진 구두의 뒤축을 감싸고 있는 주름들 사이로 낙화처럼 떨어져 내린다. 주름을 채우고 있는(음영을 그리며 깊이 타고 들어가는) 햇빛을 타고 줄줄이 떨어져 내린다. 무릎 나온, 다려진 양복의 바지는 곡선의 미학을 가르치며 떨어져 내린 봄날의 햇살을 피해 저만치 고개 숙여 걸어간다.

종종걸음은 묵혀온 시간만큼 시큼한 발내음을 숨기듯 꽃잎 사이로 숨어 들어간다.

무릎아래 부여잡던 손은 이제 세상으로 내몰고 추억이 전하던 봄날의 소식은 깊어진 주름의 깊이를 알려준다. 화석들의 무덤 속에서 흘러 내려오는 유전의 꿈처럼 고전이 되어 살아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과거의 고통은 시큼함은 배를 땅에 붙이고 비명을 질러대는 구두의 뒷태마냥 닳아서 그 소리마저 먼지처럼 봄날이 되어 흩어져 내려온다. 쌓인 눈이 녹은 거리에 흩어져 내리는 먼지는 골짜기 사이로 더 깊을 주름이 되어 흩어져 내린다.

포항 달전초등학교
김 현 욱

올봄에 경주 보문단지로 벚꽃구경을 갔다. 흐드러진 벚꽃 사이로 탕뎀을 탄 수많은 연인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에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탠덤*

김 현 욱

초음파에 찍힌 태아는 영락없이 자전거를 탄 자세다.
먼 우주에서 아내의 자궁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 틀림없다
허방 천지 까마득한 시공을 달려오는 동안
삼신할미가 핸들을 잡고
뒷좌석에 앉은 아이는 힘차게 페달을 밟았을 것이다.
별자리 체인이 우주 자전거, 탠덤의 바퀴를 돌리는 동안
창백한 푸른 점 어딘가에서
에타게 자전거 기다리는 부부를 발견한 것이다.
깊고 아늑한 자궁 속으로 자전거가 잠지 되던 밤,
아내는 처녀 시절 벚꽃 흐드러진 유원지에서
처음으로 탠덤에 올랐던 꿈을 꾸었다.
누군가에게 오롯이 핸들을 맡긴다는 것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페달 밟는다는 것이
사랑임을 서로가 어렴풋이 깨달았던 때였다.

해와 달이 두 바퀴처럼 부지런히 굴러갔다.
태아가 자라듯 자전거도 자랐다.
타이어처럼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또 하나의 탠덤이 세상에 나와
누군가와 함께 차르르르 굴러갈 상상에 마냥 흐뭇한 것은
두 바퀴 위의 헛헛한 생이
도리어 잘 포개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굴러간다.
굴렁굴렁,
뱃속에서 아이의 페달 밟는 연습이 한창이다.

* 좌석이 앞뒤로 된 2인용 자전거



충남농업기술원
박 영 섭

”거울 속에 내가”는 우리의 삶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면의 순수한 마음을 제쳐두고 겉모습(外面)에만 치우치는 현대인(공직자)들의 애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박 영 섭

삶이 우리를 혼자이게 만들 때
가끔씩 마음속에
담겨진 진실의 깊이를 보려 한다
하늘이 호수에서 달빛을
비춰 보듯이

세월을 밟고 간 거울 속에는
저물어 가는 방랑자
오래된 길모습만 보여줄 뿐
가슴속에 담긴 내면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다.

거울이란 모름지기 너로 하여금
내가 보여 지는 것
바쁜 삶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망각한 채 외모에만 치우치다
웃음 깨어진 거울 속에 내가

황사 때문에 흐리게 보여
손으로 문질러도 보고
지나온 세월로 닳아도 보았지만
이미 깨어진 거울 속에는
내가 없다.



부산 항만관리사업소
박 창 식

아내와 함께 시 공부를 시작한지 1~2년이 되었다. 정년을 앞두고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게 되어 즐거움이 배로 크다. 시작(詩作)은 힘들지만 맘에 드는 시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부족한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낡은 밥솥의 보행

박 창 식

어둑한 창고 안 팽개쳐진
낡은 전기밥솥 하나
반쯤 눈을 감은 채 가부좌를 틀고 있다
한 때 그는 출렁이는 맥박이었다
입맛 돋우는 구수한 솜씨에
허기진 식솔들이 온기를 채웠다

가슴에 불을 댕길 때마다
쌀을 보듬은 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보글거리던 사랑이 차츰 잦아들고
난알들이 뽀얗게 뜸들어갈 때쯤
밥은 하얀 날개를 펼쳐보였다

소복하게 솟구치던 이마에 닿기까지
물높이는 늘 가늠하기 어려웠다
목말라 벌판을 헤매던 발을 꿰이고
질퐁한 아픔을 거머쥔 손을 풀어
잘 익은 밥을 품었다

돌아설 수 없는 입맛에
길들여진 시간은 공복에 남고
이제 멈춤에 익숙해져야 할 저물녘
한 조각 햇살이 내려와
가쁜 숨을 천천히 덜어내고 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고 국 희

회사에서 일주일, 한달이란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럴때면 다른 나무와 경쟁하며 키를 높여가다 말라가고 있는 나무가 된 기분입니다. 몸 안 수액의 흐름을 따라가다 만난 곳에 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무 밖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시를 쓰고 싶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고 국 희

흙 파인다고 놓아둔 양철대야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에
탕탕탕 요란하여도
장대비는 지나가리라

상처의 가려움이 지나야
딱지가 온전히 떨어져 나가듯
망치질 소리 먹고서야
빗물이 칼날을 버리리라

이승은 대장간, 지나다가 만나는
삶들이 대개 그러했으므로
거친 길도, 그치지 않는 울음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리라

사랑, 물과 불이 나누던 만남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다른 순서를 기다리듯이
탕탕탕 요란해질 것들
아무는 상처 위로 다 지나가리라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시 |



경남 산촌유학교육원
김민규

햇살은 그늘처럼 멎고 봄날은 가고 있었다.
부치지 못한 편지는 점점 쌓여갔고, 그때마다 사
람들은 멀어져갔다. 지나가는 것들 하나쯤 잊고
사는 것도 고만고만하게 견딜만했다. '간절함을
포기하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라는 문장의 울림이
깊다.

바람흔적미술관*

김민규

바람개비가 페달을 돌리자
모래알 같은 봄햇살이 날개에 부딪혀
싱싱하게 흩어졌다 바람개비 소리는
메아리로 뭉쳐져 산을 안았고
다정한 척 언덕에 닿은 소리는
산의 색깔을 바꾸며 파르르 떨어졌다
미술관 마당에 흩어진 모든 것들에
보푸라기 바람 묻어 있었다

저 바람개비가 나를 끌어당겼던 것일까
아슬아슬 돌아가던 날개소리는
내 다리를 건물지하로 끌어당겼다
무명화가의 창백한 그림들,
이름 없는 꽃들은 한동안
바람꽃이라 불린다하지 않던가
흰 무명의 종이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돌아나가지 못할
이름 짓기에 골몰하였을 것이다
들여온 한 뼉 햇살을 화가의 이름 앞에 붙였다
술한 날을 허허한 바람과 함께 나눴으므로 그는
이 곳에 내 흔적 하나 새겨 줄 것이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저 바람의 흔적들

* 바람흔적미술관 : 경남 합천에 있는 미술관



외 교 부
최 광 진

올봄 유달리 저의 청신경을 자극했던 아버님의
틀니 마찰음이 결국에는 저에게 이런 영예를 안겨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침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글로나마 감
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저의 시작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새문안 교회
시교실의 안재찬, 김경안, 김정래 집사님과 여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포함
니다.

봄은 틀니의 마찰음을 기억하리라

최 광 진

동장군에 숨죽인 버들강아지
햇병아리 품을 안은 햇살에
새 움이 기지개를 펴고,
일흔 여덟번 봄을 맞은 아버지
민둥산 된 잇몸에도
새로운 이가 움트려나,

틀니의 마찰음이 애처롭다.

세월의 나이테가 굵어질수록
깊어만 가는 골패인 얼굴로
청개구리 아들을 위한
수심의 강이 흐른다.

바다로 흘러드는 물결에 비친
그림자는 파도에 이지러지고
무정한 봄의 다리 부여잡고
무릎꿇어 두 손 모은 아버지

새벽부터 틀니 소리가 잠잠하다.

오늘은 그 소리가
내 봄에 녹음되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천상의 교향곡으로

봄은 틀니의 마찰음을 기억하리라.



경주 계림고등학교
조 재 형

우리가 접하는 옛 문화재는 역사적 존재로서 본래의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무한한 상상력과 신화적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의 신라시대 고분 천마총 역시 천마도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독특한 풍광을 간직하고 있는 능원은 매우 흥미로운 장소이다. 이 유적에서 느낀 감상과 소회를 시로 표현하였다. 부족한 작품을 시로 읽히게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적석목곽분

-천마총에서-

조 재 형

흰 낙타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그렇다면 지층 깊숙이 묻혔던 자작나무 그림은
말이 아니고 곱사등 낙타였을지도 모른다
낙타의 봉우리는 퇴화된 날개가 아니었을까

타 클라마칸 사막의 모래바람을 헤치고 온
긴 눈썹이 아름다운 달빛 낙타의 행렬이
천년 왕조의 잠속에 죽음보다 깊이 묻혀 있다가
영롱한 곡옥으로 맺혀 반짝거리고 있다

사막의 깊은 언덕은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늘 오아시스와 드넓은 초원을 꿈꾸고
낙원을 찾아 나섰던 천년왕조의 흥망성쇠가
길 잃은 순례자의 눈빛에 허무로 잠긴다.

그들이 먼 길을 오가며 수혈한 피 몇 방울이
아직도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견고한 무덤의 깊이를 더 이상 묻지 말고
순례의 길도 여기서 그만 멈추어야겠다.

목 관을 열면 푸석하게 타다 남은 재 한 줌
소멸된 유전자와 폐허뿐인 유적
무엇을 찾으려고 이곳을 서성였던 것일까
낙타의 방울소리만 능원(陵園)에 지루하게 흩어진다.



전) 강원 강릉교육지원청
한 재 성

포르르 사철나무 잎새 사이에서 참새들이 날아
내리고 잎새 틈으로도 6월의 눈부신 별이 여과되어
비친다. 청량한 바람 한 올이 지나면 포르르 다시
새들이 날아 오른다. 방사한 닭들의 먹이를 훔쳐
먹느라 바쁜 녀석들이다. 아까운 사료를 축낸다는
생각보다 고 귀여운 것들이 함께 해서 아름다운
자연이란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것도 내 시 하
나가 새처럼 비상했기 때문이리라... 시골생활로
노후를 즐기는 나에게 농원에 날아드는 참새들처
럼 또 다른 시들도 포르르 날았으면 싶다.

청 소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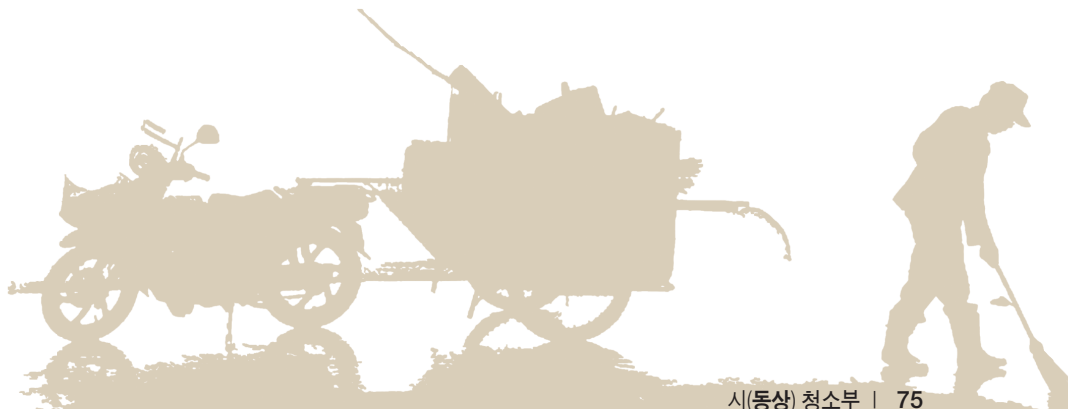
한 재 성

새벽마다 줄음을 총채로 털고
피곤한 몸을 맑은 물에 행군다

켜켜이 쌓이는 시간의 먼지
현란한 삶의 부스러기들이 적나라하게 흔적으로 쌓인 세계
첫 눈 밟듯 딱딱따박 걸어 나가며 비로 쓴다
반듯한 자욱들이 무지개를 그릴 때
반짝이는 눈빛으로 뒷걸음 치며 미소를 띠고
계단을 내리며 낮아지는 몸짓으로 걸레질을 할 땐
평화로운 마음에 콧노래가 흐른다

낙엽을 비질하는 바람
바캉스에 오염된 하천을 쓸고 간 홍수
더 큰 손도 잡아 보며
허리 굽혀 참선하는 순간은

밀레의 만종 속
성자가 된다.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시조

|금상| 서포, 바다에 서다 울산 환경자원사업소 김갑주

|은상| 낙서 혹은 기억 용인 상하중학교 안영선
메타세쿼이아 부산 반여초등학교 김임순

|동상| 불이전란 강원도청 이상균
오후 두 시 경북 울진소방서 김일하
좌관 위의 연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공무원문예대전 제16회
시조 부문 수상작품집

김제남

김제남



울산 환경자원사업소
김 갑 주

내 고향 남해의 노도,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제목과 그 이면의 소재를 선정하여 시조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앞에서 나는 아직도 걸음마를 익히고 있습니다. 팍팍한 가슴 언저리에 새 생명이 태동하는 따스한 초봄 같은 여명의 별뿔가 비치는 듯, 두근거리는 내 마음은 꽃송이의 은은한 향기에 취한 나라 단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습니다. 정한이 배어있는 우리 고유의 시조가락을 물굽이 따라 흘러가듯 잘 타는 것이 어찌면 남은 생 앞에 던져진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안전행정부와 그 관계관, 부족한 습작에 힘을 실어주신 심사위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시조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서포*, 바다에 서다

김 갑 주

고즈넉한 바다 저편 너울대는 멍울 하나
감물**을 헤쳐 가며 시린 춘추 들춰보면
화폭에 먹물 떨어져 부침하는 저 고도孤島

벼루를 적신 먹물 까만 밤을 보탠다
붓끝에 어른거린 어머니 무명 옷자락
멈출 수 없었던 눈물 먼 바다로 흘러들고

한 뼉기 일군 덧발 찾아든 별과 나비
절망을 배운 동백 찬 가슴 데울 때면
우물도 뜬눈 밤 거뜬 별과 달을 품었다

뱃길을 감춘 바다 물의 소식 감감하고
마음속 일던 울분 하늘로 끓어올라
저무는 노을 한 자락 다시 불을 지른다

* 서포: 김만중의 호.

** 감물: 바닷물의 경남방언.

용인 상하중학교
안 영 선

지난 시간들은 과거의 현재이며 현재를 투사하는 힘의 뿌리다. 유년의 기억들이 추억으로만 남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낡은 흔적이 나의 생흔이 되고, 현재의 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듯 낙서가 혹은 기억이 되고, 기억이 혹은 낙서로 남는 것은 아닐까. 숨가쁘게 살아온 우리의 생이 또 다른 낙서 혹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부족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서 혹은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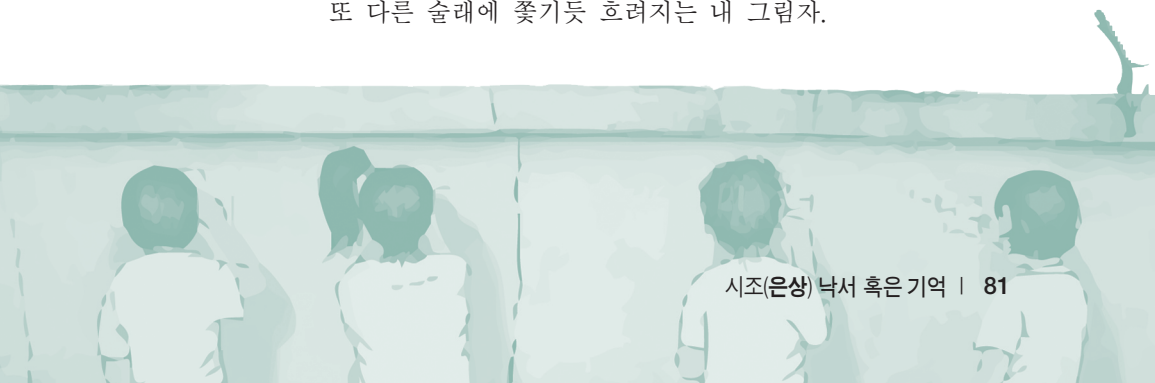
안 영 선

지울 수가 없었다
남을수록 선명한 생흔生痕
화석으로 눌러 붙은 유년의 하루하루
수십 년
지나온 시간
느낌표가 읽어낸다

깨어진 창 기웃거리 먼지를 발라내면
기이한 벽화와 조각난 자모음들
그 시절 못 다한 얘기 두런두런 풀어낸다

운동장에 주전자 하나
어린 시절 그리고 있다
오징어 모양이거나 십자가 모양이거나
술래는
퇴적층에 남은
화석 같은 마흔의 후생

햇볕 등진 술래가 그림자를 쫓고 있다
쫓을수록 흐려지는 낙서 혹은 기억
또 다른 술래에 쫓기듯 흐려지는 내 그림자.



부산 반여초등학교
김 임 순

비바람 눈보라 맞으며 외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덧 저만큼 길이 끝나 보입니다. 이 기점에 서 있는 저에게 입상소식은 참으로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공무원문예대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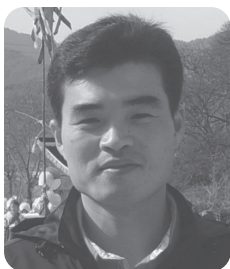
메타세쿼이아

김 임 순

모두 벗고 비워내는 결연한 나무의 가을
바람도 범접을 못하는 높다란 가지 끝에
빈 하늘 팽팽한 휘장 머리에 두르고 있다

흑요석, 사막의 날을 몸으로 건디면서
밀물지는 그리움을 나이트에 쟁여본다
언 뿌리 캄캄한 길을 더듬더듬 열며간다

저 아득한 별들은 아직은 먼 봄날 얘기
연둣빛 아침을 가지 끝에 매달기까지
눈보라 몰아칠 날을 햇빛으로 가리고 있다



강원도청

이 상 균

즐작이 실리게 되어 매우 쑥스럽습니다. 아직 시조의 절제된 정형의 틀이 두렵기만 합니다. 붓을 씻는 날까지 평생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겠습니다. 긴 장마 끝 구름사이로 빼짝 내민 햇살 같은 그런 글을.....



불이선란* (不二禪蘭)

이 상 균

묵 빛에 세운 불이不二의 경계, 발하는 선비기개
강박한 화선畵仙의 본성이 난향에 묻어난다.
벽자僻字들 여백 다툼에 비동飛動하는 저 문기文氣

위리안치 된 자아의 눈물 버린 붓에 적서넌 후
눈감고 바라보는 추사, 불이선不二禪을 깨치고
번뇌한 마음 한 구석에 나비 한 마리 앉힌다.

* 불이선란 : '부작란도' 라고도 함. 추사 김정희의 문인화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시조 |



경북 울진소방서
김 일 하

오래된 나무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범접하지 못할 위엄에 신령스럽기
까지 하지 않은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땀을 말리던 그날에 앉아 나는 누구의 그늘일까
골똘해 하곤 한다. 하릴없이 흔들려온 내 그림자,
손 끝에 닿는 모든 것을 보듬으며 살기로 한다.

오 후 두 시

김 일 하

팔월 땡별, 눈썹 푸른 느티나무 공장장이
쉬지 않고 기워놓은 모시 그늘 반나절을
쌈바귀 금강아지풀 한 자락씩 덮어주네

연못 위 장구애비 물결무늬 그늘 얻어
물 중심을 향해 갔다 덩병덩병 돌아오면
잠자리 뗏팔랑나비 제 그늘을 지우네

한 알의 씨앗에서 이 그늘이 온 것 같이
아득히 먼 우주 한 점에서 시작된 난
백 년을 푸르게 살면 그늘 되어 있을까

주술처럼 내 몸을 끌어들인 그늘에서
지금의 난 누구의 그늘일까 생각하는데
산 까치 구름을 물고 화살처럼 깃드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 규 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연륜이 쌓여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값진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좌판 위의 연어

이 규 준

서릿발 머금은 북극의 칼바람이
외로움에 각을 세워 검은 파도를 가르면
달빛을
머금은 비늘
고향 찾는 돛이 된다

역류의 고단함은 타고난 역마살인가
흐릿한 꿈속의 기억 그 밧줄을 타고 오르면
지난날
묻어둔 인연
핏줄따라 흐른다

시장길 모퉁이에 기대앉은 달 그림자
두고 온 새끼 떨이를 외치는 젊은 여인
좌판 위
지느러미는
갈 방향을 잃었다

아늑한 곳에 터를 잡아 등지를 틀고 싶던
오가는 길 나이트처럼 살짜가던 비늘아
이승에
풀지 못한 꿈
별빛으로 만나리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동시

|금상| 조각이불 포항해양경찰서 김영식

|은상| 고래의 노래 대구 운암초등학교 김상한
내 친구 민우 군산 옥구초등학교 신재순

|동상| 고맙다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박문희
나비잠 시흥우체국 박유미
동그라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작은 두 손 광주서부소방서 고경자
큰 그릇 충북 진천소방서 윤은경



금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시 |



포항해양경찰서
김 영 식

유년의 책장을 펼치면 와! 하고 달려 나오는
것들. 피라미, 민들레, 느티나무, 들길, 새털구름,
장구벌레, 잠자리, 감꽃, 뽕꾸기, 무지개, 고무신,
숨사탕, 고래,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오래.

조각이불

김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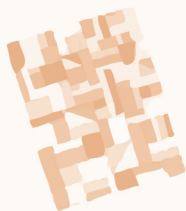
바람이 덜컥거리고
엄마가 이불을 만든다

바늘이 푸우! 푸우!
자맥질할 때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 한 가족이 된다

불빛 아래 도란도란 둘러앉는
물고기, 새, 꽃들
새 아버지와 새 오빠도 저렇게
잇대면 한 가족이 될까

엄마는 대답처럼 바느질을 하고
나는 슬그머니
미워했던 마음 한 조각 내려놓는다

어느새 바람은 잠잠해지고
깜빡 잠든 내 몸을
조각이불이 따뜻하게 덮어준다



대구 운암초등학교
김 상 한

긴 숨을 내뿜으며 넓고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는 고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여유로우며 살아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족한 글에 조금이나마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큰 칭찬으로 여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래의 노래

김 상 한

뿌우웅 뿌웅 뿌우웅 뿌웅

바다 저 깊은 곳에서
고래는 소리로 바다를 본다

고래가 노래한다

혼자 그 넓은 바다를 헤엄치다가
혼자 그 깜깜한 바다를 헤엄치다가
따뜻한 바다 위로 길게 숨을 내뿔으며

고래는 노래로 빛을 만든다

바다 저 깊은 곳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바다 그 넓은 곳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깜깜한 바다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노래라도

고래는 친구가 되고 싶어 노래를 부른다
다시 바다를 나선다

뿌웅 뿌우웅 뿌웅 뿌우웅

고래의 노래를 따라,
나도 불러본다
노래로 빛을 모아본다.

군산 옥구초등학교
신 재 순

우리 민우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우 덕분에 의미있는 글을 쓰고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민우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은데, 언제나 민우와 민우 엄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 약속합니다. 우리 민우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민우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 친구 민우

신 재 순

누에타운으로 현장학습 왔어.

휠체어에 앉아 침 흘리는
민우만 빼고 우리 반 모두 왔어.

누에가 내뿜는 액체가
실이 되어 고치를 만든다는데
늘 침을 흘리는 민우도
어쩌면 실을 뽑고 있는지 몰라.

그 실로 커다란 고치를 만들어
우리 반 모두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똥굴고 그림도 그릴거야.

때가 되면
모두 고치 속에서 나와
날개 달고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그땐 민우도 휠체어 버리고
훨훨 나는 날 있겠지.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시 |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박 문 희

세상을 살아보니 고맙지 않은 일이 고마운 일이 되기도 하네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고맙다

박 문 회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축구공이 날아와서 얼굴을 쳤다
엄청 아팠다
다행히 안경이 있어서
안경만 찢그러졌다
정통으로 맞았으면
콧대도 아프고 눈도 파랗게 멍들었을 텐데
대신 아파줘서 고맙다

엄마가 아끼는 화분을 옮기다가
실수로 깨뜨렸다
엄마가 달려와 찰칵치 못하다고
야단을 쳤다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화내는 게 속상해
방에 들어가 울었다
안경도 슬픈지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같이 울어줘서 고맙다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시 |



시흥우체국
박 유 미

아기가 곤히 자고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 작은 녀석이 새근새근 온 몸으로 숨을 쉴 때면 아기의 건강한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며, 고 작은 얼굴에서 우리 가족을 느낄 때면 엄마는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아가의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비잠

박유미

고놈 참,
지 머리만치 짧은 팔 치켜들고
꼬막손 쥐고 자는 모습마저
아빠 닮았구나.

고놈 참,
오르락 내리락 배 위에 콕 박힌
까만 참외 배꼽마저
형아 닮았구나.

고 작은 얼굴에
우리 가족이 다 들어있네.
고 작은 몸짓에
우리 이야기가 다 실려있네.

아가 자는 모습만 봐도
하루가 금방 간다.
아가 꿈꾸는 모습만 봐도
눈가엔 눈 꽃이 핀다.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시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 규 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원의 산골짜기에
순백의 눈이 내립니다. 동심이 바로 그런 눈은 아
닐까요? 무형의 마음이 유형으로 소리없이
내려 세상을 정확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심은 사람 누구나 추구하는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동 그 라 미

이 규 준

동그랗게 그리되
시작과 끝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다 말면
동그라미가 아닌
그냥 막대가 되고 말지요

동그라미는
속이 비워 있으면
항상 배가 곱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득 가득 채워 줘야 해요
동그랗게 될 때까지

수레바퀴는 바람으로
얼굴은 눈, 코, 입, 귀로 채워 주어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신이 나서 일을 하지요
굴러도 가고
보고, 듣고,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그란 지구
풀, 물, 돌에다
동물과 사람까지 가득 채우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시작과 끝이 만날려면
일 년이나 걸린대요





광주서부소방서
고 경 자

어제 천변을 산책하다 보니 들꽃이 군락을 이루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흔한 들꽃이지만 오랜만에 들꽃을 보는 나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동시를 쓴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동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나에게 감춰진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밝고 따뜻한 동시를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두 손

고 경 자

평소 심장병이 있는 우리 아빠
매일 새벽에 들어오신다.

오늘은 아빠가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오셔서 잠자리에 드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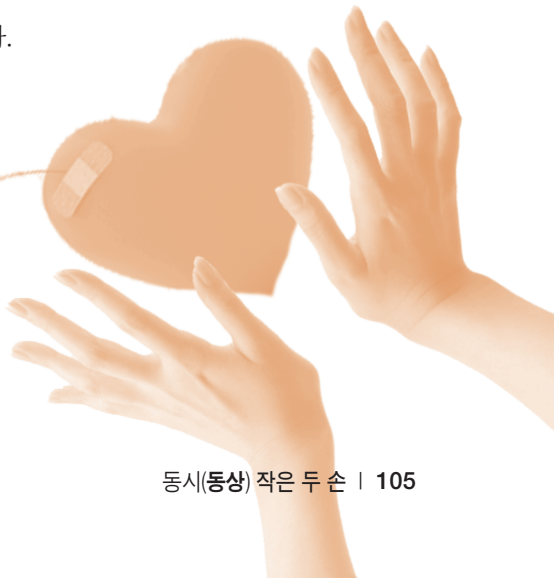
새벽녘 엄마의 비명소리
아빠 심장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버렸다.

당황한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고
내 손은 아빠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의식이 돌아온 아빠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보건 시간에 배운 것이
아빠의 생명을 살렸다.

친구들 때리며 장난치던
작은 두 손이
참으로 큰일을 했다.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시 |



충북 진천소방서
윤 은 경

‘동시쓰기’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제게 동시를 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그릇

윤 은 경

수업시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큰 그릇이 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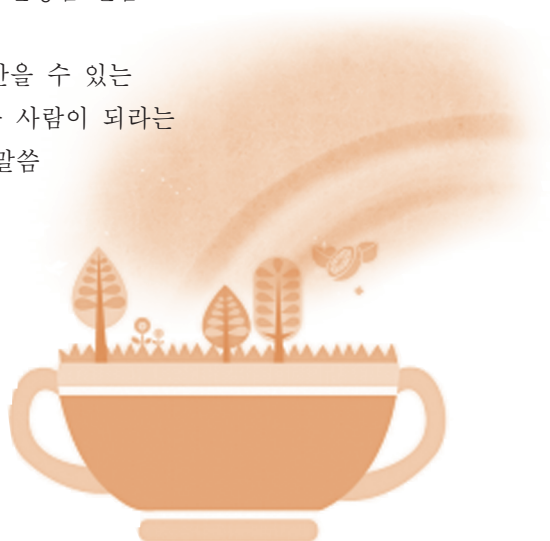
흙도 아니고 유리도 아닌데
어떻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가만히 찬장을 열어보니

제일 아래 선반에
작은 그릇 여러 개를 안고 있는 가장 큰 그릇

이제 알겠다. 선생님 말씀

많은 것을 안을 수 있는
큰 마음 가진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수필

|금상| 겨울 산 김천여자중학교 정성천

|은상| 결꾼 경주 강동초등학교 서정애
그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소금지기 전남 신안군청 유재희

|동상| 270원, 10MB 소셜 네트워크 비용
문경 점촌중앙초등학교 김재은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대전 해광학교 김계석
불면 울산 환경자원사업소 김갑주
도함산 소묘 경남도청 송태엽
파초해 부산 부산진구청 정경내
월채어에 꿈을 심는다 서울 성북구청 김대섭



겨울 산

정 성 천

겨울 산은 멀리서 볼 때 더 아름답다.

싸늘한 하늘아래 확연 부동의 자세로 태고의 적요를 머금고
의연히 서있는 겨울 산은 슬픔을 안으로 삭이며 울음을 참고 있는
고독한 아버지를 닮아 더 멋있어 보인다.



김천여자중학교
정 성 천

가을이 되면 우리들은 많은 농작물들을 햇볕에
늘어 말린다. 마른 농작물들은 오래도록 우리 곁
에서 우리의 밥상을 풍부하게 해 준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갇혀두었던 슬픔이었다. 아픔이라는 물
기가 흠뻑 베여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슬픔을 독자들 의식 속으로 꺼집어내어 햇볕에
말리듯 아픔은 말리고 뽕송뽕송한 슬픔으로 간직
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다행히 심사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나의 슬픔이 잘 건조
될 것 같고 또 나의 작품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해 줄 것 같다.

겨울 산

신록이 몽실몽실 피어나는 봄 산이 여성적이라면 앙상한 가지에 삭풍이 휘몰아치는 겨울 산은 남성적이라 할 수 있다. 눈 내린 겨울 산은 골짜기와 산등성이가 확연히 구분되어 힘줄이 툭툭 볼거진 근육질 남성의 알몸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밀이 다가온다. 어떤 일은 건너뛰기도 하고 뺄 먹기도 잘도 하건만 시간만은 어김이 없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부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올해도 모든 걸空空 열어붙게 만드는 대기의 차가움이 겨자 것처럼 코끝에 맴다.

매운 추위 속에서도 세상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느라 부산을 떠난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세밀과 새해가 그리 유쾌한 시간들이 아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하나 밖에 없던 아들놈이 이 세상을 하직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들놈은 왜 하필 그 해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난 것일까? 그 날 하루만 짧게 슬퍼하고 제야의 종소리에 모든 슬픔을 털어버리고

바로 희망찬 새해 첫 날을 맞이하라는 아들놈의 알량한 배려였던가? 그게 더 잔인한 슬픔이 되는 줄을 부모가 되 보지 못한 아들놈이 어떻게 알겠는가?

아들 녀석이 죽은 지가 벌써 14년이 되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했던가? 아들놈인들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닌 줄 잘 알지만 이맘때만 되면 그 놈의 빈자리는 가을 하늘같이 넓어지고 야속한 마음은 부질없는 욕심이 되어 가슴을 채운다.

부모보다 앞서 저세상으로 가는 자식 놈은 천하에 못쓸 불효자식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해마다 세밀이 되면 쓸쓸한 슬픔은 양상한 겨울 나목이 되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한다. 일평생 자식의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은 무척이나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아들놈이 이 세상을 하직한 날은 눈발이 가끔 희끗희끗 날리는 아주 매섭게 추운 날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거짓말 같이 날씨가 풀려 봄날처럼 포근했었다. 그래서 장례 치루는 내내 별 불편함 없이 잘 치룰 수 있었던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경황이 없었던 터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위사람들이 ‘날씨가 죽은 망자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봄날 같이 따뜻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

아들놈은 소문처럼 매우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이었다. 죽을 때까지 부모로부터 큰소리치는 꾸지람 한번 들은 적이 없었다. 항상 환한 얼굴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피는 배려 깊은 놈이었다. 욕심이 없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 해서 항상 손해만 보고 다니는 것 같아 아버지인 내가 속상한 적은 있어도 본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친구들을 좋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병하여 4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식에 온 친구들이 오륙십 명 정도로 아주 많았다. 이걸 보아도 얼마 살지 않은 그 놈의 인생이었지만 그 삶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착하고 해맑고 온화한 아들 녀석에게 어떻게 그런 몸쓸 병이 오게 되었는지 아직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답을 찾는 일 또한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어렵פות이 깨닫는다. 삶이란 답이 없다는 것을, 답을 찾는 것이 삶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이라고 아들놈이 일깨워 주지 않았던가?

아들 장례를 치루고 나니 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여기서 가장인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것 같았다. 아내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추스르고 회복 할 일만 남았을 뿐 더 이상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영영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슬픔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수시로 혼절하여 응급실로 실려 가기 일쑤였고, 딸아이는 엄청난 슬픔에 말 수가 적어지고 수시로 혼자서 훌쩍인다. 과도한 슬픔이 딸아이의 영혼까지 비틀어 버리지 않도록 나는 조심스레 기도할 뿐이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가슴에 꽉 막힌 그 무엇인가를 토해 내고 원 없이 대성통곡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내가 울음으로 무너지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아내와 딸아이의 가슴이 슬픔으로 터져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만 같았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시간은 슬픔을 치유하는 묘약이던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간신히 버텨 온 아내와 딸아이가 슬픔을 제 힘으로 추스르기 시작할 무렵 나는 그 동안 별려 왔던 일을 행하려고 겨울 산을 찾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맘껏 소리내어 울기 위해서 산을 찾은 것이다.

멀리서 보는 겨울 산은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에도 의연하고 믿음직스러워 내가 그 속에 안겨 대책 없는 나의 슬픔을 토해내고 원도 한도 없이 울어도 좋을 것 같았다.

자동차를 세우고 마을을 지나 얼마를 올랐을까? 숨이 차고 다리가 빠근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난 가을 대대적인 벌목이

있었는지 계곡 한쪽 비탈은 여기 저기 벌목의 상처가 심하다. 늦가을까지 벌목을 하고 미처 거두어 가지 못한 나무의 아름다리 시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눈을 맞고 있다.

나무는 산의 자식이다. 아니 산에서 생명줄을 이어가는 못 생명들 중 산의 자식이 아닌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렇게 처참한 꼴을 당했으니 산도 나처럼 매우 아팠겠구나. 들성들성 벌목해 낸 부위가 마치 사내아이 머리에 돋는 쇠버짐처럼 하얗다. 아직도 참혹한 살육의 증거인 듯 송진 냄새가 물씬 풍겨 온다. 하지만 겨울 산은 아무 말이 없다. 계곡을 휘몰아쳐 불어오는 한 줄기 차가운 바람만 뺨을 스칠 뿐 말이 없다.

허영게 얼어붙은 개울 옆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니 주위가 적막하다. 이제 숨도 평안하고 주위도 고요하여 울음을 분출하기에는 더 없이 좋을 터였다. 그런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울고 싶은데도 울 수가 없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 참고 참았던 그 서러움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악을 쓰고 몇 번 고함을 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눈물이 나지 않는다.

얼마를 지났을까? 등에 나온 땀이 식어 오싹함을 느낄 즈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겨울 산이 고요함 속에서 웅웅거리며 우는 소리를, 안으로 흐느끼는 산의 속울음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아주 희미하지만 나지막하게 누가 들을까봐 두려운 듯 들릴 듯 말 듯 조용히 우는 소리였다. 눈물을 안으로 삼키고 속으로 울고 있는

겨울 산을 나는 몰래 보았던 것이다.

하얗게 눈을 뒤집어쓰고 혈뺏은 표피로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있는 겨울 산, 멀리서 바라보면 더 없이 의젓하고 믿음직스럽고 근엄해 보이지만 겨울 산도 속으로 울고 있었던 것이다.

떠오르는 일출의 황금빛 장엄함도 안아 보고, 스러져가는 낙조의 붉은 노을빛도 등에 걸쳐 보고 백설의 은빛 풍성함도 온 몸으로 받아 온 겨울 산이었지만 비탈 하나 허허롭게 비워 주고 남몰래 속으로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겨울 산이었던 것이다.

이제 곧 하얀 얼음장 밑 땅속 저 먼 곳에서부터 봄이 오리니. 몰래 우는 겨울 산의 저 울음 때문에 개울가 버들강아지와 바위틈 진달래가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겨울 산이 참아내는 서러움이 크면 클수록 그 해 봄은 더욱 더 찬란히 펼쳐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겨울 산은 멀리서 볼 때 더 아름답다. 싸늘한 하늘아래 확연 부동의 자세로 태고의 적요를 머금고 의연히 서있는 겨울 산은 슬픔을 안으로 삭이며 울음을 참고 있는 고독한 아버지를 닮아 더 멋있어 보인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본 모든 아버지들은 겨울 산이 된다.

결관

서 정 애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기꺼이 길 스승과 길 벗이 되어준 그들을 떠올린다.
나는 누구의 결꾼이 되어본 적이 있었던가.
삶의 결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다.



은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수필 |



경주 강동초등학교
서 정 애

숲이 사라지면서 로드 킬 짐승을 보는 날이
갈수록 잏습니다. 대지의 품에서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결 끝

새순이 올라온다. 띄약별 아래 죽은 듯이 처져 한동안 애를 태우더니 모두 ‘사름’ 한 고구마 모종이 대견하다. 아침 저녁으로 두어 줄의 고구마 이랑 앞에 서성이며 아기의 재롱을 보듯 감탄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데 뜻 밖의 풍상을 겪게 되었다.

고구마 순이 땡강땡강 잘려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낮에는 하천변이나 산기슭의 덤불 속에서 한잠을 잔 고라니가 밤에 다녀간 것이 틀림없다.

“아아, 어떡해? 한 번 맛보았으니 계속 올 텐데……”

“그도 생명인데 좀 나누어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내 걱정과는 달리 태평인 그가 답답하기만 하다.

고라니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더니 갈수록 드러내 놓고 마구 따먹기 시작했다.

“그물 올타리를 치든지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고구마를 한 뿌리도 못 건지겠어요.”

애써 한 생 받은 고구마가 자칫 헛 생이 될지도 몰라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그는 그물 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노라고 잘라

말하니 나의 안달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었다.

한 번 맛을 들인 고라니는 날마다 영역을 조금씩 늘려갔다. 마치 저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듯이 당연하게 먹었다. 검은 콩을 뿌려 놓은 것 같은 동과 선연하게 찍힌 짐승의 발자국을 보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향수에 젖을 때가 많은 나에게 고구마는 고향이다. 오종종한 채전에 큰마음 먹고 고구마 이랑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하늘 짙은 가을날, 줄기를 걷어내면 짙 갈라진 이랑 틈새로 자색 고구마가 보이면 수확의 기대감으로 가슴이 콩닥 거렸다. 조심스럽게 호미를 밀어 넣어 캐면 고구마 식솔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고랑에는 걷어낸 고구마 줄기가 수북하고 이랑에는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온 고구마가 부끄러운 듯 더욱 몸을 붉혔다. 흙 알갱이 하나하나에 내려앉은 가을 햇살로 갓 캐낸 고구마는 자수정처럼 반짝였다.

내 손에 쥐일 만한 것을 골라 산거울 풀에 싹싹 문질러 한 입 베어 물면 달큰한 고구마 즙이 입 안 가득 고였다. 풀잎에 치대어 벗긴 고구마의 뽀얀 속살과 자주색 껍질이 빚어낸 모자이크 문양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가을 무늬로 남아 있다.

큰 방 윗목에 어김없이 고구마 저장고인 수수깡이 들면 초겨울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것은 겨우내 윗목을 차지하며 식구처럼

함께 지냈다. 긴 겨울밤, 마실에서 돌아와 고구마 수수깁을 뒤지면 일렁이는 호롱불 따라 흔들리는 내 그림자가 재미있었다.

할머니는 어쩌다가 삶은 고구마가 남으면 정성껏 찢어 아래채 초가지붕에 널었다. 꾸덕하게 말린 고구마는 벽촌의 궁한 겨울을 채워주던 든든한 먹을거리가 되었다.

고향을 추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고구마를 지키고 싶었다. 마을 이장 댁의 나날이 무성해지는 고구마 밭을 보면서 나는 더욱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지만 뽕족한 방법이 없었다. 밤새 번을 서며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하루빨리 다른 곳의 먹이를 찾아가 주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이파리가 한 움큼씩 사라지는 고구마 밭을 보며 밭을 구르던 어느 날, 채전 광나무 울타리에 어른거리는 물체를 보았다. 놀랍게도 고라니였다. 산짐승이 대낮에 민가에 내려왔다면 절체절명의 순간일 것이다. 고라니는 겨울에 짹짹이를 해서 이듬해 5~7월에 새끼를 낳는다. 이맘때 쯤이면 고라니는 몸 풀 때가 가까워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래로 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새끼를 밴 것임에 틀림없다.

텃밭으로 건너온 고라니는 고구마 이파리를 한 입 먹을 때마다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또 한 입 먹는다. 숨죽여 바라본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모습은 숙연하기까지

하다. 생명을 잉태한 어미답게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고라니, 대항할 것이라곤 도망치는 것 밖에 없는 짐승의 슬픈 눈망울을 보았다. 땅에 끌릴 정도로 부른 배를 뒤통이며 나무 울타리를 비집고 들어온 고라니에게 고구마 잎은 생명의 디딤돌이었을 것이다.

나는 고라니에게 고구마를 내주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향수가 무어 그리 대수일까. 고라니 역시 대지의 품에서 우리와 같은 생명인 것을.....

민둥산처럼 비었던 고구마 이랑에 연둣빛이 아슴아슴하게 올라 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고구마 이파리가 고라니 뺨속의 새끼를 키울 동안 땅 속의 뿌리는 또 다른 생명을 밀어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줄기는 모종에서 새 순이 올라올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푸른 길을 창창하게 내기 시작했다. 고라니는 허기만 채우고 간 것이 아니라 순치기를 하고 갔던 것이다. 그것은 쫓아내야 할 훼방꾼이 아니라 보듬어야 할 결꾼이었다.

근래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 이리저리 뛰다가 파비발 울타리를 넘거나 개골창으로 풀쩍 뛰어내리던 고라니를 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것은 최근 도시 개발로 숲이 야금야금 잘려 나가면서 터전을 잃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모습이었다. 개발은 시시각각 그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 곳곳에 그물 울타리를 쳐서 고라니를 내쫓고 있지만 나의

곁꾼 고라니가 무사히 몸을 풀었으면 좋겠다.

어느덧 만추의 계절을 맞은 삶의 자락에서 더러 뒤편길을 돌아 볼 때가 있다. 별 탈 없이 이만큼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곁꾼들의 손길이 많았음을 깨닫는다.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기꺼이 길 스승과 길벗이 되어준 그들을 떠올린다. 나는 누구의 곁꾼이 되어본 적이 있었던가. 삶의 곁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다.

인생 여정에서 불쑥 나타난 매복병과 맞닥뜨려 중심을 잃은 이를 지탱해 주는 넉넉함을 가지고 싶다. 뽀족한 삶의 모서리에 다친 이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 줄 아는 곁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푸른 길을 힘차게 내고 있는 고구마 앞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싱그럽다. 잠 없는 고라니가 앞무릎을 꿇고 지은 입 농사에 고구마 풍작을 기대한다.



그 물

이 규 준

사람은 누구나 그물을 하나씩 가지고 살고 있다.
그 그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깊은 산 속에 내리는 새벽 이슬을 사슴이 마시면 보혈이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 규 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신의 큰 축복입니다. 물론, 살다보면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가슴 시린 아픔을 달래 주며,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을 살찌우는 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 문학과 함께 가는 영혼은 결코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물

삶의 길을 가다 온몸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수레를 끌고 갈 기력이 없을 때면, 나는 어김없이 바다로 향한다. 바다에서 방전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품속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생명은 바다로부터 왔으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바다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 바위에 부딪쳐 하얀 거품을 내면서 부서지는 파도는 젊은 사내의 팔뚝에 꿈틀거리는 푸른 핏줄처럼 보인다. 거대한 바다라는 심장이 파도라는 혈관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혈액을 펌프질 하는 것이다.

이렇듯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바다, 한쪽 구석에 그물코가 반쯤 풀린 그물이 삶을 마감한 주검처럼 버려져 있다. 한때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한 손에 움켜쥐고 쥐락펴락했던 먹이사슬의 맨 위에 존재한 최고의 지배자였다. 숨통이 끊긴 후, 알맹이가 빠져나간 굴껍데기들 위에 쓰러져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산호초의 속삭임을 자장가 삼아 깨어나지 않을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바다의 영양분을 담아 사람에게 운반하던 소중한 밥그릇이었다. 멸치, 꽂치, 고등어, 상어

등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미역, 다시마 등 온갖 해초가 그의 밥이었다.

그물은 실이나 끈, 철사 등의 올을 열기설기 짠 뒤 각 교차점을 고리로 묶거나 매듭을 지어 그물코가 되도록 만든다. 그물코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며, 올의 굵기도 가늘고 부드러운 소재부터 굵고 거친 것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동일한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그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도망치지 못하게 가두어 자유를 억압하는 반면, 보호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통과시켜 통통하게 살을 찌울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벼, 고추, 토마토 등 농작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면서 습득한 농사기술을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논갈이, 거름주기, 씨앗 뿌리기,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 농사일을 직접 한다.

찜통더위를 거둬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낮보다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때쯤 되면 땅의 기온과 화창한 햇살을 먹고 자란 벼 이삭이 누렇게 변하면서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반쯤 숙이게 된다. 논바닥에는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미꾸라지가 활개를 친다. 논바닥의 물을 빼기 시작하면서 논두렁 주위로 길게 도랑을 낸다. 도랑에 물이 차오르면 드문드문 통발을 놓는다. 통발이란 철사로 만든 골격에다 그물을 덧씌운 것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나오는 문은 좁아서 한 번 들어간 미꾸라지

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처럼 통발의 그물은 논바닥 전체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던 미꾸라지의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감옥이 되는 것이다.

벼는 옆에 햇별이 잘 드는 산기슭에 배나무 과수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칠혹의 어두운 밤을 하얗게 밝히던 배꽃이 눈처럼 떨어지고, 10월 중순쯤 되면 과일의 크기가 야구공보다 더 커지면서 유년의 푸른빛에서 노년의 황금빛으로 변하게 된다. 탐스럽게 무르익어 가는 과실로부터 향긋하고 달콤한 향기가 밖으로 넘쳐 나온다. 과육 속에 감춰진 씨앗을 세상 곳곳에 퍼뜨려 자손을 이어가려는 본능적 향기일 것이다. 이런 향기에 이끌려 먼 곳에서 날아온 까치는 연신 배를 꼬아 댄다. 까치에게 허락된 먹이의 양을 초과하게 되면, 사람은 그물을 이용해 방조망을 친다. 이렇게 되면 까치는 더 이상 길조가 아닌 불청객에 불과하다. 이때의 그물은 까치의 무단 침입을 막아 배를 보호하고, 햇빛과 온도, 산소를 온전히 받아들여 배를 여물게 만드는 보호막이 된다. 악한 것은 물리치고 선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그물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원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물이란 도구가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절박함은 솔한 불면의 밤과 시행착오를 요구했을 것이며, 그러한 고통의 산물이 그물로서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물은 날개로 느슨하게 풀린 식솔들의 삶을 그물처럼 단단하게 엮어매는 역할을 하였으리라.

거제도 해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어부로 살다 가신 장인어른은 바람이셨다. 마음 한 점 누일 수 없는 끝없는 바다 위에 돛 하나에 의지한 채 그물을 던졌다. 그물은 식구에게 먹일 식량을 담아 나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목숨에 줄을 매달아 닻을 내린 후, 그물을 던지고 끌어 올렸다.

세월과 핏빛 노력의 덕분으로 배와 그물의 크기는 해가 갈수록 커졌고 단단해졌다. 만선의 깃발이 수시로 수평선 위로 해처럼 떠올랐고, 커져가는 배와 그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수확물도 많아진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살림살이가 불어났다. 어부의 아랫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했다. 움직이기가 힘이 들었다. 욕심은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계곡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어부의 욕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어부는 그동안 목숨을 담보로 모은 돈으로 생명을 이어 주던 그물과 배를 팔아 버리고, 편안한 가두리 양식장을 선택했다. 몇 해까지는 사업이 순조로워 양식장의 크기는 나이에처럼 부피를 더해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물과 배가 녹이 썩고 헤지듯이, 장인어른의 손발에도 곰팡이가 피어났다. 거기다 덤으로 한 해에 태풍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 개나 어장을 핏물고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 남김없이. 평생을 쌓아올린 탑들이 다이나마이트에 폭파된 건물처럼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고 말았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하였던가.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는 고비의 순간마다 나타난다. 선택의 문제이다. 장인어른은 목발을 딛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뺨 뚫린 가슴을 채워주는 단 하나의 친구는 30도가 넘는 독한 술 뿐이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는 단계를 넘어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까지 도달해 버렸다. 녹슨 그물이 덧이 되어 어부를 덮친 것이다. 밥을 담던 밥그릇이 사람을 덮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물 구멍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살피우는 온기와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꿈과 희망이 빠져 나간 자리에 좌절과 패배감이 차곡차곡 쌓였다. 쌓인 불순물의 찌꺼기는 온 몸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그물은 더욱 더 풍선을 옥죄게 되었다. 마침내 풍선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터져 버리고 바람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사람은 누구나 그물을 하나씩 가지고 살고 있다. 그 그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깊은 산 속에 내리는 새벽이슬을 사슴이 마시면 보혈이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그물을 호수에 던졌지만, 예수를 만난 후부터 인류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원히 썩지 않을 거대한 그물을 세상을 향해 던졌다.

나는 그 동안 가슴 속 깊이 감춰왔던 나의 그물을 남몰래 꺼내 본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낡은 그물, 그렇지만 여태껏 나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그물은 아닌 것 같아 무척 다행이다. 식솔들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씹없이 던지고 또 끌어 올렸던 그물, 이제
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바로 옆집의 이웃을 향해 던져야 할 때
가 온 것 같다.

소금지기

유재희

창고 가득 쌓인 소금은
한 여름에 소금지기가 모을 수 있는 희고 소담스러운 솟 눈이다.
한 여름에 눈을 보고 싶어서였는지 몰라도
부모님 몰래 또래 녀석들 하고 소금 창고를 자주 기웃거렸다.

은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수필 |



전남 신안군청
유 재 회

임자도 섬마을에서 소금지기로 살아가는 당숙
을 통해, 풀솜할머니처럼 폭신한 고향의 유년시
절이 떠올라 내친김에 썼던 단상....

소금지기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의 헐거워진 틈새로 스미는 바람 탓일 것이다. 헛코를 골며 버터 봐도 콧속까지 빠지직거리는 한기가 잠을 쫓았다. 요란한 전화소리에 눈을 떴다. 외딴섬에 혼자 사는 당숙이 인근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당숙의 자녀들은 대도시에서 산다.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친구뎁을 뒤집어 쓴다는 생각에 투덜대면서도 걱정이 앞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만 했다.

비교적 건장한 당숙은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운신하기 힘든 몸으로 손만 들어 반가움을 표했다. 당숙의 모습을 보자 걱정하던 마음이 울컥 짜증으로 치밀었다. 왜 이 먼 섬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지 곰파고 싶었지만 껍 참았다. 병상(病床)에 누워있는 당숙은 자신의 몸보다 시골집이 더 걱정되는 모양이다. 애써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당숙의 마음을 헤아려 오랜만에 고향에 가보겠다고 했다. 당숙 집도 둘러보고 옷가지를 챙겨오겠다며 병실 문을 나섰다.

부락부락 고향으로 길을 잡았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다. 내가

기억하는 길은 없다. 전에 다니던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이 생기기도 했다. 맹인처럼 길을 더듬거렸다. 외국에서 시집 온 듯 보이는 새색시에게 길을 물었다. 누나의 고등학교 진학과 맞물려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등졌으니 벌써 20년은 지났다. 길만 변한 건 아니다. 이 고장은 멩텅구리라 불리던 배에서 잡아 올린 새우로 담근 곰삭은 옥젓으로 유명했다. 성어 기에는 파시가 열려 한때 어런더런했던 고향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버린 아주 조용한 섬이 되었다.

어렵쑥한 기억으로 당숙의 집을 찾았다. 동굴처럼 어둡신한 정지문을 열어 보았다. 살강에 층층이 얹힌 주발은 예전 풍경을 담은 채 언제라도 제 구실 할 날을 기다리는 것 같다. 실터에 절로 자란 풀들이 어우러졌다. 마당귀에 시간이 정지된 채 웅크린 강고에 눈이 갔다. 강고는 염부들이 소금을 퍼 나르는 등태 없는 지게다. 소금 짐은 한(恨)을 보태 더 무거웠을 것이다. 요새는 쓰지 않는 물건이라 먼지라도 수북이 쌓일법한데 대오리 조금 해진 것 빼고는 당장이라도 쓸 수 있을 듯 튼튼해 보였다. 평생을 염부로 살아온 당숙은 강고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무언가 나를 땀 저 강고를 이용하는 모양이다. 당숙의 나이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버텼던 질빵도 삭지 않았다. 검게 변한 손때는 놋두더라도 유난히 번들번들한 어깨와 맞닿았던 지게는 휠대로 휘어버린 당숙의 허리와 닮아 보였다.

이십여 년 전 기억 속의 학교 길이 생각한다. 염전이 펼쳐진 방

죽을 따라 난 길을 동무들과 반시간을 걷고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 길이라 하기에는 무색하지만 간간이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자동차가 지나갔으니 길임에는 분명하다. 당숙이 당고에 박혀 있는 무자위를 돌린다. 무자위에 얹힌 당숙의 장판지에 올근불근 힘살이 돈다. 당숙은 제자리걸음을 하지만 걸어 올린 갯물은 햇볕과 시간이 마술을 부리면 보석처럼 눈부신 소금이 된다. 무자위 발판을 따라 오르는 갯물은 당숙 가슴에 쌓인 삶의 양금이 버글버글 끓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애써 당숙을 못 본 척 했다.

동살 잡힐 무렵에는 염전가득 갯물만 잠방잠방 일렁였다. 여름에 함박눈이라도 내린 것일까? 오후에는 염전 가득 크고 작은 소금 꽃이 피어난다. 알갱이들은 주뻗주뻗 가늘어지고 단단해지며 별소금이 되어갔다. 소금을 잔뜩 담은 강고가 활처럼 휘었다. 당숙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강고를 어깨에 메고 창고 가득 소금을 쌓고는 다시 갯물을 앉혀야 했다. 소금을 만드는 일은 퍼 담고 나르는 일을 반복하는 어찌 생각하면 아주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작업이다. 질척한 소금을 강고 가득 짊어졌던 어깨에 낙타의 혹처럼 볼록한 굳은 살이 생긴다. 강고는 염부에게 얹힌 멍에다. 소의 목에 얹는 멍에나 다를 바가 없다. 째포름하면서도 단맛이 남는 소금은 당숙의 땀과 강인한 정신이 만든 결정이 아니었을까.

창고 가득 쌓인 소금은 한여름에 소금지기가 모을 수 있는

희고 소담스러운 숫눈이다. 한여름에 눈을 보고 싶어서였는지 몰라도 부모님 몰래 토래 녀석들하고 소금창고를 자주 기웃거렸다. 소금 내는 일은 논농사보다 훨씬 힘드는 일이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염부를 대물림하지 않으려 했다. 논에서 소처럼 일을 할지 언정 염부 일은 하지 않았다. 소출의 반을 내놓는 남의 눈을 소작할지라도 자식에게 염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속내평으로 이슬새벽 논둑길을 선택했다. 행여 내가 소금지기에 흥미를 가질까봐 염전 근처에 가는 걸 금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숙이 우리 집에 오는 일도 드물었다.

이십년 전 당숙이 무자위 돌리던 자리에 양수기로 갯물 퍼 올리는 소리만 요란하다. 이십년 전 소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수 있다면 당숙과 나란히 걷고 싶다. 내 길을 뒤돌아본다. 소금지기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나. 힘든 일 어려운 일 겁내지 않았나. 내 손바닥에는 어떤 굳은 살이 박였나.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 생각이 섞여든다. 나는 아직 소금지기 당숙을 외면하는 그 소년이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 몇 개를 챙겼다. 뒤란의 강고를 처마 밑으로 옮겨 놓았다. 고향 당숙의 집은 언제 찾아가도 반겨주는 풀솜할머니처럼 포근하다. 이제는 버젓이 포장도로를 차지하고 달리는 버스 공무니를 짚내 단내 나는 갯바람이 따라왔다.

당숙의 얼굴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화색이 돌았다. 집단

속 했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 당숙의 입이 방시레 웃는다. 당숙의 손을 잡았다. 골무보다 두꺼운 굳은 살 박힌 살팍진 손이다. 당숙이 스르르 잠들었다. 나는 당숙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휴식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숙은 사람살이에 꼭 필요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이유 말고도 당숙은 나에게 소금 같은 사람이다.

밤하늘에 소금 꽃이 피었다. 청량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여름 햇볕 받아 모여든 소금의 결정체 같다. 저 별자리 중에 당숙의 강고도 있을 거야. 혼자 괜히 우겨본다. 오늘은 참 멀고도 오랜 길을 다녀왔다.



270원. 10MB 소셜 네트워크 비용

김재은

빨간 우체통이 놓여진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내음이 진하게 묻은 편지를 전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고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전의
가장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수필 |



문경 점촌중앙초등학교
김재은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우체국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읍, 면, 동마다 있는 우체국이 우리들이 정을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친구에게 부쳐줄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오늘 우체국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엽서 한 장 부쳐도 좋겠지요.

270원. 10MB 쇼셜 네트워크 비용

1) 270원

남편은 서른 아홉에 늦깎이 우체국 직원이 되었지요. 남편은 계리직으로 입사하여 우체국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합니다. 남편이 우체국 일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딸애와 일 부러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으로 가보았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제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이 궁금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딸애는 아빠에게 우표를 샀답니다. 270원이더군요. 아직 글을 모르는 여섯 살 딸애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자기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두 문장을 정성껏 하트도 그려 넣어 쓰고, 문경시 영신동~ 우리 집 주소는 제가 다른 종이에 적어 준 것을 보고 써 넣었지요. 그리고 우체국 문 앞에 예쁘게 서 있는 빨간 우체통 입속으로 쓱 집어 넣었지요. 아빠에게 직접 주면 아빠가 그냥 들고 오는 줄 알거 같아 말입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모습, 인증 사진도 찍었지요. 빨간 우체통 앞에서 찍은 사진 참 예쁘더군요. 이를 뒤 우리 집 우편함에 뽀뽀뽀 쓴 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애는 우표에 물결

무늬가 찍힌 그 편지를 보고 또 보며 어서 아빠가 퇴근해서 오기를 기다렸지요. 270원으로 인해 더 소중한 편지였습니다.

무난한 성격의 사람은 아닌지라 저녁이 되면 저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하고 남편의 늦깎이 공무원 생활을 물어봅니다. 공무원 생활에 잘 적응할까 싶어 걱정되기도 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요. 타지로 대학 보낸 자식 오목조목 반찬 부치러 오시는 어머니 이야기, 군대 보낸 아들 녀석이 세탁기 돌릴 때 필요하다고 해서 동전을 1호 봉투에 넣어 부치던 아버지 이야기. 어썸 택배비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농사지은 감자 한 박스 서울 사는 자식에게 부치는 할머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듣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2) 270원

작고 마른 체구의 허리가 많이 굽은 일흔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우체국으로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바쁘게 와서 먼저 접수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고객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먼저 온 고객들이 자리를 다 뜨고 나서야 가만히 창구로 다가오시더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편지 하나만 부치 주يس소.”하면서 두 장의 편지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하나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봉투였고 하나는 편지는 들어있으나 어느 쪽에도 주소가 적히지 않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남편은 글을 모르는 어르신인가 보다 하고 얼른 소인이 찍힌

편지에서 보낸 주소를 보고 아무것도 안 적힌 봉투에 받는 주소를 적어 드렸답니다.

부조를 할 일이 있을 때 아들을 불러 흰 봉투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나 더욱 정성껏 주소를 적어 드렸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글을 모르셨는데 성경 말씀을 필사해 보는 게 소원이셨지요.

그 할머니는 우표 값 270원을 계산하시고는 또 몇 번을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얼추 한 달이 지나고 다시 그 할머니가 오셨답니다.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대기석 뒷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른 고객들의 접수가 다 끝났는데도 가만히 앉아 계시기에 남편은 할머니를 직접 모시러 갔답니다.

“할머니 이제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니 할머니는 “아이고 다른 분들 다 해드리고 제가 해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할머니 차례가 훨씬 앞이었다고 설명 드린 뒤 부칠 편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봉투 두 개를 주셨답니다.

지난 번처럼 백 봉투에 받는 사람 주소를 옮겨 적는데 소인이 찍힌 봉투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려고 애쓰, 초록과 노랑, 빨강 색연필로 곱게 색칠해진

그림이 있고 조심해서 다니라는 글씨도 적혀 있었지요. 그때서야 남편은 받는 사람 주소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은 죄인의 수번 이랍니다. 경비 교도대로 군생활을 경주교도소에서 한 남편은 그것이 수번임을 알아차렸지요.

할머니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두고 있고 그 아들은 자기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할머니는 손자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간간히 전해져 오는 낮은 탄식소리들에 그 편지의 애절함이 더해졌지요.

우표 값 270원을 치르고 나면 또 할머니는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하시며 연신 허리 숙여 인사 하시고 남편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우체국을 나가셨구요.

남편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주소 적어 드리는 것이 저한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할머니의 인사에 본인이 더 미안해졌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개의 봉투를 든 할머니의 방문이 몇 달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의 거듭되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씀에 자기도 할머니께 덩달아 허리 숙이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를 받는 사람 주소

위치에 적던 중 문득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체국 직원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자신이 글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허리 숙임, 내가 글을 적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금껏 할머니는 자식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한 사과를 내게, 그리고 이 공간에 함께 있던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할머니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렇게 조금씩 부모로서의 죄 값을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글 몇 자 적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인 줄, 할머니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이 다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알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랍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보면서 자신을 더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요즘, 참 쉽게 서로 문자를 주고 받습니다. ‘ㅋㅋ, ㅇㅇ.’ 그렇게 글자의 자음만 쳐 넣기도 하면서.

그런데 누군가는 270원 우표를 붙이지 않고서는,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어머니 아들과 그 아들을 이어주는 우체국이라는 유일한 공간이기에,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이 죄를 지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늦깎이 공무원이 된 남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무게를 달아 우표를 붙이는 어쩔 단순한 일을 합니다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빨간 우체통이 놓여진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내음을 진하게 묻은 편지를 전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고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전의 가장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딸애의 고사리 손으로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가 적힌 하얀 편지를 전해 준 270원, 수인의 몸이 된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이어주는 270원은 10MB 아닌 어쩔 무제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비용이었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김 계 석

“오매! 버스 안에 개나리가 피었네. 얼레! 진달래도 있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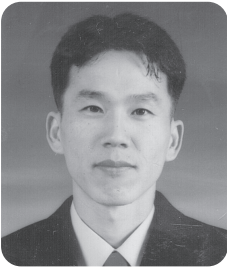
“네~ 어서 오세요.”

“근디 사람은 왜 하나도 없당가?”

“할머니, 버스기사는 사람도 아니예요? 저 있잖아요. 저! 허허”

“아따, 기사양반 재밌네. 손님이 암도 없다는 얘기제”





대전 해광학교
김 계 석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언뜻 우연처럼 보이지만 인연이라는 커다란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내가 공무원으로 버스 운전을 하게 된 것도 어렸을 때의 기억들과 성장하면서 만난 인연이라는 다리를 통해서였다.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갈 것인지에 대한 나의 작은 고백이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어 기쁘다.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오매! 버스 안에 개나리가 피었네. 열레! 진달래도 있구만.”

“네~ 어서 오세요.”

“근디 사람은 왜 하나도 없당가?”

“할머니, 버스기사는 사람도 아니예요? 저 있잖아요. 저! 허허”

“아따, 기사양반 재밌네. 손님이 암도 없다는 얘기제”

섬진강을 끼고 달리는 버스 안에는 늘 이렇게 작은 실량리와
웃음이 넘쳐났다.

15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시내버스 운전을 하게 되었다. 지방대학이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명문 국립대를 다니면서 내가 버스운전 기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버스 운전원 모집광고를 보게 되면서 나의 인생은 뜻 밖의 길을 달리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적 길갯집에 살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버스를 볼 수 있었다. 집 앞 신작로에 뭉게구름 같은 먼지를 남기며 사라지는 버스를 볼 때면 저렇게 큰 차를 나도 한번쯤 운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 작은 꿈은 어느 샌가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내가 운전하는 버스는 시골길을 주로 다녔는데,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形形色색의 산과 아기자기한 섬진강의 물줄기를 매일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굽이굽이 실타래를 풀어 놓으며 흐르는 섬진강은 굳이 문학작품의 소재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소설이고 수필이고 시였다. 풍경을 눈에도 담아보고 쿵쿵, 섬진강의 향기를 맡으며 달리는 시간들은 자연의 속살을 접하는 재미이자 즐거움이었다. 게다가 시골 사람들의 심성은 강물처럼 맑고, 인심이 얼마나 후하던지 나를 늘 감동시켰다. 장날이면 벚꽃 같은 옥수수 튀밥을 한 주먹 집어 입에 넣어주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뭉치도 내밀었다. 감을 팔러 가는 할머니는 아직 개시도 안한 바구니에서 붉은 홍시를 꺼내 살짝 건네주기도 했다. 나는 봄이면 개나리와 진달래꽃을 조금 꺾어 작은 물병에 담아서 운전석 옆에 두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과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주워 차안을 장식하고 억새를 꺾어와 버스 안에 가을을 꽂아 두었다. 시내버스 운전이라는게 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 허리도 많이 아프고 장날이면 밥시간도 놓치기 쉬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나에게서는 매일 매일이 소풍 같은 나날이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 주고, 산간 오지 주민들의 발이 되어 준다는 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 그래서 눈 내린 미끄러운 길을 아슬아슬 곡에 운전하면서 시골 마을까지 달렸고, 차 한번 놓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알기에 멀리서 뛰어오는 손님을 기다려 주기도 했다. 나의 작은 수고와 승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내버스를 만들어 갔다.

즐거웠던 2년 반 동안의 버스 운전을 집안사정으로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버스 운전을 할 때의 추억과 행복이 미련으로 남아 버스 운전직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대학을 나와 고작 평생을 버스 운전 할 거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면 이 또한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한 기억이 떠올라 버스 운전이 하나의 필연처럼 느껴졌고, 나의 선택을 망설임 없이 만들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버스통학을 하게 되었다. 첫차를 타고 등교하여 야간자습을 마친 후 막차로 집에 왔다. 그 노선의 첫차 첫 승객이 나였고 막차 마지막 승객도 항상 나였다. 그 시기에 나는 심각한 방향을 하고 있었다. 대화상대가 되어 주던 누나는 취업으로 집을 떠났고 낯선 도시의 학교에서 나는 항상 외톨이었다.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도 하나 없었다.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고, 부모님은 중학교 때의 성적만 믿고 내게 엄청난 기대를 하여 압박감이 더욱 심해졌다.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는 학교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매일 매일이 창살없는 감옥 생활처럼 느껴졌다.

결국 어느 날 현실에서 벗어나자는 극단의 결심을 하고 몰래 야간자습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쯤 가자 손님들이 다 내리고 나와 기사님 둘만 남게 되었다.

“학생, 앞으로 와요. 오늘은 왜 일찍 가는 거야?”

“저를 아세요?”

“그럼 알지! 항상 마지막에 내리잖아.”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기사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웠다. 세상에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대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치 친구라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기사님과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종점에 이르렀고, 기사님은 빵과 음료수를 사주셨다. 다시 출발 시간이 되어 버스는 떠나야 했다. 웅어리 진 가슴이 풀리고 봇물처럼 이야기 보따리가 터진 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기사님, 저 또 타고 가면 안 되나요?”

“..... 그래, 그러렴.”

저녁시간에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는 버스는 손님이 거의 없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기사님은 방황하며 지낸 학창시절, 월남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연 등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풀어내셨다. 덜컹거리는 비포장 길에서도 기사님의 목소리만은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기사님이 넘어온 인내의 과정들은 버스의 우렁찬 엔진소리처럼 나에게도 힘찬 삶의 에너지가 되어 다가왔다.

그 날 나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고, 가끔씩 기사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나의 방향은 서서히 끝이 났다. 그 기사님 차를

타는 날이면 나는 안내양처럼 손님들을 안쪽으로 인도하며 기사님을 도왔고, 종점에 도착해서는 서로의 일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친구 같은 기사님과의 인연으로 나는 외롭지 않게 고교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나는 대전교육청의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과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교육청 내에서는 비교적 기피하는 자리이다. 나의 하루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등교로부터 시작한다. 학생들 중에는 창문을 계속 두드리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 용변을 보는 아이도 있다. 간혹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어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 일에 만족한다. 아이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나 자주하는 행동을 따라하며 서로 소통하고자 한다.

“아빠와~” 하고 내가 말하면

“아들!” 하고 대답을 하며 개그 프로그램의 말을 따라 하기도 하고,

“시골 영감 있는데 그 이름 빙고~” 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어, 머리 잘랐구나. 멋있는데!” 하고 말하면 야릇한 표정과 말을 건네기도 한다. 처음에는 나의 관심과 성의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진심에 화답을 하듯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한번은 지금껏 전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학생이 “태워 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말을 해서 감동을 받은 적도 있다. 꼭 근사한 칭찬이 아니더라도 ‘작은 관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통학버스, 더 행복하고 안전한 등하교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나의 사명이자 목표이다. 오래전 전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준 버스 기사님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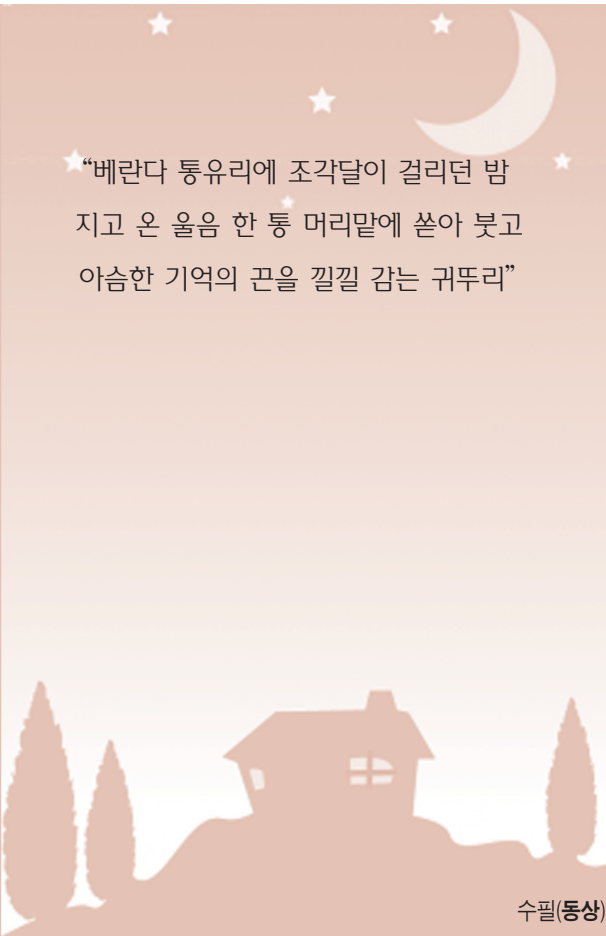
오늘도 나는 대전혜광학교의 버스에 오른다.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나는 버스 운전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큰 버스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겠어?’

가끔씩 후사경에 비친 기다란 버스를 보면 작은 자부심이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 내 몸에는 라디에이터의 부동액 같은 녹색의 피가 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래 나는 기사다. 버스를 운전하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공무원이다. 나의 버스는 오늘도 390마력의 힘찬 엔진소리를 내며 내일로 내일로 달려간다. 개나리꽃보다도 진달래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면

김 갑 주



★ “베란다 통유리에 조각달이 걸리던 밤
지고 온 올음 한 통 머리맡에 쏟아 붓고
아스름한 기억의 끈을 툇 툇 감는 귀뚜라리” ★



울산 환경자원사업소
김 갑 주

꽃피는 봄이 펴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꽃은 곧 봄 한자락 안고 더위에 무너집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꽃 진 자리가 지금은
더없이 초록으로 눈부십니다. 시조를 공부하면서
간혹 잠이 오지 않아 시어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
니다. 이를 풀어 보다 시를 접하고 수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습작을 뽑아주신 안전행정부와
그 관계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 길
일수록 돌아가라'를 화두로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불면

간간히 하루를 음각하는 피곤을 잠재우며 적막을 까는 어둠이
속속 도착한다. 어둠의 길목은 무거워져 한숨짓는 깊은 밤이다.
허공을 나는 새들도 숙연해지는 시간이다. 옆치락 뒤치락 잠을
덧들인다. 베갯머리에 있는 자리끼를 다 마신 뒤에도 말뚱말뚱하
다. 망막으로 유년이 걸어 나온다. 한밤이 깨어있다. 어둠의 빈자
리를 추억과 기억들이 메운다.

동네 형들이 발가승이로 옆집 친구와 싸움질을 시키던 일, 아
버지가 가르치던 서당의 모습, 마을 앞 하천 웅덩이에서 자맥질
하던 일, 찢어지는 가난으로 고단한 꼴머슴살이를 하던 삶 등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머리를 눕히기까지 온갖 추억과 공상이 밀
려든다. 물결이 굽이굽이 몰려오는 것처럼. 한 가지 걱정이 불안
을 안기면 다음 근심이 다가온다. 산짐승의 포효도, 어둠을 포아
잡든 세상을 부수는 귀뚜라미의 풀어내는 울음도 까만 밤을 가르
고 이명(耳鳴)처럼 귓전을 맴돌며 불면을 검색한다.

그리고 내 일상과 자국을 남긴 것들이 시공을 벗어나서 떠오른
다. 무거운 어깨와 오감으로 총혈 된 눈, 시름에 겨운 삶, 나만이

아는 그리움이 멈출 수 없는 짝사랑으로 가슴을 깊숙이 태웠던
순이 생각, 날 위해 고생한 그리운 어버이 생각, 자녀의 학비 걱
정, 만취한 나그네의 고성방가, 짝을 부르는 수고양이 울음의 기
억들이 머릿속에 비상하여 불면을 부추기며 사위를 에워싸고 있
다. 깊어진 시간에 걸린 유년의 문이 열려 무너진 밤의 이력을
채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를 불면의 동행들이 가슴 속에 구르고
머릿속을 헤매다가 귓가에 떨어진다. 마음의 푸른 뒤뜰에 해묵은
잡념의 잔영들로 넘실댄다. 기억이 줄줄이 엉켜 넝쿨이 되어 밤
을 더듬더듬 꿰매고 있다. 불면을 깬 밤이 엿박자로 흘러간다.
세상바닥이 캄캄하다. 눈덩이처럼 구를수록 무거워진다. 뇌관의
햇바닥에 있다. 익어 맛이 든 어둠이 쏟아내는 채찍을 얻어맞고
검은 시간만 비벼먹는다. 지나온 깊고 긴 골짜기를 헛된 생각으
로 후벼 파고는 후드득 진다.

긴장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자꾸만 끈적끈적 달라붙는
다. 굶주린 내 마음은 아니거늘 좌우로 뒤척이는 부침개와 같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쫓아내고 있다. 마음은 들떠 견잡을 수
없고, 무한한 공간의 새까만 정적은 숨소리조차 빨아들이는데 텅
빈 허무를 부질없이 헤맨다. 정서적 허기가 든 공허가 스며든다.

눈을 감고 머리의 힘살을 당기면 앞은 커커이 쌓인 이생의 남
은 미련과 옛날의 헛된 상념 조각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 무늬만
을 남기고 숨조차 못어버린 검은 색상에다 그림만 그린다. 눈을
감아보나 딱히 잡히는 것이 없다. 구부러진 그림자에 몸이라도

눕혀야 할진대 서성이는 껍질뿐인 낯선 시간들만 손잡고 있다.

반딧불이 어둠의 그늘을 날고, 수만 마리 은나비가 나는 듯
은하수의 유성이 흐른다. 그리움 스미고 번진 별들이 내게로 오
고 있다. 빛이 다하면 화장터의 잿가루와 다를까. 마음이 어둡다.
외로이 걸친 조각달은 허공에 매달려 있고 별들의 꼭짓점이 깜박
인다. 가슴에 안기는 달과 별빛이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가 된다.
아내는 잘 자야 할 텐데 …….

“여보, 지금 몇 시야?”

“응, 오줌 누고 왔어.”

“담배 냄새가 나는데.”

동문서답이다. 얼마나 더 탕탕하게 감긴 어둠 속을 헤매야 하
는지 밤의 허울 속으로 시간만 값아 먹는다. 가는 시간 10분이
머릿속은 10년이다. 어둠이 더욱 어둠을 불 지르는 긴 밤을 포고
있다. 쉼 없는 시간의 발굽소리를 듣는데 시공을 뛰어넘어 낡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과중시계추 초침소리는 유난히도 날카롭게
가슴을 때린다. 지친 뼈를 값아 육신을 허물고 혼을 앗아가는 마
술을 보는 느낌이다. 불면을 죽이고자 술 한 잔 생각이 간절하여
냉장고를 뒤져 잔에 고인 고요 한 모금 축인다. 농도가 허가 속
에 확 퍼진다.

어둠을 두드리며 아이들이 떠난 이 방 저 방을 무심코 돌다
책장을 뒤적인다. 몽상에 잠겨있는 책들도 침묵한다. 어둠을 한

페이지씩 넘긴다. 잡을 곳 없어 허공이나 붙잡고 남은 시간 조금씩 떨어져 나가며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혈관에 물이 흐르는 듯이 유현한 옛 추억이 다가온다. 자못 지루함과 외로움에 길들여지는 밤이다. 켜켜이 꿰매진 어둠을 마시는 시간이다. 어둠이 감싸줄 뿐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밤을 뜬금없이 불면이 쓰고 간다. 어둠의 속살까지 만진다. 50대에 이런 심정의 경험이 나뿐일까. 날 자꾸만 괴롭히는 불면과의 동침을 해야 하다니..... 어둠이 집안에 꽃혀 빠질 기미가 없다. 내 눈에 엉켜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피어난 어둠의 뇌관이 두 시력과 혈린 가슴을 찌르고 내장을 훑고 지나간다. 나를 삶을 듯이 그 윤기가 흐른다. 나는 그 살점을 천천히 끓여 먹는다.

쾌면(快眠)은 어둠에 감겨 가물가물 멀어져 내 물레에 감겨오지 않고 허공으로 떠가며 옥죄어오는 쇠사슬에 묶여 살점이 떨어지듯 시커먼 고독의 우물 속에 빠질 것만 같다. 달빛 별빛을 품은 작은 창을 열어젖혀 틈서리의 시린 밤공기에 취해 낮이 나간 듯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없어져도 될 기억들이 깊은 머릿속의 틈을 비집으며 그득그득 파고드는 덧없는 상념의 블랙홀에 빠져든다. 시간도 걸음을 멈춘 어둠의 한복판이다. 시간이 방바닥에 깔린다. 온몸은 어둠에 절인 세포들의 시위로 불난 듯이 아롱진다. 불현듯 스치는 뇌리의 흔적까지 지워지랴.

안쪽 창틀은 엉겨진 물방울로 얼룩지고 창밖은 콧물인데 여차피 잠자긴 틀렸으니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서 오도카니 담배 두

개비를 내리 물고 다독거리며 책장을 넘겨도 찢어질 듯한 머릿속을 헤집는 잡념뿐, 당최 집중이 안 된다. 아파트에 연접해 있는 5일장의 군상이 아른아른 흔들리며 길바닥 위의 환영이 떠오른다.

심신이 어둠에 절어 눈꺼풀은 무겁고 따갑다. 뜬눈은 자꾸 침울한 잡념만을 채우고 머릿속은 시공을 넘나드는 허망한 사념에 휩싸여 맴돈다. 한없이 멀어지고 겹쳐지는 아득한 우주의 밤을 애연히 꿰맨다. 뜬눈으로 지새우는 이 밤은 멍멍하게 살점이 뜯겨나가 빼만 앙상하게 남을 듯싶다. 설핏설핏 노루잡이라도 청해볼까? 머리가 수억 톤 바위산처럼 무거워 눕히면 진공 속으로 짹 짹 억죄어오는 악몽만을 더듬을 뿐 재깍거리는 탁상시계도 잠들지 않고 있다. 어둠의 빈자리에 앉아 시간을 삼키고 있을 뿐이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궤적을 뒤돌아본다. 아파트의 이웃들은 시간과 한숨조차 떼어 버린 듯 퇴적된 피곤을 잠재우는 새까만 귀잠을 품고 있어 부럽기만 하다. 시간을 때우는 불면이 여느 일상처럼 규격품이 된 소수는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잠 없는 그림자만 데리고 놀며 이렇게 무거운 하루의 경계, 무게의 고개를 굴러 넘기고 있다니.

마치 폴벌레소리, 새소리, 물소리, 풍경소리, 밤하늘에 드높게 떠 온 몸을 밝혀주는 은은한 별과 간밤에 싹이 튼 달을 도반 삼아 어둠을 삼켜 마신 밤을 지키는 올 없는 적막공산에서 시간을 죽였던 죄도 유죄처럼 옥죄어온다.

“베란다 통유리에 조각달이 걸리던 밤
지고 온 올음 한 통 머리맡에 쏟아 붓고
아름한 기억의 끈을 킁킁 감는 귀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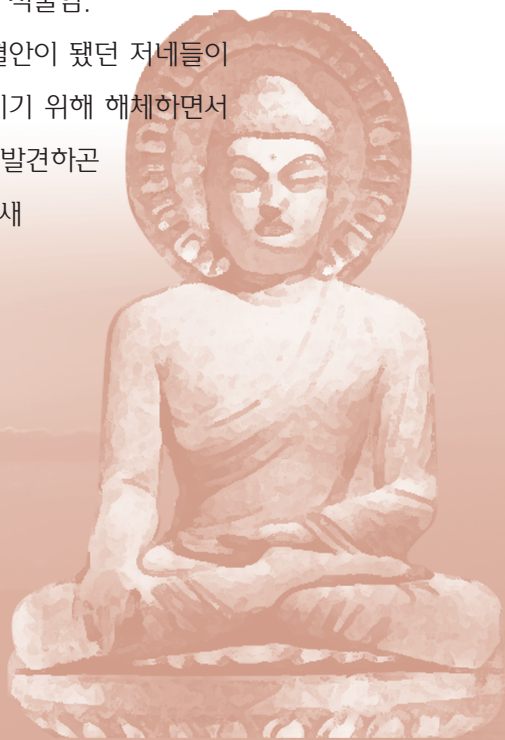
밤소리는 작아도 크게 멀리까지 들리듯 이내 정적을 가르며 어둠이 떨어지는 뭉은 새벽이 가까워진다. 꿈틀꿈틀 인근의 산새 떼가 시공을 뚫으며 새벽을 푸드덕 털고 국뽕댄다. 어둠을 깨고 있다. 찢기 빠진 달이 눈을 뜨고 창을 헤집으며 문틀에 걸린다. 달을 받쳐 든 새벽은 지난 밤을 비워낸 채움의 시작이다. 이슬이 집을 적시듯 속마음까지 가만히 젖게 한다. 침침한 아침이 살그미 눈을 뜬다. 인근 농삿집에서 자처우는 소리도 아릿하게 들린다. 한밤의 그트머리에 도사리고 내린 침묵마저도 깨어진다. 이슬도 촉촉한 숨을 쉬며 여명을 유혹한다. 생명체가 새벽을 점령하는 시간이다. 새벽을 가득 싣는 청소차의 바퀴들이 도로를 걷는 엔진소리도 다가온다. 지친 지난 밤을 행구고 새벽을 밀고 가는 자동차들의 브레이크 아우성이 귀를 찢는다. 시간이 찢고 간 어둠을 하얗게 새며 풀다 감은 잔재들이 어지럽게 뇌리에 나뒹군다. 두박두박 수평선을 긋는 발자국소리와 함께 아침을 잡아당기는 하늘가의 햇무리가 희뽕하게 보인다. 불면의 초대장을 느닷없이 받아 한숨도 말라버린 듯 퇴고가 안 되는 멍멍하게 접은 날 밤이었다. 얼굴이 푸석하고 까칠하다.

다행히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부터 탈출한, 그리움이 되어 떠오르는 하루. 빛이 내 안으로 들었아 밝음의 고마움을 읽는다.

토함산 소묘

송 태 엽

인간의 조각품으로는
최고의 조형미를 갖춘 작품이라는 석굴암.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 수탈에도 혈안이 됐던 저네들이
석굴암 자체를 몽땅 일본으로 옮기기 위해 해체하면서
생긴 상흔(傷痕)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곤
수그러져가던 배일의 감정이 어느새
또아리를 틀어가고 있었다.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수필 |



경상남도청
송 대 엽

일본 파견 근무 중 지난 해 8월 독도를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며 연일 데모하던 일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몇 해전 토함산에 올랐을 때의 잔상과 일본에 의한 석굴암 침탈 행위를 뗏상한 글에 파스텔로 채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토함산 소묘

토함산에 오르면서 듣는 소리 중에는 아마도 무성한 신록의 앞새가 서로 마주치면서 서걱대는 소리가 제격이다. 산사의 풍경 소리와 아우러 내는 그 소리에서 어렴풋한 신라 천년 역사의 소리가 맥을 연연히 이어오는 소리인 듯이 들리기 때문이다. 지척도 아니요 불교도도 아니지만 이따금 휴일에 경주 토함산을 찾는 이유는 세속인이 범접할 수 없는 오묘한 해탈의 경지와 천년의 무수한 전설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에 있기도 하다.

고즈넉이 내려앉은 천년의 사직의 역사에 거친 문명인의 발길 질로 흠집을 내는 무례는 범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항시 따르지만 찾아가면 경주 초입에서부터 소리없는 웃음으로 먼저 와 맞아 주는 덕성이 있어 좋다.

동해의 바닷물을 머금어 안개와 구름으로 토해낸다는 토함산. 이른 새벽에 토함산에서 동해의 일출을 맞이하러 갔던 그 날, 남들보다 먼저 해를 맞아야겠다는 욕심 채우며 달려가서인지, 예를 갖추지 못한 세속의 모습으로 다가가서인지 토함산은 신비의 일출을 선불리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욕심을 잉태한 채 온 군상들

에게는 자연을 향수할 수 없도록 동해에서 솟아 오르는 광명한 빛은 흰 샤틴천으로 가리우고 안개만 자욱히 토해내고 있었다. 언젠가는 정한 마음으로 기어이 토함산에서 일출을 보리라... 아! 이 마음 또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모질게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일 게다.

‘안오신 듯 다녀가소서.’ 석굴암으로 향한 길목에 세워진 작은 계도용 입간판에 적힌 9자의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등산객들에게 산에서의 쓰레기 투기를 나무라는 문구로 수없이 보아온 여느 계도용 입간판과 같은 용도였지만.... 내방객들에게 다소곳이 다가와 살포시 미소를 띄우며 수줍은 듯 속삭이는 여인의 밀어로 들려왔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자기가 가져온 것은 자기가 갖고 감시다’ 이런 상투적이며 건조하고 명령적인 어투의 입간판의 문구에 익숙해 있던 터라 터럭 한 올 다치지 않게 하려는 이 심성은 정작 도도히 흐르는 우리들의 심성이었겠지.

일행이 산허리를 돌아 멀어진 줄도 모르고 그 아홉글자에 발목이 잡힌 채 빙긋이 미소지며 한참 동안을 서 있었다. 짧은 시절 무수한 연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뉘아챈 문장이 어디 있었던가?

몇 자 밖에 안되는 경구였으되 야단법석으로 찾아간 내방객들

에게 큰 호령으로 -그러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무라는 소리로 들렸다. 이럼에 덕지덕지 안고 갔던 온갖 정욕과 사바세계의 명리를 석굴암의 풍경소리에 씻어버리고 와야 할지, 인간듯 깨금발로 살금살금 자신의 형체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할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토함산 전망대에 그려져 있는 천년의 미소는 굳어버린 감정의 늪을 헤집고 감동으로 물결쳐 왔다. 산에 오르기 몇 시간 전 국립박물관에 들러 만났던 영묘사 절터의 기와조각에서 발견된 신라여인의 그 미소였지만 산에서 보는 여인의 미소는 야릇하게 기쁨을 자극하였다.

그 미소를 본뜬 얼굴을 만들기도 하였고 억지 미소라도 얼굴에 퍼담을 요량으로 굳어진 안면근육을 움직여 보기도 하였다. 아무렴! 연륜만치 정형화된 근육으로 한번 미소짓기에도 여간 불편치 않은 얼굴을 어떻게 하려구.

이제 화가의 손에 그려진 미소로 간판에 붙었을지라도 또 다시 심장의 박동을 채근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청년 때 우연히 산사에서 만나 처음으로 연정을 느끼게 한 그녀의 모습이 불현듯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일출을 볼 수 없는 투덜댐을 들었던지 그 천년의 미소는 영겁에 억만으로 우리의 맘으로 볼 수 있는 토함산의 일출을 찰나에

보지 못한 짧은 소견머리에 은근히 타이르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석굴암으로 가는 길은形形色색의 옷차림에 관광안내원의 손짓 발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오가는 일본 관광객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2002년 일본에 공무로 파견되어 일년간 거주한 적이 있다. 월드컵 공동개최로 여느 때보다 공고해진 한일간의 우의와 활발한 문화교류가 가깝고도 먼 나라'의 이미지가 다소 개선되는 분위기여서 일본에서의 행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한국을 이해하고 일본문화의 원류는 한국이라고 치켜 세워주던 저들을 보면서 잠시 어깨를 으쓱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인을 만난 듯, 저네들 문화의 시발점을 찾아 준 손님이라 반갑기도 하였다. 경주의 관광수입에도 저들의 행보가 일조한다는 얘기도 듣고 보니 분명 고마운 손님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반가움과 감사했던 그 마음은 석굴암 주위에 흩어져 있는 석물을 보는 순간 이내 분노로 변하였다. 초기 석굴암 축조에 사용된 돌이었으나 일본에 의해 해체 복원될 당시의 제자리에 들지 못한 생명체이기도 하였다.

석굴암 면전의 석물을 모아둔 곳엔 어림잡아 100여기가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온갖 풍상을 견디며 천년 전의 찬연한 그 때를 삭이며 언제일지도 모를 영화로운 자태로 다시 자람

매김 되어질 그날에 비상하는 꿈을 안고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애처로웠다.

석굴암 본존불의 미소는 영겁(永劫)을 흑세무민과 고뇌의 사바 세계(娑婆世界)에 열락(悅樂)의 미소로 흘러오고 있었지만 석물의 아픔을 느끼곤 찰나에 사천왕상의 흉악한 모습처럼이나 아랑 없는 마음으로 돌변할 줄이야....

인간의 조각품으로는 최고의 조형미를 갖춘 작품이라는 석굴암.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 수탈에도 혈안이 됐던 저네들이 석굴암 자체를 몽땅 일본으로 옮기기 위해 해체하면서 생긴 상흔(傷痕)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곤 수그러져가던 배일의 감정이 어느새 또아리를 틀어가고 있었다.

지난 해의 광복절은 일본에서 맞이하였는데 동경소재 주일한국 대사관 앞을 지날 때 수백 명의 데모대를 목격하였다. 대사관 지인의 이야기인즉 이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관련 발언으로 연일 극우파들의 데모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날은 극에 달하였다고 한다. 수십대의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독도를 저네 땅이라고 왕왕대고, 위안부를 매춘으로 호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후안무치의 그들을 보면서 씁쓸해 했었다.

매년 4월 벚꽃이 분분히 훑날리는 날에 열리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기를 쓰고 찾아오는 저네들의 심보는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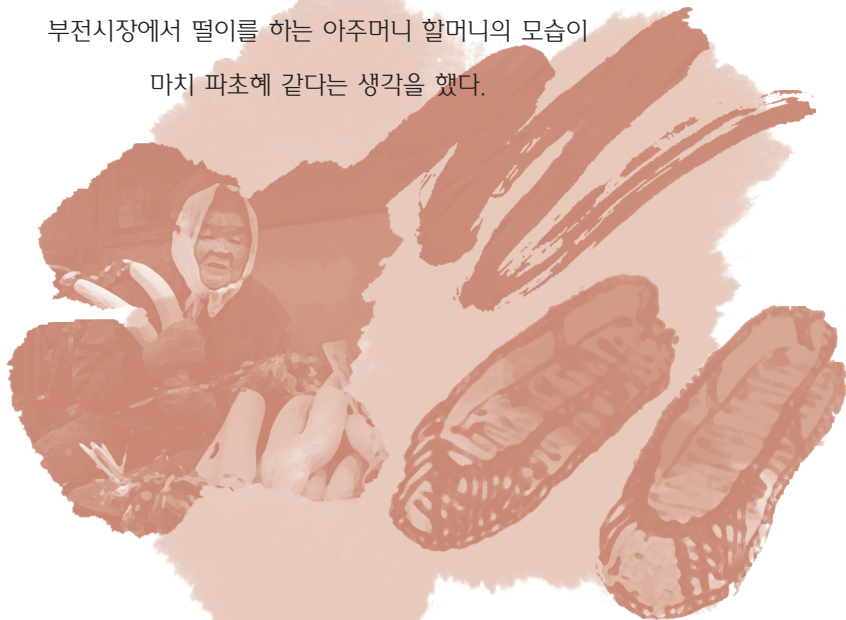
일까? 저들은 남의 나라에 자기 꽃(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나라
꽃은 없음)이 만개한 벚꽃 터널을 달리는 착각에 빠져서 오는건
아닌지...

토함산을 내려오면서 석굴암 불상의 그 인자와 온후함이 동해
로 스며들어 우리 역사의 굴레에서 어김없이 상처를 안겨주었던
저네들의 만행과 오만의 때를 씻어내는 물결로 일본까지 흘러가
길 합장한다.

파초혜(破草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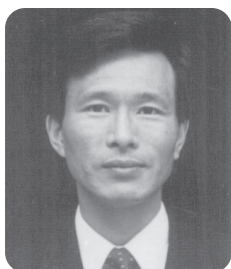
정 경 내

깨달은 자는 헤어진 짚신을 씻어 잘게 찢어
벽 바르는데 애벌로 쓰거나 퇴비로 만들듯이
자신이 가진 고도의 지식이나 삶을 가족이나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 마음의 벽에 애벌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단다.
부전시장에서 떨이를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파초혜 같다는 생각을 했다.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수필 |



부산 부산진구청
정 경 내

추억을 더듬는 일 '사람은 시간의 강을 노 저어 가는 나그네다.' 라고 어느 철학자께서 말씀하셨다. 거기에다 하나를 더한다면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추억이 아닐까 싶다. 가끔씩 추억을 더듬어 글로 만들어 보곤 하는데 그 졸작을 뽑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글 쓰는 일, 바로 추억을 정리해 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파초혜(破草鞋)

시장하면 어릴 적 시골에서 댕새마다 한 번씩 들어서는 시골장이 퍼뜩 떠오른다. 장이 들어설 때면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머니께서 사 줄지도 모르는 풀빵이나 떡 등 막연한 먹거리가 연상된다. 그리고 댕새 만에 돌아오는 장날에는 장을 기웃하지 못하면 안달이 나는 이른바 장돌뱅이 병을 앓곤 했던 기억이 있다. 마술을 보여 주고 사람을 모아 생활 잡화를 파는 방물장수며 걸쭉한 말솜씨에 배꼽을 거머쥐게 만드는 약장수며 이따금씩 입으로 불을 뿜어내던 차력사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성 도시인은 이제 대형 유통 점포의 등장으로 그런 옛날 시골장의 풍경은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가끔은 지금의 시장에 옛 시골풍경이 생겨난다면 어떨까? 자문해 보곤 한다. 아련한 시골 장에의 기억을 더듬거나 향수를 찾아 보려는 미련일지도 모른다.

직장이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부산진구의 부전시장 인근이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시장으로 크고 작은 식당은 물론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가 싱싱하고 싼 먹거리를 찾아 즐겨 장을 보던 곳이다. 아마 부산에서 부전시장보다 싱싱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곳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전시장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활력과 인정 그리고 사람 사는 향기를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며 아련한 옛 시골장터를 연상시키는 곳이다. 이른 아침에 부전시장을 지날 때의 풍경은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곳의 아침 모습은 일상의 시작임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이 생기가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손수레에 배추, 미나리, 양파, 상추 등의 야채와 어물 등 먹거리가 실려 시장을 보려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리저리 빠져나가 소형 트럭에 실려진다. 아침 시장을 보다 적당히 배가 고프 사람들은 시장 한편에 있는 가게에서 호박죽이나 국수를 먹는 모습은 어릴 적 시골 장과 같이 그리 낯설지 않다.

어릴 때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고사리 손으로 잡고 따라가다 한 그릇 사 준 호박죽이나 국수를 꿀맛으로 먹던 바로 그 모습이다. 이곳에서 실려나간 야채들은 점심 때 식당에서 만나거나 저녁 때 우리 집 저녁 밥상에서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 요즈음 유통 구조상 현대인들은 대형 유통 점포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옛스러운 시골 장의 일면이 남아있는 재래시장의 풍경을 구경하거나 아이들 또한 예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 시골장터를 따라가 보았던 신기한 모습이나 맛난 먹거리의 맛을 느끼지 못함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뿌연 아침 안개를 헤치고 아침 일찍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과 시장 길을 바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먹거리

를 제공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활기찬 시작을 알려 주는 전령사와도 같다. 이런 모습은 바로 삶 자체를 여과없이 보여 주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늦은 저녁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린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거리를 챙기다 문득 사무실 옆에 부전시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의 저녁을 해결해 줄 수 가지의 먹거리가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호박죽, 잡채, 순대, 튀김, 선지국수 등의 군침 흐르는 먹거리들이 나를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시장을 걸으며 먹거리를 작성할 요량으로 시골장터의 파장격인 시장거리를 걷는다. 이곳은 바로 아침에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떨이를 외치며 지나는 아주머니의 치마 자락을 당기는 채소 파는 할머니.

“어소 오소. 떨이요!”라며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자식들의 챙겨야 할 생선장수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음성이며 작은 손수레에 실린 나프탈렌을 파는 방물장수 아저씨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풍경을 지나쳐 부전시장 인근의 서면 지하상가를 걸어본다, 이곳은 조금 전에 내가 걸었던 재래시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규격화된 점포, 유리로 가지런히 정리된 유리전시장, 진한 화장을 한 판매원의 모습이 그렇다.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도 재래시장의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알록달록한 옷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모습이 인공미를 뽐어낸다.

문득 이 지하공간은 더 이상 인간미가 아닌 인공미로 가득한 숨이 막힐 것 같은 공간이란 생각이 든다. 열린 출구를 나와 다시 부전시장 앞을 지나 사무실로 돌아올 때, 문득 내게 풍기는 비릿한 생선과 좀 지난 야채 냄새가 역겹기 보다는 차라리 삶의 향기로 다가온다.

그리고 아직 떨어를 다 못한 아주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파초혜 같다는 생각을 한다. 파초혜(破草鞋). 헤어져 신발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다 닳은 짚신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오래 신어 너덜너덜한 짚신으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짚신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헤어진 짚신을 씻고 잘게 썰어 벽 바르는데 애벌로 쓰거나 퇴비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깨달은 자는 헤어진 짚신을 씻어 잘게 썰어 벽 바르는데 애벌로 쓰거나 퇴비로 만들듯이 자신이 가진 고도의 지식이나 삶을 가족이나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 마음의 벽에 애벌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단다.

부전시장에서 떨어를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파초혜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무실 옆의 부전시장은 파초혜를 생각하고 내 어린 시절 고사리 손으로 어머니의 따스한 손을 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라 걷던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휠체어에 꿈을 심는다

김 대 섭

이런 열악한 몸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며
지방에 계신 노부(老父)는 기적이라 하고,
나이 어린 장애인 친구는 멀리서 나를 롤모델(role model)이라 하며,
바로 곁에서 보는 직원들은 나를 안쓰럽게 바라본다.





서울 성북구청
김 대 섭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식상한 문구를 나이 서른이 훌쩍 넘어서야 진리로 받아 들입니다. 조금은 남루한 제 처지를 두고 혹자는 억지라 의심도 하겠지만 저는 행복한 바람을 맞으며 날마다 기쁜 삶을 거둬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졸작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칭찬이 더해지니 월척을 낚은 듯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요. 애써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휠체어에 꿈을 심는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기적이라 하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롤모델(role model)이라 하며, 누군가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본다.

1년 4개월, 애증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예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청사로 들어섰다. 그날은 마치 CG로 처리라도 한 듯 햇살이 육각모양으로 내리쬘고 그림자조차 숨긴 채 눈이 아린 원색으로 세상이 도배되어 있었다. 그에 힘입어 테세우스처럼 나는 필시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고자 했건만 실은 거적때기가 벗겨질까 꼭 부여잡은 소인배로 요동치는 심장을 짝 깨물고 있었다. 낮익은 얼굴의 민원 안내도우미가 나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이 맞아주었다. 아…. 아니었다. 나는 너무도 꼼꼼히 그녀의 표정을 살피고 말았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애써 씩씩하게 응원하고 갔던 직원들의 표정, 딱 그것이었다. 첫 대면을 그렇게 마치고 안으로 향하다보니 여기저기 아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얼굴에 살이 빠져서 그런지 아니면 단지 휠체어만 보였는지 많은 직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고 간혹 알아보는 직원들은 대부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좀 전의 안내도우미가 지었던 표정을 따라했다.

그랬다. 나는 어머니의 산고 끝에 세상의 빛을 본 후로 33년간 정상적으로 살아왔지만, 그 긴 시간이 무색하게도 아주 짧은 찰나의 사고로 사지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지체1급 장애인이 된 것이다.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도 대견하리만치 열심히 재활에 힘쓴 기간도 있었고, 장애라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던 중에 사기까지 당해 너덜해진 정신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3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용서’라는 관문을 지나 복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헌데, 내 스스로는 마음의 근육이 꽤 단련됐다고 생각했건만 아직 많이 모자란 모양이었다. 이리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아무튼 그 무리들을 스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마침 나처럼 전동휠체어에 앉은 한 여성이 시야에 들어왔다. 몸이 약간 뒤틀린 채 허름하게 앉아있는 그녀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마비 같았다. 난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휠체어를 몰아갔다. 난 달라. 저 친구랑 나는 다르다고. 괜히 곁에 있다가 같은 무리로 보여질까봐 나는 그녀를 피해 전동휠체어를 끌고 바깥으로 달려 나갔다. 얼마나 갔을까. 옆으로 날 따르는 휠체어가 자꾸 눈에 거슬려 고개를 돌려보니 그건 거울같이 잘 빠진 건물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한참을 바라보니 아까 봤던 그녀와 하나 다를 것이 없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마치 몸살에 걸린 것처럼 불덩이 같은 열이 올라왔다. 부끄러웠다. 장애인이 됐음에도 나와 같은 다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

인 그대로였던 것이다. 내가 이럴진대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오죽하랴. 나는 급히 뒤돌아서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일부러 그녀 옆에 찰싹 붙어 마음 속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자세히 보니 그녀와 난 정말 달랐다. 하지만 지금 다름의 의미는 좀 전에 느꼈던 차별이나 인식이 썩은 내가 아닌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여러모로 나와 다른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예전에 그랬듯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그녀나 나나 아마 다 똑같아 보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강원래씨의 장애정도가 나보다 얼마나 덜한지, 서울대 이상묵교수가 나보다 얼마나 더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저 그들 눈에는 똑같은 휠체어일 뿐이고 이 셋의 삶의 질이 몇 배 아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때로 TV에 나오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다가도 비슷해 보이는 모든 장애를 동일시하며 노력해보라는 어쭙잖은 충고에 쓴 메시지를 뱉어버리곤 했었다.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생각에 빠져있는 중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그녀가 어눌한 말투로 “먼저 타세요.” 그린다. “아네요. 먼저 타세요.”라며 휠체어 두 대가 한꺼번에 탈수 없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먼저 자리를 잡은 그녀에게 당연한 양보를 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꽉 차고 문이 닫히고 있었다. “잠깐

만요. 여기 타야 되니까 좀 내려주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입 밖으로 뱉지 못했다.

저 사람들은 뭘 해줘도 더 달라고 계속 떼를 쓴단 말이야. 다치기 전에 근무를 하면서 그들, 아니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선지 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강제적 배려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싶지는 않았다.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 내가 복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활동지원제도, 교통편의 등등 모든 혜택들이 내가 멀리했던 분들의 노력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쌈쓸함을 뒤로하고 인사부서를 거쳐 배치된 사무실로 향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다소 냉소적이거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일부 직원들의 표정이 눈에 더 크게 들어왔다. 내 책상을 차지하고 앉으니 감격으로 눈동자가 잠시 촉촉해졌다. 옆자리에 앉은 직원이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줄 모르고 내게 장애인전용화장실 위치를 친절히 알려줬고, 가끔씩 강직으로 손발이 떨리면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손에 보조기를 끼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을 힐끔힐끔 곁눈질로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다. 내게 주어진 업무는 다치기 이전에 내가 인정받았던 종류와는 달리 자료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아주 소량의 단순한 작업이었다. 다소 실망이 되기도 했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배려라고 좋게 생각

했다. 복직하던 첫 날, 나는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과 경험들을 싸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른 아침마다 불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일상을 향해 출근하고 있다. 이제야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나는 그것을 너무도 사랑한다. 아직 직장에서도차 나에 대한 무지와 편견, 경계를 완전히 깨트리진 못했지만 많은 직원들이 나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가끔은 부끄러운 소변주머니도 비워주고, 업무량도 늘어 퇴근시간을 맞추기 벅찬 것이 뿌듯하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확실히 경제적인 면이 우선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곤충은 번데기에서 스스로 깨어나지만 개미 번데기는 어미가 고치를 찢어줘야만 탄생한다고 한다.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 대부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세상에 나오기 힘든 개미 번데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회가 어미개미처럼 고치를 찢어준다면 더 많은 일개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사회의 배려와 인식의 개선은 비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 직종의 범주만 봐도 공무원과 고객들, 중앙과 지방, 또 업무가 다른 부서 간에도 서로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세상은 제각각으로만 열심히 굴러가는 비효율적인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내 마음의 자세는 이전에 비해 많이 바뀌어져 있다. 적어도 내가 대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힘을 잡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마음들이 퍼져나가면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갈때기 끝으로 모아져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따뜻하게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꿈을 꾼본다.

이런 열악한 몸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며 지방에 계신 노부(老父)는 기적이라 하고, 나이 어린 장애인 친구는 멀리서 나를 롤모델(role model)이라 하며, 바로 곁에서 보는 직원들은 나를 안쓰럽게 바라본다.

그렇게 시선의 원경(遠境)과 인식의 깊이에 따라 같은 대상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는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단편 소설

|은상| 청풍명월(淸風明月) 서울 종로구청 이주문

|동상| 살기좋은 도시 부산 항만관리사업소 이병호

어느 상록수의 꿈 전) 국가정보원 강현택

울음소리 법무부 전주소년원 정명선

하노이의 눈물 전) 춘천 봉의고등학교 장대연





청풍명월(淸風明月)

〈부제 : One week's 無名氏〉

이 주 문

정임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의 열정을 일부러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씨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은란은,

살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상처를 입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울 종로구청
이 주 문

이른 아침, 메시지 수신을 알리는 휴대폰의 진동음…… 승전보를 올린 잔다르크가 된 것처럼,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감격한 저는 출근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일주일을 담아내며 잇따른 자살로 기운 빠진 동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뛰. 는. 심장으로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 맞서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만큼 세상도 변해 줄 거라고 믿으며!

청풍명월(淸風明月)

〈부제 : One week's 無名氏〉

#1. 淸月 맑은 공기의 월요일

이쯤 되니, 피식하고 웃음이 다 나왔다. 늘 즐거움으로 가득한 일상은 아니지만 오늘도 은란은 보통의 삶, 그 한 복판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며 한 쪽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만 은란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씻어내지 않은 땀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마르기를 반복해서 땀의 증화를 이뤄낸 이 눅눅한 냄새의 주인공은 오늘도 은란의 눈앞에 섰다. 슬그머니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말이다.

“또 술 마시고 오셨네요? 술 마시고 오시면 제대로 상담이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술이 좀 깨면, 그때나 다시 오세요!”

자신이 뭐라고 운을 떼기도 전에 날아간 은란의 선공에 강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내 풀린 동공을 추스르며 말을 시작했다.

“술이야, 어제 밤에 마셨지. 오늘은 안 마셨어……”

끝말을 흐리며 강씨는 은란의 앞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슬며시 그의 냄새도 따라왔다. 형언할 수 없는 혼탁하고 고약한 냄새가 은란의 코 끝을 자극했다. 은란은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려는 것을 강한 의지로 끌어내리며 예리하게 부릅뜬 눈으로 강씨를 노려보았다. 은란의 따가운 눈총에 강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왜? 나한테서 술 냄새가 나나?”

강씨는 두 손을 모아 자신의 입을 감싸고, 숨을 후후 불어대며 코로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아냈다. 오래 묵은 땀 냄새, 지난 밤에 마셨다는 술 냄새, 30년은 족히 피웠을 담배로 니코틴의 노린내까지…… 고약한 냄새의 정체로 여겨지는 악취계 3단 콤비가 강렬한 트위스트를 시작하면서 냄새는 이내 사무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은란은 코를 쥐고 인상을 찌푸리고 싶었지만 호흡을 최소화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또! 도.대.체. 왜! 오신건지? 말씀은 한번, 해보세요!”

은란은 우선 코로 호흡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입으로만 숨쉬기가 힘들었던 그녀는 절도있게 말을 끊어서 뱉어냈다. 더불어 상대가 눈치 챌 수 있게 은란의 못마땅한 감정을 적당히 흘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강씨는 곱지 않은 은란의 시선을 피하며 끝내 고개를 떨

구었다. 자신이 어떤 핑계로 온 것인지 그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다. 당장이라도 으름장을 놓을 것 같은 은란의 빨간 눈에 주눅이 들었는지 강씨는 이유가 생각나면 다시 오겠다며 뒤돌아 나갔다. 공기의 정화는 서서히 진행됨을 은란은 알고 있었다. 은란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맑은 4월의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고작, 월요일 아침 9시 30분이었을 뿐이었다.

강씨는 은란이 근무하고 있는 효자동주민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는 오십 평생 결혼을 해본 적도 없었고,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도 전혀 없었다. 술에 의지해 젊은 시절을 보내다보니 손 떨림, 어지럼증, 알코올성 정신질환까지 얻어서 결국 그나마 하던 막노동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수년 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발령을 받아 의욕이 충만하던 시절의 은란은, 야심차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그것은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 알코올성 질환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급자에서 중지되는데 알코올성 질환자의 특성에 따라 진단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알코올 중독의 사람들은 낮에도 늘 취

해있는 상태라 특히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가족들도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다. 대화 자체가 어렵다보니 서류 제출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술에 더 취해서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때의 은란은 그들이 술을 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부 알코올성 질환자를 모아 금주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맨 정신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은란과 상담을 하고, 문 열고 나서기가 무섭게 곧 바로 소주를 사 마시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일이란 게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았다.

이제 막 입사한, 경험도 없는 복지담당이, 지 까짓게 하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어설프게 의욕에 넘쳐 프로젝트를 벌이는 동안 짐짓 그녀의 장단에 맞춰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제법 있었던 모양이었다.

진짜 속내를 다른 사람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은란은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희망이 반짝이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은란은 그때 강씨에게도 술을 끊다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 스스로 조금씩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립하게 된다면 결혼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함께 잘 해보자고 말했었다. 하지만 은란의 관심과 지지만으로 지독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그들이 처

음부터 은란이 ‘당근’으로 제시한 이웃돕기 후원금을 받기 위해 술을 잠시 끊어낸 척 연기했던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은란 역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평생을 걸어 그들의 음주 관리를 24시간 따라다니며 한다고 해도 정신과 의사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것을 시도한 은란의 무모함도 무모함이었지만,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벽찬 업무의 양이라는 현실적 무게와 알코올 중독이라는 무서운 족쇄에서 그 누구도 구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서 은란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다. 은란은 이후 문제되는 대상자를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 그 일을 계기로 은란조차 알코올 중독이 될 뻔 했었다.

그런데 저 남자, 강씨는 그녀로부터 해방(?)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전히 은란을 찾아오고 있었다. 강씨는 은란이 함께 잘 해보자고 했던 의미를 >> ‘자신과 잘 해보자는 의미’로 해석했으며, 술을 끊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를 >> ‘은란이 결혼도 해주겠다는 의미’로 나름대로 해석했다. 강씨는 그녀 때문에 술을 먹지 않으려 한 때 노력했는데(결국에 그도, 술을 끊지 못했다) 은란이 순진무구한 총각인 그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며…… 처음에는 은란을 향해서 거친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르며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다. 그로 인해 몇 번이고

경찰차가 달려와 그를 태워간 후, 강씨는 점차 흥분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그는 은란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인지 번번이 말도 안 되는 건수를 만들어 찾아오곤 했다. 그나마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면 머뭇거리다 은란의 매서운 눈빛에 주눅이 들어서 돌아갔고, 술이라도 마시고 오는 날엔 경찰을 부르지 않을 만큼 수위를 조절하며 한 두 시간 넘게 횡설수설을 하다가 돌아갔다. 은란은 그런 강씨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설픈 열정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한없이 쓸쓸하고 슬퍼졌다.

아침 10시경, 최씨 할머니가 은란을 찾았다. 오늘도 최씨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은란의 보폭으로는 족히 10분이면 될 거리를 1시간은 걸려서 걸어왔다.

“아가씨, 나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 너무 힘들어서…… 공사는 언제쯤이나 되는 거야?”

최씨 할머니는 할썩할썩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최씨 할머니는 유독 반복화법을 즐겨 썼다. 지난주에 이미 은란에게 했던 말을 오늘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네, 할머니님. 제가 지난주 화장실 공사랑 집수리를 요청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댁까지 방문해서 이미 사진까지 다 찍어 갔잖아요.”

“그러니깐, 그게 언제쯤이나 되는 건지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구청에서 검토해보고 연락주실 거예요. 집수리 공사라는 게 하루 이틀 내에 딱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그게 언제쯤이나 되는 건지 해서……”

은란은 자신도 모르게 한쪽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최씨 할머니의 반복화법은 나름의 재미로 여겨질 때도 많았지만 가끔 은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했다. 지난주에 이미 수없이 설명한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란은 억지로 한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흠,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최대한 빨리 수리해달라고 구청 담당에게 부탁해놨어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넉넉히 기다려 주셔야 할 거예요. 불편하셔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란은 최씨 할머니가 지난 주말 내내 공사를 기대하고,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이 몇 마디를 물어보기 위해 1시간을 넘게 걸어서 도착한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밀려온 짜증을 애써 티 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씨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 대답했다.

최씨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몇 년 전 쓰러진 이후, 뇌수술까지 해야만 했다. 다시는 눈뜨지 못할 줄 알았던 세상을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지만 아직도 남들처럼 성큼성큼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지팡이 하나

에 의지해서라도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것에 최씨 할머니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주, 최씨 할머니는 불편한 다리로 오래된 한옥집의 와변기에서 쪼그려 앉아 불일을 보는 것이 힘들다면서 은란을 찾아왔었다. 몇 년 전부터 주변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터라 강남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곧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집의, 6년간 전세 1,500만원에 살고 있는 문간방 세입자를 위해 굳이 화장실을 뜯어내 양변기로 교체할 이유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은란은 1~2년 안에 쉽사리 재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을 것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집수리 사용승락서를 받아 집수리를 요청했다. 최씨 할머니는 몇 년을 참았던 불편함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 공사가 금방이라도 시작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처음 공직자로 일을 시작할 때, 은란의 선임은 은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어설픈 친절’을 베풀 거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하느니만 못 한 거라고 말이었다. 당시 은란은 선임의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무덤덤함, 일에 대한 특별한 열정 없음,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비난을 읊조렸다. 그래서 자신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알코올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그리 몇 해를 보내면서 은란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원래 인간의 욕구란 게 끝이 없는 것이다 보니 바

라는 것을 하나 채우면 다른 것을 바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의 선부른 열정으로 시작한 일들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그로 인해 정작 챙겨야 할 일을 놓치면서 인간적 실수와 경험이 쌓이며 선임의 조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씨 할머니를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은란에게 더욱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처 입게 마련이다. 은란은 공무원이었다. 뜨거운 피를 나눈 살 같은 자식도 아니고, 사회복지마인드로 철철 넘친다는 민간의 사회복지사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평생 그들의 인생을 그녀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현실적 복지업무의 영역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넓어지고 있었다. 은란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수백의, 수천의 대상자를 상대해야만 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법적기준 내에서 지원해주는 일조차도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결국에 은란은 괜히 어설픈게 따뜻한 말이나, 감당할 수 없는 오지랖을 펼쳤다가 오히려 생각지 못한 상황을 초래시킬 수도 있음(강씨의 경우를 통해서라도)을 익히 경험하여 알게 된 적당한 내공을 가진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 있었다.

은란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최씨 할머니에게 시선을 떼고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린 채 심드렁하

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공사가 결정되면 바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으로 전화를 주세요. 다리도 안 좋으시면 서……”

“으응, 난 괜찮아. 운동 삼아서 걷는 거니깐, 의사선생도 많이 걸어야 좋다고 해서. 그냥 운동 삼아서 걷는 거니깐 괜찮아.”

마지막 말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은란은 속으로 작은 후회를 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은란은 일부러 사무적인 느낌이 들도록 말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수리 센터에서 미리 잡힌 공사일정도 있을 테고 공사 견적도 뽑아야 할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려 주세요.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오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주세요.”

“아냐, 괜찮아. 운동 삼아서 걷는 거니깐, 의사도 많이 걸어야 좋다고 해서. 난 그냥 운동 삼아서 쉬엄쉬엄 걷다가 들리는 거니깐. 괜찮아.”

최씨 할머니는 은란이 신경 써서 뱉은 사무적인 말투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반복화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마치 메아리가 메아리끼리 몰라보고 서로를 받아내는 것처럼 반복되는 대화는 쭉 이어지고 있었다. 은란은 최씨 할머니의 뒤로 아까부터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연신 쳐다보고 있는 주민의 눈치가 보였다. 잠시 고민하던 은란은

최씨 할머니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먼저 작별 인사를 던졌다. 최씨 할머니는 조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저 느린 걸음걸이로는 다시 1시간은 걸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은란은 걱정을 마음에서 치워내고 다음 상담에 집중하려 애썼다. 효자동 주민센터에 그녀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백 여 세대가 넘었고,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에서부터 각종 바우처, 보육료, 양육비 신청을 위해 매일같이 찾아오는 주민들까지…… 모두가 오롯이 은란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반복되는 행정업무에, 가정방문에, 전화와 내방 상담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삶의 굴곡에 대해 거침없이 포효하며 은란에게 자신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내야 했다. 그렇다보니 각자의 사연이 가득한 그들 모두를 그녀의 마음처럼 온전히 돌볼 수가 없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이기 이전에 은란도 인간이었다. 은란은 특히나 자신의 마음이 유약한 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은란은 그렇게 사라지는 최씨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은란은 대학시절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실습을 통해서
예 사회복지사에게 기대하는 사명감에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며 사회복지는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단정을 지어버렸다. 전공서적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미묘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은란은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자신을 던졌다 끝내 상처 입은 채 돌아 나오곤 했다. 늘 첫째도 막내도 아니었던 어중간하게 둘째로 자라난 은란은, 그런 자신의 어정쩡한 성향이 특히 사회복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늘씬하게 잘 빠진 초승달이 보름달의 농염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선명한 빛을 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밤하늘을 유독 바라보기 좋아했던 은란이 땅을 보며 걷는 날이 많아졌다. 노곤한 하루를 마감하기 급급해 언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몰라 은란은 낮은 거리에 서서 쫓겨 나는 초승달을 한참동안이나 올려다 보았다.

#2. 風化 바람의 화요일

혹시 화병인 것일까? 아침부터 심장을 통해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져 은란은 오른쪽 가슴에 손을 대 보았다. 폐로부터 들락거리는 호흡도 짧아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러다 아침에 영영 눈을 못 뜨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차라리 그렇다면 더 편안하지는 않을까? 잠시 어두운 생각이

들었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떠오르자 얼른 고개를 저었다.

은란이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는, 밤새도록 신경이 쓰이는 수급자의 얼굴과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혹 밤새 그 허름한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아픈 몸에 어디서 비명횡사라도 하지 않을까, 독거 어르신이 이미 돌아가신 채로 며칠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상상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살이 뒤져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은란의 동기 역시 그녀와 같은 증세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다. 얼마 후, 그 동기는 정신적 피폐함이 신체로 번졌던 것인지 면역력이 약해진 틈에 수급자에게 옴은 폐결핵을 앓게 되어 끝내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그 후 동기는 독한 약으로 인한 후유증 탓인지, 지금까지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병아리 시절의 은란은 두려워졌다. 그녀도 업무스트레스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하루에 수 십 번을 그만둘까를 망설였다. 그렇지만 쉽게 그만두기엔 젊음과 돈을 연소했던 노량진에서의 시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몇 개월을 견뎌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둔다면 다른 일이라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두가 편하다 생각하는 공무원 세계에서든 인내하지 못한 실패한 인간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몇 개월을 버텼다. 그럴 때마다 은란은 일부러 노량진역에 내려서 오래되어 흔들리는 육교 중앙에 서서 처음에 고시학원을 수강했던 그 날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곤 했었다.

“은란아, 안 일어나냐?”

침대위에서 뒤척이고 있는 은란을 깨우기 위해 엄마가 방문을 열었다.

“어, 일어나. 나 이미 일어났어.”

“다 늙은 엄마가 아직까지 자식을 깨워야 하는 거냐? 얼른 일어나.”

엄마는 방문을 나서며 매일 같은 소리로 은란을 깨웠다.

“내일은 지각하든지 말든지 절대 안 깨운다.”

은란은 내일은 깨우기 전에 꼭 먼저 일어날 거라며 비로소 몸을 일으켜서 엄마의 잔소리에 대항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은란은 엄마가 먼저 방으로 깨우러 오게 한 적이 없었다. 늘 알아서 일어나 학교 가던 착한 딸이었던 은란은 언제부턴가 엄마를 고생시키는 딸로 변해 있었다.

화요일, 아침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은란은 10시가 될 때까지 전화 1통 밖에는 받지 않았다. 이런 날은 오후에 갑자기 폭풍처럼 일이 몰리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런 한가한 날도 있기 마련이니까…… 은란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아침에 타놓은 커피가 식기 전에 마신 적이 없었는데 모처럼 뜨거운 커피 한잔을 다 마시고 은란이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효자동주민센터 채은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폭발물 처리반입니다. 폭탄이 발견

됐단 신고를 받고 전화 드렸습니다.”

“에? 뭐라고요?”

콧방귀가 나왔다. 오랜만에 걸려온 장난전화다. 은란은 어이가 없어 비웃으며 옆에 앉은 동료에게 이제는 하다하다 폭탄이 나왔다는 전화도 왔다면서 수화기를 그대로 내려놓았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 또 전화했나봐?”

은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폭발물 처리반입니다. 폭탄신고를 받고서 전화 드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생님, 장난전화 하지마세요!”

은란의 옆 동료는 장난전화가 다시 걸려온 것을 확신하며 피식거렸다.

“장난전화 아닙니다. 오전 9시 15분경, 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 옥인동 공사 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0시 30분까지 동 주민센터에 회의실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회의실이요?”

은란은 뒤돌아 서무주임을 불러 전화를 바꿔주었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솟아올랐다. 서무주임은 전화통화를 하자마자 동장실로 들어갔다.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들까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지 은란의 주위로 하나 둘 모여 들었다.

“은란씨,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폭탄이 나왔다는데. 공군의 무슨 처리반이 온대요.”

“폭탄? 영화에서 보면 특수부대 같은 게 와서 해체하지 않나?”

“공군? 왜 공군이 오는 거야?”

“공사현장에서 땅을 파다가 폭탄이 나왔다는데 어째서 공군이 올까요? 하늘은 공군이, 땅은 육군이, 바다는 해군이 지키는 거잖아요.”

은란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근데 공군은 여기로 전투기 같은 거 타고 오는 거야?”

“비행기? 헬리콥터? 의외로 탱크를 타고 올지도 모르죠.”

“은란씨, 공군이 뭐 타고 온다고 했어?”

“저야 모르죠. 자세한 건 서무주임님이 통화하셨어요.”

은란의 주변에 모인 직원들은 저마다 웅성거리며 궁금증을 빈약한 상상력으로 풀어내다 서무주임이 동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동장실에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직원여러분, 여기 뒤편 옥인동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다가 폭탄이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전투기에서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발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공군에서 출발했

다고 하고, 미군도 곧 출발한다고 하니 서무주임은 지하에 회의실을 마련해두고, 직원들은 주민들이 미리 알고 동요하지 않도록 회의가 다 끝날 때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는 짧게 종료했다. 곧 바로 소방서, 경찰서, 구청에서 폭주하듯 전화가 걸려왔다. 서무주임 역시 회의실을 정리하고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몹시 분주해 보였다.

21세기에, 6.25 전쟁 때의, 미국산 폭탄이라니! 은란은 배시시 웃음이 났다. 대개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오면 당장은 실감이 나지 않기 마련이다. 몰래카메라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옆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꺾꺾 거리기까지 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은란은 두렵거나, 민망하거나, 실감이 나지 않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다 웃음까지 나는 버릇이 생겼다. 가끔은 은란도 왜 웃음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웃을 때가 있었다.

몇 분 후, 군복을 입고 온갖 장비와 무전기를 장착한 공군부대가 한 무더기 나타나 지하실로 내려갔고, 곧 커다란 덩치의 백인과 흑인으로 구성된 미군부대까지 도착했다. 구청에서도 부구청장과 행정국장, 그리고 인근 동 대장까지 부산스럽게 지하 회의실로 내려갔다.

아침 10시 50분이 되자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올라온 공군 중령이라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직원들을 향해 명령을 내

렸다.

“지금 이 시간부터, 효자동주민센터를 폐쇄합니다. 모든 문을 닫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폭탄을 해체하는 동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폭탄 발견 지점 200미터 이내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진입로를 통제할 것입니다.”

그제야 은란은 제대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청와대 옆, 도심 한복판에서 진짜로 폭탄이 발견된 것이다.

“서무주임과 차량주임은 관용차를 타고 대피방송안내를 하기로 했고, 직원들은 지역을 4개조로 나눠서 집안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대피를 시켜주세요. 주민 대피 장소는 청운초등학교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시받은 지역으로 가서 진입로를 통제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동장이 직원들이 할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주민을 모두 대피시킨 후에 폭탄 뇌관 해체작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대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함께 있을 겁니다. 폭탄이 터질 위험은 아주 희박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가급적 인근 주민 모두를 대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서무주임이 직원들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리고, 한두 명의 비상전화를 받을 직원을 놔두고 은란과 다른 동료들은 밖으로 나왔다.

맑고 청명한 날씨의 4월말, 따사로운 햇빛 아래에 동 주민센터는 폐쇄되었다. 그때, 은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씨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걸음으로 적어도

2시간은 걸려서야 이 장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금방이라도 폭탄이 터진다면 이 주변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그 느린 걸음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은란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다시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서 최씨 할머니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늘 그렇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씨 할머니는 평소 아침 9시면, 운동 삼아 집주변을 걷기 시작해 점심때가 되어야 집에 돌아와 전화를 받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씨 할머니의 집으로 은란은 미친 듯이 뛰어갔다. 그러나 대문을 힘차게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밖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앞집 아주머니가 나오며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안녕하세요. 전 동 사회복지담당인데요.”

“알쥬. 지금 최씨 할머니 집에 없는데?”

“네. 지금 동 주민센터 뒤에 신축공사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되어서요. 폭탄해체를 하다가 터질 수도 있으니 동 주민센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분들은 모두 청운초등학교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폭탄이 터지면 200미터 내에 파편이 바람에 날리듯 퍼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머니는 별다른 동요없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최씨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주머니도 얼른 대피하셔야 해요!”

“할머니야 매일 아침마다 마실 나가시잖아요, 아마도 잘 피해서 계실 거예요. 전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 있겠어요.”

“아주머니, 긴박한 상황입니다. 얼른 대피하셔야 해요.”

“난 괜찮아요. 어차피 죽는다면 그냥 집에서 죽을래요. 아가씨를 원망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가세요.”

앞집 아주머니는 실감나지 않았던 처음에 은란의 반응처럼 웃음까지 흘리며 귀찮다는 듯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다시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주머니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은란은 식은땀이 온몸을 감싸오는 것을 느꼈다. 최씨 할머니는 어디를 돌아다니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저 아주머니는 왜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단 말인가, 은란은 그 자리에서만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종종거리다 말은 지역의 집을 하나 둘 찾아다니며 벨을 누르고 대피를 안내했다. 멀리서 익숙한 민방위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대피를 독려하는 안내방송이 퍼져오고 있었기에 먼저 집에서 나와 대피하는 주민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밤샘 근무를 하고 이제 막 집으로 귀가한다는 한 아저씨는 피곤하다며 은란의 팔을 뿌리치고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금 문을 뜯어내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폭탄이 반드시 터진다고 무작정 겁을 줄 수도 없었다. 평일오전, 가가호호 벨을 누르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도 출근하러 나간 사람들 덕(?)인지, 방송을 듣고 알아서 대피한 사람들 덕(?)인지, 벨소리에도 화답하지 않은 빈집이 제법 많았다. 땀이 범벅이 된 채 은란이

맡은 지역의 주민들을 거의 대피시켰을 때 어느새 거리는 한적해졌고 텅텅 빈 집들 때문인지 동네 전체가 유령도시처럼 적막하게 느껴졌다.

정오를 넘어 오후 1시가 가까이 되고 있었다. 은란은 대피를 거부한 주민들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한 후, 다른 직원과 진입로 통제를 다시 지시받았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나올 주민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골목 입구를 지켜야 했다.

“은란씨, 근데 만약 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겠죠? 여기는 폭탄 발견지점에서 50미터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겁도 별로 안 난다.”

“그러니깐 대피를 하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대에 폭탄 파편에 맞아 죽을 거란게…… 전혀 실감이 안나요. 근데 조금 억울하긴 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서 있는 걸 아무도 몰라 줄 테니 말이에요.”

“하긴, 다들 공무원이니깐 당연한 거라 생각할거야.”

“그렇긴 하지만…, 걱정하실까봐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못했어요.”

은란은 거리에 서서 열두시 방향에서 쏟아지는 정오의 태양을 그대로 받고 서 있었다. 계속 쫓겨 할머니를 신경

쓰고 있었던 탓인지, 따가운 봄볕으로 인한 탓인지, 인상을 쓴 은란의 미간사이로 깊은 주름이 잡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양산이라도 가지고 나올 걸…… 어차피 죽을 거면 타는 게 대수냐…… 최씨 할머니의 나무젓가락 같은 얇은 다리로는 남들처럼 견지 못 하실 텐데…… 온갖 생각들이 은란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며 주름은 한동안 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집에 있겠다며 들어가 버린 앞집 아주머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이 설득은 잘 했을까? 만약 폭탄이 터져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 걸까? 어차피 나도 죽게 되면 상관없는 일인가…… 땀을 흘리며 서있는 은란은 상상력에 불을 지핀 듯 피어오르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오겠습니다.”

함께 대기하던 경찰이 잠깐 다녀오겠다며 도로변으로 나갔다.

“지금 혼자만 도망가는 거 아닐까?”

동료는 은란을 찌르며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크크, 혼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은란은 웃음으로 혼란스러운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다.

어쩌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 물론 폭탄이 터질 위험은 거의 없다 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서 있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은란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오후가 바람처럼 빠

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그때, 돌연 어떤 남자가 은란과 동료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 했다.

“선생님, 지금 옥인동 신축공사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뇌관 해체 작업을 하려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청운초등학교로 대피하셨습니다. 여기로 더 진입하실 수 없습니다.”

은란은 폭탄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그를 저지하며 설명했다.

“뭐야? 너희가 뭔데? 나를 내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피장소로 가서 대기해주세요.”

“폭탄이 안 터져서 내가 안 죽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어디서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들이 막는 거야!”

은란을 강하게 밀치며 남자는 진입하려 했다. 때마침 은란의 시야에 멀리서 달려오는 경찰이 보였다.

“폭탄이 해체될 때까지 여기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보기보다 완강히 버티는 은란을 향해 남자는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때마침 경찰이 도착해 그 남자를 은란에게서 뜯어놓았다.

“이게 뭐야! 경찰까지? 너희 모두 한패였구나. 이렇게 온 동네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안에서 도둑질이라도 할지 어떻게 알아? 텅 빈 동네에서 정부가 무슨 꿈꿉이를 벌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은란은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의 동공은 이미 흐리멍텅한 상태였다. 그는 가끔 동 주민 센터에 술을 마시고 정신을 놓고 오거나, 정신분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비슷한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무전기로 경찰차를 불렀고, 남자는 경찰차에 태워진 채 사라졌다.

“어머? 은란씨 괜찮아?”

은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정수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햇빛을 받으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봄별에 노출된 채 얼마가 흘렀을까? 은란은 심한 갈증을 느꼈다. 문득 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다.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은란은 뜬금없이 자신이 대단히 멋진 공무원이 된 것만 같았다. 은란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 한쪽 입꼬리를 끌어내리며 막연한 책임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감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근데, 배가 좀 고프다.”

“그러게요. 오늘 점심은 매콤한 낙지볶음이 먹고 싶네요.”

오후 4시 30분이 되자, 폭탄이 안전하게 해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피했던 주민들은 심지어 허탈(?)해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동 주민센터는 다시 문을 열었다.

민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화요일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은란은 낮의 한바탕 사건으로 밀린 업무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되면 야근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십만의 노랑진 수험생들은 젊음을 불태워가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텐데……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그 직장에서 가끔 폭력과 욕설에도 꾀꾀하게 견디며 때로는 112를 누르며 무덤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언론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을 담아내고 있었다. 철밥통, 무사안일, 직무태만, 칼퇴근 등. 그것이 더 실력 있는 공무원을 양산해내기 위한 정부의 엄청난 음모는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해야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려 할 테니까 말이다. 은란도 그랬다. 첫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지쳐버린 탓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회복지학을 움켜지며, 수능이후 다시 불일 없을 거라고 믿었던 영어문법까지 전투적으로 마스터하며 그 정시퇴근이 하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의 방황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가 점차 익숙해지자 은란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유독 많았던 겁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만 봤던 존속 살해, 부녀자 살해를 저지른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막 출소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 살인자를 몇 번이고 상대해보니 수시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사기, 절도, 폭력 등의 단순(?) 범죄자는 이

제 심지어 웃으면서 유연하게 대할 수 있었다.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신문지에 쌓인 칼을 꺼내든 정신이상의 할머니를 코앞에서 대면해도 은란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외에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게 스스로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은란은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듯이 대상자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는 카멜레온 같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변화무쌍한 사회복지 업무에서 나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때때로 롤러코스터 같은 일상을 웃음이라는 방어기제로 승화시키며 즐길 수도 있게 되었다. 가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범한 자신의 대응능력에 감탄까지 하며 일에 대한, 그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병아리 시절의 은란이 열정이란 이름으로 멋모르고 시작했던 것들에 대한 몇 번의 패배감을 맛보고, 믿고 도와줬던 대상자에게 수시로 뒷통수(알고 보니 사실은 관계였던 한부모가정이나, 재산과 가족을 은닉한 채 불쌍한 척 연기를 했던 할머니 등)를 맞으며 그녀는 한명 한명에 대한 오지랖을 점차 줄여나갔고 언제부턴가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의 은란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절제하며 대상자에게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들을 컨트롤하기에 적절한 프로의 모습일 거란 생각을 굳혀나가고 있었다.

#3. 明水 밝은 수요일

수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우울한 비구름은 어제의 에피소드를 모두 씻어 내리듯 비를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비를 뚫고 최씨 할머니는 9시가 되기도 전에 찾아왔다.

“할머니! 어제 어디 계셨어요? 집에도 안계시고.”

은란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반겼다.

“응. 어제 폭탄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랑 국민학교로 피난갔었지.”

“잘 대피하셨었군요. 폭탄은 안 터졌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응. 근데 반찬은? 아직 안 왔어?”

“네? 반찬은 원래 오후 2시쯤에 오잖아요.”

“아직 안 왔어? 그럼 이따 오후에 가지러 올게.”

“네. 비도 오는데 왜 아침부터 힘들게 오셨어요. 전화를 하시지……”

“앞집 아주머니 말이, 어제 아가씨가 걱정하며 다녀갔다길래…… 난 운동 삼아서 나온 김에 들렀지. 의사도 많이 걸어야 좋다고 해서, 의사 말이 자꾸 운동해야 하는 거래서 말이야.”

최씨 할머니는 반복화법을 여전히 구사한 후,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은란은 최씨 할머니가 앞집 아주머니에게 어제 그녀가 다녀간 얘기를 전해 듣고 자신

이 괜찮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쏟아지는 비를 뚫고 평소보다 서둘러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최씨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실감나지 않았던 어제는 다시 시작된 오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하루로 지나가 버렸다. 책상위에는 어제 처리하지 못한 수북이 쌓인 서류와 전화메모가 가득했다. 은란은 심호흡을 하고 일에 매진하려다가 울리는 전화벨소리에 멈칫했다.

“안녕하세요, 효자동주민센터 채은란입니다.”

“여, 보, 세, 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회복지담당이시죠? 언니, 저 자살하고 싶어요.”

“네? 혹시 술 드신 건가요?”

“그래요. 마셨어요.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늘어지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울한 마음에 가끔씩 이런 전화가 걸려오기는 했지만, 이번 주는 유독 다양한 일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은란은 생각했다. 오늘의 주제는 하필이면 ‘자살’이라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소는요?”

여자는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은란은 곧 출발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란은 위급한 상황에 전달하려고 이웃돕기로 기증된 식료품 한 박스를 챙겨 들고 나왔다. 더불어 자살을 하겠다고 광고하는 그 여자의 집을 표시한 지도와 상담 수첩,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은란의 양손은 지도와 수첩, 우산과 식료품 박스로 가득하여 차라리 팔이 6개 달린 곤충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여자의 나이는 올해로 42살,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며 집으로 무작정 와달라고 하니 당장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은란이 여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형클어지고 떡진 머리에 팬티바람으로 은란을 맞이했다.

“언니, 왔어요?”

“근데 어머님, 옷을 좀 입어주시겠어요?”

은란이 민망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여자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방바닥에 앉았다. 방안은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언니, 여기로 좀 앉아 봐요.”

“안녕하세요. 동 사회복지담당 채은란입니다.”

은란이 인사를 하며 방바닥에 앉자, 여자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냉장고에서 야쿠르트를 꺼내 은란에게 권했다. 4월 14일, 유통기한이 이미 열흘이나 훨씬 지나 있었다. 은란은 도저히 마실 기분이 들지 않았지만

일단 웃으며 받아 두었다. 여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엄마와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돈벌이가 없어 쌀이 하나도 없고, 당장 굶어 죽을 바에는 자살을 하고 싶다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은란은 집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스캐닝 하였다. 방안에 가득한 소주병, 아들의 책상위에 가득한 만화책, 술에 절여 무기력해 보이는 여자, 오랫동안 빨지 않아 원래는 흰색이었을 누런 빛이불…… 그렇지만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몇 개의 햄버거 봉지와 방금 음식을 한 흔적이 가득한 부엌은 그녀가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었다. 여자는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여러 번 반복하며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동일한 사연을 3번째 반복해서 들을 때 쯤, 어제 폭탄 때문에 처리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아 여자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은란은 참을성 있게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고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러니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드님은 나이로 보면 사춘기인 것 같은데…… 그 또래 남자애가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가정상담사를 연결해드릴게요. 혹 어머님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방안 구석에 가득한 약봉지를 우연히 발견한 은란이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은란의 시선이 약봉지에 머무른 것

을 확인하자 더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요, 나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병원에를 가도 진단은 안 나와요. 그러니 속상해서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술은, 일주일에 얼마나 드세요?”

“거의, 매일 마시죠.”

“마시게 되면 보통 얼마나 드시는데요?”

“소주로 두 세 병? 몇 병을 마신지 기억이 잘 안나요.”

“혹시 술을 마시고 누구를 다치게 한 적은 없으세요?”

“음,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몇 번 뺐는데, 난 정말 술을 마셔서 때린 건 아니에요. 아들은 내가 술을 마셔서 미쳐서 때렸다고 하는데…그래서 술을 마시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마신 걸 잊어버려서 또 마시게 되요.”

여자는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경계를 넘어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위험군에 속하는 알코올 의존증에 해당될 것 같았다. 일단 사례관리를 의뢰해야 할 케이스인 것 같아 은란은 열심히 메모했다.

“그럼, 일은 전혀 못하시는데, 생활비는 보통 어떻게 마련하세요?”

“가끔 친정에서 용돈을 얻어오거나 여기 옆방에 월세를 줘서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주는데, 그걸로는 진짜 생활이 안 되네요.”

“월세를 줬어요? 혹시 이 집이 어머니 집이세요?”

“네. 근데 이거 공시지가로 일억 일이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이 집을 내놔도 요즘 경기에 살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 팔수도 없구요.”

“부채는 있나요?”

“부채요?”

여자는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하며 되물었다.

“아, 죄송해요. 빚은 얼마나 되세요?”

“빚은 따로 없어요.”

은란의 판단으로는 자가 주택에 월세까지 놓고, 부채는 전혀 없으며, 본인은 아프다고 하나 뚜렷한 질병으로 진단서가 안 나오는, 40대 초반의 이 여자를 도와줄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같이 아이 혼자서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생활비 같은 거 나온다고 그러던데. 나 진짜 죽고 싶어요.”

“알겠어요. 저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도 저소득 기준에 맞는지 우선 조사를 해봐야 해서요. 보통 집이 있으면 재산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아프다는 진단서가 안 나오면 일을 못해도 생활비를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을 할 만한 직장을 알아봐 드리면 어때요?”

“나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해요. 그럼, 그냥 나 쌀이라도 줘요.”

“쌀을 달라고 해서 다 드리진 못해요. 이웃돕기 쌀은 어

려우신 분들 드리라고 있는 건데요.”

“나 엄청 어려워요. 오늘도 쌀이 없어서 죽고 싶었다니깐!”

“에이, 아주머니. 동사무소가 무슨 쌀 집도 아니고 쌀을 무조건 퍼서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아직 어린 아드님도 있는데 죽겠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방문 오면서 식료품으로 드실 거 가지고 왔으니 일단 이거 받으시고, 추후에 조사해서 쌀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알려드릴게요.”

은란은 수첩과 지도책을 들고 일어났다.

“알았어요. 생활비는 안 될 거 같으니 쌀이라도 꼭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언니. 고마워요.”

은란은 집을 나오다 옆 방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겠다고 말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다. 방안 가득 담배연기와 술에 절어 있는 남자가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었다.

“흠, 어머님. 이 분은 누구세요?”

은란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세입자예요.”

여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이 남자분이랑, 같은 집에서 부엌도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어때서요? 우린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순간 여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은란은 신발을 신고 나왔다.

“오늘은 들어가 볼게요. 검토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쌀을 꼭 좀 도와주세요.”

은란은 집을 나오며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으나 얼굴을 본 적은 없는 여자의 아들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다. 일단 사례관리자로 넘겨야 될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11시가 훨씬 넘는 시각이었다. 우울한 하늘에서 비가 여전히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최씨 할머니가 어김없이 동 주민센터를 찾아왔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적십자사에서 밀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최씨 할머니가 수혜대상자이기 때문이었다. 최씨 할머니에게는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다. 그 외동딸이 부산으로 시집을 가서 일이 년에 어쩌다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 암 선고까지 받아 현재도 투병중이었다. 딸도 질병으로 생활이 어렵다보니 최씨 할머니에게는 몇 년간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병원에 입원중인 부인을 대신해 이따금 사위가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몇 년째 부인의 병수발을 들며 장모까지 모시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일찍이 남편을 보내고 최씨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홀로 생활하던 것이 익숙하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통명스럽고 이웃과도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은란이 처음 발령을 받아, 가정 방문을 할 때도 낯선 은란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대문 앞에 세워둔 채 몇 마디만 하고 들어가 버렸다. 혹시라도 집 안에 뭘 숨겨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몇 달에 걸친 노력 끝에 은란은 최씨 할머니의 문간방을 쑤시고 들어갔다. 오래된 한옥의 문간방에는 부엌도, 싱크대도 없었고 방 안에 놓여있는 전기밥솥이 최씨 할머니의 주방용품의 전부였다. 사실 이렇게 사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통명스럽게 굴었다며 최씨 할머니는 은란을 보며 머쓱하게 웃었다. 거동이 불편해서 따로 반찬을 조리하지 못하는 최씨 할머니를 위해 은란은 적십자사 회장에게 부탁을 하여 반찬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반찬 수혜자로 결정되었을 때, 적십자사 회장이 최씨 할머니의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준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불편하다며 동 주민센터에 두고 가면 본인이 직접 가지러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다리 운동하는 김에 가지러 오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 말이었다. 그러나 처음과는 달리 반찬을 가져갈 때마다 웃는 낯으로 은란을 바라보는 최씨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은란의 마음은 훈훈해졌다. 하지만 은란은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최씨 할머니에게 가족처럼 곱살긋게 대하는 것도 두려웠고, 적당히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피를 나눈 뜨거운 가족도 아닌, 그렇다고 남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어정쩡한 관계가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치성을 드릴 때처럼 정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은란을 향해 왔고, 늘 따뜻한 미소를 남기며 반찬을 가져갔다. 어쩌다 최씨 할머니가 몸이 좋지 못해서 반찬을 제 때에 가져가지 못하면 은란은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반찬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다. 그러다 문득, 최씨 할머니가 영영 반찬을 가지러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은란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러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했던 은란은 최씨 할머니가 보이면 일부러 덜 반갑게 인사하거나, 괜히 더 사무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무표정한 평소와 달리 웃는 얼굴로 최씨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돌아가면 마음속이 안정되고 밝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4. 月木 달처럼 유유히 흐르는 목요일

출근하며 은란은 믿기지 않은 문자를 받았다. 얼마 전 휴직한 정임언니가 어제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고작 서른일곱, 두 아이의 엄마인 정임언니는 은란과 같은 사회복지공무원이었다. 정임언니는 근무하던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중에 흥분한 수급자가 갑작스레 얼굴을 향해 던진 모니터를 순간적으로 팔로 막아내 팔에 기브스를 하면서도 한동안 출근을 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

있던 탓에 병가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몸의 병은 마음으로, 마음의 병은 몸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나 보다. 정임언니는 우울증을 겪으며 주변에 말도 못한 채 끝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핑계로 육아휴직을 했다.

아침 9시, 은란은 근무를 위해 책상에 앉았다. 은란도 언제 뿔뿔해나갈지 모르는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정임언니가 생각이 나서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은란은 오전에 반가를 내고 잠깐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사무실을 나왔다. 빈소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에 서 있는 은란은 사연 있는 여자처럼 계속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였다. 버스의 맨 뒷좌석으로 가서 눈물을 훔쳤지만 몇몇 사람들은 실연당한 여자라도 본 듯 은란을 흘깃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녀가 아는 정임언니는 아무리 배가 아파도 수급자와 상담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배를 움켜잡고 방문을 강행했던 강인한 사람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복막염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끝까지 수급자와 약속을 먼저 지키려 노력했던 멋진 사람이라고 은란은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은란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도 정임언니는 열정을 다하며 정면 돌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업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그 무게감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은란에게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던, 마음으로

항상 의지했던 그녀가 사망했다니…… 자신보다 더 사랑한 두 아이와 늘 애인이라고 부르던 남편을 놔둔 채 말이었다.

“심장마비였대.”

처음에 심장마비라고 전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빈소에서는 그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은란이 알고 있던 정임언니는 절대로 마음이 나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살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주변의 온갖 억측과 비난 속에 검은 슬픔이 점점 질퍽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분노가 커져갔다. 은란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밤을 새면서 일하던 정임언니의 열정을 부러워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나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에 나온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인생이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감당해야 할 인생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은란은 그녀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두렵고, 슬프고, 아팠다. 비가 내리던 어제, 자살하겠다고 광고를 하던 그 술주정뱅이 여자의 집에서 은란이 상담을 하고 있을 때쯤 정임언니는 집을 나와 혼자 여관에서 목을 뗐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경찰에게 발견된 정임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빈소에서 엄마가 죽은 것을 모르고 뛰어 노는 두 아이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소리치며 책임을 묻는 사람

들, 그리고 은란처럼 마냥 마음이 아픈 그저 멍한 상태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서 해매는 사이, 목요일은 그렇게 유유히 흐르듯 지나가고 있었다.

오전에 빈소를 다녀왔던 은란은 퉁퉁 부은 눈으로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다. 가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올 때는 화장실로 달려가 엉엉 소리 내어 울기도 했다.

“은란씨, 정말 괜찮아?”

동료가 화장실까지 따라와 은란을 위로해 주었다. 은란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내어 우는 것이 괜히 자존심 상해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일부러라도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어린 시절, 큰 언니와 막내 동생과 싸우고 소리 내어 울어도 아무도 둘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간’이라는 애매한 입장은 누구의 편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지 않고 살아왔었다.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고 불편했던 한 남자가, 이 세상의 여기저기서 받은 차별과 답답함에 대한 분노를 은란에게 표출했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는 은란이 민원대에 앉아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틈에 달려와 큰 주먹으로 은란의 뒷목을 내리쳤다. 그 어이없는 폭력 앞에서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은란이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은란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퇴근시간이

지났을 때, 은란의 마음은 습관처럼 무덤덤한 감정으로 피드백 되었다고 여겼다. 그러다 마음의 동요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오류투성이였다. 견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슬픔은 이미 은란의 가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시각에 동 주민센터로 최씨 할머니가 헐끔거리며 들어왔다. 은란이 퇴근하지 않은 걸 보고 최씨 할머니는 특유의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아, 할머니님.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은란은 힘든 마음의 상태를 감추려고 건조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저씨 둘이 와서는, 싱크대도 놔주고 화장실 공사도 다 해주고 갔어. 정말 고마워.”

“아, 그래요? 제가 오늘은 정신이 좀 없어서요. 내일 보러 갈게요.”

“그런데 볼 일을 봤는데 물이 잘 안내려가서…… 혹시 그 아저씨들을 다시 불러줄 수 있는가 해서 말이야.”

“공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 보시지 그랬어요.”

“물이 제대로 안내려갈 줄 몰랐지.”

은란은 지금의 힘든 감정 따위는 최씨 할머니는 알 리가 없을 테니까 괜스레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사실 최씨 할머니가 은란의 상태를 굳이 이해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은란은 자신도 인간이기에 가끔 힘들 수 있고, 이런 슬픈 마음일 때는 최씨 할머니가 조금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은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가 철든 어른이 못되었던 걸까? 평소와 사뭇 다른 은란의 짜증이 섞인 얼굴과 목소리에 최씨 할머니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게, 그러니깐. 그냥, 그게, 그러니깐. 당장 급한 건 아니니 아가씨 시간이 될 때 천천히 알아봐줘도 되고…… 연락처만 알아봐줘도 되고.”

“구청에서 의뢰한 거라, 집수리센터에서 누가 나갔는지 저도 알아봐야 해요. 그 분들도 일 끝나고 퇴근 했을테니 제가 통화해 보고 다시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으응. 그러니깐, 그게, 급한 건 아니니깐……”

최씨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그렇게 은란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뭘,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이런 거 말해도 되려나, 집 마당에 놔둔 내 골동품이 없어져서 말이야.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데. 연락이 되면 그것도 같이 물어봐주면……”

“네? 뭐가 없어졌어요?”

“응. 그게 우리 집 마당에 놔둔 골동품이 없어져서 말이야.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건데요? 지금 퇴근시간이 넘어서 구청 담당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일이면 누가 나갔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흠, 그렇게 중요한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하지 그러셨어요.”

“그게, 그런 돌을 왜 가져가겠나 싶어서…… 처음엔 몰

왔지.”

“정말 그 분들이 가져간 게 확실한 거예요? 괜히 다른데 두고 그러신 거면…… 그 분들이 다시 공사하러 올 텐데 불편하실 거 아니예요?”

“그런 돌덩이를 왜 가져가겠나 싶어서……”

“그럼 확실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은란은 기껏 힘들게 화장실을 고쳐주고 갔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돌’이 없어졌다고 타박을 들을 그 분들을 생각하니 짜증이 증폭되고 말았다.

“일단은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공사를 누가 나갔는지 알아보고 나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이런 건으로 자꾸 귀찮게 오지 마시구요.”

은란은 순간 귀찮다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상태로는 최씨 할머니를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인사도 대충 하다말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적잖이 당황한 최씨 할머니는 특유의 반복화법으로 여러 차례 미안하다며 말하고 천천히 뒤돌아 나갔다.

왜 그랬을까? 한동안 은란은 자신에게 반문했다. 사실 최씨 할머니는 전혀 귀찮지가 않은 사람인데 말이였다. 최씨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가 엄마에게 어찌다 부리는 짜증처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던 일처럼 넘기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빗나가버린 말투 하나에도 절절 거리며 미안해하는 최씨 할머니에게 은

란은 오히려 더 서운했다. 그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나온 말이었는데…… 편하게 한번쯤 받아주시면 안되나……
최씨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밟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다행히 담당이 퇴근하지 않고 있어 집수리 센터에 재수리를 의뢰하고, 화장실 공사를 담당했던 소장의 연락처를 받아 혹시 골동품을 가져갔는지 조심스레 확인했다.

“그게 단순한 돌같이 생겨서 공사 쓰레기인줄 알고 가져간 겁니다.”

“할머니가 애타게 찾으시니 수리를 하러 다시 들리실 때 돌려주세요.”

집수리 센터의 소장은 원래대로 물건을 가져다 놓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최씨 할머니가 말한 대로 골동품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자 애먼 최씨 할머니에게 괜히 짜증을 낸 것 같아 미안해졌다. 은란은 최씨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으나 언제나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다.

#5. 淸風明月 금요일

은란은 출근하는 버스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제 늦게까지 빈소일을 돕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조금 가뿐했다.

이틀째 흐렸던 하늘도 오늘따라 청명했다.

“은란씨, 오늘은 괜찮은 거야?”

버스에서 내리자, 직장 동료가 말을 걸어왔다.

“네.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 얼마나 놀랐을까? 그냥 얼굴만 알던 나도 그랬는데.”

은란은 오늘 새벽에 장지로 떠난 정임언니가 아름다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빌었다. 마음 편하게 보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언니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요일, 어느덧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다. 난관의 연속이었던 일주일이었다. 아직 쌓여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십자 반찬통이 하나가 사무실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은란의 눈에 들어왔다. 어제 최씨 할머니에게 너무 쌀쌀맞게 대해 눈치를 보느라 못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져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찬통을 들고 최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성큼성큼 걸어가면 10분도 걸리지 않을 이 거리를, 막 세상에 태어난 사슴과 같은 얇디얇은 다리로 수없이 왕복했을 최씨 할머니를 생각하니 은란은 어제의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적당한 선을 긋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집 앞에 도착했다.

“할머님! 최씨 할머니!”

막상 대문을 앞에 두자, 다른 모든 생각은 사라졌다. 은란의 마음이 조금해졌다. 어느새 씩씩하고 밝은 원래의 목소리로 은란은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럼에도 대문을 사이에 둔 저편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어디를 또 나가신 것일까? 잠시 문 앞에 서서 기다렸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다시 대문을 두드리려는 찰나에 앞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지금 집에 안계세요.”

“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은란을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제 밤에 최씨 할머니 병원에 입원했어요.”

“네? 어느 병원이요? 어디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그거야, 난 모르죠. 저녁에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면서 운동을 안 하시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밤중에 갑자기 앰블런스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병원에 입원하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밤에 가면서도 동 아가씨가 내일 반찬을 가지고 올 거니까 냉장고에 잘 보관해 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가지러 가겠다고요.”

앞집 아주머니는 전할 말은 다 했이라며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제의 짜증스러운 은란의 말투로 인해 상처받은 최씨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것은 아닌지, 가슴속에
파리를 틀고 있던 불안감은 이내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은
란은 거의 뛰다시피 사무실로 돌아와 최씨 할머니의 유일
한 가족인 사위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동 사회복지담당입니
다.”

“아, 안녕하세요.”

“최씨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다고 전해 들어서요. 당장
내일이 주말인데 반찬도 드려야 하고요.”

“네. 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지셨다고 해서 제가 전
화로 구급차를 불러드렸어요. 어제 밤 입원을 하셨는데 오
늘 아침부터 갑자기 의식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
사말로는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기엔 연세가 너무 많으시
고, 예전에 수술한 쪽에서 출혈도 보이고 해서 더는 어려
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수화기를 잡은 은란의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은란은 수
화기를 반대쪽 손으로 바꿔 잡았다.

“네? 그럼, 당장 내일이 주말인데 반찬은 어떻게 해요?”

은란은 자신도 모르게 최씨 할머니처럼 반복화법을 구사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반찬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집착하
는 사람처럼 계속 반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아마 곧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
어요. 집사람도 몸이 좋지 않아서 저도 지금 정신이 없습
니다. 반찬은 일단 다른 분에게 드리세요. 나중에 돌아가시

면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걸어 다니셨는데……”

은란은 그 말을 하면서 잡은 수화기에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왔지만, 계속 그것을 꼭 붙들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 네. 근데 혹시 은단씨라는 분이신인가요?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동사무소 담당이 너무 잘 해준다고 어머님이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요. 그 때 이름이, 그, 은단인가?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아마, 그, 은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은란의 이름을 은단으로 잘못알고 계셨던 것 같았다.

“은단씨가 저희대신 항상 잘 챙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사람도 아프지만 앓으면 언제 꼭 인사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라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항상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깨어나시거나 하게 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반찬을 드려야 하기도 하고 해서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은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어졌다. 어제 너무 많이 울었던 탓인지 마른 눈물조

차 나오지 않았다. 잠시 멍해졌던 은란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다. 딸만 있던 집에 막내 동생이 아들로 태어나자, 가족들의 사랑은 이내 동생에게 쏟렸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터를 잘 봐주어 아들이 나왔다면 유독 은란을 더 예뻐했었다. 연세가 많으신 탓에 은란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자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 막내딸이라며 매일 같이 은란을 업고 다녔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첫째도, 막내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 버렸지만, 은란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의 따뜻했던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은란은 ‘죽음’에 대하여 무지했다. 죽음이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어린 은란은 그 상처를 꽤 오랫동안 치유해야 했다. 그래서 은란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엄마’가 아닌 ‘할머니’를 불러대며 큰소리로 매일 울어댔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은란의 할머니와 같은 할머니는 세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손녀를 위해 희생하던 그녀 머릿속 할머니의 기준은 무너졌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할머니를 수없이 대면하면서 은란의 상처 입은 마음은 조금씩 닫혀져 갔다. 또 그녀의 할머니처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할머니들에게 괜히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마음

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방법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프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씨 할머니를 대하며 어렴풋이 할머니를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은란을 찾아올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던, 최씨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이제 막 공사해드린 깨끗한 화장실과 싱크대를 맘껏 써 볼 수 있도록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은란은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을 마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대로 최선을 다해 최씨 할머니를 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얼마 후, 은란은 발령을 받아 효자동을 떠났다. 은란은 한편으로 최씨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듣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동안 계속 되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를 갈때기처럼 받아 처리하면서도 최씨 할머니의 귀여운 반복화법에 속으로 웃음을 지었던 일이나, 어린아이의 소중한 인형처럼 반찬통을 안고 돌아가던 최씨 할머니의 뒷모습은 은란조차 모르게 답답하고 힘든 일상에서 잔잔한 의지와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은란은 후임자로부터 최씨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후임자에게 은란이 업무인계를 하면서 부탁했던 일이었다. 그제야 은란은 마음으로 조용히 최씨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 수 있었다. 최씨 할머니가 이제는 지팡이를 던져두고 성큼성큼 걸으며 편안한 곳

으로 가셨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은란은 맑은 바람을 맞으며 밝은 달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있는 그대로의 빛을 은란에게 내려주는 기분이었다. 인간은 투명하고 온건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 대할 때 진정성 있는 마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억지로 가는 마음을 붙잡고 일부로 오는 마음을 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최씨 할머니는 어렴풋이 이러한 은란의 마음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애당초 감출 수 있는 마음이란 없고 감춰야 하는 마음이란 없는 것이었다.

정임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 움츠러들었던 은란은, 정임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의 열정을 일부러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씨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은란은, 살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상처를 입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은란을 향해 온다. 그들에게도, 은란에게도, 서로의 이름이 굳이 중요하지 않다. 목하 중요한 것은 누구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으며 그 시간동안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자각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한없이 메말라가고 있었던 은란은 그들의 죽음으로 생생한 삶의 의지를 얻었다.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

한 기본적인 배려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은란은 언제 다시 현실에 눌러 지친 마음을 닫을지 몰라도, 그녀가 조금씩 변하는 만큼 세상도 변해줄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풍월 읊는 마음으로 견디기로 했다. 선명하게 윤곽을 다 드러낸 가득 찬 보름달이 청아하게 어두운 밤을 환히 지키고 있었다.



살기 좋은 도시

이 병 호

“여보! 드디어 대통령상을 받았어.”

나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기뻐하지도 않고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그래서 월급은 더 올려주나?”

“아니..... 그래도 승진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지.....”

“그래서 승진하면 월급은 얼마나 더 주는데?”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단편소설 |



부산 항만관리사업소
이 병 호

‘행정은 디테일이다’라는 술자리에서 어느 선배의 나즈막한 목소리가 이 소설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아이템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노력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신 공무원문예대전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도시

“행정은 디테일입니다. 마주앉은 사람의 이마에 맺힌 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뭔지? 원래 땀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해서 땀을 흘리는 건지?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디테일함으로 ‘제1회 대한민국 살기 좋은 도시’에 우리 해운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날 저녁 지방 뉴스에 나의 인터뷰가 나왔다. TV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좀 어색하기는 하다. 함께 TV를 보고 있던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따지듯이 말했다.

“마주 앉은 사람의 이마에 맺힌 땀을 발견한다고? 우리 가족 마음에 맺힌恨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얼어죽을 살기 좋은 도시는 무슨.....”

“여보.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소식 들려줄게.....”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살기좋은 도시에 선정되면 거액의 포상금이라도 주는 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처럼?”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

다.

“공무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위에서 시키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돈도 더 주지 않는데, 뭐 그리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역정을 낸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책상에 붙여둔 구호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의 미션을 수행한다.”

이것은 나의 공무원 생활의 철칙이다. 나는 한 번도 내일의 일 때문에 오늘을 헛되이 보낸 적이 없다. 비록 내일보다 오늘이 하찮다고 해도 나는 항상 오늘에 최선을 다했다. 많은 직원들이 임기말년인 시장님 곁을 떠나 유력한 시장후보인 한소리 의원에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하던데, 나는 현재에 충실할 뿐더러, 한소리 의원의 거만함이 싫다.

나의 브리핑이 끝난 후에 시장님이 흐뭇해 하며 말을 꺼낸다.

“조금도 빈틈이 느껴지지 않는 기획안입니다. 역시 이태일 팀장의 디테일이 느껴집니다. 모든 일에 이처럼 유능한 공무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경 넘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소리 의원이 말한다.

“천만의 소리 마세요. 대통령상은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을 띠니다. 시장님께서 그 흔한 국회의원의 연줄도 없으

신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까닭모를 승부욕이 생겼다.

“네. 정의보다 불의가 더 판치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며칠전 의원님께서 쓰셨던 신문 칼럼에서는 결국 정의는 거짓을 이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칼럼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여기서는 늑대의 탈을 쓴 이유나 한번 들읍시다.”

한소리 의원이 매섭게 치솟은 눈썹으로 나를 몇 초간 노려봤다. 그리고는 다시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말했다. 나의 레이더에 그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가 포착되었다. 당신은 이미 나와 혁의 전쟁에서 졌어.

“이 팀장은 유능한 인재니 ‘살기좋은 도시’에 응모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권을 더욱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바로 입에서 반격의 칼을 뽑았다.

“시민의 주권요? 시민이 고개를 숙이면 쓰다듬어 주고, 고개를 쳐들면 싸대기를 때리는 게 의원님 아닙니까? 일년 전 의원님의 시민 폭행 영상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시민을 그렇게 개 취급하면서 무슨 시민의 주권을 운운하시는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을 뱉자마자 곧바로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나의 칼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이 새끼가.....”

멘탈이 봉인해제 된 한소리 의원이 들짐승처럼 나에게

돌진한다. 한의원이 나의 목살을 잡고 뒤흔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무기력함을 택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몇 초 후 당황한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이성을 잃은 한소리 의원은 애꿎은 의자를 걷어차며 화풀이를 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회의장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승부욕이 사라진 내 머리에는 다시 이성의 램프가 정상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내 머리는 곧바로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나의 경솔한 행동으로 예상되는 손해가 막심하다. 살기좋은 도시에 응모하려면 다방면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소리 의원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 돈 없이 어떻게 일을 진행한담? 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며칠 후 복잡해진 머리를 가다듬고 나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살기좋은 도시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심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대상도시를 선정한다. 솔직히 한소리 의원 말대로 대통령상을 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아마 99% 이상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 미션을 포기할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냥 내게 맡겨진 미션이기 때문이다.

그 때 스르륵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충~ 성”

늘 자신감 있는 얼굴로 절도 있게 걸어오는 김무생이다. 그는 사람 좋고 순박한 친구지만, 아직은 디테일의 D도 모르는 친구다.

“1차는 도시진흥원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나?”

“네…….”

“도시진흥원에 아는 사람 있어?”

“지금은 없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래?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김무생이 말을 더듬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내친김에 그 동안 참아왔던 말도 시원하게 내뱉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다닐 수 없겠나? 이제 공무원이란 직종도 서비스업종이야. 호텔직원처럼 단정한 옷차림이 필수라구!”

“네…….”

김무생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한다.

“도시진흥원에 직원들의 대학을 파악해 보고, 우리시 도시디자인교수들과 매칭해 봐.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김무생이 나의 지령을 받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 본다. 몇 시간 후 김무생이 내 책상으로 왔다.

“충~성!!! 우리 위원회 교수 중 도시진흥원에 김부장이라는 사람과 동문수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라

고 합니다.”

“그래? 고생했다. 당장 서울행 기차표를 끊거라!”

“네???”

“찾아가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심사기준은 이미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생이 눈을 치켜들며 당차게 말했다.

“시키는 대로 해. 만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날 아침 저 멀리서 김무생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어제 내가 지적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검은 구두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온다. 하지만 넥타이 색 깔이 맘에 안 든다.

“충 ~성!!!”

무생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와 얼굴을 대면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다정다감한 말투로 말했다.

“무생아~ 빨간 넥타이는 그 행사의 주인공이 매는 거야. 우리가 부탁하러 가는 자리인데, 넥타이 선택이 잘못 된 거 같다.”

“팀장님, 넥타이 색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냥 푸는 게 좋겠는데.....”

무생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한참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넥타이를 거칠게 푼다.

“안녕하십니까? 해운시에서 왔는데, 김교수님 소개로 왔습니다.”

나는 깍듯이 인사를 건넸다.

흰칠한 키에 양복을 잘 갖춰 입은 김부장이 빨간 넥타이를 휘날리며 악수를 청했다.

김부장의 넥타이를 본 무생이 머리를 굽적이며 머쓱해했다.

“염치 불구하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져서요…….”

나는 군더더기 없이 나의 목적을 털어 놓았다.

“몇 시간 전 광안시에서 시장이 직접 왔습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 졌다. 역시 보통이 넘는군. 시장이 직접 찾아왔다면,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것이다. 그 거대한 행정력과 내가 맞설 수 있을까? 나는 예산도 삭감될 위기인데 말이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나는 김부장에게 시민 만족도와 녹색도시 그리고 배려가 있는 도시, 이렇게 3가지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듣고 내려왔다.

김무생이 입가에 얹은 미소를 지으며 오길 잘했다고 나의 어깨를 소심하게 쳤다.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나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기며 자리에 앉았다. 책상 앞에 많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살기좋은 도시 선정 자료들이었다. 우리 팀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많은 정보를 찾았

다. 이 많은 정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혼돈스럽게 했다. 나는 이마에 오른손을 갖다 대며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민 도시만족도 설문조사가 배점이 가장 높는데, 어떻게 해야 높은 만족도가 나올까? 작년 대통령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질문 내용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만큼 질문 내용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은영씨 리서치 기관에 설문조사 질문은 정해졌어?”

“네. 정해졌습니다.”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입니다.

“안 돼! 바뀌야 해!!!”

나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 그러시지요?”

“일반적으로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면 유럽도시의 한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야.”

“그럼 하나의 전제를 두시려는 거네요?”

역시 은영씨는 똑똑하다. 나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 그거야. 시민들의 머릿 속에 유럽의 풍경을 지워야 해!!! 비교 대상이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 그저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해!!!”

은영씨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엄지 손가락을 추켜

들었다.

“이걸로 수정하는 게 어때? 대한민국 16개의 도시 중에 귀하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옆에 있던 김무생이 불쑥 끼어든다.

“이미 정해진 것을 어떻게 다시 바꿉니까? 드디어 뇌물이 필요한 겁니까?”

나는 말도 끝나기 전에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씨름 못 봤어? 상대방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씨름 말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우고 상대방의 논리에 다리를 걸면 된다. 결국 논리가 뛰어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 뇌물은 논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쓰는 것이지.”

결국 며칠 후 나의 논리는 리서치 회사의 담당자를 이겼다.

이제 한 가지는 해결했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질문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 해운시에 우호적인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독수리 같은 눈으로 꼼꼼하게 계획서를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하나의 틈을 발견할 수 있었다.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20%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복잡했던 나의 머리가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래, 우리시에 우호적인 통반장을 활용하자.

“은영씨 해운시 통반장이 몇 명이나 되나?”

“3천여 명 되는 걸로 압니다.”

“우리시 통반장 교육 참석 공문을 하나 올리게. 참석한 통반장들에게는 전화번호와 거주기간이 포함된 참석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게.”

“네. 알겠습니다.”

은영씨가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통장교육이 끝난 후 나는 참석확인증을 들고 리서치회사 사장실을 찾아갔다.

“혹시 15년 이상 거주자를 찾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시간도 넉넉지 않으실 텐데 이 명단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심스레 묻는다.

“몇 명이요?”

“3,000명이고 전부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또한 핸드폰 번호가 모두 정상입니다.”

사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이것은 오케이 사인인 것이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명단을 받으면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기업인이 돈이 되는 것을 놓칠 리가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니까!!!

살기좋은 도시 선정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탄소 녹색도시다.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살기좋은 도시

와 녹색의 푸름은 누구나 인정하는 환상의 콤비다. 나는 책꽂이에 있는 예산서를 허겁지겁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저히 나무 심을 돈을 찾을 수 없었다. 예산을 올려도 나와 거북스런 관계인 한소리 의원이 통과시켜 줄 리 만무하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나는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문서로 만들어 시장님께 내밀었다.

“시장님 나무 심을 돈이 없습니다. 우리시 모든 시민회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시설의 입장료에 나무심기 기금을 1%씩 걷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주시시오.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더욱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기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된다면, 월 10억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시간에 천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계획서를 한동안 응시하다가 펜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쓱쓱 사인을 했다. 상사가 결제하는 볼펜의 소리는 언제 들어도 상쾌하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집안이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다. 아내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샤워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이 나의 온몸을 적셨다. 따뜻한 물에 나의 근육들은 낙지처럼 흐느적거렸다. 샤워를 끝내고 침대에 누우니, 내 눈꺼풀 위에 달콤한 잠이 별똥별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10분 정도 잤다고

느낄 때면 여지없이 알람이 울린다. 새벽 5시다. 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다. 그래도 나는 전진해야 한다. 꼭 대상을 타서 아내와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가야 한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시가 1, 2차 심사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뻐하고 겨안을 여유도 없었다. 바로 3차 심사를 준비해야 했다. 3차 심사는 PT발표를 한다. 아마도 PT발표를 하기 전에 대통령상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모른다. 나의 머릿 속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다. 그 때 시장님이 나를 부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장님은 보던 신문을 접어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심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안하이..... 내 정치적 입지가 부족해서 중앙정치인과 연줄이 닿지를 않네.....”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3명의 명단이 발표가 되었는데, 리더격인 최형우 교수는 정말 청렴하고 고집 있는 양반입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싸움에 괜히 자네를 끌어들은 것 같아 미안하네....”

시장님이 지친 기색으로 의자를 뒤로 젖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시장님

의 처진 어깨를 보자 오기가 생겼다.

내가 기댈 곳은 최형우 교수 뿐이다. 공정하고 청렴한 그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최교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는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을 이빨로 단단하게 고정시킬 것이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말이다.

최교수에게 나무 천 그루를 심고, 장애인 시설은 몇 개나 지었고, 노인복지시설을 몇 개나 지었고 하는 80년대식 스펙 발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의 고민 끝에 나는 스펙 대신 스토리를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떤 스토리를 들려줘야 할까?

새벽 5시, 알람시계가 요란히 울린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알람을 끄고 몸을 일으킨다. 알람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뒤척인다. 자고 있던 아내가 아이들을 토닥이며 나보고 빨리 나가라는 손짓을 보낸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통치를 들고 조용히 나갔다.

윙윙~ 나는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한껏 만지고 있다. 세심하게 머리손질을 하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양복을 단정하게 입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나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이태일 할 수 있다! 이태일 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나는 어젯밤 적어두었던 행사 준비사항을 불펜으로 하나하나 체크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건물 주위를 세밀하게 살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주변의 병원과 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건물구조를 정교하게 머리 속에 입력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흡연실은 어디에 있는지.....

행사장에 도착하자 은영씨가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정장치마를 입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은영씨가 커피머신이 있는 가판대에서 최교수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는 커피를 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새 이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어느덧 최교수가 좋아하는 진한 에스프레소가 완성되었다.

나는 우연히 로비에 걸려있던 달력을 보고 움찔했다. 최교수의 차량번호 끝자리가 3번이니 오늘이 5부제에 걸리는 날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파악해둔 경비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다. 나는 곧 은영씨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백화점 상품권 2장을 주며 당부했다.

“꼭 공무원증을 착용하여 최교수에게 은영씨의 존재를 알려야 하네…….”

은영씨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는 기본이지요, 하는 미소였다. 얼마 후 차창 밖으로 최교수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뒤에 은영씨가 환하게 웃

으며 머리위로 오케이 사인을 했다.

최교수는 차에 내리자마자 다급한 표정으로 좌우를 살폈다. 나는 최교수에게 다가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흡연실은 우측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제가 흡연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최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입구에 들어오실 때 미세하게 손을 떠시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최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육상선수처럼 두 팔을 크게 교차하며 흡연실로 질주했다.

몇 초 후 최교수가 허공으로 허연 연기를 내뿜으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교수가 나가고 함께 있던 김무생이 최교수가 피던 담배꽂초를 들고 나에게 재빠르게 뛰어왔다.

“담배꽂초로 보아 M사 담배입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2개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PT가 끝날 때 쯤이면 담배가 떨어질 것이다. 그 때 네가 공무원증을 메고 M사 담배를 꺼내주게. 최교수는 아주 기뻐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최교수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심사 자료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영씨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들고 최교수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살기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이 책 너무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어쩔 이리 책이 머리에 쑥 들어 오던지요? 실무에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은영씨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네.....고맙습니다.”

최교수는 애써 무표정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눈 떨림을 보았다. 나는 디테일한 남자니까.....

사회자의 간단한 멘트와 함께 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 메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 번 읽고 있었다. 사회자가 나의 순서를 알렸고, 나는 호흡을 한 번 가다듬고 깎듯하게 청중들에게 인사를 했다. 생각보다 떨리진 않았다.

“지금같이 디지털시대의 스펙은 큰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시에 몇 가지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PT를 마칠까 합니다. 솔직히 우리시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전부 삭감당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안시처럼 수백억의 예산을 퍼부은 도시도 있지만, 저희는 100분

의 1의 금액으로 시민을 섬겼습니다.

우리 시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박영자 할머니는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천식의 원인이 집안 곰팡이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배지를 뜯어내어, 곰팡이를 완벽하게 없애고 새로운 도배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시책을 행하려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의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사망했을 경우 시신이 몇 달을 썩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마땅히 신고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유회사와 손을 잡고 독거노인들에게 실버우유를 매일 아침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문 앞의 우유가 2개 이상 쌓였을 때는 즉시 동주민센터에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담당의사와 함께 즉시 독거노인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독거노인 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날은 무료 급식을, 매주 목요일 날은 무료 목욕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최저의 독거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독거노인이 노환으로 별세하는 일도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어쩌면 많은 면에서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

만 시민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지. 그 결과 주민 만족도가 전국 최고인 74%가 나왔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선정은 심사위원이 하시지만, 우리 시는 이미 주민에게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저희 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용하던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나는 최형우 교수의 표정을 살폈다.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역시 남자는 남자에게 감동을 잘 주지 못한다. 은영씨의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못한 나의 발표였다.

젠장..... 몇 개월을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1차 PT발표가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최교수는 어김없이 흡연실로 향했다. 나는 재빨리 무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생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주머니에 있던 공무원증을 매고 담배를 챙겨 뒤도 안보고 재빨리 뛰어가고 있다.

“야~”

공무원증이 뒤집힌 채 달려가는 무생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나의 외침이었다.

무생이 머리를 굽적이며 뒤집혀있던 공무원증을 매무새 하며 흡연실로 들어갔다. 그 때 마침 최교수가 담뱃갑에

담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며 인상을찌푸린다. 그 때 무생이 가쁜 숨을 겨우 참으며 최교수에게 담배를 건넨다.

“저..... 여기 담배 있습니다.”

“어? 이거 내가 피는 거하고 똑같네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최교수가 뜻 밖의 상황에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래요? 이거 영광인걸요? 교수님하고 똑같은 담배를 피다니.....”

최교수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뻗는다. 그리고는 무생의 명찰을 유심히 본다.

‘최교수님, 명찰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다. 심사위원장인 최형우 교수가 조심스레 봉투에 든 종이를 꺼낸다. 시장님도 침을 꿀꺽 삼키고 있다.

‘나는 느낌이 좋다’라는 말을 혼자 계속 되뇌이고 있다. 긴장의 순간이다.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늉을 했다. 제발..... 제발.....

“제1회 대한민국 살기좋은 도시에는.....”

최교수가 몇 초간의 뜸을 들인다. 나에게는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운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최교수가 우리 시의 로고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팡파르와 함께 나는 만세를 부르며 시장님과 팀원들을 껴안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생했네, 고생했어.....” 시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정치적인 기반이 없던 시장님의 위상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연출 없이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 나보다 시장님이 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시장님이 환한 얼굴로 많은 기자들의 플래시를 맞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다음날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이 저절로 떠진다. 오늘은 일찍 갈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양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직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공기가 내 볼에 기분 좋게 닿았다. 7시에 도착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 5개의 신문을 속독으로 읽는다. 그리고 상사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기사를 스크랩해서 책상에 프린트 해둔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상사들에게는 입시정보를, 주식을 하는 상사에게는 주식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뉴스는 물론.....

직원들이 하나 둘씩 사무실에 들어오자 나의 어깨를 치

며 축하한다는 말부터 건넸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이들이 일어날 무렵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드디어 대통령상을 받았어.”

나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기뻐하지도 않고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그래서 월급은 더 올려주나?”

“아니.....그래도 승진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지.....”

“그래서 승진하면 월급은 얼마나 더 주는데?”

“승진하면 1호봉이 감해지니까 월 10만원 정도 올라 갈 것 같은데.....”

“월 10만원 더 받을라고 그 개고생을 해?”

“뭐? 개고생이라고 했어? 남편한테 그 따위 밖에 말을 못해? 그리고 그 놈의 돈타령 좀 그만해. 제발!!!”

나는 짜증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전화를 끊었다. 아내와의 한 번의 통화로 내 마음엔 거친 풍랑이 일었다. 안 좋은 생각들이 질주하는 기차같이 내 머릿 속으로 돌진했다.

그 때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사내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시련은 연속으로 온다고 했던가? 항상 내 편이던 매형이 나의 승진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태일 팀장 승진 못시킵니다. 자신의 특기인 디테일로 ‘살기좋은 도시’에 선정된 것은 큰 업적이지만, 고속 승진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팀장은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습니다. 설문조사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통반장이 40%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광안시는 10%도 안되는데 말이죠. 설문조사 기관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이팀장이 통반장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이거 장난 아니다. 통반장 명단을 준 사건은 아내와 김무생 밖에 모르는데……. 결국 아내가 범인이군……. 내가 더 디테일하지 못했어. 아내에게 말해주는 게 아닌데……. 아무튼 사태가 심각하다. 매형은 형사고발을 미끼로 나를 승진에게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왜 하필 나를?’

시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쳐 쓴다.

“그래도 큰 성과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그 누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소? 잘리지 않으니 행정을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것 짬으로 생각하는 직원도 승진을 하는데, 이팀장이 못할 이유가 무엇이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힙합가이처럼 두 손을 하늘로 떠받치며 시장님께 경의를 표했다.

매형이 지지 않는 얼굴로 다시 마이크를 켜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후 65년이 지난 지금 행정에는 나름 규칙이 있고 행도가 있습니다. 이팀장이 승

진을 하면, 모든 직원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편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혈세를 내는 시민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끝까지 나의 편을 들어줬지만, 매형의 논리와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나는 승진을 하지 못했다. 나는 붉어진 얼굴로 그 자리를 급히 나왔다. 왜 매형이 나의 승진을 그렇게나 반대한 것일까? 이놈의 마누라가 매형에게 신세한탄을 한 것이 틀림없다. 마누라가 내 승진을 막았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화염이 내 염통을 뚫고 활활 타올랐다. 내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나는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나는 조퇴를 했다. 조퇴를 하고 사무실을 나오니, 나에게 닥친 이 자유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시간이다.

야구장이나 한번 가볼까? 어릴 적부터 나는 힘이 들 때면 야구장을 찾았었다.

버스를 타고 사직야구장에 내리니 고소한 오징어 냄새와 통닭냄새가 진동했다. 간단한 먹을거리와 신문지를 챙겨 들고 야구장 입구로 들어섰다. 관람석 입구로 발을 내딛는 순간 초록색의 그라운드가 내 눈 앞에 펼쳐졌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에 청량음료 같은 상쾌함이 느껴졌다.

나는 몇 층의 계단을 올라가 사직야구장의 제일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시원한 사직구장이 한 눈에 보였다. 선수들의 컨디션 상태를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대 타자에 따른 수비 변화를 알 수 있고, 감독의 작전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큰 틀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야구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앉는다. 이곳은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을 야구이야기로 친구가 되게 하는 신기한 곳이기도 하다.

“한 잔 받으소.....”

주름이 깊게 패인 손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술잔을 권한다.

“네. 어르신.”

얼핏 얼굴을 보니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이었다.

“오늘 송승준이가 나오는데, 잘해야 할 텐데.....”

“잘 할 겁니다. 이래봬도 롯데 에이스 아닙니까? 여기 통닭 좀 드세요.....”

나는 통닭의 최고의 권위인 닭다리를 어르신에게 드렸다. 어르신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닭다리를 열심히 뜯었다. 웬지 통닭을 열심히 먹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측은함이 느껴졌다. 소주 한 병만 사온 것으로 보아 어르신의 형편은 그리 넉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허겁지겁 통닭을

해치우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혼자 오셨습니까?”

어르신은 슬픈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 한숨을 크게 쉬며 천천히 말을 꺼낸다.

“그래, 할멈은 나보다 일찍 하늘나라로 갔고, 자식새끼들은 결혼하고 연락이 안 닿네. 내 삶의 낙이 이제 야구 밖에 없네.”

이제 투혼의 승부사 최동원이 나올 차례다.

“자네 1984년을 기억하는가? 최동원이 한국시리즈에서 4승을 챙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지. 나는 아직도 7차전 때의 최동원의 공을 잊지 못하네. 그의 공 하나 하나에 혼이 서려 있었지.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 그 때는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았는데 말이야.....”

어르신 눈가에 눈물이 축축하게 고였다.

“어르신 한잔 하이소.”

술잔은 청초한 어르신의 눈망울처럼 맑다.

주황색 봉투를 나누어주는 것을 보니, 벌써 7회다. 3만 명의 관중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봉투를 머리에 쓴다. 사직구장은 녹색과 주황의 조합으로 더욱 아름답다. 롯데가 찬스를 맞이하자, 세계최고의 노래방 사직구장에 ‘부산 갈매기’가 울려 퍼진다. 파도응원이 시작된다. 어른신과 나도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며 파도타기응원을 하고 또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른다.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오늘의 승진 사건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마냥

이 순간이 즐거웠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순간 순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나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이 3만 명의 시민들에게는 ‘살기좋은 도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롯데의 하루 하루 경기에 따라 희로애락이 결정된다. 그 때 날카로운 바늘 같은 생각이 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들과 살을 부대껴야 할 순간순간마다 없었다. 또 아내와 아이들이 힘들었을 순간순간마다 나는 없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직장에 있었다. 바보같이……. 나는 ‘살기좋은 도시’에 선정되어 훌륭한 아빠, 멋진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건 명백한 나의 착오였다.

시간은 벽에 걸린 그림처럼 되돌릴 순 없겠지?.....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된다. 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며 한바탕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굳어져 있던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한없는 따뜻함이 밀려온다. 나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그 때 가족을 향한 나의 디테일한 안테나가 처음으로 작동 되었다.

야구 경기가 끝난 뒤 나의 발걸음은 과일가게 앞에 멈춰 섰다. 아내가 굴을 좋아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굴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향한다. 경비실에 들러 백화점 종이 가방을 하나 구해서 그 안에 굴 봉지를 넣었다.

11시가 다 되어간다. 아이들은 자고 있을 것이다. 아니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지, 밥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싸우진 않았는지……. 궁금하다.

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다. 아내가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집안을 세퍼드처럼 훑으며 돌아다닌다.

식탁 위에 약 봉지가 보인다. 약 봉지에 두 아이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니, 둘 다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약이 하루치 남아 있으니, 어젯 밤이 아이들의 열이 가장 높을 때였을 것이다. 아마 아내는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이다. 빨래 건조대에 아이들의 이불이 널려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새벽에 토를 한 것 같다. 싱크대에 가보니 설거지 할 식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 컵에 남아있는 커피를 보았다. 커피를 거의 먹지 않는 아내가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아침에 정신을 깨기 위해 한잔 먹었을 것이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 창을 보니 오늘 아침에 아내가 검색했던 키워드들이 나왔다. 의류관련 검색어를 넣었던 것을 보니 옷을 사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다. 거실의 달력을 보니 다음 주 토요일에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있다. 아내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가려는데, 빈번한 옷 하나 없는 자신을 보며 초라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막상 결제를 하려니 돈

이 넉넉지 않아 짜증이 났던 것이다. 바로 그 때 나에게 전화가 왔던 것이다. 미련하게.....

나는 그 상황을 머릿 속으로 재현해 보니 눈물이 폭포수 처럼 쏟아졌다. 마침 아내가 피곤한 기색으로 거실로 나왔다.

나는 애써 울음을 멈추며 다정다감하게 말했다.

“오늘 백화점에서 굴 좀 사왔어……. 당신, 나랑 연애했 때 굴 좋아했었잖아?”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쏘아붙이며 말했다.

“이거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승진이 좌절되더니 드디어 미친 거야?”

“그 동안 참 미안했어. 이제 당신과 아이들에게 잘 할게. 진심이야……. 어제 아이들 감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잤지?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신 거고? 다음 주에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속상했었지? 맞지? 이런 당신 마음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어리석었어. 이제 당신이 있는 곳에 항상 나도 있을게.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살게! 믿어 줘! 사랑해!!!”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의 허리를 와락 안았다. 아내가 내 품 속에서 평평 우는 것 같았다. 내 가슴 부분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서로 껴안고 한참이나 엉엉 울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들 방으로 갔다.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숨을 쉰다. 아이들은 자고 있다. 나는 보들보들한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했다. 그리고는 옆에 같이 누웠다. 고사리 같은 손을 내 입에 갖다 댔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달짝한 것을 먹었는지 손에 초콜릿 냄새가 난다.



어느 상록수의 꿈

강 현 택

뿌연 동공 속으로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자연을 벗 삼아 들판을 뛰노는 사슴처럼 살다간 친구,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
산새처럼 훨훨 나르며 자유롭게 살다 간 친구...



전) 국가정보원
강 현 택

평소 문학을 좋아하여 시는 종종 쓰곤 했는데 소설은 사실 처음 써 본 것입니다. 퇴직하고 주말농장을 시작하면서 현지인 한 사람을 알게 되어 친환경농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곤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어 그 친구가 너무나 그립고 안타까워 뭔가 쓰지 않을 수 없어 소설로 각색해 본 것입니다. 구성이나 표현력 등 여러면에서 미흡한 졸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과 담당직원 등 관계자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이 소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확산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어느 상록수의 꿈

내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것은 지난 해 봄 직장에서 퇴직하고 용인에서 주말 농장을 하고 부터이다.

가까운 친척 한 분으로 부터 용인에 밭 200평이 있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였던 것이다.

농사도 농사지만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은근히 마누라의 눈치를 보게 되어 뭔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농장은 좋은 피난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에게 두려운 일은 아니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며 아버지를 도와 농사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다.

그 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에 들어갔다. 퇴직하고 일종의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희망이 보이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작물을 경작하여 시장에 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작물을 재배하기로 하고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란, 콩, 들깨, 배추, 호박 등을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뒤져 가며 품목별로 재배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파종시기와 병충해 예방법 그리고 작물이 잘 클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일이었다.

나는 식구들의 입으로 들어갈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농사 원칙을 정했다.

첫째, 제초제는 사용치 않고 잡초는 손으로 직접 뽑는다.

둘째, 벌레가 좀 먹더라도 살충제는 최대한 적게 쓴다.

마지막으로 화학 비료 보다는 퇴비나 부엽토 등을 거름으로 쓴다.

한 마디로 친환경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농사지으려면 힘이 드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젊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

이른 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밭 근처에 야산이 있어서 낙엽 썩은 부엽토를 큰 바구니에 담아 부지런히 날랐다. 옛날에는 낙엽이나 나무를 썰감으로 사용하여 부엽토가 없었지만 지금은 산 어디를

들어가도 썩은 낙엽이 한 뼀 넘게 수북이 쌓여 있어 비교적 손쉽게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밭이 200평이나 되어 부엽토를 두렁에 뿌리는데 꼬박 3일이나 걸렸다. 그리고는 근처 소 키우는 농장에서 우분을 한 경운기 분량 구입 했다. 농장 주인은 한사코 그냥 가져가라 하는데 운반할 도구도 없어서 경운기 기름 값이나 하라며 3만원을 놓고 왔다.

거름을 충분히 투여한 후 제일 먼저 심은 것은 감자와 상추 그리고 시금치 등이었다. 밭가 언덕에는 백일홍, 코스모스, 분꽃, 봉숭아 등 꽃씨를 뿌리고 호박도 심었다. 4월 들어 날씨가 풀려 농사일이 많아지자 자연히 농장에 가는 날이 많아졌다. 어떤 날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날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도 난 고추를 심을 두렁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있었다.

“감자가 잘 크고 있네요, 농사 일은 많이 해 보셨어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난 직감적으로 농장 근처 마을에 사는 주민이겠구나 생각하고 “아 예, 농사일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내 짐작대로 그 친구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일곱 살 적은 40대 후반이었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없어 총각으로 살고 있었다.

농장을 자주 가면서 근처 마을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는데 자식들이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어 적적한지 얘기 나누기를 좋아했다.

“자식을 6남매 두었는데 다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

“지난겨울에 첫째 사위랑 일본에 여행 가서 온천 목욕을 실컷 하고 왔다우.”

“논과 밭이 모두 5천 평 가량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임 대해 주었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땅 부자였다. 근처 땅 값이 평당 200만원 정도 되니 수십 억에서 수백 억 부자들이 수도룩했다. 그러나 생활상은 보통 농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다른 농촌마을과 다른 것은 객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뻥질나게 부모를 찾아다닌다는 점이다. 휴일이면 고급 차량들이 골목길을 가득 메워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였다. 아마도 부모에게 잘 보여서 유산을 많이

상속 받으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평일에는 나이 든 주민들은 딱히 할 일이 없어 마을길을 어슬렁거리다가 얘기 상대가 눈에 띄면 다가가서 자랑거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곤 했다. 나는 외지인이라 현지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맛장구도 쳐 주곤 했더니 찾아오는 노인들이 꽤 많았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그 친구에게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산이며 들로 나다니기를 좋아했다. 그 친구와 조금 가까워지자 농장에 올 때마다 고사리며 다슬기, 취나물 등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곤 했다.

“이형, 힘들게 다슬기 잡아서 집에서 해먹지 왜 나에게 몽땅 주는거요?”

“우리 집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형수가 이런 걸 갖고 가면 귀찮게 생각한다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 친구는 결혼을 못해 형님 집에 얹혀 살며 형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바쁜 농사 철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일은 하지 않고 산으로 들로 나가 버리니 형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 일쑤였다.

고추를 다 심고 난 5월 중순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끝내고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는데 그 친구가 헐레벌떡 나에게 뛰어오기 시작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못 만날 뻔 했네요. 일 다 끝냈어요?”

“일이 끝이 있겠습니까? 배고파서 조금 일찍 집에 가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친구는 다음 날 읍 주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축구선수가 부족하다면서 나에게 같이 운동을 하자고 다짜고짜 부탁을 했다.

“이 형, 나는 외지사람인데 자격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축구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격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습니까? 만약 시비를 걸면 우리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난 응낙을 하고 말았다. 학교 다닐 때에는 반 축구 선수로 뭘 정도로 운동을 꽤 좋아했으나 직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제대로 안하여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다음 날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은 잔치 기분이 완연했다. 학교 입구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아침부터 농악대가 농악놀이를 하면서 흥을 돋우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기분이 났다.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을 잡

고 속속 운동장에 모였다. 객지에 나가있는 출향 인사들이 찬조금을 듬뿍 내어서 읍사무소에서 돼지를 2마리나 잡고 술과 과일, 떡 등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장만했다고 했다. 객지에 나가 돈을 모은 사람들은 이럴 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읍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찬조금을 낸 사람들을 일일이 알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힘찬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 친구 마을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축구경기에 나갔다. 리 대항전인데 젊은 사람들이 적어서 60대 이상 할아버지가 선수로 뛰는 경우도 있었다. 그 친구는 펄펄 날았다. 평소 산타기를 좋아하더니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 주었다. 우리 팀은 승승장구하여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박 형, 축구하는 걸 보니 옛날에 한가락 한 것 같더만요. 같이 축구하자고 안했으면 서운하게 생각했겠어요. 하하”

물고기가 모처럼 물을 만난 것처럼 그 친구는 무척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시합 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일일이 지시했다. 예상대로 결승전 상대는 강했다. 악착같이 뛰었으나 전반전에 우리 팀이 1골을 먹은 채로 끝났다. 쉬는 시간에 그 친구는 나에게 함께 공격을 하자고 했다. 상대팀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아 지쳐 있어서 체력전으로 밀어붙이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 그 친구 예상은 적중했다. 후반전에 접어들자 상대팀 선수들의 발이 눈에 띄이

게 둔해졌다. 나는 젓 먹던 힘까지 다해 공을 잡으면 무조건 그 친구에게 패스했다. 그 친구는 내가 차 준 공을 잡아 연속으로 2골을 성공시켰다. 경기는 결국 우리가 2:1 역전승을 거두었다. 경기가 끝나자 마을 주민들이 그 친구를 행가래 치며 기쁨을 함께 했다. 그 날 그 친구와 나는 학교 운동장 텐트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운동장 한 가운데서는 주민 노래자랑이 열리고 우린 그 노랫가락을 반주 삼아 실컷 마셨다.

시골 마을 담벼락을 빨강게 물들였던 장미가 지고 녹음이 짙어가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한 낮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 잡초를 정신없이 뽑고 있는데 “오랜만입니다. 작물들이 아주 싱싱하네요.”라며 그 친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에게 등 뒤에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어휴, 이 형 무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나도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데 그 날은 막걸리와 과자 봉지 등 안주류가 손에 들려 있었다.

“어디 가시는 길 입니까?”

“아니요, 박 형과 오랜만에 술 한 잔 하려고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일 하루 쉬시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며 낚시다.”

그리고 보니 그 친구 입에서 술 냄새가 제법 났다. 아침부터 어디서 해장술을 한 잔 하고 온 것 같았다.

“그럼시다. 잡초 뽑는 것 질렸는데 잘 되었네요, 이 놈의 잡초는 정말 생명력이 강해요. 얼마 전에 뿌리까지 전부 뽑았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러게요. 박 형이 아무리 해도 잡초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대충 함께 살아가세요. 하하 ”

내가 놀러가자는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서인지 그 친구는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았다. 그 친구를 따라 20여분 산 오솔길을 걸으니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나타났다.

“이 곳은 제가 자주 찾아오는 아지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박 형에게 몇 번 드린 다슬기와 가재는 여기에서 잡은 겁니다.”

“아, 도시 근처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니 정말 별천지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막걸리를 주고 받으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좋은 자연을 사랑할 줄 몰라요. 땅 값이 오르니까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몇 년 전에 산주인이 길을 내고 음식점을 만들어 팔려고 하다가 제가 동네 사람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몇 개월에 걸쳐 반대 투쟁을 벌려 지켜낸 곳입니다. 트랙터로 길을 내려는 것을 길바닥에 누워서 막았더니 업무집행을 방해 했다고 경찰서에서 몇 번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곳은 내 눈으로 보기에다 음식점을 내면 대박이 날 수 있는 멋진 곳이었다. 옛날에 벼락에 맞았다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앞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음식점 허가만 받는다면 아줌마 부대가 줄을 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저 똑같은 공산품을 만들어 내다 팔고 있는 것 뿐입니다. 화학비료를 듬뿍 넣고 시도 때도 없이 농약을 뿌려대어 작물을 보기 좋게 만들어 중간상인에게 넘기면 끝납니다. 작물이 신선하게 보이도록 마지막까지 농약을 쳐 대고 있으니…… 그걸 사 먹는 도시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그 친구 형 되는 분도 비닐하우스 20개 동을 짓고 상추며 시금치, 파, 샐러드 등 각종 야채를 1년 내내 경작하여

내다 팔고 있었다. 농촌에 일 할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5명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고용된 외국인들이 3~5년 하우스에서 일하고 귀국할 때는 농약에 중독되어 평생 고생할 거라는 말도 했다.

“농약을 치라고 하면 제가 형 모르게 농약은 땅에 묻어 버리고 물만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몇 번 형에게 들켜 된통 혼이 났지만…… 정부당국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잔류농약이 있는 작물은 못 팔게 해야 농민들도 농약을 적게 쓸 겁니다. 난 박 형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화학비료 대신 우분과 부엽토를 거름으로 쓰는 걸 보고 농사꾼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진정한 농사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일반 농민들의 관행적인 고추 농사 방법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문제점을 얘기했다.

“고추는 재배해 봐서 아시겠지만 재배하기가 무척 까다롭지요. 탄저병, 역병, 무름병, 담배다방, 진딧물, 총채벌레 등 각종 병균과 해충이 수없이 발생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추농사를 망치기 일쑤죠. 때문에 고추를 시장에 팔기 위해 재배하는 농민들은 한마디로 농약통 속

에서 고추를 재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해 농약 치는 횟수가 평균 26회 된다고 하니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는 6월부터 수확이 끝나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5~7일에 한번씩 농약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제초제를 고추 고랑에 마구 쓴다는 것입니다. 박 형처럼 호미나 손으로 풀을 뽑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초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박 형 아십니까? ”

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친구의 열띤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라목손 말인가요? ”

“예, 그라목손을 ‘녹색의 악마’라 부른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700명 이상이 이 농약으로 인한 중독이나 음독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농약이지요. 이렇게 고랑에 뿌려댄 제초제가 사방으로 퍼져있는 고추뿌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고추에 흡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중독성(重毒性) 농약은 증발도 잘 되지 않아서 5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니 제초제 자주 사용하는 밭을 파보면 지렁이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어요. 또한 고추가 꽃 피우기를 멈추는 10월이 되면 일부 농민들은 열려있는 푸른 고추를 빨리 수확해서 팔기 위해 고추에 농도를 진하게 한 제초제와 빨간 착색약을 섞어서 뿌려 댁니

다. 이렇게 해서 10여일 지나면 고추대는 말라 죽어 있고 푸른 고추는 빨갭게 익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로운 고추가 중간상인 등을 통해 버섯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고추들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나요? 단속을 안 하고 뒷짐이나 지고 있습니까? ”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라 주면서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관계 당국에서도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FTA다 뭐다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큰데 이런 것까지 단속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민들을 자극시킬까 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친구 말대로 관계 당국에서 이런 고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곡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고 돌을 들춰가며 가재도 잡다보니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다.

“이 형,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내려갑시다. 놀다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아 배고프세요? 저는 막걸리를 많이 마셔서인지 배가 고프지 않네요. 박 형 라면 좋아하시면 제가 라면으로 점심 대접할게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근처 바위 밑으로 가서 휴대용 가스버너와 라면, 그리고 묵은 김치통을 가지고 왔다. 그 곳에 비상식량을 숨겨놓고 산에서 자주 끼니를 때우곤 한다고 했다. 김치와 막 잡은 가재를 넣고 익숙한 솜씨로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환상적이었다.

“아, 라면 맛이 죽여주네요, 빨갭게 익은 가재가 입 맛을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재를 넣고 끓이면 국물이 우러나와 맛이 참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생전 처음으로 가재탕 라면을 먹고 1회용 커피를 마시며 그 친구는 맛있는 찹과 몸에 좋은 영지버섯이 벼락바위 뒤편에서 자라고 있다면서 찹즙을 자주 마시냐고 나에게 대뜸 물었다.

평소에는 별로 마시지 않지만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길거리에서 종종 마신다고 대답해 주었다.

“박 형, 길거리 칩 차는 다리통 보다 굵은 칩을 즉석에서 갈아주는데 그 다리통보다 굵은 칩이 어떻게 채취되는지 모르시죠? 그런 굵은 칩은 길 옆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대개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그런 곳에 포크레인 같은 중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럼 사람이 곡괭이나 다른 도구로 직접 캐야 하는데 그런 굵은 칩 캐려면 무척 힘들어서 일당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산유곡에서 굵은 칩을 발견하면 캐기 어려워니까 제조제를 줄기에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얼마 못가서 칩은 죽고 칩뿌리는 수분이 증발되고 조직이 파괴되어 조금 얇아지면 체인블럭(chain block)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잡아당기면 손쉽게 켤 수 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파는 모든 칩이 이렇게 채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칩은 마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친구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었다.

종종 뉴스를 통해 가성소다를 먹는 음식에 사용하고 가축용 사료를 수입해서 음식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먹거리가 위험수위에 와 있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벼락바위 뒤 편에 있는 칩을 채취하러 가자고 했으나 다음에 꼭 갈 것을 약속하고 그냥 내려왔다. 막걸리를 많이 마신 탓으로 술 기운이 돌았기 때문이다.

길가 가로수마다 매미들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여름이 되었다. 그 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 뒤에서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아마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름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땡벌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고추며 오이, 가지, 토마토, 옥수수 등 많은 작물들이 여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인을 부른다. 전날 밤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술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으나 빨강게 익은 고추며 토실토실 익은 토마토, 오이 등을 생각하면 집에서 쉴 수가 없었다. 밭에 왔다간 지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작물들이 키 크기 경쟁이라도 하듯 그 사이 엄청 자라 있었다. 이제 작물들의 이파리며 잡초들로 인해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다. 우선 두렁의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다. 제초제를 쓰지 않아서 그냥 두면 온 밭을 점령해 버릴 기세였다. 겨우 한 두렁 잡초를 뽑고 나자 온 몸이 땀에 범벅이 되었다. 오늘은 첫고추를 따야 하므로 한낮이 되기 전에 빨리 잡초뽑기를 끝마쳐야 했다. 한참 일하다가 목에 두른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일어서는데 현기증이 심하게 왔다.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밭가 그늘에 놓아둔 물통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정신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산소호흡기와 링게르 주사기를 꽂은 채 병원 침대에 누어져 있었다. 옆에는 예쁘장한 간호사와 그 친구가 서 있었다.

“아니 이 형, 여기가 어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발에 눌러 갔더니 박 형이 발 한 가운데 쓰러져 있어서 들쳐 메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

그 친구는 발 가에 세워둔 내 차를 멀리서 보고 발으로 왔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안보여 이상하다 생각하며 담배 한 대를 피우다가 우연히 고춧대 사이에 쓰러져 있는 날 발견하고 1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읍내 병원으로 업고 뛰어 왔던 것이다.

“내가 운전만 할 줄 알았어도 박 형 차를 몰고 쉽게 왔을텐데…… 박 형을 들쳐 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근데 박 형 살 좀 빼야 되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아주 짜부라진 줄 알았다니깐요, 하하.”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난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랐다. 무성한 작물들 속에 쓰러져 있어서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일하던 농민이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한여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어떤 해에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에 판로난까지 겹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우리 농민들이 판로나 가격 걱정 없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는 농정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그 친구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 내 가슴 속 깊이 소중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다. 난 며칠 후 멋진 등산화 한 켤레와 모자를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했다. 한사코 받지 않으려다 “등산화 신고 산을 타면 박 형과 동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며 기꺼이 내 성의를 받아 주었다.

농장 근처 야산의 상수리나무 이파리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었다. 활엽수들은 노랑고 빨간 이파리들을 대부분 떨쳐내어 근육질 몸매를 뽐내고 있는 반면 소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들은 여전히 푸른 산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밭에도 고추며 가지, 오이, 들깨 등 모든 작물은 수확이 끝나고 서리를 맞으며 익는다는 검은콩과 김장배추만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농사를 지었지만 거름을 잘 써서인지 작물들이 실하게 자라주어 꽤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 친구 말로는 이 근처에서는 제일 농사를 잘 지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병충해에 약한 고추는 농약을 적게 써서인지 탄저병에 걸려 2번만 빨간 고추를 따고 모두 뽑아내야 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정성 드려 키운 작물이 병에 걸려 시들해 질 때는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반면에 싱싱하게 자라서 토실토실한 열매를 선물해 줄 때는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작물은 주인의 땀방울을 먹고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바람이 불지 않은 맑은 날씨여서 수확이 끝난 작물들을 태우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마른 고춧대며 옥수수대, 들깨대 등을 밭 한가운데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 이파리가 조금 남아있는 검은콩 사이로 낮은 비료포대가 살짝 보였다. 분명 내가 놓아둔 것은 아니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비료포대를 꺼내는데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비료포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곳에는 팔뚝보다 굵은 칩뿌리 3개와 영지버섯 20여개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난 그 친구가 생각났다. 지난 초여름에 계곡으로 놀러가서 칩과 영지버섯을 채취하러 함께 가자고 굳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그 친구를 만난 것이 꽤 오래 된 것 같았다. 딱히 농장에 일이 없었기에 한 보름 정도 밭에 나오지 않아 만나

지 못했던 것이다. 그 친구는 누구에게 구속되기 싫다며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기에 내 차를 보고 곧 나타나겠지 생각하며 마른 작물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작물들이 바짝 말라서 인지 금방 불꽃이 일어나며 연기가 불꽃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낙엽 태울 때와 비슷한 구수한 냄새가 참 좋았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뛰놀며 불장난 하던 생각도 났다. “산불 안 나게 조심해야 돼.” 자주 놀러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불꽃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잘 계셨어요, 할머니! 자제분들은 잘 찾아오나요?”

“그럼 지난 주말에도 둘째 내외가 겨울 옷가지랑 쇠고기를 사가지고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갔지. 고추랑 고구마랑 농사지은 것들을 트렁크에 듬뿍 실어 보냈어.”

모닥불 옆에서 난 할머니와 둘이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식자랑 손자자랑에다가 젊어서 고생하면서 살림살이 늘린 얘기에 정신이 없었다.

“내가 이 마을에 시집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다우. 일제시대라 농사지은 곡식을 왜놈들에게 빼앗기도 했지만 겨울이면 노름으로 살림살이 다 말아먹기 일쑤였어. 새마을운동 하면서 내가 부녀회장으로 뽑히고 나서부터 우리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지. 나는 마을 아낙들과 함께 돼지와 토끼, 닭 등 가축을 공동으로 키우기 시작했

어. 마을 옆에 산이 있으니 칙냉쿨이며 각종 풀들이 많으니까 사료를 사서 먹이지 않고도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었어. 가축을 팔아 모은 돈으로 농기계를 하나씩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 아낙들이 부지런히 일하니깐 남자들도 변하더라구. 산을 개간해서 약초도 심고 뽕나무를 많이 심어 누에를 키워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무엇보다도 농한기에 노름을 앓게 되어 서로 화합하는 부자마음이 되었다우. 이래봐도 장관상은 물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 참 자랑스러운 할머니였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가? 쌀밥은 명절 때나 구경할 수 있고 깻보리 밥도 없어서 소나무 껍질이며 풀뿌리 등을 캐먹던 가슴시린 추억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나 역시 농촌에서 태어나 그런 시절을 겪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겪었을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요즘 애들은 큰일이야. 손자들도 우리 집에 오면 밥은 잘 안 먹어. 뭐 피자다 치킨이다 해서 며느리들이 싸가지고 와서 애들에게 밥 대신 그걸 먹이더라고. 나한테 혼나고 나서 좀 고쳐졌지만 식성이 좀 까다로워야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어야지 외국에서 사온 거 먹어 건강해지겠어?”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그 친구는 산기슭에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할머니, 같은 마을 사는 이상구씨 요새 잘 지내나요?”

나는 할머니에게서 그 친구 안부나 전해 들을까 해서 넋지시 물어 보았다. 순간 시종 밝게 웃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왜요 할머니, 이상구씨 무슨 일 있나요?” 나는 다급하게 재차 물어 보았다.

“상구 가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 죽었어.”

“예? 상구씨가 죽었다구요?”

난 한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젊고 건강한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할머니로부터 그 친구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날도 그 친구는 작물에 농약을 치는 문제로 형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다음 날 출하될 상추가 생기있게 보이도록 형은 농약을 하라고 했으나 그 친구는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못하도록 말리다가 형으로부터 손찌검까지 당하며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다가 이틀 만에 벼락바위 밑 계곡에서 등산객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신 옆에는 술병과 농약병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먹다 남은 라면도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 상구씨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초상 치룬 지 아마 1주일쯤 되었지. 농약 먹고 죽어서 경찰이 부검까지 해서 늦었어. 화장해서 죽은 계곡 옆에 뿌렸다고 하더구먼.”

나는 시들해 지는 모닥불을 흙을 덮어 끄고는 밀려오는 어둠을 뚫고 계곡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친구와 마지막 작별인사라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친구는 나를 생각하며 어렵게 칙뿌리를 캐고 영지버섯을 따서 이렇게 어둠이 깔린 시간에 밭에 갖다 놓지 않았겠는가. 희미하게 보이는 오솔길을 따라 낙엽을 밟으며 나는 하염없이 걸었다.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뿌연 동공 속으로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자연을 벗 삼아 들판을 뛰노는 사슴처럼 살다간 친구,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 산새처럼 훨훨 나르며 자유롭게 살다 간 친구…… 낙엽이 지지

얇은 아름드리 상록수 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둥근 달이 빛났다. 저 멀리 보이는 벼락바위도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울음소리

정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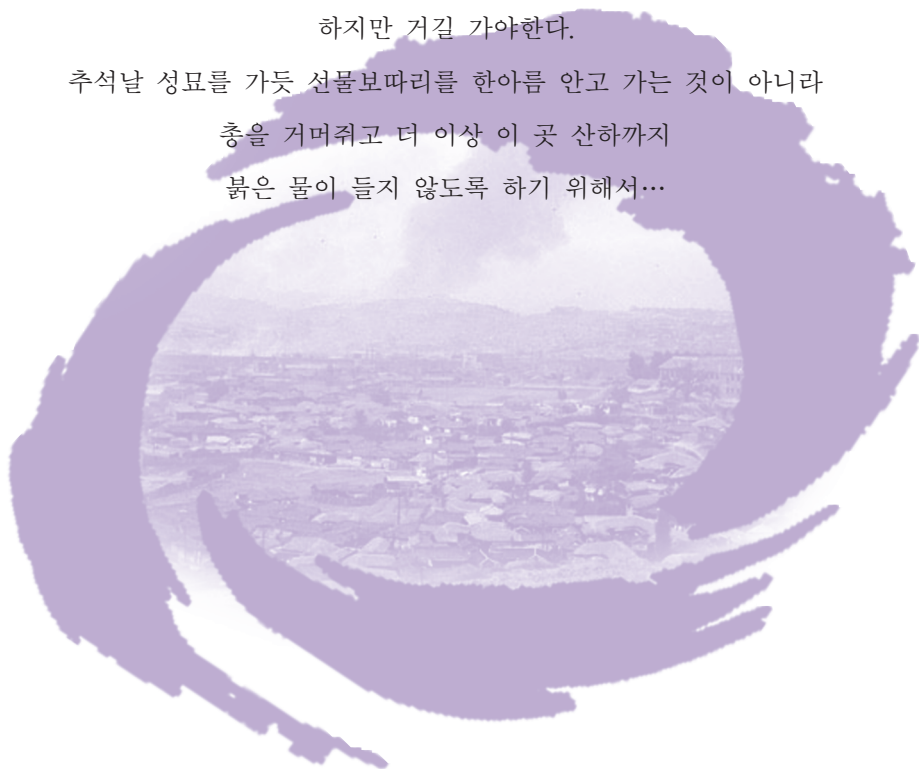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가는 북에는 더럽게 오염된 붉은 이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거길 가야한다.

추석날 성묘를 가듯 선물보따리를 한아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을 거머쥐고 더 이상 이 곳 산하까지

붉은 물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단편소설 |



법무부 전주소년원

정 명 선

먼저 제 졸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쓴 이 졸작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선친의 실제 이야기를 어머니가 평소에 들려주셔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두 분께 이 작품을 올립니다.

울음소리

“따! 따……!”

느티나무 뒤에서 소년이 생가지 나무 꼬챙이를 그어들고 얼굴을 뺨뚱이 내밀고는 입을 함죽거리며 벌렸다 오므리며 “따! 따!” 거린다. 그럴 때마다 소년의 빨간 헛바닥이 기억자로 구부렸다 펴졌다.

“너, 나와.”

“너 죽었던 말이야.”

“아냐.”

“내가 먼저 왔어.”

저 만치 키 큰 억새풀 뒤에서 생가지 나무를 총처럼 거머쥐고 허수아비처럼 몸을 일으키며 바람을 했다. 이내 두 소년은 느티나무와 키 큰 억새풀 중간 지점으로 달려 나와 서로 코를 맞대고 실갱이를 벌였다. 말간 하늘가에는 별건 태양이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소년의 등 언저리를 따갑게 내비추었다.

저녁 무렵이 되었다. 소년들은 논둑길을 생가지 꼬챙이를 휘휘 그어대며 걸었다. 그럴 때마다 인기척 소리에 놀란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어 달아났다. 아이들은 농칠세

라 나무 가지를 들어 일직선으로 후려쳤다. 개구리들은 길쭉하게 얻어 맞아 다리를 쭉 뻗는다. 몸을 바르르 떴다. 숨털 같은 진한 쾌감이 온몸에 살얼음 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짜릿하다.

뉘엿뉘엿 발간 해가 암캉아지 젓가슴 모양 울퉁불퉁 늘어진 산골짜기에 부딪칠 정도로 커다랗게 내리 앉으면 서녘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벌겋게 타들어간다. 가을날 붉게 타 오른 감나무 골 같다. 황혼 빛에 벌건 두 눈을 깜빡이며 차, 차츰 내리깔면 주홍빛으로 그러다 내가 서 있는 근처에서는 담청색 어둠으로 변해 붉은 기운은 사라져 간다. 어둠이 순진한 들녘의 대낮을 붉게 잡아먹다가 담청색으로 이내 까맣게 목구멍처럼 잡아 삼키고는 이 곳 기와지붕 용마루까지 넘어와 문지방을 시커멓게 넘볼 즈음이면 이미 들녘에 개구리들의 떠들썩거림이 아우성친다. 그 소리는 무어라 표현하기조차 힘들었다. “개골!” 하는 소리가 혼자만의 항의소리 같으면 알 수 있는데 그건 한, 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 수십, 수백, 수천, 아니 논 독에 있는 개구리들 전부가 일순간에 항의하는 소리라 딱히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어찌면 그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잡아다가 구슬려보면

“내 아비, 내 딸, 내 동생 살려내라! 이 원수, 죽일 놈……!” 하고 소릴 벅벅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날 밤은 어둑 칙칙한 방구석에 덩그마니 남아있는 요

강(要綱) 속에서 소년들이 잡아 죽인 개구리들의 시신(屍身)들이 부씩부씩 기어 나와 소년의 배를 핏물과 목을 조를 것만 같았다.

그 당시 나의 형은 빨강이니, 퍼렁이니 하는 것에 가입해 있었다. 늙으신 아버지는 형의 다리가 찢어져라 잡아당기시며 당에 가입하는 것을 말리셨지만 형은 막무가내였다.

“이젠 조선팔도는 니해 내해 없는 세상이 될기야요. 아바디도 기러고 있디 말고 날래 당에 가입해야디요.”

“어더래. 당에 너, 너무 날뛰는 거 아인가.”

“날뛰다니요. 저도 시상 돌아가는 거 잘 아니끼니 그렇디요.”

“시상 돌아가는 길 잘 안다고… 니 아바디한테 말대꾸하는 긴야.”

“말대꾸라니요. 말대꾸가 아니야요. 아바디. 두고 보시면 알기야요.”

꼭 그 말 밖에 못하는 사람처럼 형은 하루가 멀다하고 짓거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찌면 형은 개구리의 혀와 같이 한 가지 음성만을 짓거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형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형을 말리다 지쳐 끝내는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지만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어느 여름 날에는 집

문서고 땅 문서고 당에 바쳐 공동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화병으로 몸져누워 계신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해댔다.

“선친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땅덩이를 당에 바쳐야 한다고. 이 아부딘 기런 당에는 가입하지 안갔어. 님, 정신이 어찌된 거 아인가.”

아버지는 몸을 반쯤 일으키시며 쉼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젠 시상은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가 될기야요. 니해 내해 할 것 없이 동무들 시상이 되고야 말기야요. 그 동안 조선팔도는 악덕 디주들 때문에 아무기도 된 게 없디 않아요. 기껏해야 나라나 빼앗겨 버디고.”

형은 늘상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간혹 어머니가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며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인석아. 네가 오면 집 안이 편털잖아. 왜 기러는건야. 아바디 편찬으시거 뻔히 알면서.”

“오마니 너무 기러지 마시라요. 저도 집안 생각하니까니 기러는 거야요. 시방 시상이 어떻게 되 가는 줄 알기나 아시고 기러는 기야요. 그까짓 땅 몇 마디기 가지고 무얼 기러시는 거야요.”

“인석이 땅 몇 마디기라니 그 땅은 선친 대대로 내려오는 땅 아인가. 그 땅에 네 할아부디의 혼이 깃들여 있다. 함부로 입 놀리디 말란 말이다.”

참다못한 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눌러 말씀하셨다.

“그래요. 거긴 할아부디 무덤도 있어요. 그걸 당에 모조리 바칠 순 없지 않겠어요.”

“호환이 니가 뭘 안다고 기러냐. 야. 나도 집안 잘되라고 기러는 거란 말이다.”

“됐다. 시상이 어수선 할수록 가만히 있는기 상책이다. 잘못하다간 목숨부디 하기 힘들디.”

“니 땀에 나만 더 이상해졌다. 호환이 닌 왜 형 생각에 쌍 손들고 반대하는 거디.”

“.....”

형은 방구석에 앉아 아버지의 말씀에 동조를 했던 내가 못마땅한 것 같았다. 나는 그럴때면 형의 모습이 싫어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큼지막한 감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서 있는 동네어귀를 지나 냇가로 뛰어나오면 어느 새 바둑이가 내 심정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나보다 더 먼저 개울가로 달려와 나를 기다리곤 했다. 개울가에 뜨겁게 내리쬘던 땡볕도 초저녁 바람에 제법 서늘이 퍼렇게 되어 개울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이 곳에 나와 있으면 소록거리는 물소리가 나의 마음을 달래 주는 듯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형이 없을 땐 애비된 입장에서

“우린 나쁜 씨가 아니다. 암 나쁜 씨가 아니다. 시상이 어수선 하니끼니 기렇디. 언젠가는 제 정신이 들면은 달라 달기야.” 하고 밤 낮으로 잠꼬대 하듯 말씀하셨다.

그러나 형은 늙으신 그의 애간장 타는 듯한 간절한 열망도 저버리고 집 문서와 땅 문서를 쥐도 새도 몰래 당에 넘겨버렸다.

“야. 호환아. 형이 땅 문서를 당에다 바쳤나 부다 야. 달래 형 찾아 오라야.”

내가 들녘에 나가 꼴을 베고 집으로 돌아오자 형을 찾아 오라고 아버지는 불같은 역정을 내셨다. 나는 솟을 대문을 “빠걱!” 열고 밖으로 형을 찾으러 뛰어나갔다. 들녘에는 한창 농사 일로 바빠 있었다. 나는 읍내에 나가 형이 잘 가는 주막에 가보았다. 내가 미단이 나무 문을 드록 열고 들어가자 형은 둥그런 나무 탁자에 당원으로 보이는 너댓명의 젊은 사람들과 둘러 앉아서 꺾꺾거리며 잡담들을 나누고 있었다. 형은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다 말고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 나를 바라보았다.

“형님 아바디가 오라고 하는데 어떡하디?”

“몰 어케. 너 날 데릴러 왔다면 날래 가라우야.”

“야. 성환이 너무하는구만. 동생이 형 찾아 왔는디 기렇게 보내면 되겠니. 자! 자! 동생 동무래, 여기 앉으라우.”

형 옆에 앉은 툇툇하게 생긴 사내가 탁자 밑에서 빈 의자를 끄집어내며 말하였다. 내가 자리에 앉자 앞에 앉은 이쭈시개처럼 마른 사내가 막걸리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발 잔을 나에게 권했다.

“인석은 아즉 어려서 술을 못마시디.”

형이 손을 가로 저으며 말했다.

“순진한 동생 두었구만, 그래도 물먹듯 쪼금만 마시디
그래.”

“고맙지만 됐어요.”

“핵교는 다니나?”

“학교 아즉 형편이 안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농사일
돕고 있다. 이젠 머슴들을 둘 형편도 못 되고해서…….”

나 대신 형이 대답했다.

“어차피 머슴들도 일제 때 해방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안
갔어.”

“기림. 마 이참에 우리 당원에 가입하지 그으래.”

“하긴 이젠 조선팔도 모두가 당원이 되야 할 시상이 될
거니끼니 말이야. 미리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것이 선구자
디.”

“기림. 앞을 내다보는 자가 선구자디. 우리의 지도자 동
지처럼.”

“시상은 이젠 평등하게 될 기야. 조선팔도 모두가 말이
디.”

“기림. 하루 빨리 기림 시상이 와야디.”

“조선팔도 양반 상놈 따지는 판에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갔어.”

“결국 쪽바리들한테 나라나 빼앗겨 버리고.”

“자. 동무들 그런 의미에서 술 한 잔 하라우. 이거 혼자
만 먹을라니까니 그렇다 야.”

“동생 동무래, 몇 살인가?”

“열 일곱 살이예요.”

“기름 찜만 술 먹어도 돼갔다. 물 마시듯 꿀떡하면 되니까네.”

“기래. 호환아 술 한 잔 꿀떡 해봐라.”

형조차 그렇게 말하자 나는 마지못한 척 술 한 잔을 꿀떡했다.

술 한 잔에 마음이 미역처럼 부들부들해졌지만 웬지 호느적거리는 기운 속으로 가시같이 화난 아버지의 얼굴이 역력히 보이는 듯해 의자에서 일어났다.

“전 가봐야 되겠시오. 놀다들 오시라고요.”

“벌써. 더 이따가디 그으래.”

“아니야요. 아바디가 기다리고 계시니끼니 가야디요. 형님 일찍 들어오시라고요. 아바디, 어무니 기다리시니끼니 일찍 오시라고요.”

형은 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미미하게

“알았어” 하고 대충 말하였다.

“전 이젠 가봐야 갓어요. 놀다들 오시라고요.”

나는 식당을 빠져나왔다. 들녘에는 벼이삭들이 벌건 황혼 빛에 제법 눅눅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날이 어둑해지자, 형은 술이 얼큰하게 취해 들어왔다. 안방에서는 아버지와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녀석아! 내래 아무 당에도 가입하지 말랬디! 응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는게 상책이다. 괜히 날뛰다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다.”

형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형의 말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이민은 모든 탈취로부터 해방될 기아요.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런 시상이 되고 있어요.”

“인석이 그래도 꼬박꼬박 말대꾸야. 니가 얼마나 아는진 몰라도 이 애비는 니보다 오래 산 사람이다. 시상물정은 니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다. 그러니 함부로 당이니 이런 것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아버지는 구식 글방에서 글 꽤나 읽으셨던 분이고, 형도 소학교도 나오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다.

그러한 일이 있는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없다며 외진 곳으로 내려와 초라한 초가집을 하나 얻어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는 그 전같이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거리를 찾아다녀야만 했다. 다행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을 견이를 거들어 주면서 그럭저럭 생활을 했다.

밖은 하늘이 높던 1947년 어느 가을-

읍내에 추수하는 일손을 도와주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마을회관 건물 지붕 위에 붉은 깃발이 가을 하늘에 헛바닥처럼 나폴거렸다. 어느새 익히 얼굴에 익은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국민학교에서 쓰는 책상이 두어 개 단상을 마련해 놓고 재판관으로 보이는 붉은 완장을 찬 40대 중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

앞에 나이가 지긋이 든 황 지사가 서있었다. 붉은 완장이 말했다.

“이봐요. 노인은 당을 모독하고 다녔다죠. 어찌해서 공산당을 헐뜯고 다녔소?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소?”

황 지사는 눈썹 하나 까닥거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턱에 난 흰 수염이 산들바람에 끝부분이 슬렁거렸을 뿐이었다.

“여태까지 기름기가 반지르르 하다보니 배고픈 사람들 생각은 아니해 봤소.”

붉은 완장이 재차 다그쳤다.

“너희들이 무언데 감 나라, 대추 나라 하는건냐! 어디서 배워먹은 수작들이냐! 너희들은 삼강오륜도 모른다더냐! 인민재판은 무슨 인민재판! 시상 천지에 이런 인민재판이 어디 있다냐!”

그러자 단상 옆에서 기둥처럼 서있던 인민군복이

“이 노친네가 예가 어디라고 못하는 말이 없어!”하고 소릴쳤다.

그러자 황 지사의 눈에서 불뚝이 튀었다.

“뭐라고! 이 녀석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있다가 몇 달간 통 안 보인다고 했던니 결국 빨강이들하고 놀아라. 인석아 하늘이 노한다. 하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빙 둘러선 마을 사람들 중에 군데군데 끼있던 젊은 붉은 완장들이 나와 서서 막무가내였

다.

“할아버지 여기서 그러시면 안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요.”하고 샷대질을 하며 역정을 내는 황 지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황 지사는 두 눈을 부릅떴다. 그러자 단상에 있던 인민군복이 벌떡 일어났다.

“무시기들 하는 기야!”

벼락 소리를 지르자 빙 둘러선 마을사람들 중에 황 지사의 아들로 보이는 서너 명의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이 자식들이. 감히 우리 아버님한테…….”

갑자기 “땡!” 하고 귀청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났다. 단상에 서있던 인민군복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내 오른 손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총이다! 총……!”

그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이 노친네가 지금 시상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구만. 내 이런 무식한 노친네는 처음 보디.”

인민군복은 노친네에게 권총을 겨누었다. 빙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그때, 한 여인이 단상 앞으로 나와 폭 주저 앉으며 두 손을 모금고 빌기 시작했다.

“목숨만 살려 주시라요! 목숨만…….”

인민군복은 총을 허리춤에 도로 꼽았다.

“내일 인민재판이 다시 있으니 나오시라요.”

지금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웬지 완장을 차고 헉헉거리며 방문을 들락거렸던 형의 모습이 생각났다. 형은 이 곳으로 이사를 온 뒤로 민청에 불려 다니며 집요한 사상교육을 받는 모양이었다. 그는 스탈린 대원수님이 조국을 해방시켜주고 김일성장군이 독립운동을 하여 조국이 해방되었다고 매일같이 혀가 닳도록 선전하였다. 그러던 며칠 뒤, 인민재판에서 황 지사는 붉은 완장들한테 죽창에 찔려 죽었고 그의 자식들은 쥐도 새도 몰래 공산당원에게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가을비가 하늘을 찢어 놓은듯이 내려 나무 가지에 늪은 거미처럼 바싹 달라 붙어있던 잎 바랜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져 초가집 작은 텃 마루에 질퍽하니 날아들어 귀찮게 싸였던 어스늑한 초저녁이었다. 불품없는 싸리문이 푸석! 하고 바람에 흔들리듯 열리더니 나보다 두 살 더 많은 동네 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 형과는 평소에도 말을 트고 지내던 사이였다.

“호환이 무얼해?”

난 그 소리에 지레 놀라 등허리를 꿈쩍 쳐올렸다.

“웬일이야요? 우리 집에 다 오고.”

“야, 이거 아궁이에 불 때고 있구만.”

“비도 오고해서 방에 습기가 차는 거 같아서.”

우두커니 서있던 그 형이 슬금슬금 부엌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아바님과 오마니는 계시나?”

“좀 전에 장에 나가셨어요.”

난 투닥거리며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었다.

“사실 말이야. 너한테 일자리가 하나 있어서 알려주려 왔지배.”

“뭐 일자리… 무언데?”

“너도 알다시피 부전공원은 북조선의 수렵자원이 풍부한 곳이지. 그곳에 가문비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지천이야. 그곳에서 대대적으로 벌목을 하고 있어. 목재를 벌목하여 뗏목으로 띄어 부전강에 흘려보내 평양 등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일을 하면 샅을 준다는 기야. 뗏목을 타는 일이라 생명을 담보로 하긴 해도 명태도 한 켤짜씩 준다는구만.”

나는 급한대로 그 일을 했다. 나름대로 집에 보탬이 되어 준다니 꽤 괜찮은 일자리였다. 그러던 찬바람이 불던 그 해 가을에는 그 일도 그만 두게 되었다. 그때 쯤 그 형이 다시 나타났다.

“이 세상은 이렇게 가다간 끝장이 나고 말기야.”

난 느닷없는 그 말에 가슴이 싸해져서 그 형에게 바싹다가

“지금 세상이 빨갱이들이 설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기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시요.”라고 했다.

그는 아무 대꾸도 않고는 멍하니 까뭇까뭇 타오르는 남

꽃불을 뿜어지게 바라보더니

“너 나하고 같이 서북청년단에 가입하지 않을래?”

“무시기?”

“서북청년단?”

나는 그 때만 해도 서북청년단이란 소문이 읍내에 나갈 때마다 조심스레 일고 있어서 대강은 알고 있었다. 서북청년단이란 남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밀 조직 단체라는 소문이 간간히 우리 또래의 청년들에게 들려 왔으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난 한참동안 그의 표정을 넋지시 바라보았다. 펜시리 그의 얼굴 표정이 까뭇까뭇 남꽃불에 빛바랜 나방처럼 어두워진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단번에 ‘그러마!’ 하고 승낙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늙으신 부모님이 눈 앞에 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잘못하다가 신세 망치는 일인지도 몰랐다. 아버지 말대로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했던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지도 몰랐다. 그런 일이 있을 후, 어느 일요일 날 저녁이었다. 칠주형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당에서는 세포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각 집마다 사상의 눈이 번득거리는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고 말기야. 니 형 말대로 이 곳은 똑같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기야. 허다 못해 생각하는 의식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만 살아남을 기야.”

그 형의 어두운 말 소리가 머릿 속에 깊은 골을 만들고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동네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사상이니 뭐니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반복적인 그 형의 성화에 아무 생각없이

“기림, 기렇게 하시랴요. 나도 서북청년단에 가입하갠시오. 시상이 이런데 뭔가 기델 구석이라도 있어야디요.” 하고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다.

그 해 추석 반나절을 다리가 부르트도록 걸어 좀 높아 보이는 기와집 솟을 대문 앞에 다다랐다. 큰 아버지 댁에는 사촌들이 다들 모여 있었다. 부엌에는 예나 지금이나 제사상에 오를 음식을 만드느냐고 분주했다. 그 날 저녁에 모인 친척들은 앞으로 있을 세상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미 김성주(김일성)가 나라를 장악했다고 하며 엄청난 일들이 터질거라는 말들로 밤새도록 수근거리며 말싸움으로까지 번져갔다. 특히 농토가 공동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 앞에 젊은 사촌과 형들은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든 어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나는 나보다 어린 사촌동생들을 데리고 달이 환하게 밝은 대청마루에 앉아 달구경을 하는 게 좋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제사를 지내고 아버님은 읍내에 볼 일이 있다며 발길을 재촉하셨고, 나는 큰아버님 댁에 남아 어린 사촌들을 돌보다가 오후 늦게 큰아버님 댁을 떠나려고 꾸벅 절을 하고 나서자 큰어머니가 떡을 두툼

하게 한보자기 싸주시며 조카들과 함께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셨다. 내가 떡보자기를 들고 십리를 넘게 걸어왔을 때였다. 저 멀리 재 너머에 한 노인이 방울 소리를 달랑거리며 나귀를 세워놓고 서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바디가 어떤 일로……?”

아버지는 나귀에서 내리시며 나를 끌어 안으셨다.

“호환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집이 갈 수 없다. 빨리 여기를 떠나거라.”

“아니 그게 도대체 무시기 소리라요? 아바디.”

“동네에는 빨강이들이 들끓어. 서북청년단인지 뭔지 하는 명단이 발각이 났지 안났어. 집에는 널 찾아 내달라고 네 형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리디. 날리야. 넌 지금 집이 들어가면 몰매 맞아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죽을기야. 날래 산으로 달아나라우야. 날래 날래 말이야.”

아버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두툼한 보따리를 주시며

“이건 소금이야. 이것만 있으면 산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는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길목을 지키고 계셨던 거다.

“아바디!”

나는 목이 메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던 떡보따리를 그에게 드리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가져가서 요기나 하란다.

“아바디 걱정하지 마세요. 시상이 조용해 지면 다시 만

날 수 있을기야요.”

그의 주름진 두 눈에서 눈물이 잔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작 무언 뿐이었다. 그는 내 축쳐진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힘내. 용기 잃지 말라우야.”

아버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다. 난 뛰어아만 했다. 아버님은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 등 뒤에서 가을 햇살이 목덜미를 간지럽게 내리 쬐고 있었다. 나는 뛰었다. 미련한 멧돼지가 사냥꾼을 만나 앞으로 뛰는 모양으로 앞만 보고 계속 뛰었다.

“따! 따! 따!”

어느 누가 무엇을 살해하는지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연거푸 등언저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를 악다물고 발 밑에 붙은 황토 흙을 짓밟고 산으로 올라갔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어둠 속에서 어스늑한 달빛 아래 모든 것들이 무섭게만 느껴졌다. 너무 무서워 낙엽을 두터운 숨이 불처럼 덮고는 한참을 있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만치 산기슭에서 옅은 불빛이 까뭇까뭇 거렸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용기내어 낮은 포복 자세로 살금 살금 가보았다. 다행히 그들은 인민군들이 아니었다. 째깍한 어둠 속에서 달빛과 모닥불에 반영된 그들은 아홉 명쯤 되어 보였는데 그들은 모닥불을 지펴놓고 빙 둘러 앉아 나무 꼬챙이에 감자를 꽂아 들척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알던 그 형도 있었다.

그들은 서북청년단이었다. 그렇게해서 나는 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이 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들 있었다. 모두들 발각이 날까봐 열 명 가량의 소단위 인원으로 조를 짜서 남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었다. 다행히 겨울에는 야트막한 산에 화전민들이 구덩이를 파서 감자를 많이 묻어두었다. 주민들은 그것을 겨우 내내 묻어두었다가 봄이 되면 감자가 얼다가 녹아 감자 껍질이 뱀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져 허옇게 속살이 보이면 가다가루(녹말가루)를 만들곤 했다. 그것을 우리는 탈취해 식량으로 삼아야만 했다. 정말 함경도 감자는 커서 좋았다. 그렇게 지낸지 벌써 3년째 되는 겨울이었다. 이 산에서 숨어있는 또 다른 서북청년단원들로부터 전갈이 왔다. 국방군이 원산까지 진입했다는 얘기였다. 익히 산에 익숙한 터라 산등선을 타고 자지러지듯 아래로 내려왔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들녘을 걷고 있었다. 어느 정도를 왔을까? 음산하게 서있는 미루나무가 서 있는 초가집 두어 채가 달빛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 때 나이든 단원 옆에 충충걸음으로 걷고 있던 얼굴이 가름한 단원이 희게 웃어 보이며

“저기 보이는 마을이 우리 마을이네요. 우리 가는 길에 한번 들러서 배라도 불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제안을 했다.

허기져 있었던 터라 그 부드러운 흰 쌀밥을 푹푹 퍼먹어 보고 싶었지만 우린 걸음을 바빠해야만 했다. 나이든 단원도 아직은 위험하니 그냥 가자고 거절했다. 그러다가 다른

단원들이 들렀다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수근거렸다.

“어차피 국방군 애들이 진입한다는데.”

나이든 그도 어쩔 수 없는지 그러자고 했다. 자기 누이 집이라고 자부한 단원은 앞을 가로 질러 신바람이 나서 앞 질러갔다. 그 단원을 바라보고 있자니 집 생각이 불현듯 났다. 어머님의 주름진 얼굴과 아버님, 형들 하나, 둘…… 친지들의 얼굴이 액자 속에 박힌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괴로움과 지난날의 상념들이 머릿속을 지근지근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미루나무가 을씨년스러운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앞을 질러가던 그 단원이 싸리문을 푸석 박차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누이! 누이! 집이 있시요. 저 왔시요. 나와 보시라요.”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몸을 숨긴 채 싸리문 뒤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마당가에서 곤히 자고 있던 달기새끼들이 꼬꼬거리며 푸득거릴 뿐이었다. 그가 마룻바닥을 신도 벗지 않고 올라서서 방문을 힘차게 화들짝 열어젖혔으나 불 꺼진 방에는 어둠과 함께 정적만이 우물 속처럼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그 집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부식

들을 딸깍거리며 남폿불에 불을 켜다. 불이 켜지자, 방안이
 녹녹히 환해졌다.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불쌍사납게 흩어
 져 있고 장롱 서랍도 제멋대로 열려 있었다. 급히 피난을
 간 모양이었다. 이미 몇 명은 부엌에 나가 요기거리를 찾
 고 군불을 지폈다. 마당가에서 달기새끼도 잡았다. 장독대
 에 남은 쌀을 벉벉 긁었다. 피난가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든 걸 다 챙겨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시대가
 조용해지면 다시 북으로 올라갈 수 있을거라고 믿었을 것
 이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해서 몇 년만에 실컷
 포식을 할 수 있었다. 방바닥에 어지럽게 요기를 하고 나
 니 자연히 그 동안 쌓여왔던 피로가 몰려왔다. 단원들이
 잠깐만 자고 가자고 했다. 사람이란 일단은 편한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기는 너 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얼마쯤 잤을까?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은데
 햇살이 문풍지를 환하게 내 비추었다. 우리의 계산 착오였
 다. 그 시각만 해도 우리가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산을 내
 려왔기 때문에 짧은 구들장 위에서의 잠은 긴 시간이 되지
 못했다. 이 일을 어찌나. 큰일났다. 우린 졸린 눈을 부스스
 비비며 일어나 수근거렸다. 한 단원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동정이 어떤가 살피고 오겠다고 그랬다. 우리는 방 안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방문이 푸석하고 찢기듯
 이 열리더니 밖에 나가서 동정을 살피던 단원이 들어와 소
 리쳤다.

“야! 이거 큰일났다. 빨강이들이 지금 국방군들한테 개 기겁을 하고 쫓겨오고 있다. 야!”

그 말소리가 무섭게 우린 창문으로 몸을 내던졌다. 다행히도 이 집 뒤에는 산이 서 있었다. 우리는 산으로 헉헉거리며 죽어라 하고 뛰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험령한 군복 차림의 인민군 둘이서 군화 짝을 덜덜 끌며 뒤따라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연거푸 “따! 따!” 거리며 총질을 해댔다. 뒤쫓아 오던 한 단원이 “윽!”하고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꼬꾸라졌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산으로 뛰어올라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저만치 빼꼼히 자란 잔나무 숲 속에서 두 명의 인민군이 머뭇거리며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인기척이 없자, 그들은 총알 발을 내리 갈겼다. 숲 속에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단원 중 한 명이 자기가 저들을 유인해 보겠다고 했다.

“안돼! 위험한 짓이야!”

다른 단원이 맞받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소. 재네들이 그냥 갈 것 같지는 않소. 더군다나 우린 인원이 많지 않소. 그깟 두 명 쫓아야.”

그의 말에 모두들 그렇게 하자고 했다. 우리는 주먹만한 돌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두 명의 대원들이 인민군들이 오는 지점에 매복을 했다. 그들은 단단한 나무를 거머쥐고 있었다. 단원 둘이 눈에 띄지 않게 바위 틈으로 내려갔다. 숲으로 몸을 숨기며 뛰다가 언뜻 언뜻 몸을 노출시켰다.

그러자 인민군 놈이 여지없이 그를 발견하고는 따, 따 거리며 총알 발을 날렸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명중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가 뺄곡하게 자란 산에 쉽사리 맞을 리가 없었다. 인민군들이 그 단원을 쫓았다. 거의 우리가 숨어있는 곳까지 왔을 때 나이드 단원이 돌을 던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우수수 돌을 던졌다. 돌은 인민군들에게 명중은 못시켰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그들이 갑자기 날아드는 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나무 뒤에 잠복하고 있던 단원들이 그들의 뒤를 덮쳤다. 굵직한 나무 작대기 두 개가 춤을 추었다. “윽!”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그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우리는 산에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았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이었다. 칠흑같은 밤에도 마을을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야음을 이용해 깊은 산을 타고 남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발에는 물컹물컹 진물이 잡히고 차가운 냉기가 썩하니 스며들던 밤, 우리는 원산까지 왔음을 알았다. 산에서 내려다 본 원산시가지의 불빛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서슬이 퍼렇게 스며드는 산속에서 벌벌거리며 굶주린 창자를 거머쥐며 굶어 죽느니 시내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동이 훤히 트자, 시내로 나가 먹을 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포화에 일그러진 원산 시내에는 굶주린 피난민들이 바쁘게 다녔다. 그 틈에 끼어 노스키(소련) 놈인지 양키(미국) 놈인지 키가 훌쩍 큰 애들이 썩~라 거리며 주인행세를 했다. 우리는 식량이 있

을 성 싶은 미군들의 보급창고 담벼락 앞에 서서 굶주린 창자를 거머쥐고 틈을 봐서 먹을 것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군 병사 한 명이 “헤이!” 하고 파랗게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우리는 멈칫하였다. 다행히 미군 병사는 창고에 있는 미제보급품을 차에 실어 달라고 손짓을 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혹시 우리를 잡아죽치려는 것은 아닐까? 해서 후다닥 달아날 생각도 했다. 눈치 빠른 단원 하나가 미군 애들의 어색한 손짓과 발짓을 알아차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 몸짓 발짓 다하여 그러마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우리는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의 보급창고 일을 도왔다. 그 덕분에 미군들의 몸에서 나는 듯한 지릿한 간소매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것이 모자라면 평퍼짐한 쓰레기통을 뒤져 그들이 먹다버린 미미한 음식찌꺼기들을 빈 깡통에다 주워 담아 끓여먹기도 하였다. 그래도 텅 빈 산속에서 쭈신 배를 움켜쥐고 그날그날 굶기를 밥 먹듯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이었다. 더군다나 우리들 손에 번득이는 빈 깡통도 여러 개 주워들고 있었으니 그래도 살아갈 만한 충분한 밑천이 될 성 싶었다. 그러던 흑한이 된통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갑자기 미군들이 하나, 둘…… 짐을 챙겨 들고 원산 부두로 몰려가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리도 그들의 뒤를 강아지처럼 따라 나섰다. 원산 부두에는 된통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부쩍거리고 있었다. 피난민들에게 물으니까 놈들이 새까맣게 압록강을 건너 몰려온다는 거였다. 1.4

후퇴였다. 오고가는 군함에는 된통 많은 피난민들이 찰거머리 떼처럼 달라붙어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개중에는 목이 찢어져라 우는 갓난아기조차 발이 지근지근 밟히는 부둣가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도 피난을 가기 위해 부둣가를 헤매다가 작은 목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배는 먼 바다로 나가는 배가 아니었다. 노조차 없어서 피난민들조차 거들떠보지도 않은 작은 목선이었다.

“야, 저 배를 어떻게 타고가지? 차라리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지.”

긴 한숨과 함께 내뱉고 있을 때 보급창고 일을 할 때 안면이 있던 미군병사 하나가 나침반을 하나 주며 그 배를 타보라고 했다. 우리는 그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뒤에는 떼놈들과 공산당들이 이를 악다물고 쫓아오고 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배에 올라탔다. 단원들이 배에 올라타자, 휘청하니 배가 기울었다. 다행히 우리가 들고 온 미군들이 버린 빈 깡통이 노를 대신했다. 깡통을 노처럼 젓자 배는 가라앉을 듯 꺼덕거리며 원산향을 뒤로 두고 피난민들을 뒤따랐다. 파도에 휩쓸려 배가 잠기려 할 때마다 바닷물이 떼놈들 기어 들어오듯이 들어와 배가 뒤집혀 질 것만 같았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들고 온 번뜩이는 빈 깡통이 배 안에 들어온 바닷물을 퍼내는 작업을 손쉽게 도울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파도에 잠길듯이 꺼덕거리는 배로 죽기를 각오하고 반나절을 왔을 때, 지평선 너머 무인도에 피난선들이 정박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 섬에

서 쉬었다가 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바닷가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낸 단원들의 아우성치는 성화에 손놀림을 빨리해서 그 섬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바위섬은 된통 많은 갈매기 떼들로 섬을 감싸 안고 있는 듯했다. 우리가 목선을 정박시키고 섬에 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갈매기 떼들이 끼룩! 끼룩! 거리며 우리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 섬에는 바위와 바위 움푹 패인 흙 속에는 몽글몽글한 갈매기 알들이 덕지덕지했다. 우리는 그 갈매기들의 짹! 짹! 거리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빈 깡통 가득 알을 담아 잔가지들을 주워 모아 불을 지피고는 갈매기 알을 지근지근 구워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러던 이틀째 되는 밤이었다. 머물러있던 피난선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바닷가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지천으로 깔려있던 갈매기 알도 거덜 나서 우리는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없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나섰다. 다행히 피난선 뒤에 깨끗하게 비추는 불빛이 등대처럼 우리들을 인도해 주었다. 남으로, 남으로…… 우리는 숭숭 기어들어오는 바닷물을 퍼내기 위해 등 언저리가 땀으로 흥건했다. 한치 앞을 못 보면 시커먼 바닷물 속으로 잠식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샀다. 바닷가에 검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멀찌감치 항구가 나타났다. 부둣가에 피난선이 정박하였다. 살았어. 살았어.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했다. 양 볼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피난선들 틈을 비집고 부둣가에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건 칼빈총으로

무장한 서너 명의 경관들이었다. “손들었!”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해진 복장, 그 동안 깎지 않아 츤츤 내려온 머리, 그리고 떼지어 다니는 그 모습에서 아무리 피난민들이지만 의심 받을만한 충분한 혐의였다. 우리는 지서로 끌려들어갔다.

“너희들 빨지산이지! 어디서 무얼하고 기어 내려오는 거야!”

계급이 높아 보이는 경관이 책상을 “땅! 땅!” 치며 인상을 북 썼다. 나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그때 나이 고작 20살이었다. 하지만 다른 단원들은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얘기했다.

“우리는 빨지산이 아니라고요!”

그가 말하자 우리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래요. 그럼 물증을 보여주셔. 북청년단원증을 보여 달란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에는 물증을 보여 줄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서북청년단증은 우리가 미처 만들기도 전에 공산당들한테 발각이 나 산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없었다. (어쩌면 북에서 서북청년단이 막 시작할 즈음일지도 모르겠다.) 단지 물적 증거라고는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돌려가며 불렀던 서북청년단 가사가 적혀 있는, 때가 꼬지직하게 끼고 그나마 꼬깃꼬깃해진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든 손바닥만한 한 장의 종이 조각 뿐이었다. 경관들은 우리들이 머뭇거리며 서 있자, 네 녀석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거봐! 이 새끼들 빨지산이지! 어디서 무얼하고 기어 내려오는 거야!”하고 웅 소릴 질렀다.

우리는 하소연하듯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을 울상이 되어 말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전쟁에 찌들린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더 이상 못 들어 주겠다는 듯 의자에 앉아있던 경관이

“안되겠어! 김경관, 집어쳐 넣어!”

우리는 그렇게 유치장에 갇혔다. 냉기가 설렁설렁 일고 있는 차가운 콘크리트 감방 바닥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경관들은 다시 유치장 문을 열고 우리들을 끄집어내었다.

“이 새끼 내 말 잘 들었! 솔직히 불란 말이얏!”

그 때 단원 중에 칠주라는 사람이

“우린 서북청년단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알아 들었시요.”하고 소리치자,

“이 개새끼들 어디서 거짓부렁이야.”하면서 그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나이드 그의 뺨에 벌진 손자국이 잿빛 어둠 속에서 희뽕절절게 보였다.

“이 새끼들 안되겠어. 모두 옷들 벗어!”

그들은 충을 그어 쥐며 소리쳤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더러운 옷들을 벗어 던졌다. 그 날 저녁 한기가 썩늘한 빨간 맨몸뚱이가 되어 그들에게 얻어터졌다. 그것이 전쟁이

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야비한 전쟁, 그러던 다음 날 아침, 차가운 한기가 썩하니 스며드는 감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비벼대며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또 다시 악몽같은 감방 문이 철꺼덕, 철꺼덕 열리며 경관이 지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지독한 빨강이 새끼들은 아예 썩 죽여 버려야 되겠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망아지모양 지서 안으로 끌려냈다. 우리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경관이 두 눈을 번뜩이며 우릴 휘휘 둘러보더니 나이든 그에게 총을 그어대며 밖으로 끌고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간 그의 몸뚱이가 햇살을 받았으나 급격한 한기를 만나 붉게 소름이 돋는 모습이 창문을 관통해 들어왔다. 지서 밖에 설렁하니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에 그를 세워 놓고는 총을 그어대며 지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릴 정도로 소리쳤다.

“바른대로 말해! 그럼 살려주겠다. 너 빨강이지?”

툑툑 총구로 그의 턱을 치며 말하자, 그 때였다. 악에 잔뜩 받쳐있던 나이든 그가 갑자기 경관이 들이댄 총구를 낚아채고는 개머리관으로 경관의 턱을 내리쳤다. 경관은 돌발적인 그의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너희들이 애국자냐! 개새끼들아 우린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유를 찾아 남으로 왔는데, 그럴바엔 다시 북으로 도

로 가셨시오!”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허연 맨살을 드러낸 채 허위허위 뛰어 달아났다. 겨울 햇살을 받은 그의 뒷모습은 마치 자유를 찾은 한 마리 산짐승 같았다. 그 순간적인 광경을 아무런 대책없이 지켜보고 있던 경관들은 우릴 다시 철장 속으로 밀어 넣고는 우당탕! 우당탕! 총을 거머 들고 뛰어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감방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너무나 압담했다. 오히려 그 때 생각으로는 나이든 그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부러웠다. 그러다 잠시 후, 쇠 철문이 열리며 경관들이 들어왔다. 좁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다.

“우리가 잘못 안 것 같소. 정말 죄송하오. 나오시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성깔을 부리던 그의 목소리가 인간적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들과 동일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경관들은 우리들에게 담배를 한가치씩 돌려주며 피우라고 했다. 나는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받아 피웠다.

“자네들은 빨지산이 아니었어. 우린들 확인할 수 있는 재간이 있어야지. 미안하오. 전시니 어쩔 수 없지 않소.”

그 경관의 손에서 담배 연기가 실타래처럼 풀려 나갔다.

그 뒤로 경관들은 우리의 뒤를 봐주었다. 조그만 오징어잡이 어선 한 척을 내주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게 했지만 전쟁은 그러한 평화를 마냥 즐기게 놔두질 않았다. 중

공군들이 밀려와 전세가 불리해진 모양이었다. 경관들이 우리에게 군에 지원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결국 나는 군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친족도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만은 없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향 땅을 영원히 등지고 말 것만 같아서였다.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고 북으로 올라가고 싶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철저한 애국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순리였다. 단원 중에 나이가 들고 남쪽에 친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쪽에 남았다. 이도저도 오갈데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군을 지원했다. 우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간단한 제식훈련과 무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는 모든 절차를 밟고 군에 들어갔다.

“이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비록 빨강이들이 고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시대가 조용해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을 기야요.”

읍내 앞에는 군형 트럭 서너 대가 우릴 지치도록 기다렸는다는 듯 뒤꽂무니를 빼고 덜덜거리며 시동이 걸린 채 서 있었다.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괴물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고향 땅을 밟게 하기 위해 힘차게 뻑! 소리를 내며 달리는 목탄열차로 보이지도 않았다. 단지 그 모습은 슬픔도 기쁨도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비극이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시커멓고 빨간 전쟁 통에 아무도 반

길 사람이 없다. 피를 토하며 쓰러져간 가족의 아픔 몸뚱이조차 찾을 길이 없다. 단지 허기진 배가 몸뚱이 한가운데 달라붙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밖에는 우리가 지금 가는 북에는 더럽게 오염된 붉은 이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거길 가야 한다. 추석날 성묘를 가듯 선물보따리를 한아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총을 거머쥐고 더 이상 이곳 산하까지 붉은 물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너대의 군용 트럭이 앞 다투어 질서 정연하게 전방으로 내달렸다.

위장망 사이로 초록으로 피어오르는 산하가 들성들성 포탄에 맞아 속살이 핏빛으로 찢겨져 있고 기억자로 부러진 가로수가 뿌리채 뽑힌 채 있었다. 흑하고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후각을 찔렀다. 여러 종류의 포탄소리도 굉음을 내며 푸석푸석 터져나가는 소리도 들려왔다. 분명 그 포탄소리에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려왔을 것이다. 그 포탄소리에 뒤섞이고 질식되어 한 가지 굉음만이 울려 퍼졌다. 어렸을적 시끄럽게 울어대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그 울음소리는 한 가지 소리로 변해 지금껏 아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노이의 눈물

장 대 연

‘사랑스런 내 신부의 할아버지를 총살했다는 그 한국군,
과연 육군이었을까? 해병대이었을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을까?
그녀 가족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전) 춘천 봉의고등학교
장 대 연

불의의 사고로 만 33년의 교직생활을 접고 명퇴를 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늦깎이 글쟁이에 게 주신 용기를 업고 심기일전하여 더욱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련다.

하노이의 눈물

신혼여행지에서 장장 네 시간을 넘게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눈부신 인연으로 이룬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낡빛으로 굳은 표정이 되어 있는 나의 신부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다. 내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안 뉴 엠(I love you)!' 밖엔 없었다. 현지에서 배운 몇 마디 표현 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유일한 말이었으니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안타까운 이별을 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 옅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명멸하고 있는 하노이 공항의 조명이 유난히 우울해 보였다.

이륙한 지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승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 다소 술렁거리던 기내의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은 느낌이다. 요 며칠사이에 복잡하게 얽혔던 상념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어진다. 가만히 눈을 감으니 지난 5일 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에 펼쳐진다.

닷새 전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에 몸을 싣고 2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렸다. 말이 고속도로이지 중앙분리대도 없고, 시속 7~80키로의 속도를 내기도 바쁜 도로였다. 우리가 여장을 풀고 본부로 삼게 될 한 펜션형 리조텔에 도착했다. 상당한 수준으로 조경이 되어 있는 그곳은 전직 시장의 소유라는데 제법 규모가 컸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방을 배정받고 샤워를 한 뒤에 밖으로 나가 정원 벤치에 앉았다. 쏟아지는 은은한 달빛에 젖은 잘 다듬어진 정원은 각종 아열대성 초목들로 우거져 있어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운치가 있었다. 말 그대로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베트남에서의 내 생애 최초의 밤이었다.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있노라니 온갖 상념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이국에서 맞는 밤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내 신세가 처량해지는 거였다. 천만 원이라는 거금까지 들여가며 이렇게라도 짝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초라한 내 주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나, 나이 마흔 세 살이 되도록 총각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나다. 이렇다 하게 내세울만한 직장이 못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하급 근로자이다 보니, 그동안 몇 번의 맞선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이에 어느새 불혹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런 나를 위로라도 해주는 듯이

검은 융단 위에 널린 깨알 같은 별들도 충충히 빛나고 있었다.

한 달 전쯤에 한 지인의 소개로 대전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회사 사장을 소개 받았었다. 매우 신뢰감을 주는 40대 중반의 여성 사장이었다. 두어 달 정도 베트남 입국 및 결혼 준비에 관련된 복잡한 서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던 끝에 드디어 그날 밤, 다른 한 명의 노총각 동료와 함께 베트남 하늘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점잖으면서도 순진한 사람으로 나보다 한 살 많은 충청도 양반이었다. 팔순을 넘기신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다보니 혼기를 놓쳤단다. 우리 나이로 국내에서 짝을 찾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그 친구 말에 토를 달 여지가 없었다.

은근히 가슴 설레는 베트남의 아침을 맞았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도 한두 명씩 한국 드림을 꿈꾸는 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오디션장을 찾아온 슬픈 눈망울의 처자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죄를 짓는 기분마저 들었다. 어찌 보면 나란 존재는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신부 상품을 구매하러 나온 바이어인 셈이었다.

여 사장이 들려주는 일화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했다. 한국에서 예비 신랑을 따라간 시골의 한 농부 아버지는 아가씨들의 손 발 검사는 물론, 마치 우시장에서 소

의 입을 벌려 이빨을 검사하던 버릇대로 소녀들의 입을 직접 벌려가며 구강과 치아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인가.

중매업체 사장과 통역인이 배석한 가운데 한국인 신랑감들이 마치 심사위원들처럼 앉아서 기다리면, 현지 뚜쟁이들이 데려온 아가씨들이 서너 명씩 차례로 오디션장에 들어와 앉는다. 그녀들의 피부색은 대강 흰색, 검은색, 그 중간에 해당하는 베이지 톤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연령대는 숨털이 보송보송한 십대 후반의 소녀에서부터 서른 중반이 훌쩍 넘은 아줌마로 보이는 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요란한 화장과 의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가씨에서부터, 촌티가 줄줄 흐를 정도로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에 이르기까지 신분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관심이 가는 아가씨를 지목하여 이런저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오디션장에 들어선 아가씨들은 우리들 앞에 나뉘대로 최대한의 아름다운 자태를 지어내려 애쓴다. 그러나 긴장한 몸은 그녀들을 뻗뻗한 나무토막으로 보이게 만들 뿐이다. 한국 노총각들의 시선 한 번 받지 못하고, 입 한번 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간택되고자 하는 초조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은 차마 똑바로 쳐다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두세 시간, 심지어는 네댓 시간을 텅텅거리는 버스 편으로 미팅장소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가씨들도 여럿 있다. 그렇게 되돌아가는 ‘꽁가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인 비애와 연민이 교차되기도 한다. 또한 알량한 양심이 근질거리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기도 하다.

무슨 권한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놓고 물건 고르듯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하는 자책감에 괴롭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감상적 자괴감에 빠져있을 만큼 여유로운 내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흔을 훌쩍 넘긴 노총각이면서 몸마저 불구인 나, 그런 나 같은 놈으로서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한 방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그날 오후까지 무려 열댓 명에 가까운 아가씨들을 심사하는 특권(?)을 누렸다. 함께 간 충남 보령의 최 형은 첫 미팅에서 바로 한 아가씨를 자신의 신부감으로 정해버렸다. 세련된 화장기로 보아 어느 정도 도회 물을 먹은 듯이 보이는 발랄한 아가씨였다. 내 생각엔 영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어쨌든 제 눈에 안경이요, 짚신도 다 제 짝은 있게 마련이었다. 나는 세 번째까지의 미팅에서 서너 명의 후보를 가린 뒤에 두 명으로, 다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최종 낙점을 했다.

맘에 들었던 두 명의 아가씨 중에 한 명은, 신부 측 부

모임장에 대한 최종 확인과정에서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아버지는 후진국 부패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이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자동차까지 현장에서 압수 조치할 수 있는 경찰이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수준의 국가인 것이다. 당연히 구린내 나는 검은 돈의 뒷거래에서 엄청난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 아쉬울 게 없는 아버지에게 의해 한국 드림의 실현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지당하자 그 아가씨는 핸드폰을 든 채로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최종후보에 올랐던 또 한명의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행동거지가 너무나 조신하여 맘에 들었다. 게다가 북방계인 듯, 한국인처럼 하얀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 단지 키가 너무 작고 어린아이처럼 왜소한 체구에 가녀린 몸매가 나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가 없게 만들었다. 도무지 출산과 자녀 양육을 견디어 낼 체력 같지 않았다. 고심 끝에 포기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네 번째 미팅에서야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찾았다. 스물한 살 먹은 아가씨였다. ‘트영’이란 이름의 예쁘장한 용모에 키도 훤히한 편이었다. 3주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들어갈 절차를 밟고 있는 한 아가씨가 여사장의 입국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타났었다. 한국에서 보낸 선물도 받고 신랑의 근황도 알고 싶어 나온 두 명의 예비신부들 중에 한 명이었다. 나를 직접 만나보고 나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얻은 그 새댁이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를

데려온 것이었다. 썩 괜찮은 용모에 총명한 눈빛과 조신한 언행이 맘에 쏙 들었다. 더군다나 현지의 뚜쟁이들이 모집하여 데려온 아가씨가 아니었기에 나의 신뢰감은 오히려 컸다. 그녀도 내가 무척이나 맘에 들어 하는 눈치였다. 선택되던 순간에 그녀의 안면에 환하게 피어오르던 화색만으로도 짐작되고 남았다. 곧바로 통역담당인 ‘반손’이란 친구가 내가 선택한 아가씨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부모 동의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 드디어 내 팔자에도 이국의 처자일망정 소중한 인생 반려자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여 사장은 우리 두 커플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인근의 작은 도시로 데리고 나갔다. ‘반손’이란 친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늘 우리 일행과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시내 관광지 몇 군데를 둘러보기도 했다. 호숫가를 거닐며 스냅사진을 찍기도 했다. 초기의 상호간의 어색함이 서서히 술술 풀려가기 시작했다. 특히 노래방에 들어가 각각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르면서는 더욱 친밀해지기도 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여 사장이 리조트 내의 한국 노총각들 각각의 방에 짝이 된 우리 두 쌍을 집어넣었다. 물론 베트남 신부들과 우리들에게 합방에 대한 사전지식도 숙지시켜 주었다. 여 사장의 말로는, 의외로 첫날밤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숙맥인 한국 총각들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다. 성기 삽입도 제대로

못하고 밤새 괴롭히기만 하는 신랑이 무서워 방을 뛰쳐나와 도망가는 신부도 있다고 했다. 허긴 농촌에서 농사지며 여자의 몸이라곤 손도 대보지 못한 노총각들이 제법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엔 성지식이 전무할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들었다.

내일 오전이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니까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자칫 첫날밤을 제대로 못 치르는 불상사를 겪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인 듯 했다. 일정이 하루 늦춰지는 바람에 합방의 기회가 신혼여행지에서의 단 하루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더욱 그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 정식으로 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내일이면 혼례식을 치르는데, 굳이 하루 앞당겨 합방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나 일정에 쫓기며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모든 절차를 소화해야 하는 해외 현지에서의 국제결혼의 통상적인 수순이요 관례인가보다 하고 순순히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일단 신부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섰으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용기를 내어 등 뒤에서 그녀를 꼭 안았다. 저항의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으나 긴장한 탓인지 몸은 장작개비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한참을 그 자세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솔직히 좀 더 젊었던 시절에 두어 번 정도 작부나 창부를 품에 안고 자 본 적은 있다.

그러나 ‘트엥’을 안았을 때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했던 기분은 그런 일과성의 여자를 품을 때의 감정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잠시 후면 온전하게 내 아내가 될 여자라는 생각에 마음 편했다. 먼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그녀에게 샤워하라고 권했다. 저녁 식사 후부터 계속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그녀가 알았다면서 옷을 입은 채로 욕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물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부끄러움에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가보다 했다. 신비스러운 그녀의 육체를 그리며 와인 잔을 들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이란 말인가?

얼마 후 전혀 물기가 없는 얼굴로 욕실에서 나온 그녀는 옷을 입은 채였고, 어깨에 가방을 메더니 방을 나갈 태세를 취하는 거였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내가 팔을 벌려 그녀 앞을 가로막아 섰었다. 열심히 무슨 말을 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내 손목의 시계를 가리키며 내일 아침 6시 반까지는 꼭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되기도 하고 또 약간은 불쾌했지만,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확신은 들었다. 그래도 밀려오는 막연한 불안감에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다. 다급한 나머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여 사장의 숙소로 가서 방문을 두드렸다.

여 사장도 자못 놀란 표정이었다. 아마도 그런 경우가 흔치않은 사례인 것 같았다.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보다는 좀 낫지만 여 사장 역시 베트남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난감한 표정을 한 ‘트엉’이 손짓발짓을 하며 여 사장에게 무어라 열심히 설명을 했다. 대충 감을 잡은 여 사장의 말이, 짐작컨대 신부 엄마가 정식 결혼식도 전에 합방은 안 된다며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 같다고 했다. 이미 퇴근하여 인근 도시의 숙소로 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통역 담당인 ‘반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트엉’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의 의사를 재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았다. 일단 결혼 승낙에 대한 약속과기는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불안했던지 잠시 후, 여 사장이 늦은 시각이지만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뵙겠노라 전해 달라는 주문까지 했다.

마침 신부의 집이 우리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자동차로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었다. 취침준비를 하다가 황급히 도착한 ‘반손’을 대동하고 우리들은 서둘러 신부 집으로 향했다.

얼마 후, 대로를 벗어나서 양 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는 한가운데로 난,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무릎 정도까지 자란 벼가 검푸른 파도처럼 물결을 이루고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초입에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한결 집 안팎이

깔끔했다. 제법 구색을 갖춘 가재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걸로 보아 시골치고는 그런대로 사는 집안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또 다시 찾아온 궁금증이 잠깐 사이 내 뇌리에 노크를 했다.

‘거 참 희한하네! 사는 게 이 정도인데 왜??? 젊은 베트남 청년들을 놔두고 굳이 머나먼 이국 땅, 한국으로 시집을 가려는 걸까? 더군다나 나처럼 선천성 소아마비로 이렇게 다리까지 저는 노총각한테 말이야.’

사실, 그런 궁금증은 국제결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내 심중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풀리지 않던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문득 이곳 베트남 하노이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 사장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기억났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려면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옆 좌석에서 부스스 잠을 깬 여 사장에게 말을 건넸었다.

“어머~ 그러네? 한 잠 자고나면 금방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

“예?”

“난 잘 이해가 안돼요.”

“뭐가요, 천규씨?”

“베트남 아가씨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처럼 돈도 별로 없고, 나이도 든 한국 남자에게 시집가길 원하는지 말예요.”

“음~, 글썄요. 뭐랄까? 일종의 코리안 드림 같은 거? 한마디로 여자로서 팔자 한번 펴보겠다는 거겠죠.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무턱대고 동경하며 환상에 빠져 미국생활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집안에 들어서니 서너 명의 일가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 부모 곁에 앉은 백발의 큰 삼촌이 그 집안에서는 제일 어른인 것 같았다.

‘어떻게 된 거냐? 신랑이 맘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라고 여사장이 ‘반손’에게 통역 주문을 했다. 단도직입적인 물음으로 들이대는 것 같았다. ‘트엉’의 부모 모두가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보아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걸 짐작케 했다.

‘반손’의 말에 의하면, 우선 오해부터 거두어 달라고 한단다. 당장 잠자고 눈뜨는 내일 오전이면 결혼식을 올릴 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굳이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도 전에 오늘밤 합방의식을 가지려 하느냐는 것이 신부 엄마의 논리요 주장이라고 했다. 지금껏 한 번도 밖에서 재워본 적이 없는 딸이라 했다. 내가 듣기에도 나의 장모님이 될

사람의 주장은 너무나 지당했다. 그 말을 듣고는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도감도 안도감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큼한 쾌감 같은 것이 밀려들었다. 그런대로 가풍이 살아 있는 처갓집이란 생각에 가슴 뿌듯해지기까지 했다. 한국에서라면 내 주제에는 그렇게 제대로 된 집안의 규수를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같이 별 볼일 없는 놈에게도 그런 축복이 내려진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차를 마시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느닷없이 통역을 하던 ‘반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천규 씨, ‘트영’ 어머니 말이 자신과 딸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좀 더 물어봐 주세요.”

신부의 엄마와 외삼촌의 말을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1970년에 신부 엄마의 친정어머니, 즉 신부, ‘트영’의 외할머니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병사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을 잉태한 상태에서 종전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으로 돌아가 불러들이겠다던 한국 아버지는 헌신짝 꿰개치듯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트영’의 엄마는 ‘라이파이한’이었던 것이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두절이 된 남편에 대한 야속함에 눈물로 세월을 적시며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친정엄마를 얘기 하면서는 훌쩍거리기까지 했다. 자기 어머니, 즉 트영의 외 할머니는 홀로 자기를 낳아 키우며 갖은 고생을 했으며, 자신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의 놀림에 눈물도 엄청 쏟았다고 했다.

잠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구겨지고 누렇게 변색된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젊은 한국 군인이었다. 해병대인데 그 부대 이름이 청룡부대라고도 했다. 일순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우리 아버지도 참전 용사였고, 더군다나 청룡부대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고엽제로 인한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재작년 가을, 예수 아홉의 나이에 돌아가셨다. 사실 내가 이 나이에 국제결혼으로 마음을 굳힌 것도 아버님께 생전에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한 불효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시집 간 누이동생이 낳은 외손자를 보기는 했지만, 늦기 전에 어머니에게라도 친손자를 안겨드리는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서두르게 된 것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심심치 않게 월남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월남 참전용사였던 아버지는 이따금 주위 사람들에게 전장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들려주시곤 했었다. 자연히 나의 장모가 될 ‘트영’ 엄마의 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털해진 그 사진을 살펴보던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집에 있는 오래된 앨범에

들어있는 아버님의 군대시절의 사진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모가 말하는 한국인 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인 ‘강민규’가 아니 ‘강성현’이었다. 아무리 불명확한 베트남 발음이었지만 분명 ‘강민규’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사진 속의 인물은 군복 입은 빛바랜 아버님의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무어라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긴 시간 사진을 세심히 살펴보고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짐짓 모른 채하고 신부 집을 나섰다.

그러나 숙소에 돌아온 나는 풀리지 않는 난제에 부딪혀 끔끔 앓고 있었다.

‘뭐야, 도대체? 장모가 될 사람의 친정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현지에서 눈이 맞아 동거를 했었다는 얘기야? 내가 잘 못 본 건가? 아까 신부 집에서 본 빛바랜 사진 속의 인물이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집에 있는 흑백 사진 속의 아버지와 꼭 빼닮았긴 한데....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가까운 친척 중에 용모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의 이름이 ‘강성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

아유~ 머리 아파!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진짜 내 생각대로라면 난 어떡해야 하는 거야! 와~ 미치겠네, 정말!’

와~! 골드였다. 열광의 환호소리가 경기장 가득 메아리쳐 흘렀다. 올림픽 대회인 것 같았다.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머리에 태극 문양의 머리띠를 한 대한민국의 남자 양궁 대표 선수가 쏜 마지막 화살이 정확하게 십 점 만점짜리 노랑 과녁의 정중앙을 맞힌 것이다. 어라? 그런데 이게 무슨 변고야? 그 과녁이 통째로 앞으로 푹 고꾸라지는 게 아닌가! 심판인 듯한 사람들이 달려가 세우는데 화살이 꽂힌 부위에서 붉은 피가 터진 하수도관처럼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다. 관중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과녁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한국 선수의 실격이라는 것이었다. 응원단 속에 있던 나도 ‘뭐야? 말도 안 돼!’ 하고 아무리 악을 써도 함성 속에 묻혀버릴 뿐이었다. 오히려 반대편 관중석에서 던진 돌이 낸 눈을 정면으로 향해 날아오다가 번쩍이는 한줄기 섬광으로 변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잠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로 침대에 벌렁 나자빠져 뒤척이다가 선잠이 들었던 것 같다. 꼬여버린 상황에 심사가 편치 않은 와중이었지만, 그로기 상태로 링에 오른 내 혼신이 잠시 다운을 당했던 것이다. 워낙 빠듯하게 돌아가는 현지 일정 탓이었으리라. 어쨌거나 꿈의 뒷맛이 웬지 영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막연하나마 불길한 기분이 엄습해 왔다.

당장 내일 결혼식을 올려야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합방까지 마쳐야 하는데 아무래도 찼찼하여 배길 수가 없었다. 늦도록 고민하던 끝에 결국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집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했다. 베트남보다 2시간이나 빠른 한국 시간으로 새벽 두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어무이, 전데요. 주무세요?”

“어~ 그래, 어떻게 잘 되고 있냐? 거긴 지금 몇 시냐?”

“예,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뭐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요.”

“그래? 뭔데, 이 밤 중에?”

“혹시 아버지 친척 중에 ‘강성현’이란 분이 있어요? 먼 친척이라도?”

“응~? 아니 니가 그걸 어떻게? 그건 아버지 젊었을 적 이름인데, 어떻게 알았니?”

눈 앞이 캄캄해져 왔다.

‘뭐 이런 개 뻥다구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뭐야? 그럼, ‘트영’의 엄마가 내 누나라는 얘기 아냐? 그리고 내가 선택한 스물한 살의 신부 감은 결국 내 조카네? 삼촌이 조카와 어찌 결혼하여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니, 소싯적에 집에서 불렀던 아버지 이름이 ‘민규’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호적에는 ‘성현’으로 등재가 되었었다는 것이었다. 군 제대 후에 서른이 넘어 혼기가 딱 차도록 보는 선마다 성사

가 되지 않자 할머니께서 점 집을 찾았다고 했다. 사주를 보았더니 본래의 이름을 빨리 되찾지 않으면 폐가망신하게 될 팔자로 굳어진다고 했단다. 아버지의 ‘성현’이란 이름 때문에 혼인 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거고, 혼인이 성사되어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하는 불운이 닥치게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개명절차를 밟아 집에서 부르는 원래의 이름인 ‘민규’를 되찾게 되었던 것이고, 그 덕분인지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물어 볼 필요도 없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그야말로 알곳은 운명의 장난임에 틀림없었다. 사실 내 인생 반려자로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보면 볼수록 더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지는 ‘트잉’이었다. 신부감은 물론, 처갓집도 내 수준에는 Ningulje 굴러들어온 최상급의 복이라고 여기던 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그 돌발변수는 신의 가혹한 심술임이 분명했다. 어쨌든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성사될 수 없는, 아니 성사되어서는 안 되는 결혼이었다.

밤이 워낙 깊어져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어김없이 날은 밝았다. 몇 시간 후면 결혼식을 치러야 했다. 머리가 쪼개지는 듯이 아팠다. 몇 안 되는 신부 측 친척들이 결혼식을 보기위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일단 여사장에게 대강의 사연을 털어놓아야 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에 그녀도 어찌할 바

를 몰라 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결혼이라는 상식수준의 냉엄한 현실이었다. 예식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촌각을 다투어 신부 측에도 알려야 했다. 고깃사위 상황에 아침부터 등줄기에 진땀이 흥건히 고였다.

비장한 결심을 했다. 근친상간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신부 부모와의 독대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했다. 드레스를 입고 신부화장을 받기 시작한 신부도 불러 들였다. 통역의 입회하에 엄연한 내 누나인 ‘트영’의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의 폭탄 발언에 현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방 안은 삼시간에 눈물 바다가 되었다. 한 맺힌 일생의 응어리가 풀린 라이파이한의 회한의 눈물,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가 날벼락을 맞은 베트남 쯡가이의 눈물, 그리곤 마음에 담았던 신부를 도로 쫓내야만 하는 내 눈물까지 합류하니 리조텔 앞의 호수까지 범람하는 듯 했다.

하객들이래야 신부 측의 가까운 친척들 뿐이었지만, 한 동안 결혼식장은 때 아니게 몰아친 엄청난 충격파로 생긴 지진해일에 휩쓸린 분위기였다. 그 당시의 혼돈과 충격의 상황을 내 능력으로 묘사한다는 건 불가능이다.

동료 노총각, 최형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곳을 떠나 곧바로 이젠 더 이상 나의 신부가 아닌 조카 ‘트영’의 집으로 갔다. 마침 그 동네에 한국으로 시집간 여인이 친정나들이를 와 있었는데, 그 아낙의 통역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 핏줄로서의 회한을 풀 수 있었다. 누님과 나는 우선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트영’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어야 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조카도 눈물을 보이긴 했지만 어렵사리 마음 정리를 한 것 같았다. 나보다 다섯 살 위인 누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많을 걸 물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우연 같은 필연으로 만난 핏줄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카 ‘트영’을 꼭 한국으로 데려가리라 다짐했다. 통역에게 내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트영은 아직 물기에 젖어있는 눈망울로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지만, 누님은 꼭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필경 내 시골 고향에도 국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랑감만 잘 골라서 성사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내게는 가급적 베트남 신부를 맞아야 할 명분이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야 처갓집 나들이를 하면서 혈육 간의 정을 꾸준히 나눌 기회가 많아질 것이었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잠시 외출했던 조카가 선한 인상의 한 아가씨를 데려왔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언니라는데 이름이 ‘메이후’라고 했다. 외삼촌인 나를 위해 맞선을 주선한 것이었다. 처음엔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맞선을 본다는 것이 웬지 도리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누이와 조카가 그 아가씨 칭찬을 늘어놓으며 적극 나섰다. 결국 계속되는 간절한 어조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얼굴은 다소 빠지는 듯 했으나 심성이 꽤나 곱고 때 묻지 않은 순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여 사장과 ‘반손’을 불렀고, 저녁 무렵에 이웃해 있는 신부의 집에까지 동행했다. ‘메이후’ 부모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에는 누님 내외와 ‘트영’의 어시스트도 결정적인 한 몫을 했다. 부랴부랴 이튿날 아침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대가족이었다. 신부의 할머니를 비롯해 부모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네 식구까지 일추 5~60명은 돼 보였다. 그런데 식후 피로연에서 신부의 할머니께 술을 따라드리다가 왼쪽 손이 의수임을 알고는 움찔하고 놀라기도 했었다. 손목 바로 윗부분을 절단한 것 같았다. 그러나 궁금증은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잠깐 머물다가 이내 뇌리에서 사라져 버렸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급히 서둘러 하룻배로 신혼여행길에 올랐었다. 나 때문에 일정이 하루 늦춰진 까닭에 그곳에서 하루를 더 보낸 최 형네도 함께 떠났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 가운데 한 곳인 하룻배이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정말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만나는 비경 중에 비경이었다.

그 곳으로 가는 2시간여 내내 누님과 조카 ‘트영’과의 비운의 해프닝이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가슴 한 구석에 난 생채기가 못내 걸리기는 했지만 되도록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당장은 내게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바치고 있는 신부와 신혼여행 중인 내가 지켜야 했

던 최소한의 의리이자 매너였으니까.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성스러우면서도 황홀한 신선 첫날밤을 보낸 뒤로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표정이나 손짓발짓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통은 물론, 서로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교감이 가능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인간이 지닌 신비롭고도 위대한 능력임이 분명했다. ‘메이후’는 항상 나의 팔짱을 걸고 떨어지지 않았으며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내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선상 갑판위에서 어찌어찌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녀 할머니의 손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었다. 통역을 통해 나의 신부 ‘메이후’에게서 들었던 대답이 여행 내내 목구멍에 걸려있는 가시가 되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놈의 월남전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이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월맹군(베트콩) 간부였다고 했다. 한국군과의 교전 중에 생포되었던 할아버지는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셨고 울며불며 달려들던 할머니마저 손에 총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한 탓에 결국 손목을 절단하게 되었단다. 궁금해 안달이 난 나의 속내를 짓눌러 앉히느라 무척이나 힘들었다. 자세한 사연과 내막에 대해 더 이상 알게 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난기류 때문이라는 기내방송과 함께 좌석벨트를 매라는 전광 사인이 눈앞에서 반짝거리며 나의 열은 잠을 깨웠다.

영화처럼 스쳐지나간 베트남에서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었는가 보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도 꽤나 많은 것 같다. 사기 결혼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의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내 연수를 마치고 혼인신고가 끝나면, 2차로 다시 베트남에 입국하여 그 나라 관공서에서 인터뷰 심사도 받아야 한다. 앞으로의 일정과 밟아야 할 절차들을 차근차근 짚어볼 심산으로 다시금 눈을 지그시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런데 목구멍이 따끔따끔 거리기 시작한다. 자꾸만 잡념이 뇌리를 파고들면서 내 심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뇌리에 박혀있는 가시가 또 신경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사랑스런 내 신부의 할아버지를 총살했다는 그 한국군, 과연 육군이었을까? 해병대이었을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을까? 그녀 가족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 할머니가 손을 잃게 된 것이 우리 아버지가 소속해 있던 부대와는 전혀 무관한 걸까?’

솔직히 은근히 겁이 난다. 두 번 다시는 하노이의 쓰디쓴 눈물은 맛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전사가 되어 인명살상의 총질을 했던 곳이지만, 아들인 나는 처가의 땅으로 사랑해야 하는 곳이 되다니....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집안과 나의 신부 메이후네 집안이 악연으로 얽혀

있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전이되어 나를 옥죄는 느낌이다. 너와 나, 그리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결국엔 모두가 패배자요 피해자가 되고 마는 전쟁,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게임이다. 월남전은 내 누이가 되는 한 순박한 여인과 그 자식에게 불행한 삶을 안겼고, 가해자인 내 아버지에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종당엔 나와 조카, 트잉의 피눈물을 뿜은 원흉이었던 셈이다.

난 지금 지그시 입술을 깨문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비행기 안에서 내 자신에게 다짐에 다짐을 더하고 있다.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절대로 메이후의 할머니에게는 물론, 어머니를 포함한 한국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아버지의 월남전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리라.’

서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창 밖으로는 신 새벽의 하늘이 열리고 있다.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동화

|금상| **이매탈 아빠** 안동대학교 최동구

|은상| **영돌이의 여행** 칠곡 학림초등학교 백금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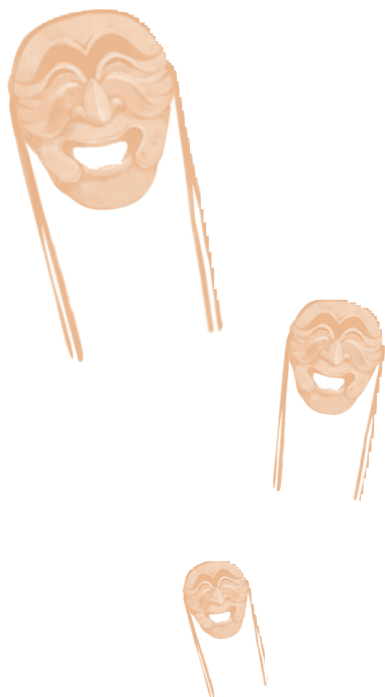
|동상| **꼬마 신발의 첫 나들이** 대구교육청 허윤정

살구꽃 할아버지 제천 두학초등학교 윤은분

어느 섬마을 소년의 눈물 시흥 함현초등학교 최영환

최고의 곡식 미인대회 철도청/한국철도공사 최은석





이매탈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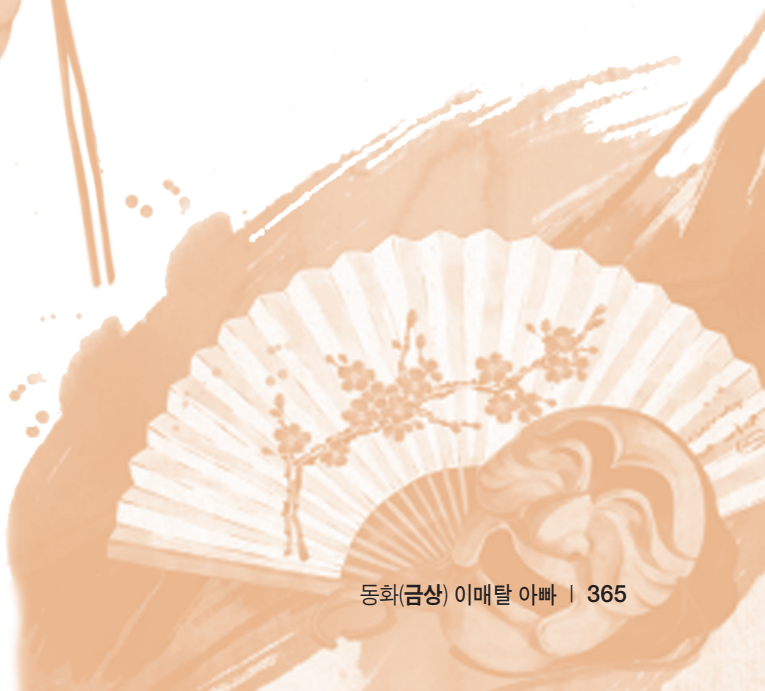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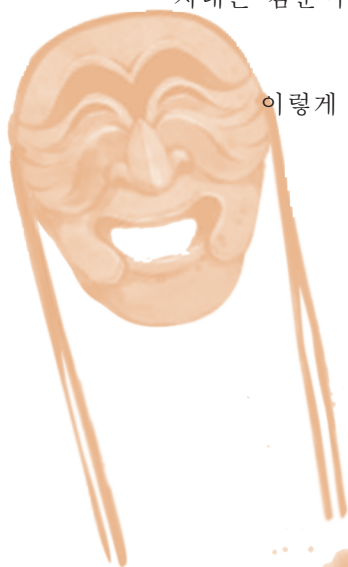
최 동 구

“자네는 감순이 같이 착하고 예쁜 딸이 있어 좋겠어.

하회탈 공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가족이랑 깨가 쏟아지게 살려면

어서 완치하게나. 알았지?”



금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화 |



안동대학교
최 동 구

진정한 행복이란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진력해 가는 미완성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다문화가정 이매탈 아빠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화를 쓰게 해주신 SGI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이매탈 아빠

하회마을에는 올해 첫 보름달이 떴습니다. 오늘따라 만송정 소나무 숲에 있는 공연장에는 하회탈춤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로 가득가득 합니다. 구경꾼들 사이로 동네 아이들도 보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집와서 낳은 7명의 친구들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은입니다. 어머니가 캄보디아에서 시집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캄순이라고 부르고, 2살 된 동생 태영이는 캄돌이라고 부르지요.

아빠는 하회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회탈 공연을 하는 배우입니다. 아빠 덕분에 저는 공연하는 아저씨들과도 친해서 반 친구들이 몹시 부러워하지요.

8시가 되어 나팔소리가 울리자, 저는 동네 탈을 껌는 동료 아저씨 어깨위에 올라 춤을 추면서 입장하였습니다. 빨간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고 뽀얗고 예쁜 각시탈을 쓰고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들니다. 손에 든 하얀 수건이 팔랑팔랑 거리고 빨간 땀기가 콩따닥 콩따닥 흔들리지요.

동표아저씨 뒤로 팽과리와 장구, 북과 징을 치는 10명의 아저씨들이 따라와 쿵따당 쿵따당 흥을 돋웁니다. 그럴 때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박수를 치지요.

동표아저씨와 제가 무대를 나오면 도깨비 탈을 쓴 두 명의 아저씨가 빼죽 나온 썰렁 같은 것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를 잡는 백정아저씨가 장난감 도끼를 들고 춤을 추지요. 백정이 춤출 때 소가 등장합니다. 2명의 아저씨가 소가죽을 덮어 쓰고 관중석을 돌다가 별안간 관중들을 소뿔로 들이 받습니다.

관중들이 놀라서 서로 엎히고 설키며 뒤로 자빠지지만 모두들 손뼉을 치고 좋아하지요. 꼬리쪽 아저씨는 소불알 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소 오줌 누는 것처럼 관중석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물이란 것을 알고 부터는 괜찮았습니다.

할미탈을 쓴 아저씨는 길쌈 삼베들을 짜면서 신세타령을 하다가 조그마한 바가지를 들고 동냥을 합니다. 할미는 관중들에게 동냥을 받을 때마다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덕담을 해줍니다.

부자가 되어라, 자식 많이 낳아라, 예쁜 애인 얻어라 하며 좋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양반 역을 맡은 양반탈을 쓴 아저씨가 무대 분위기를 보더니 나에게 말했습니다.

“감순아. 너도 바가지를 들고 한 바퀴 돌아보렴.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한 바퀴 돌면 네 동생 감돌이 분유값은 나

을 것 같구나.”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는 나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끄럽긴? 예쁜 각시탈을 썼으니 아무도 모를게다.”

아저씨는 예쁘고 가벼운 각시탈을 씌어 주고, 박바가지
를 내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각시탈을 곱게 쓰고 공연장을
돌았습니다. 관객들이 바가지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할미탈 아저씨처럼 꾸벅 꾸벅 세 번 절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모르지만 키 크고 코 큰 아저씨는
오만원이나 주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나니 얼마인지 모르
지만 바가지가 가득 찼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치마를 동
그렇게 만들어도 한 가득이었습니다.

“감순이, 오늘 수지 맞았구나.”

이매탈을 쓴 아저씨가 빙그레 웃더니 탈을 눌러쓰고 절
뚝거리며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매탈의 공연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매탈은 턱이 없는 하회탈인데 바보입니다. 나사가 빠
진 바보처럼 비틀비틀 걸으면서도 항상 웃고 다닙니다. 자
기가 바보인데 온전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바보, 등신
이라고 놀려댑니다. 그럼 사람들은 배를 쥐고 웃습니다.

공연장이 이매탈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이매탈이 바보공연의 원조라고 했습니다. 영구와 맹구보다 먼저 생긴 바보라고 말이지요.

이매탈은 아빠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아빠는 한 달 전부터 목소리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성대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아빠가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엄마도 캄돌이도 모두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동료 아저씨 때문인데, 캄돌이 분유값이라도 공연비에서 챙겨주고 싶다는 아저씨들의 부탁 때문입니다.

아빠가 공연을 하지 못해서 공연료를 받지 못한 것을 동료 아저씨들이 저를 대신해서 지불해주는 것이지요. 제가 각시탈을 쓰고 나가 조금이라도 버는 돈은 캄돌이의 분유값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고마운 아저씨들입니다.

공연장에 떠들썩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반탈과 선비탈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나는 사대부의 자손이다.”

“나는 팔대부의 자손이다.”

“팔대부는 또 뭐로?”

“아니 양반이란 게 팔대부도 몰라?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뭐.”

양반탈이 배를 불룩 내밀고 자기자랑을 할 때면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웃습니다.

“어허. 나는 사서삼경을 읽었네.”

“나는 팔서육경을 모두 읽었네.”

“팔서는 뭐고 육경은 또 뭐로?”

선비와 양반탈이 다룰 때 초랭이탈이 출랑거리며 뛰어나와 잘난 체를 합니다.

“나도 아는 육경을 모르니껴?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새경 아니니껴.”

초랭이가 양반들을 희롱하면 사람들은 또 한 번 즐겁게 웃습니다. 파계승도 나오고, 할미탈도 나오고, 처녀탈이 나와서 춤도 추면서 한바탕 재미있는 공연이 끝이 나면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공연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평소보다 더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동포아저씨의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 집은 사람이 없는지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시다.

“버스가 늦는 모양이구나. 아저씨랑 함께 기다릴까?”

“아니에요. 저도 다 컸다고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감순아. 어서 들어가거라. 아빠는 너무 걱정 말고.”

“예.”

동표아저씨의 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힘없는 걸음으로 대문 앞으로 다가가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가와 꼬리를 치며 반깁니다. 알분이입니다.

나는 알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줍니다. 방안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내려앉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알분이 허를 내밀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을 지키고 있던 알분도 외로웠나 봅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병원으로 간 후로 엄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들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간 아빠는 저의 친아빠가 아닙니다. 친아빠는 제가 5살 때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간 아빠는 엄마가 2년 전에 결혼한 새아빠입니다. 감돌이는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서 낳은 동생입니다.

새아빠는 이매탈처럼 착한 분이었습니다. 40살이 넘도록 농촌에 살면서 장가를 가지 못한 새아빠는 엄마와 저를 만나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새아빠와 사시면서 엄마는 항상 밝고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빠는 암에 걸렸습니다. 목에 암 덩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를 한 번 잃어버린 엄마는 새아빠를 또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새아빠를 잃어버릴까봐, 새아빠가 우리를 두고 멀리멀리 가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루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옷장 속에 고이 간직한 색동종이를 꺼냈습니다. 그중 노란 종이와 빨간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 아빠 수술 잘 되게 해서 탈춤 추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해 주세요.

저는 색동종이 두 장을 곱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대문 밖을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웠지만 알분이가 따라오니 무섭지 않았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가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삼신탈미나루가 나타납니다. 나이는 6백하고도 12살이나 되었습니다. 키는 앞 산의 절벽 높이입니다.

저는 곱게 접은 소원 색동종이를 삼신탈미나루의 줄 사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숨바꼭질하듯 삼신탈미나루 안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빠가 무사하기를, 엄마가 웃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수술하는 날입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갑니다. 수술을 앞둔 아빠는 침대에서 저

를 보고 웃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어보이다가 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펴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포, 내가 짜랑하는 커 알죠? 힘 내세요.”

엄마는 발음 때문에 서툴게 보이는 한국말로 아빠를 위로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아빠의 웃는 얼굴이 이때탈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수술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손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빠가 회복실로 들어간 동안 저와 엄마는 의사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되었습니다. 글썄 사흘 전까지만 해도 암덩어리가 포도송이처럼 컸는데 이것이 푹푹 뭉쳐져서 조그마하고 새까맣게 돼있지 뭐니까? 덕분에 제거 수술이 잘되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캄돌이가 저를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튿날 하회탈 공연을 하는 아저씨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두들 아빠의 수술성공을 축하하였습니다. 동표 아저씨가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자네 출연료야. 아니, 자네 딸 뭉이지. 첫 공연에 캄순이가 관객들에게 공양을 많이 받았지 뭐야? 캄순이 출연료하고, 관객들에게 받은 돈,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모은 돈이야. 얼마되지는 않지만 병원비로 쓰게.”

아빠가 멍하니 돈 봉투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표아저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캄순이 같이 착하고 예쁜 딸이 있어 좋겠어. 하회탈 공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가족이랑 깨가 쏟아지게 살려면 어서 완치하게나. 알았지?”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져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손 등으로 눈을 쓱 닦더니 이매탈 같은 웃음으로 답례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공연단 아저씨들이 돌아간 후에는 복지사아주머니, 다문화 식구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아빠의 수술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목이 다 나으면 공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놀러가면 참 좋겠다.”

새아빠는 엄마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편지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겉봉에 사랑하는 나의 딸 태은이에게 라고 쓰인 편지봉
투였습니다.

저는 편지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딸 태은아!!

그동안 아빠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와 너를 보니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항상 외롭던 아빠는

엄마와 너, 태영이가 있어서 아팠지만 너무도 행복하단다.

아빠가 완쾌되면 꼭 약속할게.

엄마의 고향인 캄보디아로 함께 여행하기로 말이야.

이 아빠가 엄마와 태은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보여줄게.

항상 아빠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태은아. 사랑한다.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행복
하고 기쁜데 왜 눈물이 나오는 걸까요? 아빠는 오늘도 이
매탈처럼 말없이 웃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식구는 아빠침대 옆에서 하루 밤을 보냈

습니다. 불편한 병원 침대였지만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하나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이 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밤하늘에 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별들이 하나 둘씩 내려오더니 삼신탈미나루의 가지 위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은 무리를 지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 많은 별들이 허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별 하나가 우리들 앞으로 다가와 멈추었습니다.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자는 듯 말입니다.

아빠와 엄마, 저와 캄돌이는 예쁜 옷을 입고 별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큰 별이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삼신탈미나루가 보였습니다. 하회마을을 지나가는 구불구불한 강물과 초록빛 산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별은 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아름다운 꼬리를 끌며 넓은 바다 위를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별은 푸른 숲이 가득한 섬 위로 날아 갔습니다. 별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궁전을 지나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멀리 나무로 만든 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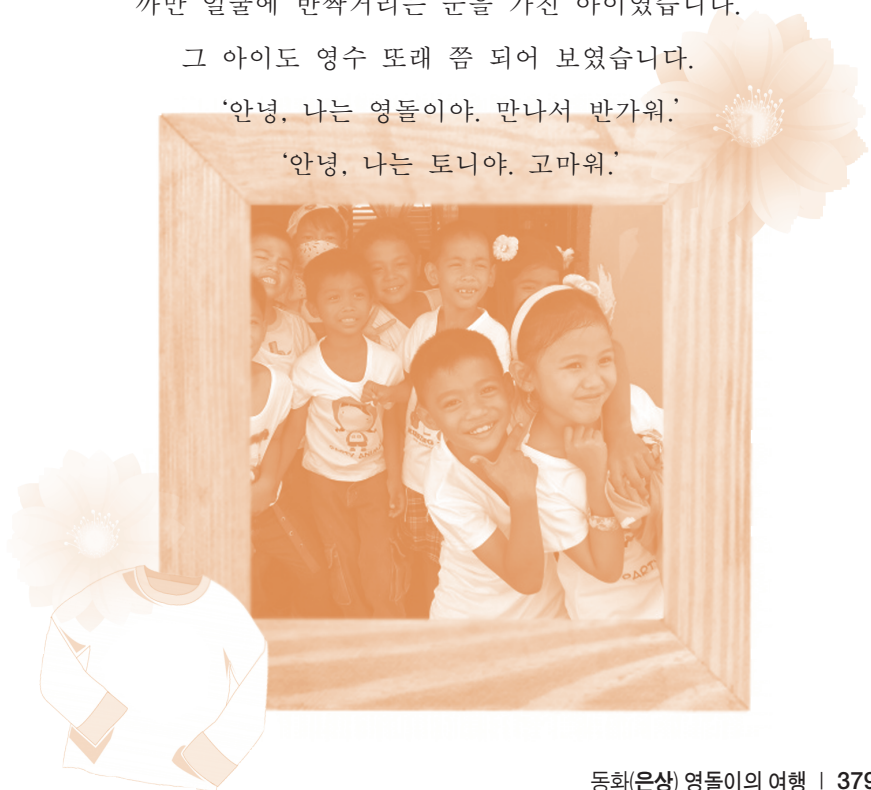
캄보 외할머니와 캄디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들은 두 분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

다. 우리 가족은 별 위에서 손을 흔들며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매탈처럼 말이지요.

영돌이의 여행

백 금 태

영돌이 앞에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까만 얼굴에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영수 또래 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 나는 영돌이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토니야. 고마워.’



칠곡 학림초등학교
백 금 태

오늘도 교실 여기 저기에 주인 잃은 물건들이
튀굴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버려진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들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
다. 몇 달째 교실 구석 옷걸이에 걸려있는 흰 자
켓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요즘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글로 옮기
고 싶었습니다.

영돌이의 여행

“아이, 무서워.”

영돌이는 부르르 몸을 떨니다. 교실 밖에 서서히 땅거미가 내리고 칠판 같은 어둠이 교실까지 들어옵니다.

“째깍-째깍”

교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벽에 걸린 시계만이 째깍거리며 깨어있습니다. 영돌이는 오늘도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뿌영게 동이 트고 햇살이 창문을 기웃거릴 때쯤 아이들이 하나 둘 교실로 들어옵니다. 영돌이도 기지개를 켜며 아이들을 맞습니다. 밤새 혼자였던 영돌이는 아이들이 반갑습니다. 이내 교실은 아이들로 그득 채워지고 왁자지껄해집니다.

“나 잡아 봐라!”

“거기 서!”

“우당탕, 쿵.”

교실은 금새 난장판이 됩니다. 그 바람에 영돌이는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채 아이들의 발에 짓밟히기 일쑤지만 아무도 영돌이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돌이는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가 좋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좋습니다. 특히 영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영돌이가 이렇게 지낸지도 벌써 반 년이 넘었습니다.

영돌이는 영수의 흰색 옷옷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영수는 그 옷을 입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 날 아침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따듯한 햇살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옷을 벗어 교실의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영수의 옷 영돌이도 그곳에 걸려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빠져 나갔지만 옷걸이에는 여러 벌의 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벗어 놓은 옷을 입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수의 옷 영돌이도 그들 사이에 끼어있었습니다. 영돌이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심하지도 않았고, 밤에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들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옷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옷걸이에는 분홍색 옷과 영돌이만 남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야?”

분홍색 옷이 물었습니다.

“나는 영수의 옷 영돌이야. 너는 누구야?”

영돌이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진희의 옷 진숙이야.”

둘이는 쳐다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홀쩍- 홀쩍-. 진희는 나를 잊었나봐.”

진숙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도 곧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영돌이도 울고 싶었지만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진숙이를 다독거렸습니다.

진숙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두 갈래로 예쁘게 땋은 진희가 옷걸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옷 여기에 있었네! 얼마나 찾았는데.”

진희는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진숙이를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진숙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돌아 힘내. 영수도 곧 너를 찾으러 올 거야.”

진숙이는 영돌이를 위로하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옷걸이에는 영돌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혼자 지내야 하는 밤은 더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영돌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영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영돌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옷 누구 것이야?”

선생님이 오늘도 옷 주인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옷 주인을 찾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돌이는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영수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영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영돌이는 교실 바닥에 나뒹굴고, 아이들 발에 밟히며, 먼지까지 뽀얗게 뒤집어썼습니다. 하얗던 몸이 피죤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들아, 이 옷 주인 정말 없지? 이제 버려야 겠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영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영돌이의 뺨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선생님, 그 옷 저 주세요.”

“왜?”

“제가 입고 싶어요.”

“저 주세요.”

“저 줘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영돌이는 그 아이들 속에 영수가 없어서 서운했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없이 손을 든 아이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옷을 가져가기로 해요.”

“네, 선생님.”

아이들의 힘찬 대답소리와 함께 가위 바위 보가 시작되

었습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야호, 내가 이겼다.”

수현이가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수현이는 영돌이를 받아 들고 개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영수 곁을 떠나야 되는구나!’

영돌이는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현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엄마”

현관으로 들어서며 수현이가 큰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이거.”

“이게 뭐야?”

“옷. 내가 친구들과 가위 바위 보를 했는데 이겼어.”

신이 난 수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게 누구 옷인데?”

“우리 교실에 있던 주인 없는 옷이야.”

“왜 이런 옷을 들고 와. 때도 꼬질꼬질 문었잖아.”

엄마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야,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해 질거야.”

“네가 거지야? 다른 사람이 버린 옷을 가져오게. 버려.”

“내가 이겨서 가져왔단 말이야. 엄마 미워.”

수현이는 토라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영돌이와 수현이 엄마만 있었습니다. 영돌이는 소파에 앉아 있는 수현이 엄마를 옆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수현이 엄마는 못마땅한 얼굴로 영돌이를 찌려보고 있었습니다. 영돌이는 숨죽인 채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영돌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영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영수 엄마는 영돌이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영수가 더 멋져 보여.” 하시며 영수에게 영돌이를 자주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돌이를 눈부시도록 하얗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옷들이 영돌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수현이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물건을 집게로 집듯 영돌이를 엄지와 검지 끝으로 집어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돌이는 덜컥 겁이났습니다.

“버려.” 하시던 수현이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화난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던 엄마는 아파트 마당에 있는 옷 보관함에 영돌이를 ‘획’ 집어 던졌습니다.

영돌이는 옷 보관함 속에 ‘툭’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영돌이처럼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친구도 있고, 말쑥한

친구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난 친구 등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멀쩡한데 왜 여기에 왔니?”

까만색 바지가 물었습니다.

“영수에게 작아서.”

영돌이는 영수가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이사 간다고 여기에 넣었어.”

“조금 낡았다고 보기도 싫대.”

문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영돌이처럼 주인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영돌이는 킁킁한 통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칠컹’

밖에서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리고, 옷 보관함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자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 눈 부셔.”

며칠 만에 보는 햇살에 영돌이와 친구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많이 모였네.”

키 큰 아저씨가 통 속을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영돌이와 친구들을 한 웅큼씩 끄집어내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휴! 시원해.”

어두컴컴한 통 속에 갇혔던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니 속

이 후련했습니다.

아저씨는 상자를 트럭에 싣고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행가는 것일거야.”

“맞아, 나도 영수 아빠 차타고 여행 갔거든.”

영돌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은 세탁소였습니다. 영돌이와 친구들은 큰 세탁기 속에서 세제가 섞인 물과 함께 한참이나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눈앞이 뱅글뱅글 도네.”

뒤이어 뜨거운 바람이 쏟아졌습니다.

“아이! 뜨거워.”

“헉헉, 숨 막혀.”

뜨거운 바람이 영돌이와 친구들의 젖은 몸을 말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빠-’ 소리가 나고 세탁기 문이 덜컹 열렸습니다. 친구들이 세탁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때가 꼬질꼬질 묻었던 친구들의 얼굴이 흰해졌습니다.

“우와! 모두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맞는 가봐.”

친구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영돌이와 친구들은 다시 상자에 담겨져 바닷가로 갔습니

다. 그리고 큰 배를 탔습니다.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친구들이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영돌이도 영수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하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영돌이와 친구들을 태운 배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달렸습니다. 평온한 날이 며칠 지나갔습니다.

“번쩍! 우르릉 쿵쿵.”

갑자기 천둥 번개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훅, 휘이-익.”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잔잔하던 바다는 사납게 요동을 쳤습니다. 영돌이가 탄 배는 종이배처럼 흔들렸습니다. 영돌이와 친구들은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는 울부짖는 호랑이처럼 큰 입을 벌린 채 영돌이가 탄 배를 집어 삼킬 듯 덤벼들었습니다. 영돌이와 친구들의 여행은 험난하였습니다.

밤새 사나웠던 바다도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며 잠잠해져갔습니다.

“와! 예쁘다.”

친구들이 바다를 보며 소리 쳤습니다.

바다는 오색구슬을 뿌려놓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여러 날을 지낸 영돌이와 친구들은 어느 항

구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옷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먹물처럼 까맣네!”

“손도, 발도 다 검정색이야!”

“하얀 것은 입 속에 있는 이 뿐이네!”

친구들이 사람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세요.”

아저씨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아저씨들이 상자 안의 옷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옷을 받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나를 입을까?’

‘나를 싫어하면 어찌지!’

영돌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영돌이 앞에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까만 얼굴에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영수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 나는 영돌이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토니야. 고마워.’

영돌이와 아이는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돌이는 그 아이를 보며 영수 생각이 났습니다.

‘영수도 나를 좋아했는데.’

영돌이의 눈시울이 또 붉어집니다. 영돌이의 몸에는 아직도 영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영수의 온기를 아이에게 줄 거야. 영수도 좋아하겠지!’

영돌이는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이제 영돌이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너와 오래오래 같이 있을거야.’

‘고마워, 나도 네가 참 좋아.’

영돌이는 아이의 따뜻한 눈길을 가슴에 안습니다.

영돌이의 긴 여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영돌이를 입고 펄쩍펄쩍 뛰어 갑니다. 영돌이도 같이 뛰니다.

“까르르-”

“갈갈-”

행복한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집니다.



꼬마 신발의 첫 나들이

허 윤 정

“아니예요. 주인님은 정이 많은 분들이니까요.”

꼬마 신발은 자기를 꼭 끌어안고 바라보던 주인아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 때 신발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등산화 아니었으면 큰 일 날 뻔했어.”

주인아주머니도 신발장 안을 들여다 봤어요.

“이 구두는 세월이 갈수록 멋이 있어요.”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동화 |



대구교육청
허 윤 정

어린이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수한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힘세고 멋진 어른들에 비해 지금은 비록 작고 여리게만 보이지만 오히려 어른보다 나은 면도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열정과 용기입니다. 꼬마 신발처럼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마음속에서 말과 용기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응원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동심을 일깨워 주신 혜암 최춘해 선생님과 동화는 시에서 피어난 꽃임을 알게 해주신 김상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꼬마 신발의 첫 나들이

일요일 아침 둥근 해가 신발장 문을 두드렸어요. 신발들은 아직 나란히 누워 달콤한 꿈을 꾸고 있어요.

“기상! 아침이다. 그만 자고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벌써 아침 운동까지 한 등산화 아저씨가 기운차게 말했어요.

“아함. 아저씨,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나는 좀 더 자야 한다고요. 요즘 피부가 거칠어졌단 말이야. 저 아저씨는 자기만 생각해.”

뽀족구두 아가씨가 뽀로통하게 말했어요.

“나는 벌써 일어나서 앉아 있었지.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거든.”

고무신 할머니가 이가 빠진 채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안 일어난 녀석은 뭐야? 일어나 꼬마!”

아저씨가 툭툭 치자 자고 있던 꼬마 신발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앞코가 둥근 꼬마 신발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다들 숨 크게 들이 마셔봐. 아침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

데. 이런 날엔 산꼭대기까지 날아가겠어.”

아저씨는 늘 그렇듯 아침부터 기운이 넘쳤어요. 빨간 끈으로 조인 근육이 오늘따라 더욱 더 우락부락해 보였어요.

‘저 발에 한 번 밟히기라도 하면 완전 찌그러져 버리겠어.’

꼬마 신발은 움츠려 들었어요.

“주인님은 나 없인 산에 올라갈 수 없어. 제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이라도 바람같이 데려다 드릴 수 있지. 주인님과 함께 오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라고.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할지 벌써부터 발바닥이 근질거리는군.”

아저씨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나야말로 사랑받는 구두라고요. 주인아주머니가 아가씨 시절 첫 월급으로 나를 샀거든요. 이 신발장에서 나만큼 젊고 예쁜 구두가 있나요? 오늘 동창회에 간다고 하던데 이 몸이 체면 좀 살려드려야겠네. 아저씨는 만날 그렇게 힘만 자랑하지요? 우락부락하게 생겨깎고서는.”

뽕족구두 아가씨가 아저씨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난 보다시피 구멍 나고 낡은 고무신이야. 진즉에 쉬어야 했지. 그런데도 주인할머니가 나만 고집하시니……. 이 한 몸 으스러질 때까지 피셔야지.”

신발들이 모두 자기자랑을 하는 동안 꼬마 신발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이 꼬까신. 너도 한 마디 해보지?”

아저씨 말에 모두의 시선이 꼬마 신발에게 몰렸어요. 갑

작스런 질문에 꼬마 신발은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텅 빈 것만 같았어요.

“저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너같이 작은 꼬까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아저씨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래, 하루 종일 업혀 다니는 아기한테 신발이 뭐 필요하겠어?”

뽀족구두 아가씨도 한 마디 거들었어요. 꼬마 신발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다들 짓궂게 꼬마한테 왜 그래. 괜찮다 꼬마야. 너도 시간이 지나면 쓰일 데가 있을 게야.”

‘다들 너무해.’

꼬마 신발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온 후로 계속 신발장 속에만 있었거든요. 주인 아가가 아직 걷지 못해서 꼬마 신발은 할 일이 없어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신나는 날이 올 거야.’

꼬마는 오던 날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 주인 아가가 엄마 품에 안긴 채 신발가게에 왔어요. 아가는 꼬마 신발을 가리켰어요. 진열대에 있던 그 많은 신발 중에 말이에요. 엄마가 다른 걸 골라주려 해도 아가는 도리도리를 했어요. 꼬마 신발을 꼬옥 끌어안고서요. 그때 초롱초롱한 눈과 발그스름해진 두 뺨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꼬마 신발은 베시시 웃음이 났어요.

‘너 같이 작은 꼬까신이!’

다시 등산화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꼬마 신발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등산화 아저씨처럼 높은 산에 갈 수도 없고 뽀족구두 아가씨처럼 멋지지도 않아요.

‘어쩌면 다른 신발들의 말이 옳을 지도 몰라.’

꼬마 신발은 시무룩해졌어요.

신발장 문이 열리고 주인아저씨가 등산화 아저씨를 집어 들었어요.

“주인님이랑 등산하러 간다. 저녁 때 보자고. 하하하.”

등산화 아저씨는 신나서 나갔어요.

그 다음엔 주인아주머니가 뽀족구두 아가씨를 꺼냈어요.

“나도 다녀올게. 즐거운 일요일 보내요.”

고무신 할머니도 주인할머니 손에 들려나갔어요.

‘또 나만 남게 되겠지.’

꼬마 신발은 무릎 깊숙이 고개를 파묻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니 주인 아가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꼬마 신발을 꺼내 아가에게 신겨주었어요.

‘드디어 나를 신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가는 할머니 등에 업혔어요.

햇살이 가득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신발들도 즐거워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꼬마

신발은 시무룩해졌어요.

‘흠 한 번 안 묻히는 내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골똥히 생각하느라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도 몰랐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자꾸만 꼬마 신발을 올려다보며 쫓아왔어요.

“할머니, 손잡고 걸어보자.”

아가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손을 놓자 비틀거리며 혼자 걸었어요.

“옳지. 잘한다.”

할머니는 박수를 쳤어요.

‘고무신 할머니, 저 좀 보세요. 내가 걷고 있어요.’

‘그래 잘 걷는구나. 우리 아기.’

고무신 할머니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주인님의 첫 걸음마를 함께 하다니.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야.’

꼬마 신발은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어요. 처음 밟는 땅의 감촉이 부드러웠어요. 햇빛을 받은 둥근 앞코는 반짝반짝했어요.

‘아이쿠!’

갑자기 꼬마 신발의 몸이 휙 기울었어요. 주인 아가가 넘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꼬마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데굴 데굴 굴러갔어요.

‘아이 아파라.’

머리가 빙빙 돌고 무릎은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멍멍’

그 때, 아까부터 꼬마 신발을 지켜보던 강아지가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우는 아가를 달래느라 강아지를 보지 못했어요.

‘저리가. 가까이 오지 마.’

강아지는 점점 꼬마 신발 가까이 다가왔어요.

‘나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하지?’

강아지의 이빨은 송곳처럼 뽀족했어요.

“함무니. 신. 신.”

아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휘이. 저리가 이 늑아.”

할머니가 그제야 쫓아보려 했지만 강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 어찌면 좋지?’

꼬마 신발은 덜덜 떨었어요. 금방이라도 까무러칠 것만 같았어요.

‘아가야 정신 차려.’

고무신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조금 전 첫 걸음을 내딛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어요.

‘나를 물고 멀리 가버린다면 다시는 주인님과 걸을 수 없을 텐데!’

꼬마 신발은 눈물이 그렇그렇한 아가의 눈을 보자 정신

이 번쩍 들었어요.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에잇 저리가 이 못된 멍멍아! 내가 아무리 작아도 너에게 물려가지 않아.”

‘나랑 가서 놀자 멍멍.’

“흥! 주인님을 두고 가는 일 따윈 없을 테니 얼른 가는 게 좋을 거야. 빨리 안 가면 내 앞코로 너를 콕콕 차서 아프게 해 줄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강아지가 콧방귀를 끼며 꼬마 신발을 덥석 물었어요. 꼬마 신발은 온 몸에 힘을 주어 소리쳤어요.

‘뽕뽕뽕뽕’

꼬마 신발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 났어요. 강아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꼬마 신발을 삼킬 뻔 했어요. 한참을 쭉쭉거리다 신발을 놓고는 멀리 달아나버렸어요. 그것을 본 아가가 할머니 품에서 내려왔어요. 아가는 아장아장 걸어와서는 꼬마 신발을 꼬옥 껴안아 주었어요. 초롱초롱한 눈과 발그레한 두 볼이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어요. 꼬마 신발은 아직도 몸이 떨렸지만 아가의 품에 안겨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주인 아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기 있는 신발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다른 신발들도 모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침과는 달리 좀 시무룩한 얼굴이었어요. 등산화 아저씨

는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 있었고 뽕족구두 아가씨는 구석에서 울상이었어요. 광택이 사라져 아침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다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누? 왜 그래? 말 좀 해봐.”

한참을 있다가 등산화 아저씨가 입을 먼저 열었어요.

“사실 나 때문에 오늘 주인님이 크게 다칠 뻔 했어요.”

아저씨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산비탈 내리막길이었어요. 발을 디디는 순간 자갈에 미끄러졌지요. 주인님이 비명을 지르며 주룩 미끄러져 내리는데 정신을 잃을 뻔 했어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 뒤통치에 힘을 주어 겨우 멈추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저씨는 아직도 식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런저런. 그래서 어찌 됐누?”

“주인님이 절뚝거리며 산에서 내려오는데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나 사실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낡은 것 같아. 어찌면 난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버려질 지도 몰라요.”

“나도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구석에서 울상이던 뽕족구두 아가씨도 말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한 외출이라 너무 설레고 기분 좋았어요. 친구들도 만났으니깐요. 그런데 다른 구두들은 전부 호화스러운 새 구두였어요. 나는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다른 구두를 보니 나는 그저 오래된 구두일 뿐이었어요. 다

들 어느 브랜드의 누구니 얼마짜리니 자랑을 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치맛자락
으로 발을 감출 땐 어디 숨고만 싶었어요. 서둘러 도망치
듯 왔단 말이에요.”

뽀족구두 아가씨는 기가 죽어 금세라도 눈물을 흘릴 것
만 같았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아저씨와 누나였는데. 저런 모습은
처음이야.’

“둘 다 오늘 맘 고생이 많았구먼. 꾹꾹.”

가만히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을 꺼냈어
요.

“그래도 주인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게야. 둘 다 주인
님들을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 했으니까. 암. 그렇고말
고.”

“아니예요. 어쩌면 우린 이제 끝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재활용 수거함에 버려질 거라고요.”

등산화 아저씨와 뽀족구두 아가씨가 기가 죽어 말을 했
어요. 첫 나들이를 한 꼬마신발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예요. 주인님은 정이 많은 분들이니까요.”

꼬마 신발은 자기를 꼭 끌어안고 바라보던 주인아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첫 나들이를 한 꼬마에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어요. 꼬마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때 신발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등산화 아니었으면 큰 일 날 뻔했어. 미끄러지는

데 아찔하더라고. 밖에 가서 먼지 좀 털어야지.”

주인아주머니도 신발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 구두는 세월이 갈수록 멋이 있어요. 새 구두에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굽을 갈아 계속 신어야겠어요.”

주인부부의 손에 들려 나가는 등산화 아저씨와 뽀족구두 아가씨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요.

‘부족해 보여도 주인님께 꼭 필요한 신발이 되어야지.’

꼬마 신발은 첫나들이 때를 생각하며 방그레 웃었어요. 앞으로 아가와 더 빨리 더 신나게 뛰는 모습을 상상하니 어깨가 절로 움찔움찔 했어요. 은은한 달빛이 잘 자라며 신발장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어요.



살구꽃 할아버지

윤 은 분

“살구꽃 할아버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지 들어나 보자.”

“내년에도 꽃비를 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다.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떠나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이 뒷마당의
새 주인에게 아름다운 봄 날을 전해 주셔야 해요.”



제천 두학초등학교
윤 은 분

거세게 쏟아 부은 장맛비에 덜 여문 파프리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커다란 화분에 거름을 잔뜩 넣고 버팀목도 세워주고 해가 잘 드는 곳을 골라 자리도 옮겨주며 열심히 돌본 녀석이라 그 작은 열매 하나에도 가슴이 시립니다. 떨어진 파프리카를 보며 동화를 쓰겠다고 덤벼든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설프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꼭 차고 여문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칭찬이 아닌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고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튼실한 열매를 키워내는 파프리카처럼 내 안에 자리한 동심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살구꽃 할아버지를 환한 웃음으로 뽐내 주실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보고 싶은 엄마에게 드립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해거름 바람 꽃이 피어나 둑 길을 넘어옵니다. 까슬까슬한 바람이 유난히 차갑습니다. 바람이 비켜가는 모퉁이에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큰 가지 하나가 뭉텅 잘려나가고, 남아있는 등치에는 울퉁불퉁한 혹들이 달려 있습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텅 빈 까치집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꽃샘 추위가 너무 매서워요.”

노란 꽃망울을 터트린 민들레가 마른 가지 사이로 얼굴을 쏙 내밀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도 거뜰히 이겨냈는데 올 봄 꽃샘추위는 유난히 힘겹구나.”

추위에 지친 몸을 추스르며 대답하는 살구꽃 할아버지의 눈길은 자꾸만 할머니의 방문 앞에 머물습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할머니의 방문은 언제나 열릴까요?”

“밤새도록 기침 소리가 들리던데…….”

살구꽃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전 살구꽃 할아버지가 더 걱정돼요.”

민들레꽃은 살구꽃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너석도, 가지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찬 바람을 막아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추위에 내가 걱정이구나.”

“애벌레를 보내면 안 되나요?”

“아직은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울퉁불퉁한 혹 위로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도 예쁜 꽃 눈이 많이 달렸어요.”

“애벌레들도 곧 떠나겠지.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게다.”

미소짓는 살구꽃 할아버지에게 따스한 햇살이 머물다 지나갑니다.

“할아버지의 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살구나무였지. 봄비가 내리고 세상이 수련수련 깨어나면 할머니의 뒷마당을 환하게 수 놓곤 했단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시는 살구꽃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봄 바람이 불면 마당 가득 꽃 비를 뿌리곤 했지. 초여름 달콤한 살구 향이 퍼지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들어 웃음으로 가득차곤 했단다.”

“살구꽃 할아버지,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저도 할아버지의 멋진 모습이 보고 싶어요.”

“난, 이제 늙고 병이 들었단다. 네 눈에도 보이지 않니? 썩어 문드러진 내 몸뚱이가.”

살구꽃 할아버지는 쓸쓸한 눈빛으로 민들레꽃을 내려다

보십시오. 애벌레를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 년 전 이른 봄 날이었습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가지에 물을 끌어 올리고, 작은 꽃망울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처음 보는 작은 나방 한 마리가 가지 끝에 내려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로구나.”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 쉬었다 가렴. 친구들이 널 반겨줄 거야.”

“할아버지, 전 집이 필요해요.”

작은 나방은 지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괜찮다면 내 가지에 집을 마련하렴. 친구는 마음을 열면 저절로 생긴단다.”

“마음을 연다고요?”

작은 나방은 나를 뵈듯 쳐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생각한다는 건 이미 마음을 열었다는 걸 의미하지.”

“할아버지, 저도 친구가 생긴건가요?”

“그럼, 넌 이제 내 친구란다.”

작은 나방은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종알종알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람은 참 좋은 친구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이 꽃향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뭇잎 끝에 매달려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은 예쁜 꽃잎 같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나무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친구들과 떨어져 이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은 봄 비에 흠뻑 젖은 꽃잎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방의 몸집은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떠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동안 제 친구가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한 무더기의 알을 낳아 놓은 나방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나방의 기억이 회미해 질 무렵 근질근질하여 내려다보니 알이 있던 자리에 꼬물꼬물 작은 애벌레들이 보였습니다.

“귀여운 아기들이구나.”

“사각사각, 사각사각.”

애벌레들은 대답도 없이 부지런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너희 이빨은 너무 날카롭구나.”

“사각사각, 사각사각.”

“난 너희 엄마와 친구였단다. 우리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각사각, 사각사각.”

한창 푸른빛을 자랑해야 할 이파리들은 누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누런 진물이 나와 엉기고 부풀어 올라 매끄럽던 가지는 울퉁불퉁해 지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다면 떠나 줄 수 없겠니? 날카로운 이빨은 견디기 어렵구나.”

애벌레들에게 부탁도 해 보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벌레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채 자라지 못한 이파리들은 누렇게 변해 가을이 오기도 전에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지를 흔들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벌레들은 자라서 나방이 되었고, 제 어미처럼 가지마다 알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애벌레들은 늘어만 갔고 아름다웠던 내 몸은 형편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몇 개의 가지만 겨우 살아있는 불품없는 살구 나무가 되었습니다.

“콜록콜록.”

상념에 잠겨있던 살구꽃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뒷마당을 쳐다봅니다.

“마당에 나오신 걸 보면 몸이 좋아지신 모양이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말 끝을 잇지 못하는 살구꽃 할아버지의 눈에 마른 장작처럼 짙은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콜록콜록, 콜록콜록.”

가쁜 숨을 겨우 가라앉히고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십니

다. 우묵한 눈가에 축축하게 물기가 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도록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구나. 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까칠한 손으로 진물이 나와 엉겨 붙은 울퉁불퉁한 몸뚱이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전 괜찮아요. 할머니의 기침 소리만 들리지 않는다면 이깟 별레들이 아무리 파고 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얼른 나아와 널 돌봐주는데, 올 봄에도 네가 피워 내는 꽃을 볼 수 있을는지…….”

‘언제까지나 할머니의 봄을 지켜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께서는 내 이야기를 알아듣기라도 하신 듯 한참을 서 계시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살구꽃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민들레꽃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할머니께서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고운 얼굴을 하고 계셨지.”

“할머니께서는 살구꽃 할아버지를 제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른 봄 네가 노란 꽃을 피우면 함박웃음을 짓곤 하시던 걸. 할머니께서는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단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구꽃 할아버지를 쳐다보시는 눈빛은 다른 걸요.”

“발그스레한 꽃잎이 어려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구나.”

“할머니께서 얼른 나아서 예전처럼 우리와 함께 뒷마당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민들레꽃은 단힌 방문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자리를 내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자리를 내준다는 건 무슨 소리죠?”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떠나는 것을 말하지.”

“설마, 살구꽃 할아버지께서도 자리를 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깜짝 놀란 민들레꽃이 나를 뵈며 쳐다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니?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와 함께 할머니의 봄을 지켜드려야 하잖아요.”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할머니의 마음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복사 빛으로 남아 있듯이 내가 떠나도 난 이 뒷마당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야.”

“살구꽃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가슴 속에 언제까지나 함께 계실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꽃샘 추위가 지나자 꽃 눈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난번 매서운 바람에 가지 하나를 더 잃었지만 온 힘을

다해 지켜온 가지들은 그 어느 해보다 탐스러운 꽃 눈을
키워 냈습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뒷마당이 환해진 것 같아요.”

따스한 햇살에 꽃망울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석도, 노란 등불을 밝혔으니 환한 게지.”

꽃샘 추위에도 꽃대를 쑥쑥 밀어 올려 탐스러운 꽃송이
를 매단 민들레 꽃을 바라보며 웃으십니다.

“콜록콜록.”

토끼 꼬리만큼 길어진 햇살이 창문을 기웃거리려도 꽃향기
를 머금은 봄 바람이 문고리를 흔들어도 기침 소리만 문
턱을 넘어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떠나실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렴. 떠나신다 해도 널 잊지는 않으실
거야.”

살구꽃 할아버지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어립니다. 하
늘하늘 떨어져 내리는 꽃잎 사이로 봄 비가 내리기 시작합
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죠?”

봄 비에 젖어들던 마당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민들레꽃은
고개를 쭉 빼고 나를 쳐다봅니다.

“지난 겨울에 왔던 자동차가 멈춰서는 걸 보니 할머니께
서 우리 곁을 떠나실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겠죠?”

“그렇겠지.”

잠시 후 모퉁이를 돌아나가는 차가 보입니다. 할머니의 집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입니다. 밭치에 고인 뿌연 흙탕물에는 떨어져 내린 꽃잎들만 어지러이 맴돕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너석도, 몇 개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꽃이 진 자리에 올망졸망 살구들이 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애벌레들이 성한 가지마저 갉아먹기 시작했지만 부지런히 햇살을 받아들이고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푸릇푸릇 이파리들이 자라나고 살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습니다.

“살구가 탐스럽게 익어가네요.”

하얀 흙씨를 바람에 날려 보내며 민들레꽃이 말하였습니다.

“내년엔 뒷마당이 샛노랗게 물들겠는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많은 꽃을 피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민들레꽃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할머니께서 가셨지만 누군가 빈자리를 꼭 채우게 될 거야.”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럼,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꼭 찾아올 거야.”

“살구꽃 할아버지의 말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께서도 지금껏 살구꽃 할아버지보다 멋진 나무를 본 적이 없었

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녀석도, 이렇게 불품없이 늙고 병든 모습을 멋지다고 하면 누가 믿겠니?”

살구꽃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어립니다.

“그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곁을 떠나신 할머니 얼굴에 가득했던 주름을 아무도 못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살구꽃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할머니처럼 아낌없이 나눠준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아 지금의 모습이 되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란다.”

“아니에요. 애벌레들을 보세요.”

“애벌레들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민들레꽃은 한동안 말끄러미 올려다보더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예쁜 꽃과 맛있는 살구도 주시고, 동물 친구들에게는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애벌레에게도요. 그리고 제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 주시기도 했어요. 울퉁불퉁 불어난 흙들이 제겐 아름다운 훈장처럼 보여요.”

“네가 날 부끄럽게 만드느구나.”

민들레꽃의 마지막 남은 흩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갑니다.

“살구꽃 할아버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지 들어나 보자.”

“내년에도 꽃비를 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다.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떠나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이 뒷마당의 새 주인에게 아름다운 봄 날을 전해주세요. 해요.”

“네가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지금처럼 의지하고 나누며 함께 건데요. 할머니께서는 가셨지만 우리가 텅 빈 마당을 지키며 함께 할 날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자리를 내 주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마.”

해거름 살구꽃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저녁노을에 붉게 물듭니다. 살랑거리는 바람결에 튼실하게 자란 살구들이 춤을 춥니다. 어쩌면 내년 봄에는 더 많은 살구꽃을 피워 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느 섬마을 소년의 눈물

최영환

눈 앞에 아빠가 만들어주신 화랑도 인형이
산산조각이 되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낮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팔을 뒤흔치면서
도자기 인형을 건드리는 바람에 넘어져 깨졌나 봅니다.



시흥 함현초등학교
최영환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40년 교직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던 것들을 대 여섯개 정도 퇴임 전 실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나만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다. 이번 문예대전의 작품의 주제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임을 깨닫는 계기로 한층 더 정진을 스스로 다짐해 보았다.

어느 섬마을 소년의 눈물

초등학교 4학년인 준혁이는 연평도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준혁이네 집 울타리가 무너지자 준혁이 아빠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준혁이와 엄마를 인천의 찜질방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연평도와는 달리 생활이 편리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연평도에 혼자 계신 아빠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연평도로 다시 돌아와 지내고 있습니다.

준혁이 아빠는 작은 어선으로 꽃게도 잡고 고기도 잡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중국 어선들 때문에 집에서 쉬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빠의 한숨도 늘어갑니다.

오늘도 준혁이 아빠는 꽃게잡이를 포기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집에 계신 날이면 도자기 물레를 돌리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기념품을 만들어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팔기도 하십니다. 집에 있는 도자기를 굽는 작은 가마가 준혁이 아빠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준혁이 엄마께서도 집안 일은 물론 집 앞에 있는 갯벌에서 바지락 같은 조개 잡는 일을 하시다 보면 준혁이와 함

게 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실 정도로 바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인천의 찜질방에서 지낼 때 TV도 맘껏 보고 게임도 실컷 할 수 있던 그 때가 그리기도 합니다. 너무 심심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언제 또 대포를 쏘지 몰라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해병대아저씨들의 포사격 훈련이나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준혁이는 무섭고 불안하여 악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성이 깊은 준혁이는 얌전하고 착한 성격이어서 야단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준혁이에게 오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크게 꾸중을 듣고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준혁이는 오늘 밤 캄캄한 학교 운동장 스탠드 바닥 위에서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지만 연평도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유난히도 차가운 칼바람은 준혁이를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게 합니다.

‘으~ 추위! 괜한 고집을 피웠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갈까?’

후회스런 마음이 술술 들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던 얼굴은 차가운 밤 바람에 말

라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꾸중을 들은 이유는 지난 여름 방학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의 일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울에 사시는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준혁이네가 걱정되어 며칠 묵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는 사촌형인 준수가 가져온 장난감 로봇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쓰룩 쓰룩’ 기계소리가 나면서 무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은 저절로 척척 움직이다가 가슴에서 ‘타타타당’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불빛이 튀어나오는 로봇이었습니다. 이런 로봇을 처음 본 준혁이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게임도 하는 사촌형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도 준혁이는 장난감 로봇에 더 눈길이 끌렸습니다.

사촌형이 서울로 돌아간 뒤 준혁이는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형이 가지고 있던 로봇을 사주시면 안 돼요?”

그 때마다 부모님께서도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 집은 그런 장난감을 사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달래시지만 준혁이는 장난감 로봇이 갖고 싶은 마음을 여간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준혁이는 또 다시 장난감 로봇을 사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준혁이의 끈질긴 요구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말없이 준혁이 곁에 다가와 앉으시더니

“준혁아! 며칠만 기다려라, 내 어떻게든 장난감을 마련해 볼 테니.....” 하시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아빠 그게 정말이세요? 꼭 사 주셔야 해요?”
준혁이는 벌써 로봇을 손에 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늦은 저녁식사를 마친 아빠께서 주저하시는 손길로 보자기를 끄르시면서

“준혁아! 지금은 아빠가 돈이 없어서 로봇 대신 도자기로 장난감을 만들어 봤단다. 그거라도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언젠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장난감 로봇을 사 주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준혁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울고 있는 준혁이를 바라보시던 아빠께서도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말없이 도자기 가마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딩그러니 남겨진 도자기 인형 곁에서 한참 동안 울던 준혁이는 기운 빠진 얼굴로 아빠께서 만들어 주신 도자기 인형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뜻 밖에도 도자기 인형은 아빠의 숨씨와 정성이 가득 담긴 듯 우리나라 화랑도의 모습을 한 늙름하고 아름다운 인형이었습니다. 준수형이 갖고 왔던 장난감 로봇처럼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속상한 마음에도 로봇과는 다른 느낌이 나는 멋진 도자기 인형이었습니다. 도자기 인형도 준혁이가 마음에 드는지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속상했던 마음이 봄 눈 녹듯 사라진 준혁이는 도자기 인형을 쳐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어느 새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께서 만들어 주신 도자기 인형이 준혁이 앞으로 걸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주인님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준혁이는 그런 도자기 인형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응, 그러면 맛있는 피자 한 판 만들어 줄래?”하고 말하자 화랑도 인형은 한차례 망설임도 없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주인님의 종이랍니다. 맛있는 피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수르수르수 우르우우!”

인형이 이런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주문을 외우며 손을 앞으로 쭉욱 내밀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맛있는 피자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자기 인형은 준혁이에게

“또 다른 소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인형의 말에 자신감이 생긴 준혁이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북한이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혼내 줘!” 하고 큰 소리로 소원을 외치는 순간 ‘쨍그렁’ 하는 소리가 컷전을 때렸 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준혁이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 앞에 아빠가 만들어주신 화랑도 인형이 산산조각이 되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낮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팔을 뒤척이면서 도자기 인형을 건드리는 바람에 넘어져 깨졌나 봅니다.

준혁이는 아빠가 정성껏 만들어 주신 화랑도 인형을 망가뜨린 것이 안타깝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세라 얼른 빗자루로 방바닥에 떨어진 도자기 인형 조각을 깨끗이 쓸어 담아 뒷마당 울타리 밑에 살짝 가져다 뒀 습니다.

깨진 도자기 인형을 내다버린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준혁이는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와 심심함에 지쳐 심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밥 일을 마치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는 엄마에게 다가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심심해요! 로봇 좀 사 주세요.”

“지난 번에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도자기 인형을 갖고 놀면 되잖아!”

“그건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따라 일찍 들어오시던 아빠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도자기 인형을 내다 버렸다고?”

준혁이가 대답할 말을 찾아 잠시 우물쭈물하자

“너, 도자기 인형을 일부러 내다 버린 거지? 이 녀석 오늘 혼 좀 나아졌군. 아빠가 어렵게 만들어 준걸 그냥 버리는 녀석이 어디 있어. 게다가 엄마한테 투정까지 부리고 누구에게 배운 버릇이야!” 하시며 여느 때와는 달리 무척 화가 나신 얼굴로 팔을 걷어붙이시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준혁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픔이 복받쳐 자기도 모르게 굵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빠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저 녀석 보게나, 큰일 났군! 재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지?”

아빠는 준혁이를 쫓아 나오시다가 어이가 없으신 듯 달려가는 준혁이의 뒷 모습만 쓸쓸이 바라볼 뿐입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준혁이는 그 길로 한참을 내달려 학교 운동장 옆의 스탠드에 털썩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까부터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은 어둠이 깔리자 마치 악마의 검은 그림자가 온통 학교를 뒤덮은 것처럼 보입니다. 눈물자국만 남은 준혁이는 추위와 무서움에 질려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였습니다. 동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준혁이 부모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두워져도 준혁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서시게 된 것입니다.

준혁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차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신 아빠께서

“준혁아, 너 준혁이 맞지?” 하시며

손전등을 비추자 준혁이는 반가운 마음과는 달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하려고 몸을 웅크립니다. 그러나 어느 새

다가오신 어머니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보가 터집니다. 그 울음을 따라 준혁이의 중얼거림이 부모님의 가슴을 타고 흐릅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엉엉…….”

저 멀리 항구에서 들리는 뱃고동 소리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의 합창 소리라도 되는 양 연평도 밤하늘에 은은하게 퍼져 갑니다.

최고의 곡식 미인대회

최 은 석

“아버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쌀 아저씨이고,
옥수수 아저씨하고는 아직도 같이 등산을 다닌다고 했어요.

아버지 등이 가려울 때
옥수수 아저씨가 긁어주면 시원하대요.”

“엄마는 쌀 씻은 물로 예뻐졌다고
쌀 아주머니에게 엄청 고마워 해요.”



철도청 / 한국철도공사
최 은 석

먼저 동화 작품 수상에 큰 기쁨을 누림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준영, 딸 자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강은방 여사에게 감사드린다. 어릴 적부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화를 써 나갈 예정이며 국민 기업 코레일 직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차여행을 주제로 가족 동화를 써 보고 싶다. 먼 훗날 나의 동화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화,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들려주고픈 동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최고의 곡식 미인대회

어린이 왕국 최고의 곡식 미인을 선발한다고 연일 매스컴에선 시끄럽게 난리법석이다. 곡식 미인대회를 알리는 벽보가 길거리 곳곳에 붙어 있어 길 가는 사람들은 올해는 누가 될까? 궁금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한다. 작년 최고의 곡식 미인은 밀가루가 선정되었다. 하얀 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짜파케티, 라면, 떡볶이,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에 밀가루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자랑을 목청껏 외치며 펄펄 하얀 가루를 이리저리 날리던 밀가루가 묵묵한 성격의 쌀과 부끄럼이 많은 보리를 제치고 영예의 1등을 차지하여 작년 최고의 곡식 미인이 된 것이다. 밀가루는 3년째 계속해서 최고의 곡식 미인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올해 또 도전해서 1등이 되면 4년째 밀가루의 미인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밀가루는 올해도 더욱 하얗게 치장을 하여 4연패 수상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TV에 나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쌀, 보리, 옥수수, 콩, 팥 등은 벌써부터 배가 아파 못 참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며 서로를 격려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밀가루는 TV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출 수 없다고 큰 소리치면서, 밀가루의 하얀 가루의 춤에 익숙해져 버린 어린이들은 아빠 엄마보다 밀가루를 더 좋아한다고 입에 허연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하였다. 다른 곡식들은 잘난 체하는 밀가루의 얘기를 듣고 지긋이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한마디씩 하였다.

먼저 쌀이 말했다. “보리야, 너를 보면 예전에 나와 함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맛있게 씹히며 건강을 위해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는 너와 내가 도시락에 얼마나 같이 어울렸는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도 했었고, 특히 너 보리에 대해서 무진장 몸에 좋다고 자랑도 했었는데... 요즘은 영 우리를 반겨주지 않네. 어린이들이... 보리야, 넌 요즘 뭘 하니?”하고 쌀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을 건네자 보리는 쌀에게 말했다.

“쌀 친구야, 너도 알다시피 난 부끄럼이 많아서 예전에도 너의 뒤에 숨어서 조금씩 춤을 췄잖어. 기억나니? 난 지금까지 예전의 건강하고 맛있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성격도 조금씩 고쳐가며 보리 음료(맥콜)로도 변신을 해 보고, 보리 빵으로도 변신 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입 속에서 맘껏 춤추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나의 냄새를 점점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점점 보기싫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 요즘은 너무나 맘이 아파. 다시 소심한 성격으로 돌아갈 것 같아. 특히, 나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늘어가고, 어떤 어린이는 내가 들어간 밥을 막 버리기도 해. 너무나 속상해. 게다가 나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까지 너무 많이 생겼어.”

보리의 대답에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의 기운이 배여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했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고객을 푹 숙이고 있던 옥수수가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울고 있었다.

“친구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난 이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 흐린 추억 속에서 살고 있어. 나 대신 미국, 중국에서 온 외국어 잘하는 옥수수 친구들이 어린이들과 너무나 친해져 버렸어. 예전에는 나를 모두가 맛있게 먹고는 하모니카 부는 흥내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외국인 옥수수 친구들이 나를 대신하여 영어노래 부르며 팝콘으로 변신하고, 냄새 좋은 샐러드에도 들어가서 어린이들의 맛있는 친구가 된 지도 오래야. 난 이제 추억 속의 옥수수일 뿐이야.”

옥수수는 얘기하는 도중에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옥수수의 하염없는 눈물에 묵묵한 성격의 쌀은 흐느끼는 옥수수의 어깨를 톡톡 쳐 주었고, 부끄럼 많은 보리는 옥수수를 진심으로 위로하다 결국 같이 울어 버렸다.

쌀과 보리, 그리고 옥수수는 3년이나 연속해서 최고의 곡식 미인으로 선발된 밀가루를 올해 역시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의 곡식 미인대회는 밀가루가 또 우승을 할 것이라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 참가를 포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전라도 담양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하고 지내던 검은 콩의 전화가 왔었고, 콩친구의 위로 전화에 힘입어 올해 한번 더 용기를 내어 미인대회 참가를 결정하였다.

수수, 조, 현미, 찹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쁜 옷도 만들어 주고 사진도 찍어 주었다. 쌀, 보리, 옥수수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투표하는 그 날까지 진짜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밀가루는 학교 주변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어린이를 붙잡고 올해도 자신을 찍어달라고 특유의 하얀 미소를 마구 흘리며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

드디어 최고의 곡식 미인을 정하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투표위원의 자격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곡식 미인”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모여 들었다. 곡식나라 가루 매스컴과 평튀기 신문 기자들은 올해도 밀가루가 당연히 4연패를 할 것이라고 투표 전부터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하였고, 투표장에서까지 연이어 플래시를

터트리며 취재에 열을 올렸다. 밀가루는 카메라 플래쉬에 하얀 드레스를 휘날리며 멋진 포즈로 답했다.

멀리서 봐도 밀가루의 하얀 드레스는 플래쉬 불빛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쌀, 보리 그리고 옥수수 주변에는 그 많은 신문기자들 중에 아무도 취재하러 오지 않았다. 다만 곡식나라 친구들만이 힘을 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해 주었다.

드디어 투표의 시간!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하나 둘 투표를 하기 시작하였고, 밀가루는 투표도 끝나기 전에 1등이 확정된 듯 하얀 가루를 휘날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기자들도 1등이라고 환호하며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댔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로 열 두 시간동안 계속 진행된 투표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밀가루는 여기저기 악수를 하고 다니며 자축하고 있었다. 어깨에는 ‘곡식나라 최고 미인’이라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어린이 왕국에서 최고 미인에게 만들어 준 왕관을 쓰고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품을 잡고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서 쌀, 보리, 옥수수는 부러운 듯 마냥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기자들 중 아무도 와서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기에 더욱 측은해 보였다.

드디어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두두둥 !!!

닭 아저씨는 큰 북을 치면서 1등 발표를 시작함을 투표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결과를 발표하는 농산물 아나운서 얼룩소는 긴장을 하여 목이 마른 듯 계속해서 ‘음메~ 음메~’ 하고 울었다. 투표 결과를 본 얼룩소 아나운서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은 그 이유가 궁금한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얼룩소 아나운서의 입에서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올해의 최고의 농산물은 밀가루가 아닌 쌀과 옥수수가 공동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밀가루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막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룩소 아나운서님! 글자를 제대로 못 읽는 거 아니예요?” 밀가루는 거만하게 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기자들에게 불만스런 인터뷰를 하였다.

바로 그 때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오면서 모든 이들에게 투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어린이 심사위원들의 커다랗게 뜬 눈은 밀가루를 바라보며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밀가루는 그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마치 한국 사람인 것처럼...”

“밀가루는 그 동안 라면과 피자, 햄버거, 떡볶이에 숨어서 우리의 입맛을 파괴했어요.”

“밀가루는 그 동안 나와 친한 척하면서 내 몸을 살찌게 했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 옥수수는 병문안을 와서 하모니카를 불어 주었고, 쌀은 옛 추억을 생각하시고 빨리 쾌차하시라고 가래떡으로 변신해서 꿀을 찍어 할머니의 입맛을 되살아나게 했어요. 그런데 밀가루는 병문안은 커녕 그냥 다른 아이들과 웃고 놀기에 바빴어요.”

“아버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쌀 아저씨이고, 옥수수 아저씨하고는 아직도 같이 등산을 다닌다고 했어요. 아버지 등이 가려울 때 옥수수 아저씨가 긁어주면 시원하대요.”

“엄마는 쌀 씻은 물로 예뻐졌다고 쌀 아주머니에게 엄청 고마워 해요.”

어린이 심사위원들의 얘기를 들은 밀가루는 하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도망치듯 서둘러서 떠나갔다. 밀가루의 도망가는 모습 뒤로 거짓말이 묻은 하얀 발자국만 남았다.

‘올해의 최고의 곡식 미인은 쌀과 옥수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얼룩소 아나운서의 말에 쌀과 옥수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뒤늦게 사진 플래시를 터트리기 시작했다. 쌀과 옥수수는 기장 아저씨와 수수 아주

머니의 행가래를 받으며 즐거워했고, 보리가 준비한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받고 행복한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 피, 메밀, 참쌀, 콩, 현미 등 수 많은 한국인 농산물 친구들이 빵빠레를 불며 축하해 주는 모습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그 신문에는 밀가루에 대한 기사도 크게 나왔다. ‘거짓말쟁이 밀가루는 어린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밀가루가 그 동안 어린이에게 한 모든 거짓말들이 자세하게 곡식나라 모든 평튀기 신문에 나오게 되어 어린이 왕국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최고의 곡식 미인으로 선발된 한국 쌀과 한국 옥수수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랫동안 맛있는 곡식으로 입안에서 뱃 속에서 건강한 춤을 추게 되었다.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희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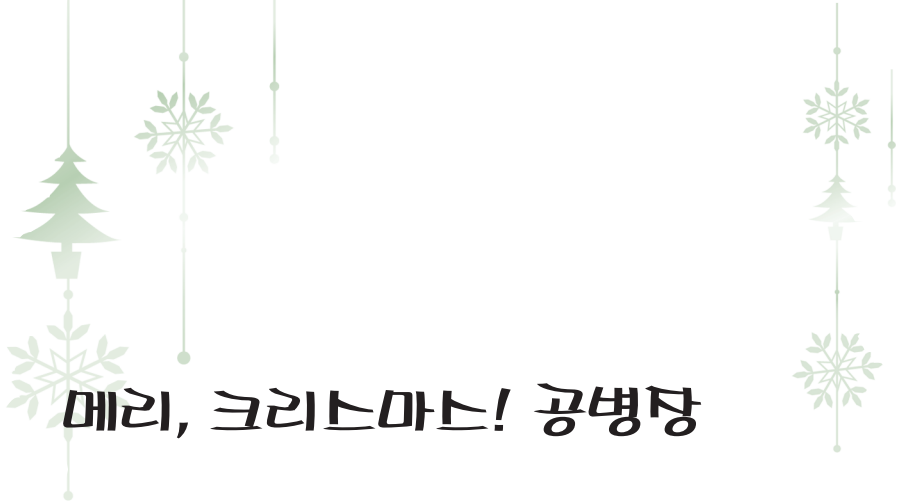
|금상| **메리, 크리스마스! 공병장** 서울 금천경찰서 신동술

|은상| **꿩아가 돌아왔다!** 고양 중산고등학교 윤영희

|동상| **신발 한 짝** 충북 증평군청 남윤희







메리, 크리스마스! 공병장

신 동 술

의찬 : 그러고 보니 오늘 크리스마스이브네요 아, 아니지 참, 12시 넘
었으니까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네요.

길호 : 우리한테도 크리스마스가 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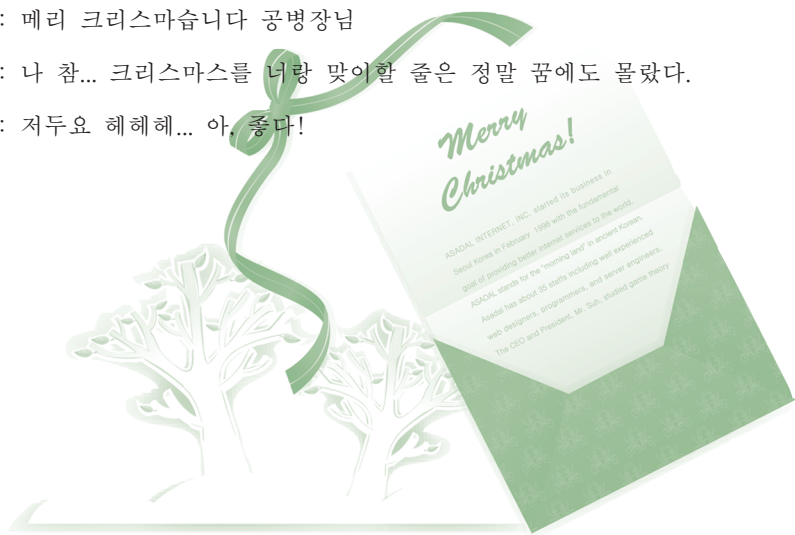
의찬 : 그럼요. 있죠! 있구 말구요.

길호 : 글썄다. 난 별 느낌이 없어서

의찬 : 메리 크리스마습니다 공병장님

길호 : 나 참... 크리스마스를 너랑 맞이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의찬 : 저두요 헤헤헤... 아, 좋다!



금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희곡 |



서울 금천경찰서
신 동 술

당선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풀어 본 선물 상자 속에는 격려와 열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보답은 글 쓰는 일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을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쓰겠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공병장

○ 등장인물

공길호

정의찬

영미(공길호의 여자친구)

의찬의 아내

영미의 친구들

군인들(군인1,2,3,중사)

○ 때

어느 크리스마스 날 밤.

○ 무대

어느 백수의 자취방

○ 무대설명

무대 중앙엔 길호의 자취방이 있다.

객석을 향한 자취방 정면은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면은 벽이 세워져 있다.

객석에서 볼 때,
길호의 자취방을 중심으로 왼쪽은 낮은 담장과 넓은 가로등
이 세워져 있는 골목길이고 오른쪽은 극이 전개되는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무대가 보여지는 공간이다.

#1

무대 밝아오면 길호의 자취방이다.
약 10여 평 남짓 크기의 방안.
정면 벽 위쪽에는 제법 큰 창문이 나있고
창문너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다.
방안은 책상과 TV, 작은 냉장고, 옷들이 걸려있는 행거 등 단출
하다.
한 쪽 벽면에는 통기타가 세워져 있고
그 위로 상반신 정도를 비추는 거울이 걸려있다.
부스스한 머리, 후줄그레한 운동복 차림으로
방안을 서성이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길호

길호 : 야, 나도 죽겠어, 나도 피해자야...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가 석 달 치나 밀렸단 말야, 당장 쫓겨날 판이
라고... 그래,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근
데 너도 봐서 알잖아. 그 자식 완전 미끈하게 생겨
가지고 어디 사기꾼처럼 보이디? 뉴스에서 다단계

사기에 당한 사람들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췌, 내가 그 짝 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괜히 욕심내다 완전 피박에 바가지 쓴 거지 뭐(짧은 사이) 야, 너 말이 심하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전화 끊기는 소리) 어라? (황당하다는 듯 휴대폰을 쥔다)

방바닥에 털썩 주저 앉는데 다시 요란하게 벨이 울린다.

휴대폰을 들고 액정을 보는 길호.

시무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길호 : 또 무슨 말 하려고?... 방금 전에 친구랑 통화했어... 통화가 길 수도 있는 거지 이젠 별 거 갖고 다 시비네? 뭐?... 그만하자... 뭐라고? (휴대폰을 반대쪽 귀로 옮기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기, 솔직히 내가 창피하지?... 아니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럼 왜 오늘 자기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는 거 말 안했어? 그걸 신경써 남자친구 통해서 내가 알아야겠니? (객석을 향해 획 뒤돌아선다) 가만있어! 내말 들어, 오늘 커플 동반 모임이었다며? 그런데 나만 왜 쏙 뺏는데? 하긴 네 친구들 남친들은 하나같이 잘나가는 고속도론데 나만 딱 막힌 비포장도로라 이거지, 안 그래? 말이 좋아 수험생이지 사실 백수신세라 이거지, 그것도 사시, 행시, 외시도

아닌 9급 말단 공무원 준비생... 그것도 한 번에 못 붙어서 4년째 하고 있는, 그래, 나 같아도 자존심 상해서 못 데리고 가겠다 (짧은 사이) 아니긴 뭐가 아냐, 뭐? 크리스마스? 미안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각자 보내자...아, 됐고. 나, 지금 너랑 말싸움할 기분 아니니까 그만, 끊어!

길호,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한다.

길호 : 창피하다 이거지, 쪽팔린다 이거야... 그럼, 날 뭐 하러 만나! 백수라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아냐, 젠장!

냉장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냉장고 문을 확 열고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조금 진정이 됐는지 자리에 앉는다.

TV를 켜다.

캐럴 송이 울려 퍼진다.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자꾸 변경한다.

트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럴 송이다

신경질적으로 TV를 끄더니 리모컨을 TV 앞으로 휙 던진다.

길호 : (비아냥거리며) 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다. 에라, 잠이나 자자

벽면에 난 스위치를 내리면 무대 어두워진다.

벌러덩 자리에 눕는 길호

사이.

길호의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어두운 방안에 후레쉬 불빛이 들어 온다.

드르렁거리는 길호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배낭을 메고 검은 복면을 한 의찬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 온다.

후레쉬를 방 안 여기저기 비추며 여기저기 뒤적이다.

의찬, 엉덩이를 뒤로 쪽 빼고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몇 걸음 내딛는데...

이때, 갑자기 TV가 켜지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의찬, 순간 놀라며 허둥대다 자고 있는 길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다.

으윽!! 소리와 함께 길호가 눈을 번쩍 뜬다.

자신의 배 위에 엮어져 있는 의찬을 발견한 길호

길호 : (화들짝 놀라며) 누..누구야!?

영겁결에 서로, 껴안고 방안을 이리저리 구른다.

힘쓰는 신음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욕설들. 길호, 있는 힘껏 의찬을 두 발로 밀어내고 의찬, 떠밀려서 방안을 몇 번 구르다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난다.

중심을 잃고 벽 쪽으로 등을 기대는 의찬.

순간, 형광등이 탁! 하고 켜지며 환하게 밝아진 자취방.

방금 전 몸싸움으로 인해 방안이 엉망이다.

길호의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고 의찬의 복면은 흘러 내려져 목에 걸쳐져 있다.

길호와 의찬,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짧은 사이.

의찬, 허둥대며 잠바주머니를 뒤진다.

의찬 : (칼을 들이대며) 꿈..꿈짜마!!

길호 : (손을 번쩍 들며) 헉!

의찬 : 움..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아..아니, 움직이면 찌른다!

길호와 의찬, 긴장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길호와 의찬,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두 사람.

사이.

길호 : (고개를 갸웃거리며) 혹시... 정... 의... 찬... 상병?

의찬 : (흠칫 놀란다)

길호 : (손가락으로 의찬을 가리키며) 의찬이 맞지...요?

의찬 : (다시 한 번 길호를 유심히 보더니) 공...병장님?

길호 : 그..그래.. 나 공길호, 공병장이야! 공병장이라구!

너 정의찬, 정상병 맞구나!

길호, 저도 모르게 반가워하며 의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다 의찬
이 여전히 칼을 저에게 향한 것을 발견하곤 우뚝 멈춰 선다.

의찬, 얼른 칼을 뒤로 감춘다.

의찬, 뒷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길호,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다.

사이.

길호 : (조심스럽게) 근데,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냐?

의찬 : 예? 아.. 그.. 그게...

길호 : 잠깐!

의찬 : ?

길호 : 지금 이 상황을 정리 좀 해보자

의찬 : ?

길호 : 넌 내 집에 몰래 들어왔고... 어? 어떻게 들어왔지?
문 뚫냐?

의찬 : 아... 아뇨.. 열려.. 있던데요?

길호 : 뭐? 아! 또 깜빡했네... 요즘 내가 내 정신이 아니다

뭐, 어쨌든 너는 몰래 들어왔다. 왜? 뭔가를 훔치려고, 그러니깐 넌 (짧은 사이) 도둑놈?

의찬 : 그제...

길호 : 그리고 넌 내 심장을 향해 무시무시한 칼을 겨누었다, 왜? (짧은 사이) 날 죽이려고?

의찬 : (두 손을 마구 저으며) 아... 아니에요!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공병장님, 절대! 네버! 결코!

길호 : (뒷걸음질 치며) 어어... 칼! 칼!

의찬 : (아직도 손에 들려있는 칼을 발견하곤 길호 앞으로 쭉 내민다) 이 칼!

길호 : (흠칫 놀라며) 어어, 이봐 정상병 진정해! 진정하라고!

의찬 : 가짜예요

길호 : 뭐?

의찬 : 가짜 칼이라구요, 자 보세요.

자신의 복부를 향해 몇 번을 찌르자 피스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난감 칼

의찬 : (씨익 웃으며) 가짜

길호 :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허탈하게 웃더니) 뭐야, 나 완전 바보됐네?

의찬 : 헤헤헤...

길호 : 웃어? (정색하며) 대가리 박아!!

의찬 : 예?

길호 : 컷구멍이 막혔나? 재방송은 없다. 대가리 박는다.
실시!

의찬 : 실시!(그대로 머리를 방바닥에 박고 뒷짐을 진다)

길호 :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
참 알았나?

의찬 : (깡깡거리며) 으으으..

길호 : 복창소리 봐라, 알겠나?

의찬 : (있는 힘을 다해) 예! 알겠습니다! (짧은 사이) 그
런데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공병장님?

길호 : 질문? 뭔데?

의찬 : 그게... 으으... 저희가 언제부터 해병이었죠? 전 그냥
보병이었던 같은데... 으으...

길호 : 해병이나 보병이나 다 같은 군인이다. 알겠나?

의찬 : 예, 알겠습니다!

길호 : 그나저나 네가 감히 하늘같은 고참님 집에 도둑질
을 하러 들어 왔겠다?

의찬 : 아닙니다!

길호 : 아니긴 뭐가 아냐 짜샤?

의찬 : 죄송합니다!

길호 : 너는 대한민국 예비역 얼굴에 먹칠을 하였다

의찬 : 시정하겠습니다!

길호 : 네가 한 때 내 부하였다는 게 치욕스럽구나!

의찬 : 공병장님.. 으으으...

사이.

길호 : 기상!

의찬,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로 선다.

길호, 방바닥에 털썩 앉는다.

길호 : (의찬을 올려다보며) 뭐해? 안 앉고

의찬 : 예?

길호 : 와서 앉으라고

의찬 : 아, 예...

의찬, 길호의 눈치를 보며 슬며시 자리에 앉는다.

길호 : 너, 어찌다 이렇게 됐냐?

의찬 : (고개를 떨어뜨리며)... 면목 없습니다...

길호 : 인마, 그 목에 걸린 것 좀 빼라 그것도 멋이라고 걸
치고 있냐?

의찬 : 예? 아, 예

의찬, 목에 걸린 검은 복면을 풀어 저만치 휙 던져버린다.

길호 : 그렇게 살기 어렵냐?

의찬 :

길호 :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도둑질이라니... 아니, 순둥
이 같은 내가 도둑놈이라니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의찬아, 너 인마 그런 놈 아니잖아? 내가 널
모르냐? 아니... 어떻게 네가

의찬 :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호호 호흑... 공병장님

길호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의찬
그런 의찬을 안쓰럽게 쳐다보는 길호

사이.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길호와 의찬이 마주보며 앉아있다.

의찬 :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어요.. 월급이 육개
월 치나 밀렸는데 내일 내일 하면서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10개월 된 딸 아이가 있는데 분유 값
도 없어서...

길호 : ...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의찬 : 가끔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요즘엔 일거리도 없어요...
집사람이 집에서 봉투 붙이는 부업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만원 벌기도 힘들어요... 아픈 사람인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길호 : (길게 한숨을 내뿜는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나봐라, 대학 졸업하고

여태 백수신세다. 내 나이가 서른넷인데 그 놈의 공무원시험은 죽으라고 봐도 죽으라고 떨어지고.. 월세에, 학원비에 책값에.. 알바 해봤자 쥐꼬리만 한 알바비론 택도 없지(짧은 사이) 쳇, 게다가 얼마 전엔 사기까지 당했지 뭐냐, 완전 최악이다...

의찬 : 그래도 공병장님은 딸린 식구는 없잖아요?

길호 : 차식, 결혼했다고 지금 유세 떠나?

의찬 : 차라리 혼자면 좋겠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삼형제를 키우셨는지 정말 존경스럽다니까요...

길호 : 네 말 들으니깐 결혼하기 더 겁난다. 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한 둘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너처럼 다 도둑질이나 하면 되겠어?

의찬 : (고개를 숙이다 천천히 들며 길호를 진지하게 바라본다) 공병장님.....

무대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의찬에게 단독 조명이 비춰진다.

의찬 : (천천히 일어서며) 저라고 이 짓을 하고 싶어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제가.....

의찬의 단독 조명 사라지고 자취방 옆 오른쪽 무대가 밝아진다.

#2.

무대는 작고 초라한 방안이다.

의찬의 아내가 앉아서 봉투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

옆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누워있다.

봉투 붙이는 일조차 힘겨워 하는 의찬의 처.

기침을 심하게 해댄다.

약봉지를 뜯어 약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신다.

복부를 움켜쥐며 잠시 쉬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의찬의 처, 얼른 아기를 안고 어른다.

젖병을 들고 분유를 타려고 하는데 분유가 없다

분유통을 뒤집어 툭툭 쳐 보지만 텅 비어 있다.

의찬의 처, 아기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의찬의 처 : 아가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곧 올 거야. 응?

우리 아기 착하지? 아빠가 곧 올 거야

의찬(목소리): 집사람은 지금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무슨 수로
수술을 하겠어요...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는데,
약은 누가 공짜로 주나요? 자식새끼는 배고
파 울죠. 아주 미쳐 버리겠더라구요... 당장 돈
나올 때는 눈 씻고 봐도 없지... 저보고 어떻
게 하라구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구
요!

무대 어두워진다.

#3.

무대 다시 밝아지면 길호의 자취방이다.

흐느끼고 있는 의찬

길호, 그런 의찬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어깨를 토닥거린다.

의찬 : (눈물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공병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길호 : 차식, 내 꼴은 뭐 좋냐?

잠시 사이.

길호 : 딸 이름이 뭐야?

의찬 : 사랑이에요... 정사랑

길호 : 이름 예쁘네.

의찬 : 얼굴은 더 예뻐요.

길호 : 제수씨 닮았구나, 천만다행이다.

의찬 : 공병장님도 참...

길호의 농담에 두 사람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의찬 : 공병장님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길호 : 그런 녀석이 그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나?

의찬 : 그러게요... 사는 게 껍썩하다 보니까...

길호 : 연락 안하기는 피차 마찬가지로 뭐...

의찬 : 그래도 연락 한 번 했어야 했는데... 군에 있을 때
저한테 참 잘 해 주셨잖아요

길호 : 차식, 알긴 아는구나.

의찬 : 그럼요. 제가 힘들 때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참,
라면! 왜 반합에 끓여주셨던 라면 있잖아요. 아,
정말 기가 막혔었는데...

길호 : 내 라면 끓이는 솜씨는 지금도 부대의 전설로 남아
있지.

이때, 의찬의 배꼽시계 소리가 크게 울린다.

꼬르르륵~~

의찬, 자신의 배를 손으로 가리며 쑥스러워한다.

의찬 : 라면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길호 : 나도 좀 출출하긴 하다.

의찬 : 라면 어때요?

길호 : 라면? 좋지! 아, 다 떨어졌다 어떡하지?

의찬 : 아니에요, 하나 있던데요?

길호 : 있어?

의찬 : (냉장고 옆 라면박스에서 라면 한 개를 꺼내 보이

며) 아까 수색 할 때 봤거든요.

길호 : 차식, 수색 훈련 나가서는 맨날 헤매던 놈이

길호, 의찬에게서 라면을 받아들고 싱크대로 향한다.

의찬 : (달뜩 표정으로) 아, 이게 몇 년 만이냐?

길호 : 한 십년 됐지?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4.

무대 밝아지면 야산이다.

두 명의 군인(군인 시절의 길호와 의찬)이 원산폭격을 하고 있다.

중위계급을 단 소대장이 뒷 짐을 지고 서 있다.

소대장 : 이놈의 자식들 교육 훈련 중에 땡땡이 치고 여기

짱박혀 있어?

군인1, 2 : (동시에) 시정하겠습니다!

소대장 : 시끄러!

이때, 한 상병 계급을 단 또 다른 군인이 소대장에게 다가온다.

군인3 : 1소대 집합했습니다.

소대장 : 그래? 알았어(군인1, 2를 보며) 니들은 내가 올
때까지 그 자세로 꼼짝 말고 있는다. 알겠나?

군인1, 2 : (동시에) 예, 알겠습니다!

소대장, 무대에서 퇴장한다.

퇴장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군인 1, 2

훈련 중이라 얼굴엔 시커먼 분장이 칠해진 상태다.

군인 1이 중사가 퇴장한 곳을 두리번거리더니

뒤에 있는 풀 숲에서 뭔가를 찾는다.

이어서 두 손을 들어 보이면 반합 두 개가 들려있다

반합 뚜껑을 열고 허겁지겁 라면을 먹는 군인 1, 2

그러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재밌다는 듯 킁킁거리는 두 사람

의찬(목소리) : 아, 그때 먹었던 그 라면 맛! 잊을 수가 없
다니까요.

무대 어두워지고

#5.

무대 다시 밝아지면 길호의 자취방

작은 상을 들고 오는 길호

상 위에는 양은 냄비와 김치 그릇이 놓여 있다.

냄비를 열자 김이 확 올라오고

길호와 의찬, 정신없이 라면을 먹어댄다.

의찬 :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최고입니다!

길호 :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냄비를 통째로 들어 국물까지 싹 비우는 의찬

냄비를 내려놓는다.

의찬 : (입맛을 다셔가며) 한 개라 아쉽네요

길호 : 다음에 오면 곱빼기로 끓여주마, 근데 너 저녁도 안 먹었냐?

의찬 : 그게... 일 마치면 먹으려고.....

길호 : 뭐, 일? 그것도 일이라고(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 래, 그 일 언제부터 한거냐?

의찬 : 오늘이 첫날...이었어요.

길호 : 뭐? 첫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도둑질을 하셨다?

의찬 : 헤헤... 일종의 첫 개시죠.

길호 : 첫 개시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래, 첫 개시를 이런 땡전 한 푼 없는 백수 집을 골랐냐? 네가 확실히 초보가 맞긴 맞구나.

의찬 :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땡에는 심사숙고한 거라구요.

길호 : 뭐? 심사숙고?

의찬 : 돈 많은 집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런 집은 보안이 철통같아요. 우리 같은 초짜들에겐 너무 벅차죠. 한마디로 접근성이 희박하다는 말씀. 이런 집이 편해요. 훔칠 것은 시원찮아도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뭐, 적게 먹어도 안전하니까, 안전이 최고죠.

길호 : 도둑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닐세.

의찬 : 그럼요,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디 있나요?

길호 : 그런데 어찌냐? 접근성까지 분석해서 시도한 집이 하필 옛날 군대 고참 집이니... 너도 참 지지리 복도 없다.

의찬 : 그러게 말이에요. 방문이 열려 있어서 쉽게 가나 했는데... 참, 문은 왜 안 잠갔어요? 도둑 들면 어떡하려고?

길호 : 도둑 놈이 별 걱정 다하네... 그냥... 깜빡했어. 그리고 뭐 훔쳐갈 것도 없고 (짧은 사이) 사실 요즘 나도 복잡하다.

의찬 :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긴 너도나도 공무원 하겠다고 난리니

길호 : 시험도 시험이지만, 여자 친구 때문에... 참, 너도 알겠구나. 영미라고... 나 면회 왔을 때 너도 몇 번 봤지?

의찬 : 그럼요, 알다마다요... 근데,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길호 : 그래, 아직도다... 벌써 결혼식 올려줘야 하는데... 여자 나이 서른넷이면 집에서 얼마나 북아대겠어.

의찬 : 결혼하면 되죠?

길호 : 인마 결혼은 뭐, 맨 손으로 하나? 내가 더 잘 알잖아?

의찬 : 하긴... (손사래 치며) 아유, 안돼요, 시험 합격하면 그 때 하세요.

길호 : 근데 그 놈의 시험은 우라지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영미한테 짜증만 내고... 사실 오늘 영미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나만 쏙 뺀 거 있지, 지 친구들은 남편이랑 남친이랑 같이 나왔는데 말야.

의찬 :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길호 : 왜는? 뺀하잖아, 백수 남친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의찬 : 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길호 : 아니긴 뭐가 아냐?

의찬 : 아니, 그냥 제 생각인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무대 어두워진다.

#6.

무대 밝아지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남녀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자가 수수하게 옷을 입은 여자(영미)를 팔로 툭 건드린다.

여자1 : 길호씨는?

영미 : 어? 어어... 공부 때문에

여자1: 에이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븐데... 전화 한번 해봐.

남자 : 그래요 영미씨, 길호씨 오라고 해요, 얼굴 본 지도
오래 됐는데

여자2: 그래, 영미야, 오라고 해.

영미 : (마지못해) 어어... 알았어, 잠깐만

영미,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영미.

의찬(목소리) : 형수님은 잠깐 고민을 했어요. 공병장님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개를 흔드는 영미

의찬(목소리) : 하지만 공병장님을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

길호(목소리) : 왜? 어째서?

영미, 떠들썩한 친구들을 바라본다.

의찬(목소리) : 와 봐야 뻔하죠. 여자들은 지들 남편이랑
남친들이 사준 백이 어땡고, 목걸이가 어땡

고... 남자들은 연봉이 어떻고, 보너스가 어떻고, 새로 뽑은 차가 어떻고... 이러쿵, 저러쿵

영미, 자리로 돌아간다.

영미 : 오늘 약속 있어서 안된다구 다음에 보재.

길호(목소리) : 뭐야? 그럼 나 기죽을까봐 일부러 안 불렀단 말야? 에이, 정말? 진짜? 리얼리?

의찬(목소리) : 공병장님은 어떻게 십년도 넘게 사귄 여자를 저보다 더 몰라요?

길호(목소리) : 뭐, 인마?

의찬(목소리) : 요즘 세상에 군대 간 남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자가 어디 흔한지 아세요? 게다가 지금까지 곁에 있다는 건 형수님이 공병장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님, 벌써 진작에 뺨 차 버렸죠, 안 그래요?

길호(목소리) : 인마, 내가 축구공이냐? 뺨 차버리게

잠시 사이.

영미 : 잠깐, 나 전화 좀...

영미, 조용한 자리로 이동을 한다.

영미, 전화를 받으며 통화를 한다.

길호와 통화하는 모습이지만 대사 없이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영미의 모습만 있다.

휴대폰이 영미의 귀에서 흘러내린다.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영미의 표정이 쓸쓸하다

잠시 사이.

길호(목소리) : 내가 너무 했나?

무대 어두워지고

#7.

무대 밝아지면 자취방.

어두워진 옆 무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길호.

의찬 : 그러니까 공병장님은 형수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길호 : 나두 알아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의찬 : 그게 어떤건지 알 것 같네요... 저도 그런걸요. 고생
하는 와이프 보면 더 잘 해줘야 되는데 괜히 짜증
만 내고... 왜 그럴까요?

길호 : 글썄.....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의찬 : 자존심?

길호 : 뭐 그런거 있잖아. 기 안 죽으려고 더 큰소리치는...
자기 여자한테는 당당하고 싶은 자존심.

의찬 : 저희한테도 자존심이란 게 있나요?

길호 : 인마, 남자한테 자존심이란 목숨 같은 거야... 백두
산 호랑이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썩은 고기는
안 먹는 법이라구.

의찬 : (단호하게) 아뇨, 전 먹을 거예요. 먹고 힘내야 토
끼도 잡고, 황소도 잡죠!

길호 : 그렇다고 썩은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

의찬 :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장땡이라구요. 자존심? 처자
식 있어 봐요, 그깟 자존심은 지나가는 똥개한테나
줘버릴걸요.

길호 : 걸핏하면 처자식... 이거 장가 안 간 놈 서러워서 살
겠나.

의찬 : 먹여 살릴 식구가 있으면 개품 잡을 여유가 없거든
요.

길호 : 뭐? 개품? 지금 내가 개품 잡고 있다 이거야?

의찬 : 아... 아뇨... 제가 감히 어떻게 하늘같은 고참님한테..
(씨익 웃으며)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어쨌든 제
가 볼 땐 형수님이 공병장님을 배려해서 모임에 안
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호 : 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몰라

몰라...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기도 벅찬 머린데 머리 아파.

의찬 : 공부하기 힘드시죠?

길호 : 내 판에는 한다고 해도 목숨 걸고 덤벼드는 괴물들이 있으니 당해 낼 재간이 있나? 어차피 다 시험에 붙을 순 없잖아. 누군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고

의찬 : 그게 세상 이치 같아요. 기회는 하나 뿐이고, 누군가 기회를 얻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되고

길호 : 그 기회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게 정당한 걸까?

의찬 : 그야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정당하겠죠

길호 : 그것만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타고난 능력이란 게 있잖아, 똑같이 열심히 한다면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럼, 이건 애초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구.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니까..

의찬 : 그럼,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길호 : 노력? 순진하긴... 생각해봐, 너 볼트 알지?

의찬 : 너트도 알아요.

길호 : 아니, 그거 말고, 우사인 볼트 말야.

의찬 : 아~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씨나이

길호 : 볼트가 출전한 올림픽 경기 봤어?

의찬 : 베이징 올림픽, 대단했죠. 출발하기 직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

길호 : 세상에서 빠른 놈들은 다 모였지.

의찬 : 볼트가 예상대로 금메달을 땀쥔.

길호 : 그런데 볼트랑 맞붙은 선수들이 과연 볼트보다 연습량이 부족해서 진 걸까? 볼트보다 더 죽으라고 연습한 선수도 있을 거란 말야 안 그래?

의찬 : ... 그야 그렇겠쥔

길호 : 그런데 못 이기잖아... 볼트가 우승하잖아.

의찬 : 그야 타고난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길호 : 그런데 공평해?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건 사람들 눈을 가리는 세상의 거짓말 중 하나야.

의찬 : 에이, 그건 특별한 경우죠 대한민국 공무원시험은 단 한 명만을 뽑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공병장님.

길호 : 너, 지금 나 비꼬냐?

의찬 : 아... 아뇨 비꼬긴요?

길호 : 에이, 비꼬는 것 같은데..

의찬 : 에이, 제가 어떻게 감히 하늘같은 고참님을... 헤헤...

길호 : 차식, 그 놈의 녀석은 여전하네.

잠시 사이.

의찬 : (시무룩해지며) 듣고 보니 공병장님 말이 맞네요

길호 : 차식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의찬 : 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한 눈 안 팔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누가 봐도 부지런한 개미였다구요.

길호 : 인정! 너 부지런한건 내가 보증한다.

의찬 :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회사 부도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길호 : 암... 아니지, 그럼, 아니고말고!

의찬 : 제가 뭘 잘못했죠? 전... 그냥... 열심히 일한 것뿐이라구요... 그런데 왜 열심히 일한 제가 와이프 약값 이랑 자식새끼 분유 값도 없어서 찢찢매야 하죠? 왜죠? 왜냐구요?

길호 :

의찬 : 이젠 아주 지쳤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아주 언더 머리가 난다구요.

길호 : 노력만 하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오히려 그림다.

의찬 : 그 땐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길호 : 순진했지.

의찬 : 이젠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길호 :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의찬 : 글썄요...

길호 :젠장, 사는 게 뭐 이리 복잡하냐?

의찬 : 그러게 말입니다.

길호, 의찬 둘 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한숨만 쉰다.

사이.

의찬, 고개 들어 창문 쪽을 보다

의찬 : (손가락으로 창문 쪽을 가리키며) 어? 눈 온다!

길호 : 눈? 어디어디

길호와 의찬, 함께 창 밖에 시선을 둔다.

창 밖으로 함박 눈이 내리고 있다.

의찬 : (넓게 웃으며) 그러고 보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네요. 아, 아니지 참,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네요.

길호 : 우리한테도 크리스마스가 있냐?

의찬 : 그럼요. 있죠! 있구 말구요.

길호 : 글썽다. 난 별 느낌이 없어서

의찬 : 메리 크리스마습니다, 공병장님.

길호 : 나 참... 크리스마스를 너랑 맞이할 줄은 정말 꿈에
도 몰랐다.

의찬 : 저두요. 헤헤헤... 아, 좋다!

길호 : 뭐가 그리 좋냐?

의찬 : 좋잖아요,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고 또 오랜만에
공병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얘기
하다보니까 꿀꿀했던 기분도 날아가고

길호 : 하긴 너랑 얘기 하다 보니까 갑갑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긴 하다.

길호와 의찬, 창 밖으로 눈 오는 것을 바라본다.

잠시 사이.

의찬 :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 그만 가볼게요.

길호 : 벌써? 더 놀다가지?

의찬 : 눈 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우리 사랑이가 막 보고 싶은 거 있죠... মানুষ도 보고 싶고..

길호 : 이거 처자식 없는 놈 서러워서 살겠나?

의찬 : 헤헤헤

길호 : 그래, 그럼 가봐.. 참,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는거다 알았지?

의찬 : (뒷머리를 긁적이며) 예.....

의찬, 배낭을 둘러메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길호 : 의찬아, 잠깐만

길호, 책상 앞으로 서둘러 다가간다.

책장에서 두꺼운 수험서 한 권을 꺼낸다.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원가를 꺼내들고 의찬 앞에 쏙 내민다.

길호 : 내 비상금이다.

의찬 : 예?

길호 : 지금 내가 가진 전부다.

의찬 : (손사래 치며) 아... 아니에요 공병장님도 형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어떻게.....

길호 : 괜찮아. 나보다 네가 더 급하잖아.

의찬 : 그래도.....

길호 : 받아 이 친구야... 지금 내 걱정 할 때야? 당장 아기
먹일 분유부터 사야지. 그리고 이젠... 거, 뭐냐... 그
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의찬 : 공병장님.....

길호 : 감동 먹었냐?

의찬 : (눈물 글썽이며) 예.....

길호 : (겸연쩍게) 사실은 거기서 몇 장 뺐다.. 몽땅 주고
싶지만 나도 형편이 위낙... 미안하다.

의찬 : 아유 미안하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더.....

길호 : 힘내라!

의찬 : 공병장님두요... 참, 공병장님.

길호 : 응?

의찬, 뒷머리를 긁적이며 머뭇거린다.

길호 : 말 해, 할 말 있으면?

의찬 : 저어... 그게...

길호 : 어허 뜸들이기는

의찬 : 형이라고 불려도 돼요?

길호 : 뭐? (정색하며) 하늘같은 고참한테 형이라구?

의찬 : (눈치를 보며) 아무래도 안... 되겠죠?

길호 : (씨익 웃으며) 거, 괜찮네!

의찬 : 정말요?

길호 : 앞으로 너에게 호형호제를 허하노라.

의찬 : 예, 형! 길호형

길호 : 길호형? 하하, 듣기 좋은데?

의찬 : 고마워요 형... 그리고 죄송해요.. 형도 어려우신데
괜히 저 때문에.....

길호 : 인마, 네 말대로 나는 아직 딸린 식구는 없잖나.

의찬 : 형.....

무대 서서히 어두워지고

8 .

무대 밝아오면 담장 밖 골목길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호와 의찬이 마주보고 서
있다.

길호 : 이제 그만 가봐.

의찬 : 다음에 또 올게요.

길호 : 오는 건 좋은데, 오늘처럼 밤 손님으로 오는 건 사절이다.

의찬 : 예? (웃으며) 아... 예...

길호 : 어쨌든 반가웠다.

의찬 : 저두요.

길호 : 십년 만에 봤는데 달랑 라면 하나로 손님 대접해서 미안하다.

의찬 : 밤 손님도 손님인가요 뭐... 그리고 라면 (엄지 추켜 올리며) 끝내줬어요!

길호 : (웃으며) 다음에 오면 내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살게.

의찬 : (꾸벅 인사하고) 그럼 가볼게요.

길호 : 그래,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라.

의찬, 천천히 뒤돌아 걸어 나간다.

길호, 의찬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의찬, 무대 밖으로 사라지고

길호, 잠시 우두커니 서서 의찬이 사라진 곳 바라본다.

무대 위로 정적이 잠시 흐르고,

길호,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무대 어두워진다.

#9.

무대 밝아지면 길호의 자취방.

어지러운 방을 치우는 길호.

밥상을 치우고, 이불을 개며 방 안을 정돈하다

무언가를 발견하곤 잠시 동작을 멈춘다.

의찬이 사용했던 복면과 장난감 칼이다.

복면과 칼을 천천히 집어 든다.

왼쪽 손에는 복면을 오른쪽 손에는 장난감 칼을 든 채

잠시 물끄러미 쳐다본다.

천천히 벽면 앞 거울 앞으로 걸어가 우뚝 멈춰 선다.

장난감 칼을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검은 복면을 양 손으로 잡고 눈 아래를 두른다.

거울 속 복면을 두른 자신의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는 길호

서서히 무대 어두워진다.





정아가 돌아왔다!

윤영희

정아 : 고운이 너 빨리 집에 가라.

고운 : 아~씨, 아줌마가 똥테 자꾸 따라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정아 : 느그 엄마 친구다.

고운 : (비웃으며)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줌마 친구로
생각 안하신다는데요. 고등학교 때 완전 양아치였다
고. 선미 괴롭혀도 뭐라 못 할거라고도 그랬어요.

정아 :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다. 느 엄마한테 잘못된 거 용서
빌려고.

고운 :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은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희곡 |



고양 중산고등학교
윤녕희

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길모퉁이에서
만난 들꽃 하나가 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제 삶에 그런 들꽃이 되어 다가옵
니다. 감사합니다.

짱아가 돌아왔다!

○ 등장인물

정아(40살) 악세사리 노점상, 고등학교 때 학교 짱

혜수(40살) 정아의 고등학교 동창

고운(중3) 혜수의 딸

선미(중3) 정아의 딸

윤씨(43살,남) 사법고시준비생, 생활정보지 배포 아르바이트

커피, 동창1,2,3, 고운 돌마니들, 선배1,2, 남자애1 등

제1장

늦은 오후,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

수업이 끝난 종소리. 학생들의 소란스런 소리 커졌다가 사라진다.

무대 밝아지면 수업이 끝나고 교사들 퇴근한 교무실 모습.

고운과 선미가 한 쪽에 서 있고 무대 중앙에 담임교사가 본인의 자리에 앉아 혜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담임 : 고운이가 일 저지른 게 몇 번째지 아시죠? 이제
고운이의 ‘고’ 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라고 합니다.

혜수 :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
다. (고운 한 번 보고는) 저 아가 어릴 때는 참 착
하고 그랬는데 즈그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는 막 애
가 저렇게 변해가지고...

서 있던 고운, 억울한 듯 대화에 끼어든다.

고운 : 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혜수 : 니는 마 가만 있으래이! (표정 바뀌 선생님 보며)
선생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거는 아니지예?

담임 : 옛날에는 중간에서 교사가 피해자 어머니한테 이해
를 요구해가 마 넘어가고 했는데, 요새는 그러면 큰
일 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피해자 학부모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학교에서 마
다 들어줘야 합니다. 나중에 선미 어머니 오시면 무
조건 죄송하다고 비세요.

혜수 : 아이고 제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어야지예. (사
정하며) 근데 한참 클 아인데 기록에 그런 게 있으
면 이제 저 아이는 우짖니까?

이 때, 노점상을 하던 복장 그대로 입은 정아가 급하게 등장하여
선미한테 다가간다. 혜수, 얼른 일어나 정아에게 고개 숙인다.

정아 : 선미야! 괜찮나? (선미의 몸 이리저리를 보면서)
어디 맞았노?

선미 : 괜찮다.

담임 : 선미 어머니, 놀라셨죠? 친구가 머리를 두 대 때린
거 같은데 크게 상처 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아 : 선생님, 인사도 못 드렸네요.

혜수 :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속이 많이 상하시지예. 죄송
합니다.

담임 : 때린 아, 고운이 어머니이십니다. 학교에서 이미 소
문난 아이입니다. (고운 보며) 여기 와서 선미 어머
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혜수 : 치료비는 제가 다 내겠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담임 : (사무적으로 교무수첩에 기록하며) 일단 피해학생
어머니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뭐죠?

정아 : ...?

담임 : 뭐.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
시는 경우도 있구요.

혜수 : (정아에게 다가가 얼굴을 보며) 꼬리표 달고 이렇
게 전학을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선미 어머니, 한
번만 봐 주이소. (무릎을 꿇으며) 제가 이렇게 사정
할게요.

정아 : 와 이라십니까? 일어나 앉으세요.

혜수를 일으켜 자리에 앉히는 정아. 정아와 혜수 눈이 마주 친다.

혜수 : (아는 사람 같아서 정아의 얼굴을 이리저리 보다가) 저..기 혹시 청학여상 안 나오셨어요?

정아 : (혜수 얼굴을 보다가) 어... 누..구? (이제 혜수가 누군지 알겠다.) 어... 혜수?!

혜수 : 영도 면도칼 김정아!

정아, 당황스러운 표정.

혜수, 놀란다.

담임 :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암전.

제2장

1980년대 초반, 롤러스케이트장.

1980년대 유행하던 팝송이 시끄럽게 울린다. 남녀 학생들 음악에 맞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논다. 재주를 부리며 여고생들의 시선을 끄는 남학생도 보인다.

여학생1 : (다급하게) 야, 야! 쟁아가 나타났다.

그 말에 학생들, 우왕좌왕한다.

음악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여고생 정아가 그의 톨마니들하고 나타난다. 조폭같은 포스가 느껴지는 정아. 학생들이 정아가 무서워 피한다. 재주 부리던 남학생마저 정아와 눈이 마주치자 넘어져서 기어 나간다. 학생들 비껴선 공간을 독차지하며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정아와 톨마니들.

음악 점점 커지다가 암전.

제3장

현재, 아침. 부산의 골목시장 풍경.

무대 한 쪽에 악세사리 노점(‘선미 주얼리’라는 상호) 좌판이 있고 그 앞에 정아가 앉아있고 교복을 입은 선미가 서있다. 그 옆에 커피 노점(‘인생여행카페’라는 상호) 좌판이 있고 그 앞에 커피(커피노점상)가 졸고 있다.

정아가 선미를 달래며 이야기하는데 선미는 정아의 시선을 자꾸 피한다.

정아 : 학교 가기 싫다는 게 무슨 말이고? 중학교도 안 나와서 뭐 할려고?

선미 : 몰라. 아, 짜증나.

정아 : 고민 있으면 이야기 해 봐라. 엄마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나?

선미 : 또, 내 때문이라고? 잘 됐네. 엄마도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정아 : 선미야, 줌!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누가 니 괴롭히나?

선미 : 어차피 엄마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잖아.

정아 : 말해봐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와, 고운이 때문인가?

선미 :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 같은 사람은 이런 기분 모른다. 고운이가 그러던데, 엄마 고등학교 때 유명했다 매. 싸움도 잘 하고 (비꼬듯) 친구들 많이 괴롭히고...

정아 : ! ...

선미 : 친구들 보는데서 친구한테 고개 숙이고 또, 친구한테 맞는 기분 아냐? 엄마는 모를까다. 내가 저기 지나가는 개미가 된 거 같다. (소리치며) 내 영혼이 쓰레기가 된 거 같다고!

무대 밖으로 달려 나가는 선미. 굳은 표정의 정아. 그 소리에 커피가 놀란 듯 잠에서 깬다.

커피 : 이게 무슨 소리고?

정아 : 아무 것도 아닙니다.

커피 : 선미는 학교 갔나?

정아 : 네.

커피 : (하품하며) 어제 연속극을 늦게까지 봤드마 와이리 아침부터 잠이 오노. 근데 주얼리 너는 표정이 와이리 어둡노?

정아 : 아무 것도 아닙니다.

커피 : 선미 괴롭히던 아 엄마가 동창이라면서? 저번에 학교 간 일은 잘 해결됐나?

정아 : 그냥 그 건은 없던 일로 했습니다.

커피 : 그러면 때린 아이는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용서해줬다 이 말인가?

정아 : 앞으로 우리 선미 안 괴롭힌다고 지랑 약속 했어요. 그러면 됐지요, 뭐.

커피 : 동창이니까 즈그 엄마한테 더 단디 부탁해라!

정아 : 안 그래도 동창모임이 있다고 하기에 가보려구요.

커피 : 동창모임? 그 잘난 사모님 된 년들 잘난 체 하는데 거길 왜 갈려고. 가지 마라. 괜히 그런 데 가면 창자 꼬여가 삶이 힘들어진다. 우리네 인생 여행 비슷한 사람이랑 끼리끼리 땡기야 되는기라.

윤씨, 등장하여 생활정보지를 배포대에 꽂는다. 커피를 보고 녀석 좋게 인사한다.

윤씨 : 커피 누님은 아침부터 또 뭐 인생여행 강의를 하십니까? 허허(정아에게 수줍은 듯 인사하고는) 저 번에 선미 학교 문제는 잘 해결되셨습니까?

정아 : 아... 예. 잘 해결됐습니다.

커피 : 잘 해결되기는 뭐가 잘 해결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로 했단다. (커피를 타면서) 윤 씨, 설탕 두

개 맞제?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으면 힘이 될 건데
안 그렇나, 주얼리?

정아 : 언니는 참...

커피 : (윤 씨에게 커피를 건네며, 콧소리로) 단골손님 커피 받으세요. 그나저나 윤 씨도 이제 다른 일 찾아 봐야 안 되나?

윤씨 : 사법고시 공부하다보이 십 몇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으예. 아까운 청춘이 마...

커피 : 인생 여행, 이미 지나간 일은 생각해서 뭐 하노.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아이가. 신문 이런 거나 돌리지 말고 뭐 새 일을 찾아봐라.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거 아이가.

윤씨 : 결혼예? (정아 눈치 보며 수줍어한다.)

커피 : 그러면 평생 혼자 살라꼬?

윤씨 : (멋쩍게 웃는다.)

정아 : (심각한 표정으로) 커피언니, 진짜 지금부터 잘하면 될까예? 인생 한참 살다가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완전 뒤죽박죽이네예. 다 내가 잘못 살아온 탓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언니 말대로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바로 살면 될까요?

커피 : 하모. 잘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될 거 아니가. 어제 일을 후회한다고 뭐 바뀌지나?

정아 :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마음은 어떡하고요?

커피 : 옛날 말에 걸자해지라 했다. 사람들 마음도 오늘부터
니가 바뀌야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있나?

제4장

한정식집 별실. 여고 동창회 모습이다.

테이블에 한정식 코스 요리가 올라와 있고 혜수와 잘 차려입은
여고 동창생 4~5명이 둘러 앉아 있다.

동창1 : 혜수 니, 딸래미는 요새 잘 지내나?

혜수 : 말도 마라. 그 년이 누굴 닮았는지... 남편이랑 이혼
하고 저 애하나 잘 키워볼 기라고 얼마나 애를 썼
는데... 그 애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막 속이 타들어
간다. 얼마 전에도 또 애 때렸다고 해서 학교 불려
갔다 아니가. (표정이 달라지면서) 아, 내 정아 만
났다.

동창2 : 어? 정...정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정아 말이가?

동창3 : (일어나면서) 야, 빨리 도망가자.

혜수 : 세상 참 좁더라이. 피해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청학여상 안 나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맛다카데.
세상에 맞은 애 엄마가 정아더라고. 지도 양심은 있
던지 그냥 없던 일로 하자카더라. 만약에 우리 고운

이가 지 딸 때린 걸로 지랄하면 내 가만 안 있을끼다. 내가 정아한테 맞은 게 얼마나 많은데.

동창2 : 정아는 지금 뭐 하는데?

혜수 : 뭐 시장에서 노점상 한다카더라.

동창3 : 천하의 정아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니?
조폭마누라쯤은 돼 있어야 안 되나?

동창1 : 우리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거는 아나?

혜수 :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했다.

동창1 : 오늘 온다나?

혜수 : 온다고는 했는데 몰라.

동창2 : 지가 양심이 있으면 여기 나타나겠나? 우리 고등학교 땡길 때 정아한테 안 맞아 본 애가 없을걸.
(자신의 뺨을 만지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혜수 : 그래서 내가 오늘 오라고 했다아이가? 오늘 정아 오면 우리 복수 할까?

맞장구치며 좋아하는 동창생들.

때마침 이 때, 정아가 등장한다. 복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초라하다. 동창들 수다하며 웃다가 웃음을 딱 그친다.

혜수 : 어. 왔나. 안그래도 우리 니 기다리고 있었다아이가.

동창3 : (겉먹은 표정으로) 저..정.아야, 안녕..

동창1 : (동창3의 옆구리를 찌르며) 오랜만이네 정아야, 앉아라.

정아 : (자리에 앉으며) 오랜만이네. (어색하다.)

혜수 : 애들이 아직 니가 겁나나 보네. 니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았노. (친구들한테 눈짓하며) 정아한테 편하게 말해라.

동창1 : 니 길거리에서 노점상한다매?

정아 : 응.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쪼매난 거 하나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동창3 : 뭐 파는데?

정아 : 조그만 악세사리 같은 거.

동창2 : 엄마야, 천하의 정아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듯 물건 판단 말이가. (옆에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하지만 정아 들리게) 그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기라.

혜수 : 이 아이가 왜 이라노? 정아도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다. (정아 보며) 맞제?

정아 : (당황하다가 고개 끄덕끄덕)

혜수 : 우리가 그 때 맞은 거 생각하며 뭐하겠노? 상처도 사라졌는데. 하지만 돈 뺏긴 거는 남아 있으니까 오늘 여기 음식값은 니가 내면 되겠네. 괜찮제? 니한테 뺏긴 돈 모았으면 이런 가게 안 차렸겠나.

통쾌해 하는 혜수와 동창들.

정아 : 그래, 내가 살게. 내가 여기 온 것도 느그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왔다.

정아의 행동에 수근대는 혜수와 동창들.

혜수 : 솔직히 내는 니 쉽게 용서 못 한다.

동창2 : 나도! 돌 던진 놈은 금방 잊어버려도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평생 가거든. 아니 죽는다.

제5장

늦은 밤. 변화한 거리.

고운과 똥마니들 3명이 또래 여중생 2명에게 돈을 뜯고 있다.

정아의 목소리 “야, 너희들 지금 뭐 해!” 소리에 여중생 2명 얼른 도망간다.

등장하는 정아.

정아 : 고운이 너 집에 안 가고 뭐 하노?

고운 : 아씨!

정아 : (똥마니들을 집에 보내며) 너희들도 빨리 집에 가라!

정아와 고운을 번갈아 보다가 퇴장하는 똥마니들.

정아 : 고운이 너 빨리 집에 가라.

고운 : 아씨, 아줌마가 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래라저래라 하세요?

정아 : 느그 엄마 친구다.

고운 : (비웃으며)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줌마 친구로 생각 안하신다는데요. 고등학교 때 완전 양아치였다고. 선미 괴롭혀도 뭐라 못 할 거라고도 그랬어요.

정아 :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다. 느그 엄마한테 잘못된 거 용서 빌려고.

고운 :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정아 : 니, 지금 니 감정이 오래 갈 거 같나? 아줌나 이야기 들어볼래? 아줌마도 처음에 니 만날 때 그냥 집이 싫어가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녔다.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가 엄마 때리제, 엄마는 못 산다고 울고불고 하제, 어린 나이에 집구석이 뭐가 좋겠노. 그래 그래가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한번 두 번 싸움을 하게 되고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래 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 또래 아이들이 무서워 하니까 그게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도 있었던 건 같다. 그리 한창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며칠 지났을기다. 아침에 눈을 딱 떠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내가 괴물이 되어 있는기다. 주위에 친구는 없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제. 그 때 거짓말

같이 그 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기
라. 아이고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하.
그래도 후회하면 뭐 하겠노? 누가 그렇게 말하데...
지금부터 달라지면 된다고.

고운 :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목소리 좀 작아지며)
제 인생도 달라지지 않고요.

정아 : 아니, 달라질 거다. 너도 내가 바로 가게 할 거다.

고운 : 아니요. 학교에선 내 이름만 나오면 선생님들이 화
부터 내요. 아니 아예 무시하죠. 요즘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깨우지도 않아요. 친구들도 이제 제 옆
에 오지 않아요. 노는 애들이랑 졸업한 선배들만 날
찾아요. 엄마도 이제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니까 아줌마도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 인
생은 바뀌지 않아요.

고운, 퇴장한다.

제6장

하교시간. 학교 앞 거리.

학교 담벼락에서 고운이를 기다리는 정아.

선미가 등장한다. 정아를 보고 달려와 안기는 선미.

선미 : 엄..마...

정아 : 아이고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했나?

선미 : 장사는 안 하나? 또 고운이 기다리나?

정아 : 잠깐 커피 아줌마한테 봐달라고 했다. 고운이는?

선미 : 고운이 오늘 점심시간부터 교실에 안 보이던데...

정아 : 그래?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

고운 똘마니들, 등장한다.

고운 똘마니들 정아를 발견하고 인사하는데 뭔가 숨기는 표정이다.

정아 : 느그들 고운이 어디 갔는지 모르나?

똘마니1 : 우리도 몰라요.

정아 : 사실대로 말 안 하나!

똘마니들 서로 눈치 보다가 마지못해 말한다.

똘마니2 : 고운이 졸업한 선배들한테 끌려갔어요. 어제까지
할당된 돈 안 보냈다고.

똘마니3 : 그 언니들 엄청 무서워요. 칼도 가지고 다녀요.
(울음을 터트린다.)

정아 : 울지 마라. 어디 있을지 짐작 가는 데는 있나?

똘마니1 : 그 언니들 잘 가는 데는 알아요. 저기 노래방이
에요.

정아 : 선미, 너는 혜수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모시고 오

나라. 그리고 느그들은 내하고 지금 거기로 가자.

제7장

노래방. 10대 후반 여자 3명과 남자 2명이 노래방 반주기에 맞추어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다. 무대 중앙에 고운이는 맞았는지 상처난 얼굴로 꿇어 앉아 있다. 노래가 끝나고 화면에 9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 선배들 좋아한다.

선배1 : 와 95점이다. (고운이한테 다가가서는) 95대 맞아 야겠네.

선배2 : 약속 안 지키면 재미 없을 거라고 했제?

고운 :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 사정이 있었어요.

선배1 : 사정? 사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린 오정이 있었다. 왜?

고운 : 이.. 이틀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선배1 : 이틀? (사이) 애들아 어떻게 할까?

선배3 : (고운에게 다가가서) 이틀이라... 좋다. 대신 돈을 약속했던 거에 두 배로 만들어 와라. 좋나?

고운 : (망설이는데)

선배3 : 싫어? 싫으면 지금 맞든지.(고운이의 뺨에 손을 대려고 한다.)

고운 : 네. 네.. 두 배로 채워 올게요. 네.. 이틀 안에 두 배

만들어 오겠습니다.

선배1 : 좋다.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고 다음부터는 약속 안 지키면 안 봐준다.

남자애1 : 야! 와 이리 시시하노?

선배2 : 치, 알았다. 밝히기는. 노래 부를 동안만 해라.

여자 아이들, 노래방기기 쪽으로 가서 노래를 선택한다.

남자 아이들, 고운이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려고 한다.

저항하는 고운, 노래 소리를 키우는 여자 아이들.

노래를 시작하는 여자아이들.

밝고 귀여운 노래와는 상반되게 남자 아이들의 추행에 저항하며 울부짖는 고운.

거세게 저항하는 고운에게 뺨을 때리는 남자 아이. 기절하여 쓰러지는 고운.

그런 고운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노래가 꺼진다.

“뭐야?” 학생들 돌아보는데 무대에 정아가 등장한다.

어두운 상황에 안개와 함께 조명을 받고 등장하는 정아의 모습이 2장에 나왔던 고등학교 시절 정아의 모습과 같다.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친다.

조명 밝아지면, 정아 고운이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다.

정아 : 고운아 괜찮나?

고운 : 정.. 정아 아줌마, 저는 못 바뀐다고 했잖아요.

정아 : (고운이를 의자에 앉히며) 아니다. 아줌마가 바뀌준

다. (아이들을 향해)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영도 면도칼 쟁아다!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정아.

아이들 처음에는 정아의 기세에 놀려 뒷걸음치다가는 오히려
정아를 둘러싼다.

선배1, 정아를 밀치려고 하는데 정아가 재빨리 선배1의 팔을 뒤
로 꺾는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공격을 피하여 오히려 아이들
을 제압하는 정아. 정아의 액션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싸움꾼의
모습이 드러난다.

수세에 몰린 아이들.

쓰러진 남자애1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다.

위기감이 느껴지는 음악이 흐른다.

칼을 보고는 놀라는 정아, 뒷걸음질 친다.

걸려서 넘어지는 정아.

정아를 무섭게 노려보며 점점 다가서는 남자애1, 눈에 광기가
흐른다.

아이들도 무서워 그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남자애1이 들고 있는 칼이 점점 정아를 향해 다가간다.

음악 소리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멈춘다. '안 돼!'

윤 씨와 혜수, 동창들 일제히 뛰어 들어와 아이들을 제압한다.

부둥켜 안고 우는 혜수와 고운이.

윤 씨, 동창들 정아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암전.

제8장

해질녘. 주택가 골목길. 야채 트럭이 무대 한 편에 서 있다.

사람들 야채 트럭 주위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사람들 틈에 혜수와 동창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정아, 확성기로 '산지에서 막 뽑아온 배추입니다. ' 등 외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혜수 : (오이를 하나 들어서 보더니) 이 오이 바람 든 거 아니에요?

정아 : (놀라 쳐다보다가 혜수 발견하고 웃는다)

혜수 : 아. 돈바람이 들었구만. 이거 한 봉지 주세요.

동창2 : 야, 장사 잘 되네.

정아 : (동창들에게 오이 하나를 깎아서 건네며) 이거 농약 안 친 거다. 바로 먹어도 된다.

혜수 : (지갑을 꺼내며) 3,000원이가?

정아 : 됐다. 야, 내가 옛날에 미리 많이 받았다가.

혜수 : (3,000원을 억지로 정아에게 주면서) 뭐라하노 이가시나.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버노? 받아라.

정아 : 야, 됐다.

동창3 : (혜수 보고) 니 정아한테 까불다가 맞는데이.

동창들 한바탕 웃음.

트럭 운전석에서 윤 씨가 내린다.

윤 씨, 부동산중개인 시험 대비 책을 들고 있다.

윤씨 : (혜수와 동창들에게) 아이고 또 오셨네요. 고운이는
잘 지냈니까?

혜수 : 요새 선생님 될 거라면서 공부한다 아닙니까? (웃음)

윤씨 : (정아 보고) 여보 시간 됐는데 가야지.

정아 : (손목시계를 보곤)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요. (동창
생들 보고) 나중에 전화할게. 소주 한 잔 하자.

혜수 : (소주 마시는 시늉을 하며) 카~ 소주 좋지.

주위 사람들 다 웃는다.

사람들에게 인사 하고 야채 트럭의 천막을 내리는 정아.

내려진 천막에 ‘청소년 안전 지킴이, 찡아가 돌아왔다!’ 라는 글씨가 보인다.

윤 씨는 운전석에, 정아는 조수석에 앉는다.

사람들 정아와 윤 씨를 배웅한다.

경쾌한 자동차 시동 소리.

암전.

신발 한 짝

남 윤 혜

은정 : (정제된 목소리) 낡은 아버지의 오래된 구두.

형부 : 장모님 이 참에 저 구두들 다 치우이소. 장모님은 욕
심이 너무 많아예.

은정 : 엄마의 욕망.

엄마 : 니 구두나 내 뇌라. 좋은 회사도 아닌 게 무슨 자랑이
라고 참말로.

은정 : 언니를 가뒀던 형부의 냄새나는 신발.

형부 : 싫습니더. 제 구두는 왜예.

은정 : 그리고 내게 남겨진 이 신발. 누가 그 동안 언니의 발
목을 잡고 있었던 걸까.



동
상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
| 희곡 |



충북 증평군청
남 윤 혜

사실 매일 버스를 타러 뛰어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면, 정말 열심히 뛰어가면 떠나면 그만일 버스도 기다려준다는 걸 압니다. 제 인생의 버스, 늦더라도 잘 잡겠습니다.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옥천소방서 남종현 계장님 감사합니다.

신발 한 짝

○ 등장인물

은정

엄마

아빠

형부

망자

어린 은영

○ 무대

중앙 뒤편에 신발장. 가족들의 신발들이 수납되어 있다.

왼편에는 구두, 우산, 가방 수선점이 간략하게 꾸며져 있다.

엄마, 무대 뒤쪽에서부터 상을 들고 나온다.

엄마 : 오랜만에 왔는데 대접이 이래가 어떡하노. 씨암탉
한 마리 잡아야 할긴데.

형부 : 씨암탉은 무슨. 됐습니다.

형부, 일어나서 상을 받고 앉는다.

아빠 : 자주 좀 들르지 그랬노. 씨암탉도 안 잡아주는 처가
라서 그래 안 오는 기가.

형부 : 아닙니다. 이래저래 여유가 없다보니.

엄마 : 사는 게 바쁘면 자주 못 올 수도 있지 뭘 그래예.
안 오면 자식도리 안 하는 겁니까? 지들 쓰기도 모
자란 살림에 꼬박 꼬박 돈 부쳐 주고 안 합니까.
(형부, 몰랐다는 표정) 딸 하나는 잘 키웠어예. 우
리 은영이가 참말 효넙니다. 부모 돈없어가 찢찢매
는 건 어떻게 알고 참.

아빠 : (언짢다) 여보!

엄마 :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예. 우리 은정이 고등학교 들
어갈 때도 지 동생 교복 맞추라고 옷 값 주고…….

형부 :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제 교복비예?

무대 뒤편에서 은정의 소리.

은정 : (목소리) 엄마.

엄마 : 은정이 왔다.

은정 : (교복차림이다. 반가워서) 형부 왔어예? 언니는예.

엄마 : 피곤하다고 니 방에 들어갔다. 자고 있을 테니까네
깨우지 마라.

은정 : 가방만 놓고 나올게예.

은정, 가려다가 되돌아와서 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를 집어 든다.

엄마 : 야, 야, 옷 갈아입고 와서 먹어라. 다 큰 가시나가
손버릇이 그게 뭐꼬. 니가 아가?

은정 : (샐쭉 웃으며) 언니야 일어나면 같이 먹을게.

은정, 반대편으로 퇴장.

엄마 : (형부를 보고 멧쩍게 웃으며) 이제 곧 대학생 될
년이 아직도 저래 아같이 군다.

형부 : 뭐, 괜찮습니다. (젓가락을 몇 번 부딪히다가 내려
놓는다)

엄마 : 세월 참 빠르데이. 자네 우리 은영이 좋다고 쫓아다
닐 때 처제, 처제 하면서 참 잘했제. 야한테 용돈도
주고 피자도 사주고 안했나. 은영이 시집보낼 때만
해도 아직 아 같았는데 언제 이래 컸노.

아빠 : 크긴 뭘 크노. 아직 아지.

은정, 등장.

은정 : 엄마. 언니 없는데?

아빠 : 없다고? (동시에)

엄마 : 없다고?

형부 : (엄마를 보며) 좀 전에 잔다면서 처제 방으로 들어
갔잖아예.

엄마 : 나오는 걸 못 봤는데 언니가 니 방에 없으면 하늘

로 솟았겠나, 땅으로 꺼졌겠나.

은정 : 정말 없어예.

아빠 : 잘 살펴봐라. 이불 뒤집어쓰고 자는 갑다. 올 때부터 피곤해보이더니, 쫓쫓.

은정, 반대편으로 퇴장했다가 금방 다시 나온다. 신발 한 짝을 손에 쥐고 있다.

은정 : (무대 중앙에 서서 한 손 손에 신발을 쥐고 있다)
방 안에는 (잠시) 신발 한 짝 밖에 없어예. 언니는 없습니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아빠, 엄마, 형부. 암전.

불이 켜지면 상 위에 음식 대신 신발 한 짝이 놓여 있다.

아빠 : 아직도 연락 없나?

엄마 :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니까예. 나가는 걸 봤어야지 예. 원 귀신이 곡할 노릇도 아이고.

형부 : 이런데 이 신발……. 제 와이프 신발입니까?

엄마 : 아니 그걸 자네가 모르면 누가 아나?

형부 : 저도 처음 보는 신발입니다.

엄마 : 자네도?

아빠 : 자네는 우리 아가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을 본 적 없다, 그 말이제?

형부 : 야.

엄마 : 우리도 이런 신발은 사준 적이 없는데.

아빠 : 내도 아닌데. 자네가 사준 신발인가.

형부 : 아니요. (잠시) 그리고 지는 신발 같은 건 선물로
안 합니다. 신발 사 주면 도망간다는 말도 있잖습니까.

아빠 : 그럼 우리 은영이는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노.

형부 :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자세히 본 적도 없고요.

엄마 : (아빠를 때리며) 애가 산 거 아녜니까? 이 신발.

형부 : 우리 와이프는 주는 대로 신지 절대 못 골라 신는데.

엄마 : 하긴. 은영이 신발은 맨날 내가 사줬다. 그럼 자네
는 신발을 어떻게 사나?

형부 : 지예? 회사에서 주잖아예. 회사에 신고 나갈 신발은
회사가 준다 이겁니다. 좋은 회사지예. (잠시) 그럼
장모님은예?

엄마 : 나? 내 신발은 우리 은영 아빠가 사준다.

아빠 : 그 놈의 신발, 신발!

엄마 : 당신은 그 신발 아니었으면 나랑 결혼도 못 했어예.
(잠시) 결혼 하고 나니까 맘이 쪽 변해서 요즘은
구두 한 켤레 구경 못 했다. 에휴. (잠시) 자네, 내
구두 본 적 없제? 한 번 보여 줄까?

엄마 신발 수납장에서 높은 힐을 꺼내 신는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힐을 신고 절뚝거리며 모델 흉내를 내는 엄마. 종이 치는
소리와 함께 발을 빼끗해서 넘어진 엄마.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조명과 음악. 넘어진 모양새나 얼굴 표정이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간절한데 약간 과장하게 표현한다. 창피해 하는 아빠와 당황한 형부.

형부 : 장모님 뭐하시는 겁니까.

아빠 : 미안하다.

엄마 : 안 일으켜 줘니까. (모두 신경 쓰지 않자 혼자 일어난다)

아빠 : 그래도 잘도 돌아다닌다.

형부 : 이렇게 절뚝거리는 게 잘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아빠 : (단호) 내 말이 그 말이다. (엄마를 보며) 절뚝거리는 게 불편하면 당신한테 맞는 신발을 신으면 될 거 아이가.

엄마 : 난 높은 구두가 좋아예.

형부 : 높은 구두가 좋으면 신으면 되지예.

엄마 : 자네 장인한테 물어봐라.

형부 : (아빠를 본다)

엄마 : (왼편 수선점을 가리키며) 높은 굽 구두 사올 때마다 수선점에 가져간다. 내가 마, 미치겠다.

형부 : 멀쩡한 구두를 왜예?

아빠 : 자넨 이 구두가 멀쩡해 보이냐?

아빠, 엄마의 구두 한 짝을 벗긴다.

엄마 : (수납장 뒤에서 목소리) 여보!

아빠, 수납장 뒤로 돌아 수선점으로 간다.

엄마 : (오른 쪽 무대 끝에서부터 절뚝거리며) 내 구두 주
이소. (잠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빠 : (구두 수선대에 구두를 대고 망치로 친다.)

엄마 : (주저앉는다)

아빠, 다시 형부와 상을 두고 앉는다. 주저앉은 엄마에게 슬리퍼
를 던진다.

엄마 : 나더러 쓰레빠나 신으라고예?

아빠 : 나머지 짝 구두들도 나 내놔라. 내 당신한테 맞는
높이로 고쳐줄 기다.

엄마 : 싫어예. 절대 안 돼예.

형부 : 장모님. 그렇게 높은 굽 신으면 관절에 문제 생깁니
더.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
으면 발목이 남아 남니까?

엄마 : (신발 정리를 하며) 구두는 높아야 되는 기라. 왜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가 좋고 적금도 이자율 높은
적금이 좋다 안카나. 구두도 똑같은 기라.

아빠 : 당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라. 안 맞는 신발을 신으
니까 당신 발이 고생이다. 틈만 나면 물집 생기고,

뒤꿈치 깨문다고 그 놈의 반창고는 때가 꼬질꼬질
해질 때까지 붙이고 있고. 그 뿐인가? 발에 무
좀……

엄마 : (뒤돌아본다)

아빠 : 내가 구두 신고 돌아다니게 났으면 느이 장모 벌
써 뜯구름 좇아 갔을기다. 구두가 하도 높아서 하늘
에 닿을 것 같다 아이가. 선녀님이 따로 없다. 정신
나간 선녀.

엄마 : (수납장에서 구두 하나를 들며) 여 있네, 우리 은영
이 신발. 은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사줬는데.

형부 : 와이프가 그렇게 높은 굽을 신고 다녔단 말입니까?

아빠 : 원랜 더 높았다. 잘 걷지도 못해서 그나마 내가 좀
낮춰 준기라. 단화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
이 하도 옆에서,

엄마 : 더 낮추면 안 돼예. (잠시) 그게 부모 맘인기라. 이
왕이면 높은 곳에 있어야 저도 편하고 부모도 맘
놓고 안 그래예? 대학은 안 갔지만 내 닮아서 인물
반반하겠다, 맘 곱겠다, 성실하겠다. 우리 은영이 사
주가 장관 마누라 사주렸는데. 장관 마누라는커녕
반지하….

형부 : 죄송합니다.

엄마 : (멋쩍어서) 뭐, 누가 자네 탓이었나. (구두를 만지
며) 시집갈 때 가져 갔는지 알았는데 그대로 두고
갔네. (아빠 구두 발견. 한 손으로 집고 흔든다)

허이고, 이 구두는 뭘까예.

형부 : 그런 구두는 좀 버리소. 그게 뭘니꺼, 그게. 개도 안 주어 가겠네. (웃음)

아빠 : 내 구두다.

형부 : (웃음을 뚝 그친다)

엄마 : 내 구두는 내버려 두고 당신 구두나 고치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참말로.

아빠 : 암. 오래됐제.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물려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물려줬으니 낡기도 많이 낡았제. 구두밑창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저기 수선점에 가서 꼬매고 붙여서 다시 신고 다녔제. 새 신을 사 신을까 생각도 했지만 정이라는 게 붙었는지 멀쩡하게 고쳐지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싹 가시는 기다. (수선점으로 가서 앉는다) 그 구두 가져와라. 또 고치면 된다. 어서 가져와.

엄마 : 허이구. (구두를 중앙에 놓고 상쪽으로 간다)

아빠 : 구두는 내가 몇 백 번도 고쳤지만 그래도 내 구두를 닦아주는 건 (무대 중앙을 바라보며) 우리 은영이...

조명. 아빠와 무대 중앙에 비춘다.

어린 은영 등장. 머리를 귀엽게 묶었고 맨발이다. 무대 중앙에 앉아 구두를 닦기 시작한다.

은영 : 우리 아빠 구두 엄청 크다.

아빠 : 우리 은영이도 크면 발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다.

은영 : 아빠만큼?

아빠 : 하모.

은영 : (아빠의 구두를 신고 닦는다) 이야 반질반질해졌다.
주름살도 퍼졌다. (잠시) 아빠.

아빠 : 와.

은영 : 은영이가 커서 (잠시 침묵) 되면 아빠 구두 새 걸
로 사줄게예.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걸로.

아빠 : 그래 우리 은영이가…. (잠시) 뭐라고? 뭐가 된다고?

은영 : (정지)

아빠 : 방금 뭐라고 했노. 은영아 뭐라고 했노.

조명이 환해지고 아빠 멍한 얼굴. 어린 은영 까르르 웃으며 퇴장.
곧 바로 은정 등장. 어린 은영이 닦던 구두를 들어 신발장에 넣는다.

은정 : 신발 정리 좀 하이소. 이게 뭐꼬, 지저분하게.

형부 : 처제, 언니는 찾았나?

은정 : 없어예. 동네를 쥐 잡듯 돌아다녔는데도 없어예.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없어예. 벌써 이렇게
어두운데 어디 있노. (잠시) 어디 짐작 가는 데 없
어예?

엄마 : 내는 통 모르겠다.

은정 : 형부네요.

형부 : 내도…….

은정 : 언니랑 친한 친구 연락처라든지, 언니가 자주 가는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
꺼?

아빠 : (여전히 멍한 얼굴) 모르겠다. 생각이 나질 않는다.

엄마 : 그러는 너는, 너는 뭘 좀 알고 있는 기가?

은정 : 모르니까 묻잖아예.

형부 : 이게 뭐꼬. 친정가고 싶다 해서 왔드만 도깨비 장난
치는 것도 아이고.

전화가 온다. 모두들 전화기에 집중. 아빠, 가족들 쪽으로 온다.

엄마 : 받아봐라, 내가 받을까.

형부 : 지가 받겠습니더.

형부, 전화기를 든다.

형부 : 여보세요.

전화 (망자의 목소리) : 신발을 사야 하는데예, 뭘 사야 되는
지 모르겠어예. 엄마가 자꾸 신발
사오래예.

엄마 : 누구, 은영이 맞나?

은정 : 엄마, 췌. 조용히 해라. 형부 전화 받고 있는데 시끄럽다.

전화 (목소리) : 거기 무슨 신발 팝니꺼? 신발 가게 맞지예?

형부 : 신발은 안 팔고 시발은 팝니다. 시발.

전화 (목소리) : 신발 안 팔아예? 시발은 뭐지, 시발... 아
시발? 지금 시발이라고 했어예? 시발?

형부 : 장난 전화도 가려가면서 하이소.

전화 (목소리) : 신발 사고 싶다고 하,

형부, 전화를 끊는다.

아빠 : 신발 수리점을 신발가게로 잘 못 알고 전화한 긴가
본데 좋은 말로 하지 그랬노.

형부 : 가득이나 예민한데 자꾸 시인발, 신발, 안합니꺼.

아빠 : 기다려보자.

엄마 : 기다려보자고 한 게 벌써 몇 시간째니꺼? 이거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녘니꺼?

은정 : 뭐라고 신고하노. 방 안에서 증발했다고?

형부 : 이게 무슨, 완전 밀실 실종사건도 아니고.

은정 : (잠시) 그 사람이 있다면 언니가 어디 있는지 밝혀
줄 텐데.

아빠 : 누구를 말하는 기가?

엄마 : 누구?

은정 : (진지) 김전일.¹⁾

형부 : 처제! 지금 농담할 때가? (잠시) 그럼 범인은 이 안에 있나²⁾?

엄마 :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답답해 미치겠다. 은영아 어디 갔노. 오랜만에 친정집 놀러 와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아빠를 제외한 가족들, 허탈하게 앉아 있다.

아빠 :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실종신고부터 해라.

가족들 아빠를 바라보며 침묵. 암전.

무대 밝아지면, 수선집에서 일을 하는 아빠. 그 옆에 컵이 있다. 은정, 등장.

아빠 : (여전히 구두를 손보며) 왔나.

은정 : 언니 소식 없어예.

아빠 : 내랑 엄마가 알아서 할기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은정 : 야. (잠시)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가.

은정 : 야. (잠시) 엄마는 티비 보고 계시데예. 그거 있잖아예. 개그맨들 나와가 막 웃기는. (잠시) 걱정 안

1) YOZABURO KANARI 작가가 그리고 쓴 일본 만화 '소년 탐정 김전일'의 주인공

2) '소년 탐정 김전일' 명대사

돼 예... (뒤돌아서서 가다가 멈추는) 아부지예, 지는 자꾸만 언니가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빠 : 학원 갔다가 집으로 바로 와라. 어디 가지 말고. 알겠제.

은정 : (살짝 뒤돌아보고) 아

은정, 퇴장. 엄마 뽕튀기 같은 과자를 들고 나온다. 앉아서 티비를 보는 연기를 한다. 티비 소리.

아빠 컵을 들고 수납장 사이로 들어온다.

엄마 : 하이고마, 내 배꼽 빠지겠다. 뭐가 이키 웃기노. (웃음 뒤 정색) 웃기지도 않는데 웃기네.

아빠 : 너는 아가 아직까정 소식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웃어 줬노.

엄마 : 내 자식이라예. 내 속에서 났는데 내가 모릅니까. (아빠가 건넨 컵을 들며) 허이고 쓴 거. 이래 쓴 거를 한 방울을 안 넘기고. (냄새를 맡고) 어이고 쓴 내야. 무슨 맛으로 마십니까.

아빠 : 은영이가 달여 온 한약 아이가.

엄마 : 그래예. 은영입니다. 은영이가 우릴 두고 어디를 갑니까.

아빠 : (잠시) 뭘 놈의 자숙이 그래 철이 일찍 들어가...

엄마 : 와 예. 대학 못 보낸 게 걸려예. 지가 안 간다 했지

우리가 안 보내겠다고 안 보낸다고 했습니까. 요즘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 아닙니까. 대학생이 무슨
벼슬이라고 유썩니더. 공부하라고 보낸 돈 가지고
술 처먹고 즈그 부모들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안 합
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아닙니더. 놀고 먹
는 대학생 아닙니까. 그게 무슨 특권이라고 지성이
니 어찌니 해도 즈그 부모들 보내주는 돈 없으면
그런 소리 못 해예. 그런데 우리 은영이는 지가 알
아서 안 가겠다고 했어예. 대학도 떡 붙어놓고 말입
니더. 왜 그런 줄 알아예.

아빠 : (잠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엄마 : (잠시) 알았어예?

아빠 : 내 자식 속인테 내가 왜 모르노.

엄마 : 그래도 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이소. 가가
속이 깊은 압니더. 지도 대학생 되고 싶었겠지예.
은영이도 가시난데 미팅도 하고 그러고 싶었겠지예.
그런데 나와 봐야 대책 없고 대학가봤자 집 돈만
굶어 쓸 거 같으니까네 지가 알아서 안 간다 한거
라예. 그리고 은정이도 곧 대학 간다 안 합니까. 지
대학 보낼 돈으로 지 동생 은정이 가르치라는 거라
예.

아빠 :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았으니 지도 한 번쯤
여행도 가고 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고 싶었을
기라.

엄마 : 그래예. 곧 올거라예. 너무 걱정마이소. 그런데 이서방이 걱정입니다. 원래 남자보다 여자 빈자리가 더 큰 법이라예.

무대 한 쪽에 형부 나타난다. 전화를 하고 있다.

형부 : 그래, 아직 안 왔다 아이가. 처가 갔다가 갑자기 없어진기라. 그러니 내가 처가에서 뭐가 되노. (잠시) 지 시부모를 두고 어디를 가노, 지가. (정지)

엄마 : 그래도 이서방이라서 이해해주는 거지, 다른 놈뎡이였으면 어림없습니더.

아빠 : 그런데 왜 결혼은 반대하고 그랬노.

엄마 : 딸 가진 부모 댐 아닙니꺼. 더 좋은 놈 만났으면 좋겠고 더 잘 사는 놈하고 살았음 좋겠고. 게다가 이서방은 장남 아닙니꺼. 시부모 모시는 기, 그기 말처럼 쉬운 기 아닙니더.

아빠 : 그런 기 다 무슨 소용이가. 여자는 그저 지 사랑해주는 놈 만나면 그만 인기라.

엄마 : 맞아예.

형부 :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돌기다. (잠시) 고만 끊으라. 내 비즈니스가 있다. (관객석을 보며 다정하게) 왔네. 여기다.

형부, 관객석에서 누군가를 데려온다.

형부 : 뭘 그래 텅기노. 잘 있었나. 오빠 생각 많이 했나.
이리 온나. 오빠가 안아줄게. (안으려고 팔을 벌린
상태에서 정지)

아빠 : 은영이 시집갈 때 혼수도 많이 못 해줬는데 그러고
보면 이서방이 참 용타.

엄마 : 은영이가 지 서방 생각해서라도 얼른 와야 할 텐데예.

형부 : (안으려는 팔을 풀고 여자의 볼을 꼬집으며) 어떻
게 이래 이쁘노. 참말 이쁘다. 배고프제. 밥 묵으러
가자.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형부, 관객석 쪽으로 퇴장.

아빠 : 은영이 돌아오면 니 이제 그만 손 벌리라.

엄마 : 내가 무슨 손을 벌렸다고예.

아빠 : 다 안다. 니 특하면 은영이한테 전화 해가 돈 달라
고 하제?

엄마 : 아, 아입니다.

아빠 : 그게 들통나가 은영이가 시댁에서 미움 받는 거 아
이가.

엄마 : 그럼 은영아빠가 줄 겁니꺼.

아빠 : (잠시) 미안타.

엄마 : 뭐가예.

아빠 : 뭣도 없는 놈이 있는 체 해가 니랑 결혼한 거.

엄마 : 다 옛날 일이라예.

아빠 : 니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아이가. 다른 놈 만났으면 니가 입고 잡은 옷 입고, 먹고 잡은거 다 먹고 살았을 거 아이가. 세상에 멀쩡한 마누라 두고 통장 관리하는 남편이 어딴노. 야박한 줄 알면서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다. 니가 그 높은 구두 신고 나갈 때 마다 카드 값이랑...

엄마 : 고만하이소.

아빠 : 하여간에 미안타.

엄마 : 그렇게 따지면 지는 뭐 잘 못 없습니까. (잠시) 그리고마 서방보고 사나예. 자식보고 살지예.

아빠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마라. (잠시) 은영이 나간 거 보든 모르나.

엄마 : 야? 뭐라는교. (잠시) 그랑께, 거기 내 탓이라고예. 은영이 나간 기 내 탓입니까.

아빠 :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자 아무 말 못하고 헛기침)

엄마 : 와 내탓인교. 내도 안 먹고 안 입고 은영이 길렀습니더. 왜 안 돼예. 부모가 딸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합니까. 내가 야한테 뭘 그렇게 많이 바랬습니까.

아빠 : 가시나는 시집 가면 그만인기라.

엄마 : 가시나는 우리 자식 아닙니까. (잠시) 그럼 이걸 뭘니까. (아빠가 건넨 컵을 들이밀며) 은영이가 지 아버지 드시라고 달여 준 한약입니더. 당신 요즘 허리

아프다, 가래가 끓는다 그러지예. 그래서 은영이가 한약방에서 비싸게 지어온 약 아녓니꺼. 당신이나 내나 뭐가 다릅니꺼. 당신 밥은 잊으셔도 이 약은 꼬박꼬박 드시지예.

아빠 : 내가 지어오라고 했나.

엄마 : 뭐가 다릅니꺼. 지 아버지가 아프다고 골골대는데 그냥 있는 딸이 어딴습니꺼. 하물며 우리 은영입니더. 은영이가 가만 있을 압니꺼. (잠시) 우리는 늙었습니더. 늙었다고예.

아빠, 엄마 냉담하게 서 있다. 대화가 없다. 침묵. 전화소리 울린다. 둘은 전화소리가 신경 쓰이지만 서로를 의식한 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때 은정 등장. 집안 분위기를 살핀다.

은정 : 전화와예. (잠시) 안 받으습니꺼.

은정, 떨떠름한 얼굴을 하며 전화를 받는다.

은정 : 여보세요. 경찰소라고예. 예, 맞습니더. 말씀하이소.

은정, 점점 얼굴 표정이 굳는다. 전화기를 떨어트린다. 아빠, 엄마 놀라서 은정을 쳐다보고 은정, 주저 않는다.

은정 : 죽었대예..., 언니가 죽은 것 같다고... 언니가...

암전.

무대 밝아지면, 왼쪽에 놓인 병원용 침대 위엔 망자가 누워있고
은정, 엄마, 아빠 오른쪽에서 등장.

은정 : (쓰러지려는 엄마를 부축하며) 엄마!

엄마 : (주저앉는다, 곡) 은영아, 아이고 은영아~아.....

은정 : (불안한 어조) 엄마 이러지 마라, 우리 언니 아닐기
다.

엄마 : 은영이른, 우리 은영이른 우짜노.

아빠 : 퍼득 인나라. 아닐기다.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하러
가는 기다. 누가 우리 은영이랬노. 경찰이 안 그랬
나. 그냥 확인만 하러 오라고 안했나 말이다. 가서
보고 (잠시) 아니른 다시 돌아오면 되는 기고 (잠
시) 혹여나 우리 은영이른, 우리 은영이른.....

엄마 : (북받쳐서) 정말 우리 은영이면 우짖니꺼. 말은 안
했지만서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더. 우리
아가 속 썩이는 자식도 아이고 뭐 잘못된 기 아닌
가 싶어서마. 그래도 이럴 줄은.

아빠 : 믿어보자.

엄마 : 뭘 믿어예.

아빠 : 우리 딸은 부모 앞세우고 가는 그런 몫쓸자식 아니
다. (잠시) 우리 은영이가 얼마나 착했노. 그런 아
가 왜 죽노, 죽길. 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노. (가슴
을 친다)

은정 : 아버지예.

아빠 : 이렇게 가면 어찌라고 이 놈의 자숙이, 이렇게 제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박노.

엄마 : 은영 아버지예. 우리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은정 : 뭐하시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더. 언니 안 죽었습니
더. 언니가 와 죽습니까.

형부 등장, 아빠와 엄마가 곡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형부 :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은영이가 와 절벽 밑에 떨어져
죽습니까.

엄마 : 아이고, 이 서방.

형부 : (틸씩 주저 앓는다) 은영아, 은영아….

은정 : 다들 왜 이래예.

가족들 곡, 멍한 표정, 눈물 등으로 슬픔을 표현한다. 아빠, 엄마
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엄마 : 내는 못 가겠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은정 : 언니로 의심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지, 딱 언니
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어예. (망자가 누운 침대 쪽
으로 간다) 그렇게 무서우면 지가 보겠습니더.

가족들 은정에게 집중. 은정 발 부분의 시트를 걷어 젖히고 본다.

갑자기 가족들 달려들어 망자의 발목을 잡고 운다.

엄마 : 은영아~아~.

형부 : 여보.

아빠 : (두 눈을 가리고 서 있다)

은정, 거리를 두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본다.

은정 :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틀거리며 무대 중앙으로
온다. 몸의 중심을 잡고 눈을 감았다가 뜬다) 뭐하
는 겁니까. 언니가 아니라예. 언니일 리가 없어예.
엄한 사람 발목 잡고 있지 마이소!

은정 퇴장.

엄마 : (발목을 어루만지며) 은영아. 은영아.

형부 : 그런데 얼굴은 봤습니까.

아빠 : 훼손이 많이 돼가 못 알아본다 카더라.

엄마 : 얼굴이 멀쩡했음 우릴 왜 불렀겠노. (잠시, 다시
곡) 엄마가 너를 못 알아췄다. 미안하다, 은영아.

아빠 : 뭐가 그래 힘들어가 이런 모진 맘을 먹었노.

형부 : (아빠 말 뒤에 바로 울음) 내는 이제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라고. (아빠, 형부의 등을 토닥
이자 형부 망자의 발을 잡고 주저 앉는다) 내는 니

없으면 몬산다. 귀신이 돼서라도 나타나면 안 되겠노. (울음)

형부, 울다가 침대를 흔드는 바람에 망자의 팔이 슬쩍 떨어진다. 아빠, 형부를 일으켜 세운 후 엄마의 어깨를 감싼다. 세 사람 천천히 퇴장한다.

조명, 침대를 비춘다. 떨어진 팔의 손가락부터 팔꿈치가 움직인다. 망자, 상체를 일으킨다. 침대에서 나와 무대 중앙까지 천천히 걸어간다. 관객을 보며 무서운 표정을 짓다가 웃는 얼굴. 세 사람이 퇴장한 곳으로 뛰어간다.

암전

무대 밝아지면 오른쪽에 형부의 방. 중앙엔 상 높이의 소품이 있고 뒤편 신발 수납장 맨 아래 칸에는 전화기가 있다. 군데 군데 여자의 물건이 놓여져 있다. 형부 한 손엔 성경, 다른 손엔 (복숭아)나뭇가지를 들고 마늘 목걸이, 염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온다.

형부 :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으며 주위를 살핀다)

망자 : (형부의 뒤에서 등장, 태연한) 왔어예.

형부 : (덜덜 떨다가 나뭇가지를 흔든다) 워워...! 워워...!

망자 : 정신 사납습니더. (빠앗아 꺾는다. 형부의 염주를 보고 놀란다) 그... 그게 뭘니꺼.

형부 : (용기를 얻어 더욱 세계 망자의 눈앞에 혼든다)

망자 : (염주를 빼며) 시상에, 나 주려고 사온 겁니까. 위
매 이쁘라.

형부 : (기막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기가!

망자 : 귀신이 돼서라도 나타나달라 안 했습니까. 이제와서
판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형부 : 내가 언제 니한테 그랬노.

망자 : 마, 기억 못하면 됐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부탁해예.

형부 : 꺼지라. 섬뜩하게 귀신이랑 어떻게 사노.

망자 : (노려본다. 조명과 음향 으스스해진다.)

형부 : 아, 알았다.... (울상)노려보지 좀 마라, 진짜 무섭다.

망자 : (잠시) 갈 데가 없습니더. 살아가서 갈 길을 몰랐는
데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이나 높이
가 있는 소품 위에 올라간다) 정신을 차려보니 절
벽이대예. 이렇게 딱 서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바다
가 징그럽게 무섭대예. 그렇다고 뒤 돌아서 가자니
더 무섭고. 그런데 그런거 있잖아예. 흔히들 신발
가지런히 벗어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신발 말입니
더. 운동화, 구두 그런 거 말고예. 예를 들면 아저씨
구두 같은 거 말입니더.

형부 : 내 구두가 와.

망자 : 아저씨는 뛰어내려도 구두만 벗어놓고 가면 누군지
알 거 아입니까. 모 회사 회사원 모모씨.

형부 : 내가 왜 뛰어 내리노.

망자 :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지는 그런 신발이 없었다고예. 그러니 누가 나를 알아 보겠습니까. 하긴 내 신발이 있으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했지 왜 바다에 몸을 싣겠습니까. 참 정처없지예. 지 신발도 못 챙기면 욕을 먹습니더. 쓸데가 하나도 없어! 도 대체 뭐가 될래! 우리 아부지도, 어무이도 맨날 한심하다 한심하다 했습니더. 모르는 사람한테도 욕을 먹대예.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형부 : 내가 어떻게 아노.

망자 : 시~발~.

형부 : (놀란다)

망자 : 처음에는 마 찾아가서 가만 안 둘라줬는데 정말 내 인생이 시발인거라예. 이 나이 먹도록 한 것도 없고. 신발가게 가서 뭐하고 왔는지 알아예. 축구화를 가리키면서 저건 축구선수꺼, 흰 샌들을 가리키면서 저건 간호사들꺼, 단화를 가리키면서 저건 회사원들꺼, 선생님들꺼...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이건 내 꺼’ 싶은 게 없대예. 사람들은 빨리 빨리 뭐라도 하라고 재촉하는데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떠다미는 것 같대예. 등을 밀대예. 정신을 차려보니 절벽 끝에 있었습니더. (잠시) 사람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맨발, 지금 이 맨

말입니다.

형부 : (망자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전화를 한다, 작은 목소리) 장모님예, 귀신, 귀신입니다.

망자 : (조용히) 같은 말이라도 망자라고 해주시오. 더 시적이지 않습니까.

형부 : 망자, 망자가.... (놀라서 망자를 본다)

망자 : (무신경하게) 꿔으이소.

형부 : (암전하게 꿔는다, 잠시)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안 괴롭히겠노. 내는 진짜 니 때문에 미치겠다. 니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천장에서 노려보고 있제? 니나 그게 재밌제,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 떨어지는 기라. 니는 왜 그렇게 사람이, 아니 귀신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형부 목에 걸었던 것과 성경책을 던진다) 맘대로 해라마, 맘대로.

망자 : 치우이소.

형부 : (치운다)

망자 : 좀 깔끔하게 사세예. 사람이 지저분하면 못 씹니다. 치울 건 치우고 살아야지예. 다른 사람들은 아자씨가 이러는 거 모르지예. 죽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 사는 거 다 별 거 없데예. 참 잘 숨기고 삽니다. (잠시) 그런데예, 그거 말입니다.

형부 : (막 성경을 집으려는 중) 뭐 말이야?

망자 : 혹시 기도해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니지예. 불쌍한 어린양이 길을 잃었다고 뭐 그런 기도해 주려고 가져

온 거 아니지예.

형부 : 뭐, 비슷한 기다.

망자 : 부럽습니다. 무엇을 향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서서히 암전. 망자, 형부 퇴장

은정 : (암전 중 목소리) 언니야.

무대 밝아지면 왼편 수선방에 있는 아빠, 오른편 침낭에 누워
있는 엄마, 중앙에 신발 한 짝을 쥐고 서 있는 은정. 은정 뒤에
의자 소품.

은정 : 참말 그 시신이 언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 생각
났어예. 언니 신발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본 적이 있어예. 이 신발을 신으면 편하고 가벼워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했습니다. 그래예. 언니
는 엄마가 사준 그 맞지도 않은 힐은 버리고 이제
야 언니가 신고 싶은 신발 신고 간 거라예. 언니는
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부지 걱정되가 그 신마저 다 못 신고 남겨 두고
간 거라예. 그런데 그 시신은 말입니다, 발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흠집도 없고예. 어디로 가 본 적도
없는 발입니다.

엄마 쪽 조명

엄마 : (벌떡 일어난다. 머리에 올린 수건이 떨어진다) 그럼 니 언니가 어디 있겠노. 왜 여태 안 왔겠노.

은정 : 언니는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엄마, 아버지, 형부, 나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까. 언니에겐 우리 네 사람, 그 뿐 더는 없습니까. 그 동안 언니는 어디 있었습니까!

엄마 : 내는 이제 기운도 없다. 눈 앞에 깜깜해가 아무것도 안 보(다시 눕는다)

은정 : (시선은 정면) 아버지.

아빠 쪽 조명

아빠 : 학교 다녀왔다.

은정 : 야. 학교에서 쌤이랑 상담했어예.

아빠 :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노.

은정 : 제 성적이면 교대나 사범대도 지원할 수 있다카대예.

아빠 : 좋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선생님이 최고 아이가.

은정 : 아버지.

아빠 : 와.

은정 : 지는 가기 싫다했습니다.

아빠 : 와. 와 그랬는데.

은정 : 대학은 언니가 갔어야 했습니다.

아빠 : 니 대학보내려고 은영이가 양보한기다. 교대나 사범
대가면 니 언니가 얼마나 좋아하겠노.

은정 : 누구를 위해서 겁니꺼. 교대나 사범대.

아빠 : 니를 위해서 가는 기지, 누구를 위해서 가노. 니가
선생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노. 니 생활 안정되겠
다, 부모 맘 놓겠다.

은정 : 선생님 되고 싶다 생각한 적 없어예.

아빠 : 와 선생님이 싫은데. 그럼 뭐가 하고 싶노.

은정 : 아버지 생각 많이 해봤습니더. 제게는 대학이 아니
라 시간이 필요해예. 열심히 할게예. 꼭 제가 가는
길 성공은 못하더라도 후회는 안 할 자신 있습니다.

아빠 : 이 가시나는 철이 없는 기가. 와 그렇게 쉽게 생각
하노. 겁도 없구만. 세상일이 자신감 하나로 다 이
뤄지는 줄 아나. (잠시) 니, 내처럼 평생 구두나 고
치면서 살래. 응. 그런 맘 가지고는 세상 못 산다.
대학이고 뭐시고 다 치아뿌리고 공장이나 가서 돈
이나 벌어라.

은정 : 지는 언니가 아입니다.

아빠 : 뭐라꼬?

은정 : 저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언니처럼 누르고 살지도
않을 거라예. 아무리 아버지 어무이한테 미안하고
성공 못 할 것 같아도 우선 해보고 볼 겁니더. 미리
겁먹고 포기한 꿈이나 되짚으며 살지는 않을겁니더.

아빠 : 니 지금 우리를 딸 자식을 보험으로 아는 사람으로

보는 기가. 우리가 뭘 바라고 그러는 줄 아나. 그렇게 아버지 댄을 모르노.

은정 : 아버지. 딸노릇 못해도 잠깐만 봐주이소. 세상 좀 보고 인생도 좀 배우는 게 제게는 대학입니다. 오랫동안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어예. 좁은문 아입니까, 좁은문. 선생님 받는 월급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세상엔 글 잘 쓰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겁니다.

아빠 : 안 된다. 은정아. 글이 쓰고 잡으면 교편 잡으면서 해라. 춥고 배고픈 일을 니가 와.

은정 : 아버지는 모르시지예. 막막한 미래도 두려운 현실보다 아버지..., 아버지 어무이 얼굴을 떠오르면 지도 맘이 약해졌어예. 하지만, 언니. 언니를 보세예. 저는 언니처럼 굴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떠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예. 언니가 남겨둔 신발 신어 봤어예. (한 쪽 신발을 신는다) 가벼워예.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마음이 살랑 들뜨는 게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아빠 : 니는 니 언니처럼 가면 안된다.

엄마에게 조명. 엄마 상체를 일으킨다.

엄마 : 하모. 결혼도 잘 시킬겁니다. 우리 은영이 꼴 내지 않을 겁니다.

엄마, 일어나 아빠에게로 간다.

은정 : (의자에서 일어난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언니가 어쨌다는 겁니까. (나지막히) 언니는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어예. 봐예. (탭댄스처럼 가벼운 모양으로 돌아다닌다) 언니는 어디선가 이런 춤을 추고 있을 겁니더. 봐예. 엄마, 아빠 저 좀 보이소.

아빠, 엄마 뒤돌아 있다. 조명은 비추지 않는다.

아빠 : 은정아, 아빠랑 엄마는 세상을 오래 살았다. 배운 건 없지만 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부모 말 안 들으면 후회하는 기다. (잠시) 그리고 우린 늙었다.

은정 : (의자에 털썩 주저 앉는다) 아버지 피곤합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엄마가 누워있던 침낭을 몸에 감은 뒤 다시 의자에 앉는다) 지는 좀 자야겠어예. 안녕히 주무이소.

서서히 암전. 상 주위에 형부, 아빠, 엄마 앉아 있다. 몽롱한 음악. 모두 술 먹은듯한 목소리다.

형부 : 지도 어렸을 때는 의사하고 싶었다 아입니까.

엄마 : 하이고야. 의사사위 둘 뻘했네. 그런데 왜 안 했나.

형부 : 공부 잘 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엄마 : 그래도 잘 했다. 일찍 맘 잡고 취직하는 게 낫지 분수도 안 맞는 걸 붙잡고 있어서 뭐할기가.

형부 : 그렇지요?

아빠 : 이 서방. 나이도 젊고 딸린 자식도 없는데... 새 시작하는 게 어떻겠노.

형부 : 그래야지예. 그런데 은영이 만한 가시나가 어딴습니까. 시부모 똥오줌 받으며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열에 열은 손 저으며 달아나예. 미련하기는 곰 같아서 지 남편이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지 눈치도 못 챌다 아입니까. 마누라가 아니라 그냥 집안 일 도와주는 여자 같습니다. (웃음) 요즘 주부들의 반란이다 뭐다 해서 다들 지하고 잡은 거 하겠다고 설쳐대는 세상 아닙니까. 은영이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엄마 : 지 부모한테도 참 잘 했다. (잠시) 이서방, 우리 은정이는 어떻노.

은정, 악몽을 꾸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가 엄마 말에 눈을 번쩍 뜬다.

형부 : 은정이에.

아빠 : 우리한테 도망가기 전에 잡아둬야하지 안겠나.

형부 : 그래야겠지예.

조명과 음악, 음침하고 무섭게 바뀐다. 형부 두 손에 노끈을 들고 일어난다. 의자에 앉아 있는 은정의 몸을 묶는다. 놀라 벌어진 은정의 입에 엄마가 재갈을 물린다. 은정 몸부림을 친다. 아빠 수선 집에서 구두를 가져와 구두 끈을 풀어 은정의 발을 묶는다. 은정 아빠를 바라보며 도리질을 친다. 의자가 들썩인다. 세 세람이 천천히 퇴장하고 은정 기진맥진해서 늘어져 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망자다.

은정 : 언니가? 언니 맞나? 왜 이제 오노, 언니야…….

은정, 비틀거리며 일어나 망자 쪽으로 건다가 고꾸라진다. 바닥을 치며 운다. 망자 은정을 내려다보다가 은정의 한 쪽 신발을 벗긴다. 조용해진 은정, 잔다. 망자 천천히 퇴장,

천천히 암전.

무대 밝아지면, 잠에서 깬 은정. 노끈이나 구두 끈은 보이지 않는다. 은정 몇 번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난다. 악몽을 꾸 얼굴.

엄마, 아침 상을 들고 등장.

엄마 : 인났나. 밥 먹으라. 은정 아버지, 상 다 차렸습니다.

아빠 : 등장. 세 사람 밥을 먹는다. 젓가락을 깨작거리는 은정, 밥 맛이 없다. 엄마 은정에게 씹을 싸준다. 아빠, 반찬을 은정의 입에 넣어주고 밥그릇에도

넣어준다. 점점 블록해지는 은정이의 볼. 나중에는 손을 젖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음식을 넣어준다. 은정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대 끝에서 토악질을 한 후 기대앉는다. 계속 밥을 먹는 두 사람.

아빠 : 밥 다 먹으면 이 서방한테 다녀오는 기 어떻게겠노.

엄마 :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귀신이 보인다고데요.

아빠 : 귀신?

엄마 : 야. 몸이 허해가 그런거 아닙니까. 챙겨줄 마누라도 없고 닭 한 마리 잡았습니다. 폭 고아서 가져 가려고요.

무대 오른 편에 형부 두 손에 여자 옷가지, 속옷, 스타킹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넘어진다. 다시 물건들을 주섬주섬 줍는다.

망자 등장.

망자 : 치우라고 했지예.

형부 : 치, 치울기다.

망자 : 더럽습니다! (잠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래 저래 눈치 보면서 할 건 다 하대예. 아저씨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내가 왜 죽었나 후회막심입니다. 아저씨도 절벽에 고 신발 곱게 놓고서 고만 안녕 하소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뭐합니까? 신발 내놓으소서. 나 저승길 가는 데 아저씨 신발 신고 가렵니다.

내 놓으이소. (형부에게 다가간다)

형부 : (겁에 질린)

망자, 형부에게 점점 다가간다. 가까운 지점에서 둘 다 정지.

엄마 :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 그래. (앞은 채로 정지)

엄마, 상을 뒤편 신발 수납장 뒤에 놓고 보자기를 든다. 그리고는
힐을 신고 절뚝거리며 수납장 사이로 나가 오른편 무대로 온다.

엄마 : 이 서방! 이기, 이기 무슨 꼬라지고!

망자 한 쪽으로 비켜선다. 형부 주섬주섬 옷가지들을 주어 담는다.

형부 : 장모님, 이걸, 아입니다. 오해 마이소.

엄마 : (비틀. 보자기를 놓치고 이마를 짚는다) 무섭다, 참
말 무섭다. 니가 이렇게 내 뒤통수, 그리고 우리 은
영이 뒤통수를 치노.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
했노.

형부 : 장모님, 저기….

엄마 : 변명할 생각은 마라. 세상에 은영이 아직 상도 안
치뤘는데, 니가 사람이냐.

형부 : 그게 아니고예. 저기….

형부 망자를 가리킨다. 엄마 망자를 보고 놀라며 암전.

무대 밝아지면, 네 사람 앉아 있다.

엄마 : (형부를 노려보며) 필요 없고 은영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신발을 내놓기로 하자.

형부 : 장모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모두 사는 방법을 생각 해야지예.

은정 : 형부는 한 마디도 하지 마이소.

아빠 : 귀신 중에 한 멧힌 귀신이랑 길 잃은 귀신이 제일 무서운기라. 이 귀신은 길을 잃어서 한이 멧힌 귀신 인기라. 그 한을 어떻게 풀어 주노.

형부 : (빠르게) 그 귀신이 장모님 구두가 맘에 드나 봅니더. 여자 귀신이라 역시 높은 굽이 좋....

엄마 : 아가리 닥치라. 확 찢어놓기 전에.

아빠 : 언제까지 신발을 달라고 했노.

엄마 :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빠,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난다. 낡은 구두를 벗는다.

엄마 : 은정 아버지, 왜 이럽니꺼. (형부를 보며) 니 뭐하노. 니 신발 내놔라.

아빠 : 그럼 우짜노!

엄마 : 생각해 보입시다, 생각해 보입시다, 제발 은정이 아부지요.

아빠 : 나는 늙었다. 이제 잃을 것도 없다.

은정 진저리를 치며 물러난다. 언니의 신발을 쥐고 있다.

은정 : (정제된 목소리) 낡은 아버지의 오래된 구두.

형부 : 장모님 이 참에 저 구두들 다 치우이소. 장모님은
욕심이 너무 많아예.

은정 : 엄마의 욕망.

엄마 : 니 구두나 내 놔라. 좋은 회사도 아닌 게 무슨 자랑
이라고 참말로.

은정 : 언니를 가둬 둔 형부의 냄새나는 신발.

형부 : 싫습니더. 제 구두는 왜예.

엄마와 형부 실랑이를 벌인다. 시간이 흐른다. 모두 지치고 졸려
보인다.

은정 : 그리고 내게 남겨진 이 신발. 누가 그 동안 언니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걸까.

아빠는 꾸벅 꾸벅 졸고 엄마는 아빠에게 기대 눕는다. 형부는 고
꾸라진다. 은정도 꾸벅꾸벅 하다가 쓰러진다. 망자 오른 편에서
등장, 네 사람의 신발을 본다. 만져도 보고 신어도 본다. 맨 왼쪽
에 있는 은정이가 쥔 언니의 신발을 본다. 다가가서 훑치는 동작,
오른 편으로 퇴장하려는 찰나, 은정 눈을 뜬다.

은정 : 두고 가이소.

망자 정지.

은정 : 신발이 발에 안 맞을 겁니다. 두고 가이소. 박지성
축구화 신는다고 박지성처럼 축구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예.

망자, 운다.

은정 : 울지마예. 캄캄해서 무섭지예.

망자, 고개를 끄덕인다.

은정 : 사실은 나도 그래예. 캄캄합니다.

은정, 고개가 떨어진다. 다시 꾸벅 꾸벅. 몽롱한 조명과 음악,
서서히 암전.

무대가 밝으면 은정, 아빠, 엄마, 형부 모두 자고 있다.

전화벨소리 시끄럽게 울린다.

은정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

은정 : 여보세요.

가족들 일어나서 은정 주위로 몰려든다.

은정 : 경찰서예. 경찰서예? 예, 지는 동생입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은정 전화를 받을 때 오른쪽에서 망자가 누운 병원용 침대 등장. 누군가가 끌어줘서 이동한다.

무대 중앙 쪽 지날 때 망자 오른 쪽으로 언니의 신발을 떨어트린다. 침대는 왼쪽으로 퇴장한다. 침대는 천천히 이동하며 은정이가 전화를 받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은정 :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언니가 아니지예. 감사합니다. 참말, 고마워예. 그런데 그 시신 가족은 찾았습니까. 예, 예. 다행입니다.

엄마 : 뭐래나.

은정 : (수화기를 잠시 떼고) 언니가 아니라예. 언니는 죽은 게 아닙니다. (수화기를 대고)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놓는다)

모두들 기뻐하면서도 못 믿겠다는 표정.

엄마 : (반색) 그럼 우리 은영이는? 찾았다카나.

아빠 : 어디 있다고 하노.

형부 : 장인, 장모님 이제는 정말 잘 할 겁니다. 싹싹 빌고

새 인간 될겁니다. 은영아아.

은정 무대 중앙에 있는 신발 한 짝을 본다.

형부 : 만사 일 제쳐 두고 우리 은영이 찾으러 다닐 겁니
더. 은영이, 꼭 제가 찾아 오겠습니다! 찾기만 하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공주님처럼 모실 거라예.

엄마 : 죽은 게 아니라면 이 세상 어딘가엔 있을 텐데, 아
이고야, 내가 걱정돼 미치겠다. 은영아, 엄마 죽겠
다, 은영아.

아빠 : 광고도 내고, 발품도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지. 이대로 포기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소
리를 듣노.

은정 : 찾지 마이소.

아빠, 엄마, 형부 모두 은정을 본다.

은정 : 찾지 마이소. 언니는 찾지 않아야 돌아올 겁니다.
(신발을 줍는다)신발 말입니다. 웬지 꼭 배처럼 생
기지 않았습니까. 이 배의 선장은 아버지도 아이고
어무이도 아이고 형부도 아입니다. 지도 아입니다.
주인에게 마저 줄 겁니다.

은정, 배를 띄우듯 관객석 부근 무대 끝 쪽으로와 신발을 허공에

띄운다. 한없이 평온한 웃음이다. 노래가 깔리고, 어린 은영 탭댄 스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춤을 추며 나온다. 은정도 따라 춤춘다.

은정 : 춤 취예. 이렇게 춤 취 봐예. 마음이 살랑 들뜨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엄마 : 굽이 높아가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춤을 추노. (주저앉는다)

아빠 : 신발은 애껴 신어야지, 자꾸 꼼지락 꼼지락하면 구멍난다카이. (수선점에 가서 앉는다)

형부 : 늘 그게 불만이었어예. 새신발이라도 땅에 한 번 닦으면 바로 그냥 헌 신발 되는 거 아녘니까. 헌 신발을 뭐 아껴 신습니까. 때 되면 버리면 되지.

은정과 어린 은영에게만 조명. 그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 계속 춤을 춘다. 즐겁게, 행복하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심사평

- 심사위원 명단
- 심사총평
- 부문별 심사평
(시, 시조, 동시, 수필,
단편소설, 동화, 희곡)

심사위원 명단

시 부문

김 송 배 (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차 윤 옥 (현) 한국문인협회 사무처장
김 창 완 (현)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장

시조 부문

민 병 도 (현)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유 재 영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동시 부문

박 중 현 (현)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회장
정 두 리 (현) 한국문인협회 문인복지위원

수필 부문

박 양 근 (현) 한국문인협회 문인권익옹호위원
최 진 호 (현) 한국문인협회 문협대외협력위원장
우 희 정 (현)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

단편소설 부문

박 양 호 (현) 한국문인협회 문단윤리위원
손 영 목 (현) 한국문인협회 문협60년사 편찬위원장
전 경 애 (현) 한국문인협회 해외문학발전위원장

동화 부문

김 철 수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권 석 순 (현) 한국문인협회 지회지부협력위원

희곡 부문

김 혁 수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윤 한 수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심사총평

이번 제16회 공무원문예대전에는 시, 시조, 동시, 수필, 단편소설, 동화, 희곡 등 7개 부문에서 1,978편의 작품이 응모 되었다. 작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입상작들을 결정하는 데는 장시간의 논의가 필요했다.

특히, 대상 수상작품은 전체 심사위원들이 윤독을 하고 각자의 소견을 종합하여 우위에 놓인 작품으로 결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번 문예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전문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뛰어난 작품이 있는가하면 문학은 언어예술이라는 초보적 정의도 간과한 작품이 있을만큼 수준의 편차가 있지만 업무에 바쁜 중에도 틈틈이 써 낸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모든 출품자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공무원문예대전은 공무원들이 좀 더 지향적인 사유의 폭을 넓혀서 직무 수행이나 사회생활에서 진취적인 인격의 향상을 위해서도 글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으로 응모했다고 본다.

오늘 입상자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비록 이번에 입상을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격려를 보낸다.

부문별 심사평

| 시 |

우선 발상을 표현하는 어법과 시어들이 잘 정련되었나 하는 문제를 논의의 중점으로 삼았다. 우리가 늘상 대하는 사물과 사건과 세계에서 새로운 우주적 질서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일만큼 창의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매우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이 작업에 도전한 모든 응모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만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는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예술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정의부터 천착해 보고, 단순한 감상을 읊조리는 일차원적 정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 둔다.

| 시조 |

현대시조의 특징은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치밀한 구성과 신선한 언어의 선택에서 오는 표현의 현대성에 있다. 현대시조는 우리가 흔히 듣는 국악에서의 시조창(時調唱)의 노랫말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입상작들은 현대 시조의 구조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었으며 자유시에 비해서도 그 완성도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 그러나, 몇몇 작품은 아직도 현대 시조의 시학적 배경과 동떨어져 있어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 동시 |

이번 문예대전 동시 부문 응모작은 총 226편으로 작품의 수준은 대체로 고른 편이었다. 그러나 고르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 없었다는 점으로도 지적되는 것이어서 아쉽다.

동시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아동 문학 특히, 동시의 특성은 교육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응모작품 중에는 동시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소재와 표현이 시에 이르기엔 미숙한 작품이 더러 눈에 띄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뽀히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선에 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더 나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수필 |

수필은 삶의 체험을 언어로 녹여내는 서사문학으로서 문학적 상상과 삶의 진지성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 수필은 분명 수기와 다르다. 이것은 체험이라는 리얼리즘에 문학적 상상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럴 때 작가의 체험은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감동과 공감을 갖게 된다.

이번에 문예대전에 출품한 수필 부문은 양과 질에서 작년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작품은 글쓰이의 진지한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1차 심사에서 걸린 작품들은 우열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심사자들은 현대 수필의 다양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체험록, 기행록, 사색록 그리고 현대적 기법을 구사한 수필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입선작을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단편소설 |

소설은 문학의 어떤 장르보다 쓰기 어렵고 고통을 수반하는데도 응모편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작품들의 평균적 수준이 그것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아쉽다.

그런 중에도 이따금 걸러내어지는 비교적 잘 쓴 작품들이 이 공무원문예대전의 의의와 성과를 입증해 주어 다행이다.

기발한 소재와 대담한 전개로 비전문성에 도전한 작품도 더러 눈에 띄는데, 이런 경우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자료 준비와 치열한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설의 기본에 미흡한 작품들이 많았으나, 이런 점은 응모대상의 성격을 감안하면 부득이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 동화 |

동화는 문학적인 면에서 뛰어난 상상력으로 큰 즐거움과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또한, 인간성의 미묘한 세계와 여러가지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에 응모된 86편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본 요소를 잘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흡족했다.

동화를 쓰는 분들은 작품을 쓰는 작가와 그 작품을 읽는 독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일치감이 더욱 필요한 시대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 희곡 |

희곡 부문은 매년 그러했듯 출품작들이 많지 않았지만, 금년 출품작들은 희곡 공부를 많이 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여겨질 만큼 수준이 훌륭했다고 판단된다. 작품 주제를 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솜씨들이 아주 능숙했다.

다만, 장면 전환이 많은 것이 흠이다. 금상작을 비롯해 거의 모든 작품이 그런 면을 보이고 있었다. 장면 전환 대신 그 부분을 대화로 처리했으면 좀 더 훌륭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